

京畿道陵園總覽下



韓國文化院聯合會京畿道支會

표지글씨 : 조선 후기 인재 양성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은 경세가이자 대문장가인 금릉 남공철 (南公轍, 1760~1840)의 《금릉집(金陵集)》에서 집자했음.

<김포시>

장릉(章陵) - 원종 · 인현왕후 구씨



<여주군>

영릉(英陵) - 세종 · 소헌왕후 심씨



영릉(寧陵) - 효종 · 인선왕후 장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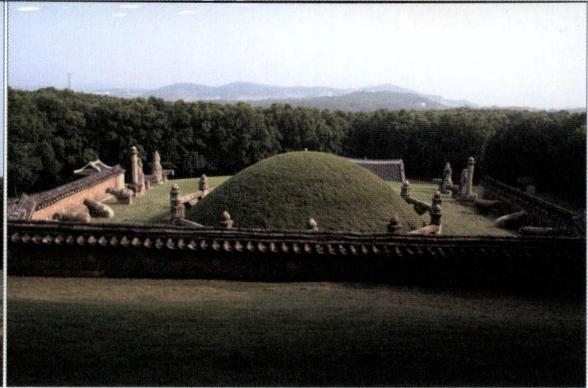


<화성시>

용릉(隆陵) - 장헌세자(사도세자) 장조 · 혜경궁 홍씨(현경의황후)



건릉(健陵) - 정조 · 효의왕후 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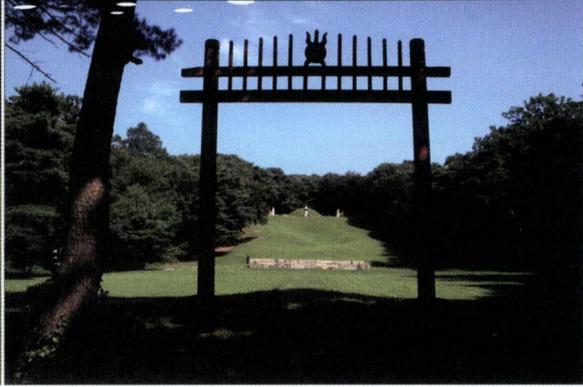


<고양시 - 원>

순창원(順昌園) - 순희세자 · 공회빈 윤씨



소경원(昭慶園) - 소현세자



숙경원(綏慶園) - 장조 사친 영빈 이씨



의령원(懿寧園) - 장조 장남 의소세손



효창원(孝昌園) - 정조 장남 문효세자



<광명시 - 원>

영회원(永懷園) - 소현세자빈 민회빈 강씨



<남양주시 - 원>

순강원(順康園) - 원종 사친 인빈 김씨



회경원(徽慶園) - 순조 사친 수빈 박씨



흥원(興園) - 현의대원왕 · 순목대원비 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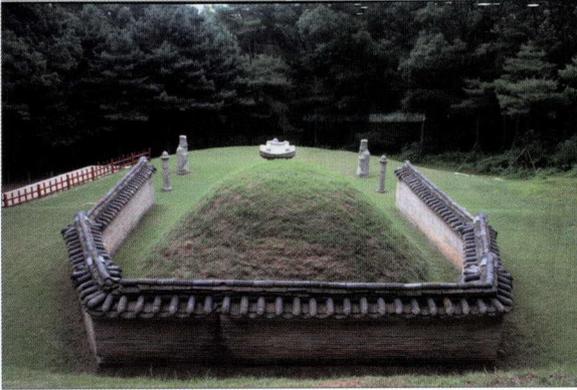


영원(英園) - 영친왕 이은 · 부인 이방자 여사



<고양시 - 묘>

대빈묘(大嬪墓) - 경종 사친 옥산부대빈 장씨



희묘(懷墓) - 연산군 생모 폐비 윤씨



<남양주시 - 묘>

성묘(成墓) - 광해군 사친 공빈 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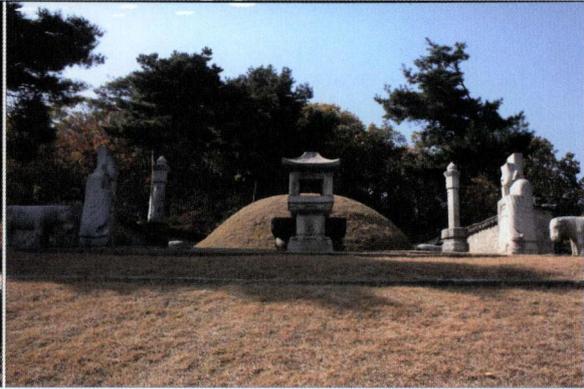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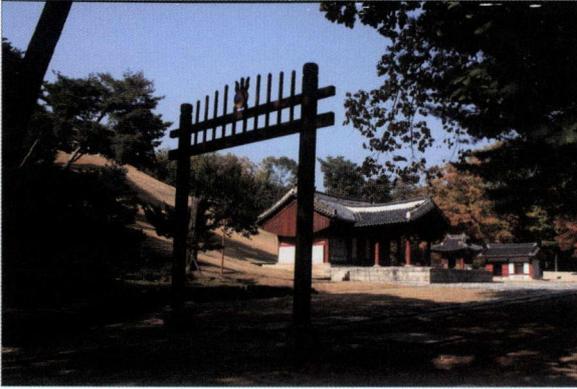


광해군묘(光海君墓) - 광해군과 광해군부인 유씨



<서울특별시 - 왕릉>

정릉(貞陵) - 태조 계비 신덕왕후 강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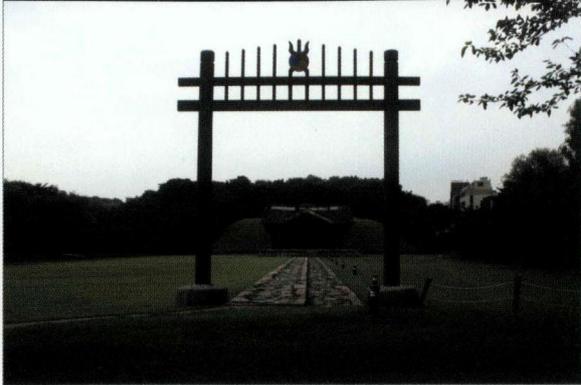
헌릉(獻陵) - 태종·원경왕후 민씨



선릉(宣陵) - 성종 · 계비 정현왕후 윤씨



정릉(靖陵) - 중종



태릉(泰陵) - 문정왕후 윤씨



강릉(康陵) - 명종 · 인순왕후 심씨



의릉(懿陵) - 경종 · 신의왕후 어씨



인릉(仁陵) - 순조 · 순원왕후 김씨



<영월군>

장릉(莊陵) - 단종(端宗)



<서울특별시 - 원>

영희원(永徽園) - 고종 후궁 순현귀비 업씨



승인원(崇仁園) - 영친왕 장자 이진



<서울특별시 - 묘>

연산군묘(燕山君墓) - 연산군·부인 기장 신씨



京畿道 陵園總覽 下

발간사



경기도 소재 왕릉 및 원묘, 그리고 경기도 이외 지역 소재 능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어져 그 성과물이 《京畿道陵園總覽》으로 발간되었습니다. 2007년에 발간된 상권에 이어 조선시대 전체 왕릉 및 원묘에 대한 자료정리 및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경기도에는 31기의 왕릉과 12기의 원, 그리고 광해군묘·회묘·성묘·대빈묘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기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기 조성된 능원으로 개성일대에는 제릉과 후릉이, 영월에는 장릉이, 서울특별시에는 정릉(貞陵), 현릉, 선릉, 정릉(靖陵), 태릉, 강릉, 인릉, 의릉이 있습니다. 원묘로는 영회원과 송인원, 그리고 연산군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경기도와 그 일대는 조선왕조 역사의 생생한 현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하권에서는 상권에서 다루지 못한 김포시의 장릉(章陵), 여주군의 영릉(英陵)·영릉(寧陵), 화성시의 용릉(隆陵) 및 건릉(健陵) 등을 포함하였고, 이외 경기도 이외 지역에 소재한 능원을 모두 망라하였습니다. 능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경기도를 넘어 관련 유적 및 사료 조사를 모두 마친 만큼 뜻깊은 성과물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연구가 갖는 의미는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기 왕릉 및 능원에 대한 총괄 정리를 한 데에 있다 할 것입니다.

2009년에는 조선시대 왕릉 역사문화유산은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으리라 봅니다. 조선왕조 5백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생생한 역사교육현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나 왕릉 등에서 행한 제향의례 등이 더욱 복원되어 시민들에게도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어디에도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등을 통해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향의례와 관련한 어가행렬의 재현이라든가, 제기 및 제수 용품의 활용이라든가, 오향대제의 복원 재현이라든가, 국장과 왕릉 조성 과정의 스토리텔링화라든가가 이와 관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京畿道陵園總覽》은 훌륭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京畿道陵園總覽》의 발간은 우리 경기도의 역사문화역량을 다시금 확인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훌륭한 역사문화유산을 잘 보존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문화유산 지킴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이를 세계인이 흥미를 가질 역사문화콘텐츠로 개발함으로써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역사문화유산을 알려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쪼록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책자의 발간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진종설 경기도의회의장님, 그리고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관심과 도움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京畿道陵園總覽》 발간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건국대학교 한정수 교수를 비롯한 집필진 및 조사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을 조사 정리 보존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일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남선우



책머리에

2007년에 이어 다시 1년여에 걸친 조사 연구를 통해 《京畿道陵園總覽》下를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하권에서는 지면 관계상 상권에서 다루지 못한 왕릉 가운데 김포시 원종과 인현왕후의 장릉, 여주군 소재 세종과 소헌왕후의 영릉, 효종과 인선왕후의 영릉, 화성시 소재 장조와 헌경왕후의 용릉, 정조와 효의왕후의 건릉 등을 모두 수록하였다. 이로써 경기도 소재 왕릉에 대한 조사와 자료 정리가 일단락지어지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京畿道陵園總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 내 세자 및 세자빈, 그리고 국왕을 낳은 생모인 후궁 등이 안장된 원과 폐위된 국왕의 묘를 찾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원으로서는 남양주시의 순강원, 휘경원, 흥원, 영원 등 4기가 조사되었고, 고양시의 순창원, 소경원, 수경원, 의령원, 효창원 등 5기, 파주시의 소녕원과 수길원 등 2기, 광명시 영희원 등이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남양주시 소재 광해군묘와 광해군의 사친인 공빈 김씨의 성묘와 고양시 소재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회묘, 경종의 생모로 폐비 된 옥산부대빈 장씨의 대빈묘 등 4기의 묘 역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도에 소재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왕릉 및 원묘 전체를 조사 연구하는 것이 능원총람 발간의 성격에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 경기도 이외 지역 소재 왕릉 및 원묘까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시 소재 신의왕후 한씨의 제릉과 정종 및 정안왕후의 후릉, 그리고 영월군 소재 단

종의 장릉에 대해서 자료 조사 및 탐방을 겸행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소재한 왕릉과 원묘 역시 정리하였는데, 태종과 원경왕후의 헌릉, 성종과 정현왕후의 선릉, 중종의 정릉, 문정왕후의 태릉, 명종과 인순왕후의 강릉, 경종과 선의왕후의 의릉, 순조와 순원왕후의 인릉 등 왕릉이 조사되었고, 도봉구 방학동 소재 연산군묘와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영휘원 및 송인원까지 모두 완료된 것이다.

이상의 왕릉 및 원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경기도 일대에 보존되고 있는 왕실 관련 역사문화유산의 검소하면서도 위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대하면서 백성과 지나치게 거리를 두고자 했던 중국의 황제릉 등과 달리 조선의 왕릉과 원묘는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면서도 위엄을 자연스레 보이게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선왕조 및 대한민국의 보호노력에 힘입어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왕조의 역사를 체험하고 음미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서도 잘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릉과 원묘는 우리의 역사문화유산이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그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점에서 2년여에 걸쳐 진행된 《京畿道陵園總覽》은 소중한 연구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京畿道陵園總覽》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경기도 향토 사료 및 유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분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

하였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의 남선우지회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현장 능원 관리사무소 관계자 분들의 협조가 있었던 것이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京畿道陵園總覽》上권에 이어 下권에 대해서도 경기도민들과 연구자 제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지침서이자 연구 자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8년 12월 일
건국대학교 교양학부 강의교수 한정수



차례

발간사
책머리에
범례

시군별 왕릉

〈김포시〉

장릉(章陵) - 원종(元宗) · 인헌왕후(仁獻王后) 구씨 / 16

〈여주군〉

영릉(英陵) - 세종(世宗) ·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 / 30

영릉(寧陵) - 효종(孝宗) ·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 / 58

〈화성시〉

용릉(隆陵) - 장헌세자(사도세자) 장조 · 혜경궁 홍씨(현경의황후) / 78

건릉(健陵) - 정조(正祖) ·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 / 106

시군별 원·묘

1. 원

〈고양시〉

순창원(順昌園) - 순회세자(順懷世子) · 공회빈(恭懷嬪) 윤씨 / 136

- 소경원(昭慶園) - 소현세자(昭顯世子) / 142
 수경원(綏慶園) - 장조 사친 영빈(映嬪) 이씨 / 152
 의녕원(懿寧園) - 장조 장남 의소세손(懿昭世孫) / 158
 효창원(孝昌園) - 정조 장남 문효세자(文孝世子) / 166

〈광명시〉

- 영희원(寧懷園) - 소현세자빈 민희빈(愍懷嬪) 강씨 / 176

〈남양주시〉

- 순강원(順康園) - 원종 사친 인빈(仁嬪) 김씨 / 182
 휘경원(徽慶園) - 순조 사친 수빈(綏嬪) 박씨 / 194
 흥원(興園) - 현의대원왕(獻議大院王) · 순목대원비(純穆大院妃) 민씨 / 202
 영원(英園) - 영친왕 이은(李垕) · 부인 이방자 여사 / 210

2.묘

〈고양시〉

- 대빈묘(大嬪墓) - 경종 사친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 장씨 / 216
 희묘(懷墓) - 연산군 생모 폐비 윤씨 / 222

〈남양주시〉

- 성묘(成墓) - 광해군 사친 공빈(恭嬪) 김씨 / 232
 광해군묘(光海君墓) - 광해군과 광해군부인 유씨 / 238

경기 이외 지역 조선시대 능원

1. 왕릉

〈서울특별시〉

- 정릉(貞陵) - 태조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 / 250
헌릉(獻陵) - 태종·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 / 274
선릉(宣陵) - 성종·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 / 290
정릉(靖陵) - 중종(中宗) / 302
태릉(泰陵) -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 / 314
강릉(康陵) - 명종·인순왕후(仁順王后) 심씨 / 324
의릉(懿陵) - 경종·선의왕후(宣懿王后) 어씨 / 336
인릉(仁陵) - 순조·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 / 348

〈영월〉

- 장릉(莊陵) - 단종(端宗) / 360

〈개성시〉

- 제릉(齊陵) - 태조 원비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 / 374
후릉(厚陵) - 정종·정안왕후(定安王后) 김씨 / 382

2. 원

<서울특별시>

영취원(英徽園) - 고종 후궁 순헌귀비(純獻貴妃) 엄씨 / 388

송인원(崇仁園) - 영친왕 장자 이진(李晉) / 392

3. 묘

<서울특별시>

연산군묘(燕山君墓) - 연산군·부인 거창 신씨 / 398

부록

조선시대 왕릉 및 원 일람표 / 403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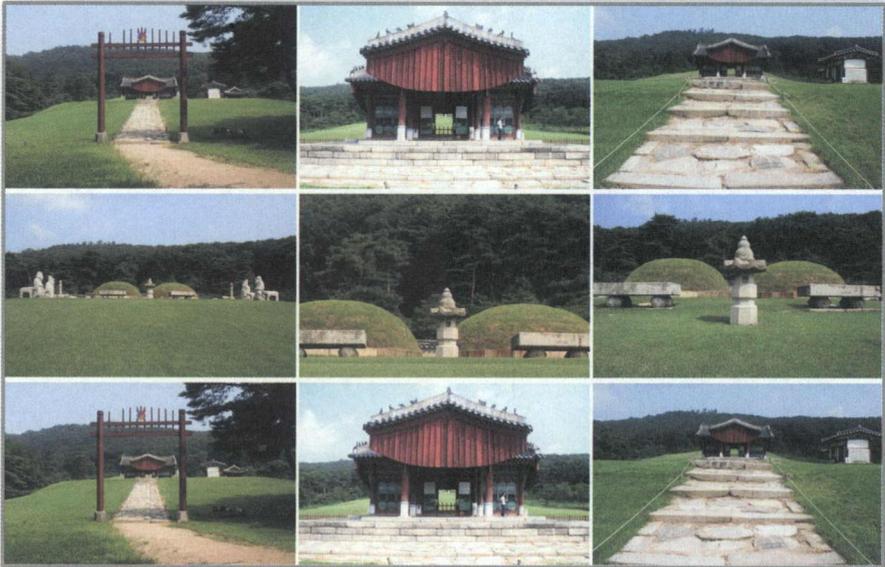
1. 《京畿道陵園總覽》下에 실린 왕릉 및 원묘는 현 경기도 행정구역의 시군 지역 소재 능원 및 경기 이외 지역의 능원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왕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군별 각 왕릉은 연혁, 왕릉에 대한 기본 소개, 왕과 왕후 등 능주 소개, 왕릉표석음기, 왕릉지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3. 왕릉 및 왕과 왕후에 대한 소개는 《연려실기술》, 《증보문헌비고》, 《국조보감》, 《조선왕조실록》 및 《고·순종실록》 등의 원 자료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 왕릉표석음기 및 왕릉지 사료의 확인 및 정리는 《列聖誌狀通紀》(한국학중앙연구원) 및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민족문화추진회 간행 각종 문집 등을 이용하였다.
5. 시군별 왕릉 관련 사진은 이번 작업팀에서 촬영 정리한 것을 이용하였다.

시군별 왕릉

김포시 / 여주군 / 화성시



김포시



장릉(章陵)

1. 연혁

능 주 : 원종(元宗)과 인헌왕후(仁獻王后) 구씨

위 지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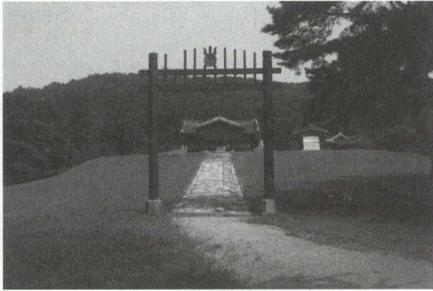
봉릉연대 : 1627년(인조 3)

전릉연대 :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다 김포나들목을 나오면 서울 서부지역에 위치한 김포시로 진입하게 된다. 김포나들목에서 48번 국도를 타고 강화방면으로 약 10분 정도 달려가면 김포시청 앞 사거리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지하도로로 접어들지 말고 장릉 표지판을 따라 좌회전한 후 정면 산자락에 위치한 김포시청을 끼고 왼쪽으로 휘감아 돌면 장릉 입구에 도착한다.



장릉 원경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元宗, 1580~1619)과 인헌왕후(仁獻王后, 1578~1626) 구씨를 모신 능이다.

무덤 아래에는 영조 29년(1753)에 세운 ‘조선국원종대왕장릉 인헌왕후부좌(朝鮮國元宗大王章陵 仁獻王后附左)’라고 새긴 비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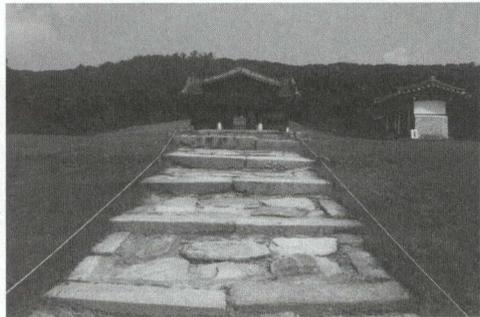
원종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 정원군으로 용모가 출중하고 태도가 신중했으며, 효성과 우애가 남달라 선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정원군은 처음엔 양주군 곡촌리에 묻혔다. 큰아들 능양군(인조)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자 정원군은 대원군에 봉해졌고, 묘가 원으로 추송되어 흥경원(興慶園)이라 했다. 1627년 인조는 정원군묘를 김포현의 성산 언덕으로 천장했고, 1632년 다시 왕으로 추존하여 묘호를 원종, 능호를 장릉이라 했다.

1637년(인조 5) 능원에 불이 났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주변의 금정사(金井寺)는 장릉의 원찰(願刹)이었다.

인헌왕후는 아들(인조)이 즉위하자 연주부부인이 되었고, 궁호를 계운궁(啓雲宮)이라 했다. 1626년 49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김포 성산 언덕에 예장하고 원호를 육경원(毓慶園)이라 했다. 흥경원을 이곳으로 다시 천장하면서 원호를 흥경원이라 합쳐 불렀다.

왕릉과 왕비릉이 나란히 있는



장릉의 참도와 정자각

쌍릉으로, 병풍석이나 난간석은 설치하지 않고 보호석만 둘렀고, 두 봉분 앞에 혼유석이 각각 놓여 있다. 봉분은 지면과 맞닿은 부분에 아무런 조각이나 무늬도 새기지 않은 호석을 두르고 있다. 이는 추존 전에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능들과 달리 경사진 참도를 통해 정자각에 이르게 되어 상대적으로 정자각이 높은 곳에 지어졌다. 능침의 봉분이 정자각 어칸을 통해 바라보이는 장릉은 비교적 평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능의 규모와 규격은 조선중기의 전형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하고, 능 아래는 제사를 지내는 재실이 있는데, 조선 21대 영조와 22대 정조가 매년 행차하여 제사를 모시던 건물이다. 능주위에는 호수와 연못이 공원처럼 꾸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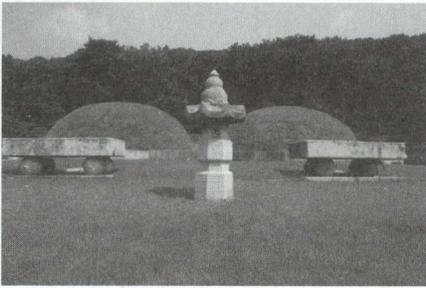
3. 능주 소개

원종은 조선 제14대 왕 선조가 인빈 김씨 사이에서 낳은 서자로, 인조의 아버지이다. 본명은 부(瑋)이다. 1587년 정원군(定遠君)에 봉해졌으며, 인헌 왕후와 혼인하여 4남을 두었다. 그러나 첫째 능풍군은 일찍 죽었으며, 둘째 능양군은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고 조선 16대 왕이 된다.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대원군에 추존되었으며, 1632년 논쟁 끝에 원종으로 추존되었다. 무덤은 김포시에 있는 장릉(章陵)이다.



장릉 정자각

인헌왕후(仁獻王后)는 추존 원종(元宗)의 비로 성은 구씨(具氏), 본관은 능성(綾城)이다. 좌찬성 능안



장릉 봉분 원경(위)과 근경(아래)

장릉(章陵)은 조선의 14대 임금인 정종(正宗)의 능(陵)이다. 정종은 1590년(선조 23) 선조의 다섯째아들인 정원군(定遠君)과 혼인하여 연주군부인(連珠郡夫人)으로 봉하여졌다가,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부부인(府夫人)에 진봉(進封)되고 궁호(宮號)를 계운궁(啓運宮)이라 하였다.

부원군(綾安府院君) 사맹(思孟)의 딸이며, 인조의 어머니이다.

1632년(인조 10) 이조판서 이귀(李貴)의 주청으로 정원군이 원종으로 추존됨에 따라 인현왕후로 추존되었다. 인조를 비롯, 능원대군(綾原大君)·능창대군(綾昌大君)을 낳았다. 능은 육경원(毓慶園)이라 했다가 원종을 이장한 후 합하여 흥경원(興慶園)이라 했고 추숭(追崇)한 이후에 장릉(章陵)이라 했다.

1632년(인조 10) 이조판서 이귀(李貴)의 주청으로 정원군이 원종으로 추존됨에 따라 인현왕후로 추존되었다. 인조를 비롯, 능원대군(綾原大君)·능창대군(綾昌大君)을 낳았다. 능은 육경원(毓慶園)이라 했다가 원종을 이장한 후 합하여 흥경원(興慶園)이라 했고 추숭(追崇)한 이후에 장릉(章陵)이라 했다.

4. 장릉표석음기

朝鮮國

元宗大王章陵

仁獻王后附左

元宗恭良敬德仁憲靖穆章孝大王萬曆八年庚辰六月二十二日誕生 己未十

二月二十九日昇遐 庚申二月葬于楊州羣場里 天啓七年丁卯八月二十七日移葬于金浦郡後岡子坐之原 壽四十 丁亥初封定遠君 仁祖即位追尊大院君 崇禎五年壬申又追崇為王 皇朝賜諡恭良 妃敬懿貞靖仁獻王后具氏 萬曆六年戊寅四月十七日誕生 天啓六年丙寅正月十四日昇遐 五月十八日葬與大王陵同原 壽四十九 庚寅初封郡夫人 仁祖即位進號府夫人 崇禎五年 壬申追崇為王后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六年立

5. 정원대원군 행장

李植, 《澤堂先生別集》 卷8, 行狀 定遠大院君行狀

大院君諱某字某 我宣祖大王第五子也 妣曰仁嬪金氏 監察漢佑之女也 大院君生于萬曆庚辰六月二十二日庚申 九歲丁亥 封定遠君 庚寅 聘啓運宮 宣廟親莅其選 十月初三日 親迎禮成 壬辰之亂 從宣廟西狩次平壤 宣廟念諸子相聚而行 非萬全計 將向龍灣 先命一二宰臣 陪大院君往寧邊府 就迤北地避賊 既至寧邊 大院君戀慕行在 日悲泣謂宰臣曰 余此行 正以不敢違上命耳 今賊鋒漸逼 而行在隔闊 萬一有不測 非但大義虧闕 卽君臣父子 且不得同生死 死亦不瞑 宰臣見其至誠 以其語聞 宣廟憐之 召赴龍灣行在 癸巳 賊退京師復 是秋 車駕將還京 大院君仍扈從 又以上命留海州 乙未冬 始至京 丁酉 賊再獮逼畿甸 懿仁王后出幸海州 上又命大院君先往平安道 留駐成川府 己亥夏 承命扈懿仁王后還京 甲辰 錄扈從功 賜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號 恩賜如例 戊申二月 宣廟禮陟 大院君服喪盡制 癸丑 仁嬪卒 亦如之 乙卯秋 誣獄起 第三子綾昌君遇禍 大院君痛悼成疾 己未冬 疾轉劇 十二月二十九日 卒于移寓之第 春秋僅四十 訃

聞 光海託以護喪 遣中使譏察弔客 屢使人促葬期 因是不能擇兆 庚申二月二十二日 權窆于楊州治東群場里 卽啓運宮先隴之南也 大院君自在襁褓 英氣盎晬 宣廟奇愛之 稍長 宇量軒豁 迥異諸昆弟 嘉禮時年甫十一歲耳 進退周旋 率以禮則 儀采晬然 觀者爲之竦動 及遭亂扈行 備經險阻 年尙稚弱 而意氣屹如成人 人皆異之 其駐成川也 念亂軫瘼 凡所供億 務循簡約 一境無怨 天性孝友 前後居憂 哀毀盡情 食素寢外終三年 出入禁闈 小心謹愿 居寵思畏 惟以睦友 相謹愛爲適 暇日 輒與宗戚兄弟宴飲 或至關門投轄 達曙不倦 嘗謂子弟曰 吾平生唯以仁民愛物爲心 雖僮僕之微 未嘗嚴刑戕命 汝曹宜以此爲心 慎勿忽焉 前後爲司饗院提調八九年 莅事 寬而有制 亦無滯務 吏僕至今稱頌焉 平居沈默簡嚴 望之若不可犯 接其辭氣惟和好真率 未嘗爲矯飾之色 拂戾之談 其儀表鬼傑 德氣充溢 每朝會立於百僚之上 如龍現鵠峙 挺然不群 盈廷咸屬目焉 初光海在東宮 臨海數被彈譴 義安 信城 早夭無子 大院君在他王子中年最長 又以孝友誠敬 特爲宣廟所寵愛 前後錫予恩數倍常 他王子莫敢望焉 逮光海嗣位 嫌忌骨肉 大獄連年 戕夷相繼 王子宗室 劫劫不自保 反更阿順昏德 肆爲邪議者有之矣 大院君素爲光海所憚 奸兇之家 從而構之曰 某君氣象超凡 其子綾昌 有豪雄姿 所居塞門洞第有王氣 失今不圖 後必有患 又有譖者言仁嬪所葬豐壤阡兆極吉 光海惑之 常懷不容 故綾昌首及於難 獄事之初 光海奪其第 改作慶德宮 當是時 大院君汲汲殆矣 然而大院君 既不敢抗激而速禍 亦不肯阿順而求全 唯杜門謝病 不問內外事 嘗謂子弟曰 當今奸兇滿朝 宗社將覆 猜刻日甚 至親莫保 每日出 余始知去夜之無事 日入方幸今日之安過 恨不早死 得從先王於地下耳 及卒 不敢附葬仁嬪塋隴 亦以前譖故也 大院君凡三嗣 我聖上爲長 次綾原君備 次綾昌君佺 佺幼有氣度 騎射絕倫 竟以此媒禍 奸兇陰嗾蘇賊起獄 被鞫者無一人誣服 獄

不成矣 而光海特命圍置喬桐島殺之 年十七未授室 今上誕四男子 長曰某 乙丑春 策封爲王世子 次某 孝宗御諱 次潛 次滾 未出閣 嗚呼 廢朝骨肉之禍慘矣 大院君家 受忌尤深 構禍最重 而光海終不能加害大院君 得以名位終 亦不隕厥問 乃今默啓聖明 光膺寶位 中興之烈 咸推所自 於是進號爲大院君 墓曰興慶園 追孝致隆 幽明洩恨 家國齊慶 雖高穹眷命 曆數有歸 亦豈非大院君積德累仁 有以獲天助而開陰鷲之致也 嗚呼盛哉

6. 장릉지

李廷龜, 《月沙集》 卷 48, 墓誌銘 定遠大院君興慶園誌銘并序

天啓三年癸亥 卽我殿下卽位之初載也 格于宗廟社稷 告以受命戡亂 凡所以惇倫敘典慰協神人者 靡不畢舉 旣又教曰 予欲親祭私廟 合行典禮 且儀以聞 於是禮官與相臣議 請追封定遠君爲定遠大院君 加連珠郡夫人爲府夫人 卽其第進號爲啓運別宮 其祝號祭式立後主祀 博考先今憲章 酌議陳啓 上可之 粵四年丙寅正月 啓運宮寢疾不興 喪制俯採廷議 悉裁以禮 誠千古盛德事也 將葬 教群臣曰 予昔遭家多難 先君之喪 倉卒寄厝於外家之阡 非久計也 今當同窆新原其令有司預講移葬之儀 又命儒臣考漢悼園故事 稱墓爲園 遂卜山於金浦縣後岡子坐午向之原 是爲毓慶園 語在毓慶園誌中 明年丁卯八月初十日癸卯 啓楊州興慶園 二十七日庚申 禮窆于毓慶園之右 同原異穴 遂合稱之曰興慶園 大院君姓李 諱某 寔我宣廟昭敬大王之第五子也 妣仁嬪金氏 監察漢佑之女 以萬曆庚辰六月二十二日庚申 生大院君於景福宮之別殿 幼有異表 宣廟愛且奇之 稍長 莊重寡言笑 孝友出天植 丁亥 封定遠君 庚寅 聘綾城具氏議政府左贊成思孟之女

卽啓運宮也 方嘉禮時 大院君年甫十餘 而禮容華雅 標望絕倫 觀者驚歎 以爲天人 壬辰之亂 扈駕西行 跋涉危險 凡所計議 屹如成人 宣廟將向龍灣 分命二三宰臣陪大院君入寧邊避賊 旣至 泣謂宰臣曰 此來非故偷生 只以 上命也 今賊勢日熾 車駕日遠 萬一不幸 則君臣父子不得同死生 此身行何之也 死且不瞑矣 語聞 宣廟嘉之 召赴行在 自是未嘗離上側 癸巳 賊退 仍扈駕到海州 乙未冬 始還京城 丁酉 賊再逼畿甸 懿仁王后出幸海西 大院君承命先往成川 己亥夏 隨扈還京 甲辰 策勳賜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號 戊申 宣廟禮陟 執喪踰制 毀幾減性 癸丑 仁嬪卒 亦如之 終三年寢處於外 無何 誣獄起 朝紳多被逮械 大院君旣以勳德位望 最被猜嫉 讒構日積 第三子綾昌君佺 自幼豪雋 善騎射 兇徒以飛語眩惑 或言某君氣象非凡 或言某家王氣甚盛 或言仁嬪墓兆極吉 日夜鍛鍊媒禍 遂嗾死囚上變告 光海又迫黜 其第改建慶德宮 大院君寓居湫隘 囚服待辨 綾昌終不免就繫 先後被逮者 拷訊備慘 白冤狀無異辭 獄竟不成 而文致成案 圍置喬桐殺之 大院君自是悲慟成疾 謝絕人事 常曰 奸兇竊弄 宗國將覆 余日出方知去夜之無事 日入始幸今日之安過 惟願早死得侍先王於地下耳 己未冬 疾轉劇 十二月二十九日 卒于會賢坊之寓舍 春秋僅四十 光海遣中官譏察弔客 又促葬期 使不得安意擇山 一家憂懼益甚 欲祔葬仁嬪之塋側 而畏前譖亦不敢 二月 遂權葬楊州群場里坤向原 大院君神姿凝遠 器識軒豁 平居簡嚴 凜若不可犯 及接物遇人 和氣盎然 絕無矜持驕傲色 每朝會立於百僚之上 德充仁符儀表可象 人無不目屬之 嘗帶司饗院 宗簿寺都提調 御下寬而有威 猾胥斂手而事益辦 常戒子孫曰 余平生惟以仁民愛物爲心 雖童僕未嘗加嚴刑 汝曹其體余心也 出入禁闈 小心恪謹 寵錫便蕃而愈益斂退 惟以友睦爲樂 暇日輒呼宗戚兄弟 置酒歡飲 窮日夜不倦 風流溢發 誠意融融 詩云 兄弟既翕 和樂且湛 其斯之謂乎 有三男 長

我主上殿下 次綾原君備 次綾昌 被禍時年十七 未有室 上聘西平府院君韓浚謙之女 誕四男 長諱 乙丑春 封王世子 次鳳林大君 次潛次滾 皆未出閣 大院君以孝睦忠謹 最受宣廟眷愛 他王子莫敢望焉 卒以此致家禍 憂鬱不得年 嗚呼 此果天道耶 雖然 當危難之朝 得以名位考終 光啓我聖上中興偉烈 蓄積德慶之報 若是其不爽 則天固未始不定 而我聖祖傳昌遺意 有以默佑於冥冥也歟 觀於啓運宮玉璽之夢 驗矣 鎮昌東國萬年無疆之休 其在斯歟 葬有日 命臣廷龜以隧道之文 臣拜疏辭謝不獲命 則竊計臣既忝爲禮官 前後與聞末議 謹詮次事行如右 而并敘喪葬顛末云 銘曰

猗我宣廟 本支繁昌 翼翼大院 秀出于行 羈勒從西 實未成童 臨危孺慕 志孝言忠 策名紀績 宜子宜臣 貴不由爵 恩非展親 昵侍周旋 居寵若驚 禮樂河間 爲善東平 仁愛爲心 祿慶攸積 惇宗敘睦 棣華之樂 逢時罔極 禍慘骨肉 杜門屏跡 惴惴朝夕 危不詭隨 艱貞自靖 積憂損和 靈算不永 皇穹赫臨 眷于有德 聖祖默喻 大寶斯托 倫常日揭 宗社重光 情文損益 百度允臧 痛彼玄堂 權唐他阡 有銜莫伸 讒者故焉 乃眷金陵 佳氣鬱鬱 于以永安 神人叶吉 曷不肅敬 千乘郊迎 慶綿家國 禮盡哀榮 史氏撫事 敬奉宸筆 臣何敢贊 只記其實 天啓七年八月二十七日

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左贊成兼兵曹判書判義禁府事世子貳師知經筵春秋館事臣李廷龜 奉教撰

《仁祖實錄》卷 12, 仁祖 4年 3月 21日 甲子 仁獻王后誌文

上下啓運宮行狀 令大提學金瑬 製進誌銘 其文曰 恭惟我聖上 纘承大統之越四年丙寅正月十四日戊午 啓運宮寢疾 卒于慶德宮之會祥殿 春秋四十九 既殯之翌月 自上撰次世系言行事始終 命臣瑬誌之 臣瑬拜疏 謝不敢 不獲已 既讀狀 仍竊伏念 昔周公論歌文武之烈 作爲大明生民之詩

追本其所從來 自古受命之君 其先曷嘗不種德衍慶 光啓景運 以能迓天之休也 啓運宮之得其名 顧不趨歟 於戲盛哉 謹拜稽首而敘之曰 啓運宮姓且氏 系出綾城 遠祖諱存裕 仕高麗有名 入國朝以來 世有冠冕 遂大顯 曾祖永柔縣令諱希曾 贈吏曹判書 祖司憲府監察諱淳 贈議政府領議政 考諱思孟 用文學擢高第 清名宿德 爲世所推 歷事明廟 踐敷要顯 卒官議政府左贊成 以子晟若宏 參錄扈聖靖社功 贈議政府領議政 賜純忠秉義補祚功臣號 封綾安府院君 議政娶平山申氏 高麗壯節公崇謙之後 贈領議政平洲府院君華國之女 寔生啓運宮 乃戊寅四月十七日戊戌也 啓運宮 生而姿質秀異 聰明孝友 出於天性 甫四歲 知以禮自持 至五歲 已無幼志 儼若成人 一日侍父母 食數匙而止 父母怪而問之 對曰 飽矣 及撤視之 有穢物 自是父母甚異之 嘗欲觀其爲 式以玩具遍給他兒 而獨不及 不以爲意 父母愛而拊之曰 吾女 女也 終必大吾門 宣祖大王素器愛定遠大院君 庚寅將行嘉禮 擇其配之可與齊者 命士大夫女 咸詣闕 親簡焉 簡至再而未定 啓運宮一見 可上意 天顏喜甚 嬪御皆賀 爰命有司 以是年十月三日 備禮以聘焉 大院君 卽仁嬪出也 仁嬪有令德高識 亟稱以吾佳婦 宣祖大王命女史 授以小學諸書 讀未竟 已通音義 溫仁簡默 喜怒不形 處尊卑間 無不適順 宮中愈敬 事大院君 既順而正 和容婉色 未嘗有違 不敢以齊體情見 撫側出以慈 御僮使以寬 治家逮下 皆有法式 大院君深重敬之 皇天眷佑 篤生聖子 時則萬曆紀元之乙未也 其所謂種德衍慶 光啓景運者 實在茲乎 歲戊申 宣祖賓天 哀毀踰制 仁嬪之喪 亦如之 乙卯 季子綾昌 被酷禍 大院君悲慟成疾 不離床褥 啓運宮侍疾累歲 奉湯劑洗廁褌 皆自執不屬人 及卒 勺水不入口 號擗隕絕 乞制盡 只歆節粥 待同氣視媵妾 踰於大院君之在世之日 好施族黨 賑人之急 先從貧賤始 親屬有怵禍者 畏其染 一不過門省顧 待之如初 略不形言面 平生 未嘗爲富貴容 奢華綺麗

不設於身 嘗亡厚藏珍寶 知其匿所 故不問曰 不欲彰人惡也 自少洞知大義 能輕重緩急 癸亥之事 盡散金帛 以慰將士 舉義之日 無怖容 戡亂之後 無喜色 履危蹈變 權時動宜 贊成大業 保定洪基 繫誰賴也 甲子春 賊臣适 舉兵薄京邑 車駕南遷 次水原 從者色懼 皆懷潰散 乃罄橐而分之坐牢其心 奉大妃 極盡孝敬 委曲承順 愉愉如也 雖在顛仆 罔或少懈 時有疾恙 不事巫祝曰 禱而虛也 不可爲也 如其應也 余未亡人也 禱而何爲 其達理不惑如此 戊申後 嘗夢先王 召謂啓運宮曰 而家當有受命而興者 仍賜以玉璽曰 特以付之 諭子教訓 啓運宮拜謝問曰 克勤新政 鎮昌本國 其亦神矣哉 噫 於皇烈祖陟降之靈 勉我聖上 耆定大亂 嗣武受祉 以啓我東方億萬年無疆之休 斯可驗矣 啓運宮 自癸亥而嬰疾 至甲子而轉篤 至丙寅而遂不起 嗚呼慟哉 命設禮殯禮葬都監 宗伯主喪禮 度支辦喪事 匠作治殯宮 大小駿奔而敦事焉 反正之初 因廷臣議 加定遠君以大院君 進宮號以啓運 屢備法駕 就覲私第 猶以曠省爲歉 遂移奉于大內 別供時膳 克備無闕 以迄于終 新卜兆于金浦縣後崗癸坐丁向之原 以是歲四月二十五日葬 虛其右子坐午向之原 將爲遷大院君葬也 有三子 長卽當宁 聘清州韓氏 西平府院君浚謙之女 正位承乾 受祿于天 生四男一女 長晷 封王世子 次某[今上諱湔] 次潛次滾 皆幼未封 女最幼 二曰綾原君備 時無子女 主定遠大院君祀 三曰綾昌君佺 氣豪有俊才 往在昏朝 爲奸誣捏 竄海島 抱冤而歿 年十七 未有室 銘曰 莫崇維嶽 莫濬維川 源長流遠 積厚不騫 且惟巨闕 祚由善綿 議政廓之 緒業光前 誕生碩媛 之德之淵 淑質懿範 成自幼年 豈惟良能 天賦其全 法家行誼 濡染而然 大院禮聘 求配之賢 王曰汝嘉 疇敢或先 壺儀既正 陰教斯宣 百靈保佑 聖躬育焉 於皇聖祖 陟降在天 啓寤夢寐 大寶有傳 神孫克肖 負荷靡愆 奮揚大義 坤轉乾旋 彝倫賴植 日月重懸 母儀寔多 功豈人專 禮養備隆 壽考宜延 宿[恙]漸

篤 神味精虔 金浦舊治 漢水西偏 瑩兆訖功 有闢新阡 有貞斯石 載磨載
鏹 是欽是撫 掩諸幽玄

여 백

여주군



영릉(英陵)

1. 연혁

능 주 : 세종(世宗)과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

위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지정번호 : 사적 제1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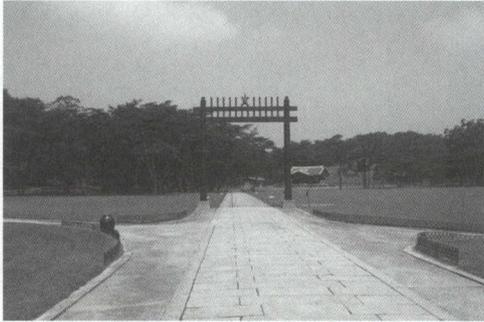
봉릉연대 : 1446년(세종 28)

전릉연대 : 1469년(예종 1)

왕릉형태 : 합장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남양주시 도농삼거리에 이르면 춘천으로 가는 46번 국도와 양평으로 가는 6번 국도의 갈림길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6번 국도를 타고 한강변을 따라 양평까지 달려가면 여주군으로 갈 수 있는 37번 국도와 만나게 된다. 다시 37번 국도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 달려 나가면 여주군 초입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2007년 8월 개통된 세종대교에 올라타



영릉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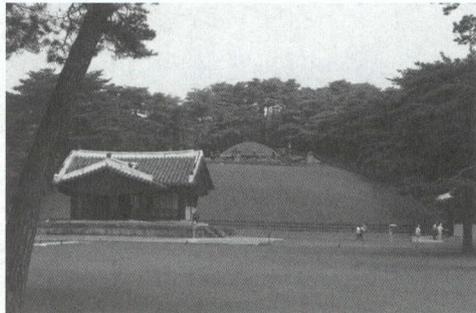
서 남한강을 건너면 바로 영·녕릉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의 관리면적은 65만 2000평이며, 해마다 양력 5월 15일에는 세종대왕 탄신 승모제전을 봉행하고 있다.

원래 영릉은 소헌왕후가 죽은 1446년(세종 28) 광주(廣州) 헌릉 서쪽에 조성하여 그 우실(右室)을 왕의 수릉(壽陵)으로 삼았다가 1450년 왕이 죽자 합장했다. 이 능은 《국조오례의(國祖五禮儀)》 치장조(治葬條)를 따른 조선 전기 능제의 기본을 이루었다.

능의 석물(石物)은 병석(屏石)에서 영저(靈柩)·영탁(靈鐸)·지초문양(芝草紋樣)을 배제하고 구름문양과 12지신상만 조각해 조선병석문(朝鮮屏石紋)의 기본을 확정했으며, 혼유석(魂遊石)의 고석(鼓石)을 5개에서 4개로 줄이는 등 제도상 고친 것이 약간 있었다.

세조 때 이 영릉이 불길하다는 의논이 대두했으나 서거정(徐居正)이 “천장(遷葬)함은 복을 얻기 위함인데 왕자가 다시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라고 반대하여 옮기지 못하다가 1469년(예종 1) 여주로 옮기게 되었다. 이 능을 천장후 조선조가 100년 연장되었다는 가백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때는 세조의 유언으로 병석과 석실의 제도를 폐지하고 회격(灰隔)으로 합장했



영릉 근경



영릉 정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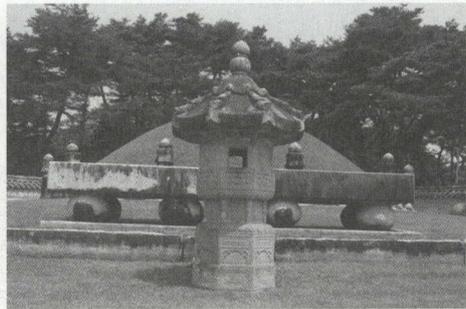
다. 능 앞에 혼유석 2좌를 놓아 양위(兩位)임을 표시했을 뿐 상설제도는 단릉(單陵)과 같다. 광릉(光陵)에는 동자석주(童子石柱)에 12지신상을 표시했는데 이보다 1년 후에 천릉한 영릉에서는 12지(支)를 문자로 기록했고, 그 이후에는 난간에 24방위까지

넣은 새로운 왕릉상설제도를 이루었다. 광주에 세워졌던 신도비(神道碑)는 능을 옮길 때 땅에 묻었던 것을 1974년에 발굴해 세종대왕기념관 앞뜰에 옮겨놓았다.

천하의 명당으로 알려진 영릉의 지세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층층이 해와 달의 모습을 띠면서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형국이라 한다. 거기에다 정남향 이어서 “가히 만세에 나라를 이어갈 만한 기가 탄생할 자리”인데, 이를 모란반개형(牧丹半開形)이라 한다. 영릉의 정문으로 들어서면 재실과 세종대왕 동상이 오른쪽에 서 있고, 왼쪽에는 세종대왕기념관인 세종전이 있으며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성역화사업으로 주변정비를 실시하였다.

훈민문을 지나 너른 능역을 조금 걸으면 연못과 홍살문, 정자각이 차례로 다가선다. 언덕에 올라서면 석상, 석마, 문인석, 무인석을 앞에 둔 합장릉이 있다.

왕릉은 조선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능의 하나로



영릉의 봉분과 혼유석, 장명등



세종전 앞에 전시되어 있는
축우기

서 합장릉임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혼유석이 있고 봉분 둘레에 돌난간을 둘렀으며 12개의 석주에는 12간지를 문자로 새겨놓았다. 능의 정중앙에 팔각의 장명등이 있으며 주위에 석호·석양·석마·문인석·무인석·망주석을 배치했고 능뒤에는 나즈막한 곡담을 둘렀다. 능밑에는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과 제사때 음식을 준비하던 수라간, 능을 지키는 관리가 살던 수복방이 있고 정자각 동편에 능비와 비을 세웠다.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해시계 자격루, 관천대, 축우기, 혼천의

<봉분>

원래 왕릉은 봉분(封墳) 하단에 병풍석(屏風石)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다시 난간석을 둘러 이중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영릉은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을 두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능이 예종 때 이 곳 여주로 이장되면서 예종의 부왕인 세조가 석실과 병풍석을 쓰지 말라는 유언을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봉분 속에는 세종 대왕과 소헌 왕후가 잠들어 있다.

<수라간>

정자각 왼편에 위치해 있는 수라간(水刺間)은 제사나 왕의 친행(親行)이 있을 때 제물을 준비하던 곳으로 다른 능에서는 살피 볼 수 없다.

맨 왼쪽에는 작은 툃마루가 있는 방 하나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두 개의 미닫이 문이 있다.

<정자각>

능에 제사를 드리던 집으로 구조가 간결하고 색깔도 화려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대들보의 태극무늬는 하늘과 땅의 순환이치를 표현한 것이다.

<비각>

비각은 정자각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광주에서 여주로 능을 옮길 때 처음 만들어졌던 신도비(神道碑)는 그 자리에 묻혀졌는데, 현재는 발굴되어 청량리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에 보존되고 있다.

이 능에 있는 비석은 1745년 영조 21년에 세운 것이다.

<수복방>

수복(守僕)은 조선 시대에 능(陵), 단(壇), 묘(廟), 전(殿) 등에서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리고 제기를 보관하거나 능을 지키는 관리가 사용하던 방을 수복방이라고 한다.

<홍살문>

홍살문은 능의 정문격에 해당되는 곳으로 능역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본래 능(陵), 묘(廟), 궁전(宮殿), 관아(官衙) 등의 앞에 세운 붉은 칠의 나무 문으로 신성한 장소임을 상징한다.

형태는 2개의 둥근 기둥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운 가로대를 올려 놓았고, 그 중간에 태극 문양을 그려 넣었다.

<훈민문>

영릉 정문과 능의 중간에 위치한 문으로 1977년에 세워졌다.

<재실>

왕이 돌아가시면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탈상 때까지는 대군, 공주, 군, 옹주, 문무백관이 매년 제사에 참관하였는데, 이 때 제관들이 머물며 제사를 준비하던 집이다.

이 재실은 원래 영릉 안산(북성산) 동북쪽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후에 없어진 것을 1970년에 복원하였다.

<세종전>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립한 유물관으로 세종대왕의 어진과 대왕의 업적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하였으며, 당시에 발명 사용한 과학기구, 악기류와 그 때 간행된 책들을 함께 진열하였다.

<세종대왕동상>

1971년 건립한 것이나 1977년 능역을 성역화하면서 새로 단장하였다. 우측에 능역정화비, 좌측에 훈민정음비가 흑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있다.(김세종 작)

3. 능주 소개

세종(1397[태조 6]~1450[세종 32])은 조선의 제4대 왕(재위기간, 1418~1450)으로 재위기간 동안 유교정치의 기틀을 확립하고, 공법(貢法)을 시행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해 조선왕조의 기반을 굳건히 했다. 또한 한글의 창제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문화의 융성에 이바지하고 과학



세종대왕 동상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는 한편,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토를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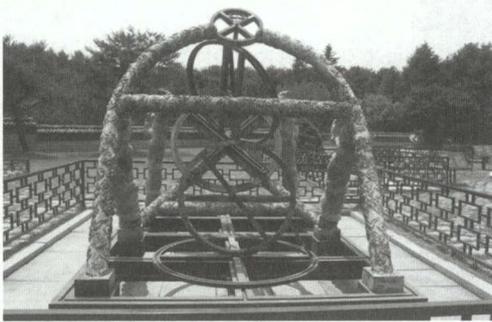
이름은 도, 자는 원정(元正)으로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이다. 비(妃)는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進封)되었다. 당시 왕세자는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이었으나, 태종은 충녕이 왕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1418년 6월 세자로 책봉했다. 같은해 8월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했다. 세종은 태종이 이룩한 왕권강화를 바탕으로 유교



세종전 앞에 전시되어 있는 호석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의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태종 때 실시된 6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이어받아 국정을 직접 관장했다. 그후 왕권이 안정되자 6조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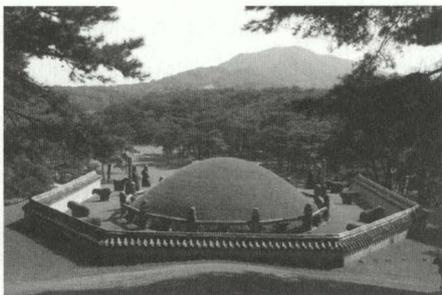
세종전 앞에 전시되어 있는 간의(簡儀)

서사제(議政府署事制)를 부활했다(1436). 이는 집현전에서 성장한 많은 학자들이 의정부의 지나친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아울러 세종은 승정원(承政院)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적으로는 이를 통해 모든 정무를 통괄했다.

1420년 설치된 집현전(集賢殿)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왕과 세자에 대한 학문적인 자문·교육과 각종 학술연구·서적편찬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성삼문·박팽년·하위지·신숙주·정인지 등 집현전을 통해 배출된 학자들은 유교이념에 입각한 정치와 문화를 확립하는 데 주역이 되었다. 한편 세종은 태조 이래의 억불숭유정책을 계승해 이를 정치이념이나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의 측면에까지 확대했으며, 《효행록》·《삼강행실도》·《주자가례》를 간행·보급해 유교적인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유교적인 의례(儀禮)를 확립하기 위해 예조·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집현전에서 국가의 의례인 오례(五禮), 사서(士庶)의 관혼상제에 관한 사례(四禮) 등에 대한 중국의 옛 제도를 연구하게 해 이를 정리했다. 이와 함께 1419년 사사노비(寺社奴婢)의 정리를 시작으로, 1424년 오교(五教: 慈恩教·華嚴教·始興教·中道教·南山宗)와 양종(兩宗: 曹溪宗·天台宗)을 선교(禪敎) 양종으로 정비해, 각각



세종전 앞에 전시되어 있는 현주일구(懸珠日晷)



뒤에서 바라다 본 영릉

을 같이 하지 않았다. 특히 말년에 두 아들과 왕비를 잇달아 잃고 자신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유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불당(內佛堂)을 짓고 불경을 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가 승유정책(崇儒政策)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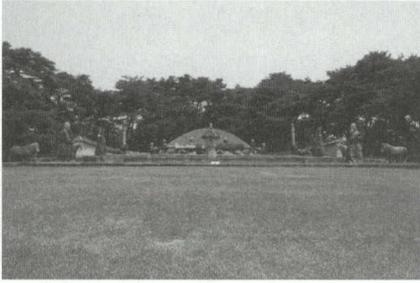
세종이 재위한 15세기 전반기는 유교를 치국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 즉 군현제(郡縣制)가 정비·확립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세종은 그의 치세 동안 태종이 이룩해 놓은 지방통치체제의 기반을 계승하면서 토호적 향리를 제거하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해 행정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과 부민고소금지법(府民告訴禁止法)의 실시, 도와 군현 구획의 부분적 개편, 임내(任內)의 정비, 양계(兩界) 신설주진(新設州鎭)의 개척에 따른 구획과 사민입거(徙民入居) 및 유향소(留鄉所)의 복설, 경재소(京在所)의 효율적인 운용 등 지방통치면에서 획기적인 치적을 남겼다.

이와 더불어 관리의 등용·녹봉체계를 고치고, 언로(言路)를 보장하

18개의 사찰만을 인정했다. 또한 이에 소속된 7,760결(結)의 토지 외에는 모두 몰수하는 등 불교를 억압했으나 왕실에서 개인적으로 불교를 믿거나 불교행사를 갖는 일은 가끔 있었으며, 세종도 유신들의 극단적인 불교전폐론(佛敎全廢論)에는 뜻



세종전 앞에 전시되어 있는 혼상(渾象)



영릉 봉분 원경

는 등 관료제도를 정비했다. 관리등용제도로는 과거제도 이외에 취재제도(取才制度)를 실시해 지방의 수령(守令)· 이서(吏胥)· 문음(門蔭) 출신자 등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실직품관(實職品官)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종친· 공로자· 연로

자 등에게 관직 없이 관계(官階)만을 주는 산관제도(散官制度)와, 잡직관인(雜職官人)· 품외관인(品外官人)에게 교대로 녹봉을 받게 하는 체아제도(遞兒制度)를 실시해 관직에 대한 과다수요를 조절했다. 이외에도 백관(百官)이 교대로 왕과 정사를 논의하게 하는 윤대법(輪對法)을 실시해 언론의 활성화를 꾀했다. 한편 법제적인 면에서는 1422년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속육전(續六典)》을 편찬하기 시작해 여러 차례의 개수(改修)를 거쳐 1435년에는 완성을 보았다. 또한 형벌제도를 개혁하여 가혹한 고문으로 피심문자(被審問者)가 죽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죽을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삼심(三審)을 받게 하는 삼복법(三覆法)을 시행했다. 1444년에는 노비를 노주(奴主)가 마음대로 벌주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자는 처벌하게 했다.

세종은 국가의 수입을 증대하고 민산(民産)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조세제도를 개혁했다. 태종 때 보급된 《농상집요(農桑輯要)》가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을 다룬 것이어서 조선 농업의 중심지인 삼남지방의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정초(鄭招)에게 명하여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했다. 이는 삼남지방의 농업관행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려 한 것이었다. 《권농교문(勸農教文)》에서는 목민관들에게 권

농의 이념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유의사항을 지시했다. 또한 세종대에는 농업 재생산력의 보존과 사회안정책의 일환으로 진흥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기도 했다. 한편 토지분급제도도 일대 개혁이 단행되어 1431년 새로운 급전법(級田法)인 4등순급법을 마련해 과전(科田)의 지급량을 축소하도록 했다. 또한 공신전(功臣田)의 지급을 대폭 감축하는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과전의 총량을 크게 줄이고 나머지는 국가기구로 돌려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취했다. 이는 곧이어 제정되는 공법의 정지작업이었으며 하삼도사전(下三道私田) 환급의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조세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큰 업적은 공법(貢法)의 제정이었다. 과전법(科田法) 체제에서의 조세규정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토지비옥도를 상세히 고려하지 않아 조세징수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실제 풍흉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답험손실(踏驗損失)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즉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공전(公田)에서는 수령이, 전주(田主)에게 조(租)를 납부하는 사전(私田)에서는 전주가 답험을 담당했으므로 이들의 농간에 따라 공평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세종은 1436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 1443년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세우고 이의 개선을 연구하게 했으며, 1444년 공법을 시행했으며 여기에서는 풍흉과 토지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각각 9등급과 6등급으로 나누어 세액의 차이를 두는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전분6등법(田分六等法)을 실시해 조세의 공평을 도모했다. 이때의 세율은 과전법에서의 1/10에서 1/20로 감소되었지만, 토지가 비옥한 삼남지방이 대부분 높은 등급으로 책정되었으므로 국고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농민의 경우는 결당(結當) 기준 세액이 300두(斗)에서 400두로 늘어나 세율의 인하만큼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전주나 관리의 자의적 중간수탈이 배제되어 그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세종의 대외정책은 태조 이래의 명에 대한 사대(事大)와 왜·여진 등에 대한 교린(交隣)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치적·경제적인 안정과 국력의 축적을 바탕으로 대명외교에서는 처녀진헌(處女進獻)과 금은조공(金銀朝貢)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하고 무리한 명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편 고려말 이래 골칫거리였던 여진과 왜에 대해서는 정벌을 단행했다. 여진에 대해서는 김종서·최윤덕(崔潤德)으로 하여금 두만강·압록강 유역의 여진을 몰아내게 하고 6진(六鎭)·4군(四郡)을 설치, 이곳에 남쪽의 백성을 이주시켰다. 왜에 대해서도 1419년 이종무(李從茂)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했으나, 1423년 삼포(三浦)를 개항하면서 회유책도 병행했다. 그러나 왜인의 출입이 증가하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1443년 계해조약을 맺어 세견선(歲遣船)과 세사미(歲賜米)의 양을 각각 50척과 200섬으로 제한했다.

세종대에는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문화가 크게 융성했다. 집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연구와 각종 편찬사업을 비롯하여 음악·미술 등 예술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훈민정음의 완성과 반포는 이 시기 문화유산의 결정이라 할 만하다. 1428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간행사업은 《고려사》·《고려사절요》·《자치통감훈의》 등의 역사서, 《사서언해》·《대학연의언해》·《효행록》·《삼강행실도》·《오례의주》 등 유교경전과 유교윤리에 관한 서적, 《명황계감(明皇誠鑑)》·《치평요람(治平要覽)》 등의 중국정치서, 《운회언역》·《용비어천가》·《동국정운》 등 훈민정음이나 음운·언해 관계 서적, 《팔도지리지》·《조선전도》·《세종실록》지리지 등의 지리지, 《향약집성방》·《의방유취》 등의 의서, 《농사직설》 등의 농서를 비롯하여 중국법률·중국문학·천문·병서 등 다양한 범위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편찬사업은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유교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유교의례가 정리되면서 이에 필요한 음악이 크게 발달했다. 여러 악기를 조율할 수 있는 율관(律管)이 제작되고 음의 장단을 표시할 수 있는 정간악보(井間樂譜)가 만들어지는 등 음악학이 발달했고, 조회아악(朝會雅樂)·제례아악(祭禮雅樂) 등 아악이 정비되었다. 이러한 음악의 발달은 박연(朴堧)이라는 뛰어난 음악가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지만, 음악에 조예가 깊은 세종의 역할도 컸다. 1443년 완성되어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은 종래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기형적인 문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그 뒤에도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와 해설서, 한문서적의 언해서를 간행하고 활자를 목각하는 등 훈민정음의 보급을 위한 작업을 계속했다. 훈민정음의 반포는 일반 민(民)들에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보급시켜 유교윤리에 바탕을 둔 교화(教化)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밖에 춘추관·충주·전주·성주 등에 실록 보관을 위한 사고(史庫)를 설치했다.

세종대에는 과학기술도 크게 발달했다. 천문기상 부문에서는 1434년 천체관측시설인 간의대(簡儀臺)가 준공되었다. 이곳에 설치된 혼천의(渾天儀)·혼상(渾象)·규표(圭表) 등 천문관측기기는 송·원의 과학기술의 영향과 고려 때까지의 우리나라 천문과학의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가장 괄목할 만한 것으로 해시계·물시계·측우기의 발명을 들 수 있다. 해시계로는 정초·장영실(蔣英實) 등이 발명한 앙부일구(仰釜日晷)·현주일구(懸珠日晷)·전평일구(天平日晷)·정남일구(定南日晷) 등이 있었다. 물시계는 흐린 날이나 밤에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표준시계로 쓰였다. 1398년에 이미 경루(更漏)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가 있었지만, 세종대에는 장영실이 자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격루(自擊漏)와 옥루(玉漏) 등 더욱 발전한 물시계를 만들었다. 1441년 측우기의 발명은 빗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깊이

로 강우량을 측정하던 종래의 불완전한 방법을 개선해 과학적이고 수량적인 강우량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도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이라는 역서(曆書)를 편찬하고 발달한 중국·이슬람의 천문학과 역법의 계산방법을 흡수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독자적 역법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종대에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쇄술의 발달이다. 태종 때인 1403년 청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가 만들어졌으나 글자의 모양과 크기가 매끈하거나 고르지 못한 결점이 있었다. 즉위초부터 새로운 금속활자 인쇄기술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던 세종은 경자자(庚子字 : 1420)·갑인자(甲寅字 : 1434)·병진자(丙辰字 : 1436) 등을 주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시기 활발한 간행사업의 수행은 이러한 인쇄기술의 발전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한편 1431, 1446년에는 도량형 제도가 확립되었다. 아악에 사용되는 황종관(黃鐘管)의 길이와 그 속에 담기는 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도량형 제도는 그뒤 《경국대전》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화포의 주조기술과 화약 제조기술도 단순한 중국기술의 모방에서 벗어나 크게 발전했다. 천자화포(天字火砲)·지자화포(地字火砲) 등 새로운 화포를 개발했으며, 《총통등록(銃筒謄錄)》을 편찬하여 화포의 주조법과 화약사용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정확한 규격을 그림으로 표시했다.

능은 영릉(英陵)이며, 시호는 장헌(莊憲)이다.

소현왕후(1395[태조 4]~1446[세종 28])는 조선 제4대왕 세종의 비로 성은 심씨(沈氏)이며,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문하시중 덕부(德符)의 손녀이고, 영의정 온(溫)의 딸이며, 어머니는 영돈녕부사 안천보(安天保)의 딸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 도와 가례(嘉禮)를 올려 빈(嬪)이 되고, 경숙옹주(敬淑翁主)에 봉해졌다.

1417년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개봉(改封)되고, 이듬해 4월 충녕대군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경빈(敬嬪)에 봉해졌으며, 같은해 9월에 내선(內禪)을 받아 즉위하니 12월에 왕후로 봉하여 공비(恭妃)라 일컬었다.

그러나 1432년(세종 14)에 중궁(中宮)에게 미칭(美稱)을 올리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라 하여 1432년에 왕비로 개봉되었다.

심온은 세종이 즉위한 뒤 영의정에 올라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서 귀환하던 중 아우 청이 군국대사를 상왕(上王:태종)이 처리한다고 불평한 일로 대역(大逆)의 옥사(獄事)가 일어나 그 수괴로 지목되어 수원으로 폄출되어 사사되었다. 이 일로 폐비의 논의가 있었으나, 내조의 공이 인정되어 일축되었다.

1446년에 52세로 죽자 헌릉(獻陵)에 장사지냈다. 뒤에 세종의 능인 영릉(英陵)으로 이장하였다. 《영릉지(英陵誌)》를 예조판서 정인지(鄭麟趾)가 저술하였다. 휘호는 선인제성(宣仁齊聖), 시호는 소헌(昭憲)이다.

4. 세종대왕영릉신도비문

世宗大王英陵神道碑

英陵神道碑銘 并序

堯舍丹朱而禪舜 舜有重華之德 而堯之仁 益以遠 文王舍伯邑考而立武王 武王有丕承之烈 而周之業 益以昌 孔子曰 唐虞禪 夏后殷周繼 其義一也 一者 謂皆無私心也 我太宗之禪位也 其堯文之心乎 我世宗之受禪也 其舜武之德乎 太宗之在位也 早建元子禔 爲世子 擇賢師友 以盡教養之方 世子有童心 學不就 德不進 太宗深以爲憂 永樂戊戌六月 世子失德滋甚 太宗欲立嫡孫爲

嗣 大臣等進曰 殿下教養世子 無所不至 尙且如此 今立幼孫 寧能保異日之賢乎 況廢父立子 於義如何 莫若擇賢爲嗣 時世宗 以世子母弟 次居第三 會封忠寧大君 太宗曰 忠寧最賢諸子中 宜立之 乃立爲世子 宗親文武百官拜賀 中外洽然稱頌 遂以奏聞天子 勅曰 立嫡以長 今古不易之常道 然嗣子之賢不肖 國之盛衰存亡係焉 王爲國家長久之慮 鑑盛衰存亡之機 欲立賢爲嗣 聽王擇焉 是年八月 太宗禪位于世宗 遣使請命 十一月 世宗奉口寶 上太宗奠號聖德神功上王 明年己亥春正月 天子遣鴻臚寺丞劉泉 封世宗爲王 六月 天子勅太宗曰 比以第三子 孝弟力學 可以繼承宗祀 且自陣年老 請襲以位 朕惟王識見 明達 特允所請 夫繼世在於有後而傳序在於得人 今王簡賢命德 俾宗祀有托 以副國人之所望 良用嘉悅 賜王宴享 不惟王一家之慶 且爲王一國人之慶也 又勅世宗 勸勉以忠孝之道 仍賜宴享 八月使到國 兩聖受宴于景福宮之勤政殿 禮樂之盛 聳動一國 初元敬王后 以洪武丁丑四月十四日壬辰 生世宗於漢陽潛邸 四歲而王后夢 太宗抱世宗 坐於日輪中 未幾 太宗登寶位 而世宗又承大統 天之命有德 豈偶然哉 世宗自在閣 天性好學 手不釋卷 沉默寡言 有穆穆之容 又即大位 聰明睿智 則首出庶物之聖 寬裕溫柔 則容民畜衆之德 制物獨運 而有發強剛毅之執可畏可象而有齊莊中正之敬 精義入神 而有文理密察之別 每日四鼓求衣 平明受朝 次視事 次引輪對 次御經筵 乃入內 猶覽書史 無少懈 於是 政無不舉 事無不治矣 太宗既傳位 自念付托得人 樂山水之趣 屢出遊郊牧以自怡 閑謂近臣曰 得明主 委國政 無憂者 天下無如我也 豈惟天下無如我者 古今亦無如我也 蓋其憂之也深 故其喜之也如此 冬十月 盡革中外寺社奴婢 皆歸于官 尋罷五教 止留禪教兩宗 於是 異端之教 闕之廓如也 歲庚子春 始置集賢殿 選聚文學之士 備顧問也 是夏 元敬王后遘疾 避忌于外 掖輦徒步 至有露宿 奉藥常不離側 七月 王后薨 水漿不進 太宗強之 乃小進 辛丑八月 天子北征 進馬萬匹 天子褒美 賜以銀幣 九月 上太宗太上王

之號 壬寅五月 太宗薨 致喪三年 服衰行事 定爲永世之法 甲辰秋 太宗文皇帝崩 仁宗昭皇帝登極 奉表進慰 稱賀盡禮 天子喜獎忠懇 賜以彩幣 歲乙巳 仁宗崩 宣宗章皇帝御極 又遣使慰賀 宣德丙午春 天子稱嘆至誠 賜幣 以及王妃 是年冬 又賜五經四書性理大全通鑑綱目等書籍 自是賞賚 無歲不到 至解所御寶裝條環及刀劍以賜之 己酉夏 幸成均館 謁先聖取士 國人常患金銀非土產而朝廷歲貢難繼 乃遣親弟恭寧君裊 具由陳請 天子特許免進 代以土物效誠 賞賜裊甚厚 是年冬 天子勅曰 朝廷所遣人等 至王國中王但以禮待之 毋贈遺以物 王父子 敬事朝廷 多歷年所 愈久愈篤 朕所深知 非左右近習所能聞也 又勅曰 王可謂卓然賢王者矣 先是 婆猪江等處野人 與他部落連結 其所擄掠遼東開原邊境軍民逃至我國者 五百餘名 悉皆解送京師 野人懷憤 犯我北邊 癸丑春 命判中樞院事崔潤德 中樞院使李順蒙等 往伐之 其酋李滿住等 鳥竄獸奔 覆其巢穴而還 甲寅春 又謁先聖 取士 三月丙午 謁獻陵 甘露降于松柏 又降于景福宮後園松樹 百官請陳賀 不受 咸吉道北門沿江州郡 本高麗舊疆 我祖宗興王之地也 而爲野人所據 始置會寧鍾城穩城慶源慶興等諸鎮 盡復其舊 乙卯春 宣宗崩 今太上皇帝踐阼 奉表陳慰 天子遣使 賜錦段 正統戊午八月 又賜遠遊冠服 壬戌五月 達達使人賚書 至我北門 招諭邊將 語之曰 天無二日 民無二王 今大明統一天下 汝何發不道之言 遂拒不納 世宗馳奏京師 天子嘉悅 賞賜 甲子春 勅曰 所諭邊事 悉能遵奉 罔有違怠 王其賢哉 特賜袞龍袍以寵異之 對馬一岐等島賊倭 侵竊上國沿海之地 又犯我濟州之境 邊將擒捕未盡 有稍稍逃竄本島者 世宗使人諭島主捕送 島主俯伏奉命 悉索執送 歸之于京師 以即天誅 前後凡六十餘名 天子深嘉之 勅曰 王克體爾先王敬天事大之心 秉恭擄誠 久而彌篤 肆朝廷眷待益隆 可謂君臣一心 終始靡間者矣 茲復械送犯邊賊倭 足見王體國安民之意 亦以見守邊得人 而有禦暴之功 又曰 朝廷嘉善重賢 禮遇優加 所謂德厚者寵榮 王其有焉 東良北住兀良哈浪

甫也隱豆 會弑父者也 是年來朝 世宗以爲大逆之人 天地所不容 王法所不赦 東東北 密邇我境 久霑王化 不可不誅 令有司 輟於境上 下教諭野人 野人等皆震懼 乙丑 以憂勤得疾 命今上殿下 叅決庶務 丙寅 創制訓民正音 以盡聲韻之變 蕃漢諸音 譯無不通 其制作精微可謂超出古今矣 戊辰 封元孫弘曄 爲王世孫 己巳秋 今上皇帝 臨御天下 奉表陳賀 又進馬以助邊備 帝遣翰林侍講倪謙刑科給事中司馬恂 賜以幣帛 我國 自太祖高皇帝賜以九章冕服 秩視親王 惟王世子 未有冕服 國人咸以爲慊 世宗奏請七章冕服 竟蒙俞音 世宗至孝 日朝壽康宮 愉色婉容之愛 執玉奉盈之敬 前世帝王之莫及 其遇喪祭 盡禮極誠 咸中法度 妃嬪以下 恩待各盡其分 無有間言 教諸子以義方 嫡庶尊卑 儀章恩數 粲然有等 皆好學達理 終無驕惰奢華之習 每朝夕定省 珠璧相聯 鴈行而入 國人咸嘆其有螽斯麟趾之慶 初太宗 放禊于外 然世宗 召見無時 卒使還京 親愛無嫌 群臣堅執不可 不聽 事二兄 待諸弟 盡其友于之情 宗室諸親 亦數會見 置酒以成歡洽 有服之親皆隨材授職 疏遠在野閑居者 亦復戶蠲稅 以存恤之 至於外戚 待之亦得其宜 又置宗學 太祖之孫 凡尸宗籍者 皆令受學 教養之道 至矣 禮遇群臣 嘉善而矜不能 無受刑戮者 如宦寺之輩 莊以莅之不任事權 事大之禮 出於至誠 凡所進獻文書方物 莫不親自監檢 所以列聖寵眷錫予之隆 褒美之辭 前昔無比 倭邦獻琛 野人執贄 自南自北 絡繹不絕 尊親感戴 出於心服 立銓注黜陟之法 至精至備 僥倖屏迹 賢良進用矣 守令拜辭 引見面諭 恤民之政 人人自勵矣 致意農桑 作書勸諭 省耕觀稼 人樂趨本矣 革損實之幣 定爲貢法 分地六等 分年九等 以上下其稅 復三代貢徹之遺法 命有司 鑄鍾造磬 吹律協音 而雅樂一新 會禮始不用女樂 又述祖宗功德 作定大業與民樂等 樂極其聲容之美 作唐俗樂譜 以均慢數之調 則人人接譜 不煩師學 而諸樂 各得其正 亦前昔之所未有也 參酌古今 定五禮儀 盡其情文之備 始設養老宴禮 男則親臨 女則王妃親饗 在州郡者 守令親饗 百歲以上者 月致

酒肉 八十以上者 賜爵有差 於是 恩無不及矣 遇災畏天 救荒恤民 盡心盡力 則皆以實而不以文矣 修七政內外篇 作諸儀像圭表及欽敬報漏等閣 而渾象 星晷定時儀仰釜儀漢陽日出入分 皆自創制 於是 天文曆數 始無差失焉 撰三 綱行實 則礪風俗也 作明皇戒鑑 則防逸樂也 修通鑑訓義治平要覽 則監興亡 也 集歷代兵要 則不忘戰也 以至醫藥諸書 亦皆校正如新鑄字記里鼓之類 又 無所不致其意也 作陳說 閱習陳法 益修戰艦 增制火桶 城廓修甲兵鍊而武備 嚴 法律明讞獄平而刑罰清 戒酒恤刑 皆下教書 戒飭官吏 當是時 雖百工技藝 咸精其能 上林園官 請備花器 教曰 予性不喜花卉 有司當務實 桑楮果木 皆 切於日用 汝等 自今以後 以此爲職 可也 嘗謂大臣曰 歷觀往昔 太平之世 尚 有牽裾切諫者 今雖小康 未及於古 未見有見有敢言者 何也 常開懷求諫 務使 盡言 言雖不中 未嘗罪之 事無大小 必與大臣謀而後行 故無有過拳 景泰元年 庚午 春二月 不豫 醫盡其術 禱徧于神 終未効 十七日壬辰 薨于別宮 春秋五 十四 在位三十三年 臣民沐浴恩澤 咸謂 大德必得其壽 永享萬年 而奄棄萬姓 嗚呼慟哉 大小臣僚 以至輿臺僕隸莫不失聲號哭 今上殿下 奉遺命 即位于梓 宮之前 諒闇盡禮 率群臣 奉冊寶 上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之號 廟號世宗 夏 六月十二日甲申 合葬于英陵之西室 亦遺命也 訃聞 天子慟悼 遣使賜祭 又賜 誥命 諡以莊憲 賜我殿下賻特厚 仍襲封王爵 錫以袞冕九章 王妃冠服 其賜我 殿下誥命 略曰 故朝鮮國王李某 慈惠謙恭 聰明特達 樂善循理 纖毫能謹 敬 天事上 終始一誠 仁厚孚於國人 功烈著乎邊境 自朝鮮有國以來 罕有如王者 也 爾李某 乃其世子 忠孝有誠 敬慎不懈 以長以賢 宜膺傳襲 惟忠惟孝 以永 率乃父之行 蓋我世宗盛德 光于四海 升聞于天 故終始哀榮之典 如此之至 嗚 呼盛哉 王后姓沈氏 青松世家 皇會祖諱龍 高麗贈門下侍中清華府院君 皇祖 諱德符 事高麗恭愍王再爲門下侍中 至我恭靖王朝 爲門下左政丞 封青城伯 皇考諱溫 領議政府事 封青川府院君 皇妃安氏 封三韓國大夫人 領敦寧府事

天保之女 后生而淑媛 太宗妙選來嬪 封敬淑翁主 敬事兩宮 篤承恩眷 世宗封王世子 后封爲敬嬪 世宗卽王位 后封爲恭妃 宣德壬子歲 從禮官言 去美稱 改封王妃 后有幽閑貞靜之德 世宗在潛邸 后之進退 世宗必起立 深加敬禮 接嬪媵 下至侍妾 皆有恩 視庶出子 皆如己出 撫愛有加 御膳進 則必親臨省視 以盡誠敬 有進戒之助 無私謁之行 壺儀克正 化流邦國 遠追太妣之風 正統丙寅春 邁疾 世宗日夜臨視 我殿下侍側 奉湯藥 三月二十四日辛卯 薨 享年五十二 諡昭憲 七月十九日乙酉 安厝于英陵東室 后誕八男二女 長卽今上殿下 次世祖 封首陽大君 次塔安平大君 次璆臨瀛大君 次璵廣平大君 先卒 次瑜錦城大君 次琳平原大君 亦先卒 次琰永膺大君 女長未笄而卒 贈貞昭公主 次貞懿公主 下嫁延昌尉安孟聃 慎嬪金氏 生六男 長璿桂陽君 次珥義昌君 次琛密城君 次璉翼峴君 次璋寧海君 次璵潭陽君 在服中而卒 惠嬪楊氏 生三男 長ㄱ(玉+於)封漢南君 次玆壽春君 次璵永禮君 淑媛李氏 生一女 貞安翁主 未笄尚寢宋氏 生一女 貞顯翁主 下嫁鈴川尉尹師路 宮人姜氏 生一男 璵和義君 我殿下顯德王后權氏 贈領議政府左議政專之女 誕一男一女而薨 男弘曄 今封王世子 女敬惠公主 下嫁寧陽尉鄭悰 司則楊氏 生一女 幼 首陽娶贈左議政尹璠之女 生二男一女 長德宗桃源君 餘幼 側室朴氏 生一男 幼 安平娶贈左議政鄭淵之女 生二男 長友直宜春君 次友諒德陽正 臨瀛娶右議政崔承寧之女 生二男二女 長澍鳥山君 餘皆幼 廣平娶僉知中樞院事申自守之女 生一男 溥永順君 錦城娶贈左議政崔士康之女 生一男 幼 平原娶贈左議政洪利用之女 無子 永膺娶贈左議政鄭忠敬之女 和義娶承政院同副承旨朴仲孫之女 側室金氏 生一男 幼 桂陽娶判中樞院事韓確之女 生一男 幼 義昌娶副知通禮門事金修之女 生一男 幼 漢南娶戶曹正郎權格之女 生一男 幼 密城娶仁順府少尹閔承序之女 生一男 壽春娶副知通禮門事鄭自濟之女 生一男 翼峴娶禮賓少尹趙鐵山之女 永豐娶司憲執義朴彭年之女 寧海娶贈左贊成申允童之女

貞懿公主 生四男二女 女長適敦寧府丞鄭光祖 餘皆幼 貞顯翁主 生二男 皆幼 宜春娶右議政南智之女 臣竊惟化工之妙 著於物 聖人之心 著於政 惟我世宗 以生知之聖 建中建極 爲人倫之至 善繼善述 闡帝王之孝 九族既睦 萬姓咸和 庶務畢諧 聲名洋溢 天子褒其忠賢 錫予實繁 隣邦服其誠信 梯航相繼 臣侍從十年 出入政府六曹二十餘年 親近耿光 信乎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實東方之堯舜云 昭惠王后 以坤厚之德 配乾剛之聖 母儀一國 化彼四方 且有多男之慶 生我殿下 有聖德以承大統 又致魚貫之寵 有螽斯之多 信乎天作之合 而與周之太姒 匹休云 臣筆力蕪拙 不能稱頌盛美 不幾於書天地之大譽 日月之明者乎 然承命不敢辭 謹拜手稽首而獻 銘曰 舜承帝堯 重華允協 武繼文王 克昌大業 德盛而帝 功高而王 煥乎有章 載錫耿光 與賢與子 天實命之 或禪或繼 惟公匪私 惟我世宗 天縱生知 孝弟之性 忠信之資 好學不倦 周情孔思 明明太宗 惟幾惟深 廢昏命德 堯文之心 敷奏天庭 帝降俞音 旋倦于勤 乃禪以位 天子錫命 皇華聿至 天子錫宴 周行是示 道積厥躬 聰明睿智 宵衣旰食 勵精圖理 克承負荷 父王以喜 奉歡兩宮 愉色婉容 問寢龍樓 益虔益恭 喪盡其哀 祭盡其誠 天降甘露 式昭厥靈 在宮離離 罔有徧恩 家法克正 人無間言 伯兄居外 來見源源 既而召還 敬愛彌敦 因心則友 斯翁弟昆 其湛日樂 華萼相輝 以及九族 恩澤覃施 振振子孫 誥誥螽斯 教以義方 讀書誦詩 儀章有等 嫡庶咸宜 禮遇群臣 刑戮不加 至誠事大 天子褒嘉 何錫予之 條環寶刀 又何予之 袞龍之袍 以禮交隣 隣邦輯和 梯航執贄 萬里一家 民既富庶 仁義漸摩 止仁止孝 止敬止信 建中致和 人倫堯舜 銓注法精 僥倖屏迹 任賢使能 各當其職 田制既定 猾吏手縮 不桀不獗 征斂無忒 首作儀像 次定律曆 五禮損益 情文之極 新樂聲容 祖宗功德 會用雅樂 始斥女樂 親臨養老 秋以爲式 撰集書史 監觀得失 訓民正音 一洗陋俗 貢許土宜 天子有勅 世子七章 光生一國 凡所施爲 無非燕翼 建鎮朔方 舊疆是復 威德遠被 無思不復 偏師指

北戎醜喙息 直搗巢穴 彼自顛覆 尺書下南 倭奴面縛 歸之京師 俾就顯戮 安不忘危 治不忘亂 城堡據險 戈予乃鍛 戰艦新造 堅如鐵石 火桶發機 疾若霹靂 軍資器械 遠邁前昔 好生之心 益致欽恤 刑罰平允 人無負屈 百工技藝 咸底于則 不喜玩好 務從質實 愈執謙遜 求言如渴 巍巍之德 郁郁之文 難名之盛 莫大之勳 虞周與儔 漢唐無聞 卅三年間 爲父爲君 昊天不吊 奄棄臣民 遠邇纏悲 哀慕如親 我王嗣位 至孝由性 明以繼明 聖以繼聖 山陵喪制 悉遵遺命 天子致弔 賜祭誅行 節惠定名 美諡以贈 厚賻亦至 恤典斯飭 俾襲王爵 錫之冕服 賚及王妃 珠冠禕翟 天子之恩 實優實渥 恭惟王后 倪天之妹 來嬪王家 正位乎內 大妣之德 文王之配 篤生聖主 鴻基益競 即有多男 麟兮播詠 實我東方 億載之慶 於戲先王 嘆興亡鑑 星未五周 忽遺弓劍 因山爲陵 同宮異室 仰思日角 五內痛裂 惟此盛德 萬代如一 謹撰梗槩 拜獻銘詞 天長地久 焜燿無期

5. 영릉표석음기

朝鮮國

世宗大王英陵

昭憲王后祔左

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洪武三十年丁丑四月十日誕生 永樂十六年戊戌受禪景泰元年庚午二月十七日昇遐 六月葬于廣州獻陵西岡 成化五年己丑三月六日移葬于驪州西北城山子坐之原 在位三十二年 壽五十四 皇朝賜諡莊憲妃宣仁齊聖昭憲王后沈氏洪武二十八年乙亥九月誕生 永樂十六年戊戌册封敬嬪 尋進封恭妃 宣德七年壬子改封王妃 正統十一年丙寅三月二

十四日昇遐 七月葬于獻陵西岡 己丑三月六日移葬與大王陵同原 壽五十二
崇禎紀元後一百十八年乙丑立

6. 영릉지

《世宗實錄》卷 112, 世宗 28年 6月 6日 壬寅 昭憲王后英陵誌文

禮曹判書鄭麟趾製英陵誌以進 其文曰謹按王后姓沈氏 青松世家 皇曾祖諱龍 高麗贈門下侍中青華府院君 皇祖諱德符 相高麗恭愍王 再爲門下侍中 至我恭靖王朝 以議政府左政丞 封青城伯 皇考諱溫 皇妣安氏 封三韓國大夫人 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諡昭懿公天保之女 以洪武乙亥九月己未 生王后于楊州之私第 王后生而淑婉 維德之行 我殿下之出閣也 太宗大王妙選令族以求配 永樂戊子之歲 王后將笄 以德以容 乃得來嬪 封敬淑翁主 敬事兩宮 篤承眷愛 宜家之日 正位于內 日慈日儉 致肅雍之美 后之進退 殿下必起立 其見敬禮如此 丁酉秋九月 改封三韓國大夫人 戊戌夏 文武百官上書言 儲宮不德 請擇賢以建世子 太宗大王從之 且奏于太宗文皇帝 冊殿下爲王世子 封王后爲敬嬪 是年秋九月 殿下受太宗內禪 卽位 十二月 封后爲恭妃 歲辛丑秋九月 太宗文皇帝遣使特賜段絹 自是洪熙宣德之間 錦段紗羅之賜累至 歲壬子正月 有司言 中宮有美稱 非古也 五月 改封王妃 后慈良聖善 出於天性 正位中宮之後 益自謙謹 禮接嬪媵 下及宮人 無不撫愛加恩 後宮有進見者 必加慰納 若所寵引者 特贈隆遇 至情無間 所生諸子 皆令養之 後宮亦盡心奉育 過於己出 又委之以事 任之不疑 後宮亦披誠奉順 無敢懈怠 由是嬪媵以下 愛敬如待父母 視庶出之子 皆如所生 御膳進則必躬自省視 務盡誠敬 母儀二十九年之間

有儆戒之助 無宴安之私 一不爲親戚求恩 又絕不與外事 雖宮中日用纖細事 必上聞 無敢擅爲 壺儀克正 化流于外 教誨多男 必以義方 乃有麟趾螽斯之慶 蓋天生聖人 必作賢匹 以成至治 周之太姒 播詠風雅 焜耀千古 今我殿下 既以至德至治 追踵文王 而王后又有如是之德之行 允爲天作之合 而文王后妃 不獨專美於前矣 正統丙寅三月初十日 王后感疾 殿下日夜臨視 東宮以下侍側 親奉湯藥 凡醫療禱祀 無所不用其極 是月二十四日辛卯 薨于別宮 春秋五十二 內而宮妾 外而大小臣僚 以至僕隸 莫不痛哭 天胡厚是懿德 獨不壽考而至於斯歟 嗚呼痛哉 殿下悲其早失良佐 不勝哀悼 以白衣素膳 終三十日 降冊諡曰昭憲王后 治英陵于獻陵之西崗 同宮異室 安厝于東室 禮也 王后誕八男二女 元子曰[文宗御諱]冊封王世子 次曰[世祖御諱]封首陽大君 次曰瑢 封安平大君 次曰璆 封臨瀛大君 次曰璵 封廣平大君 先二年卒 次曰瑜 封錦城大君 次曰琳 封平原大君 先一年卒 次曰琰 封永興大君 女長貞昭公主 早卒 次貞懿公主 下嫁光德大夫安孟聃 王世子嬪權氏 贈議政府左議政專之女 生元孫及平昌郡主而早卒 司則楊氏生一女 宮人張氏生一男 鄭氏生一男 皆幼 首陽娶中樞院使尹璠之女 生一男二女 男曰崇封桃原君 女皆幼 安平娶贈議政府左議政鄭淵之女 生二男一女 長曰友直 封宜春君 餘皆幼 臨瀛娶贈議政府右議政崔承寧之女 生三男一女 長曰澍 封烏山君 餘皆幼 廣平娶中軍護軍申自守之女 生一男 幼 錦城娶贈議政府左議政崔士康之女 平原娶贈議政府左議政洪利用之女 無子 永興娶司宰副正宋復元之女 貞懿公主生四男二女 皆幼

李承召,《三灘集》卷 14,墓誌 世宗莊憲大王遷陵誌石文

恭惟我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太宗恭定大王第三子也 元敬王

后閔氏 以大明洪武三十年丁丑四月初十日壬辰 誕于漢陽邸 自幼聰明絕倫 兩宮奇愛之 長封忠寧大君 性好學 雖在疾病 猶不釋卷 世子禔多失德 永樂十六年戊戌夏 群臣請廢立 太宗以王有潛德 且奏于太宗文皇帝 冊爲世子 秋八月 太宗倦勤 禪位于王 遣使請命 明年己亥春正月 帝遣使錫命爲王 繼遣使賜宴 又賜太宗宴 敕曰 王能簡賢命德 俾宗祀有托 不唯王一家之慶 且爲王一國之人慶也 歲庚子 元敬王后不豫 避忌于外第 王步行扶輦 至有露宿之時 及薨 哀毀踰禮 是年 設集賢殿 博選儒雅 置二十員以備顧問 壬寅夏五月 太宗薨 致喪三年 宣德元年丙午 宣宗皇帝賜綵幣書籍 自是寵賚頻繁 史不絕書 丁未秋 始置宗學 悉令宗室子弟受學 其諸子未就外傅者 亦教以義方 嫡庶之間 禮嚴恩篤 人無間言 戊申冬 制朝會樂 始於大會 不用女樂 我國歲貢金銀 然非土宜 常患不給 乃遣親弟表請朝議難之 帝曰 朝鮮王必不欺 豈可強人所無哉 午免貢 婆猪江野人數犯邊 癸丑四月 命將討之 斥地置慶興等鎮 自麗季 咸吉道沿邊之地 爲野人所據 至是盡復舊疆 甲子 對馬一歧島倭入寇上國 又侵軼我濟州之境 王使人諭島主 主承命 執送賊倭六十二人 於是械獻京師 帝賜綵幣嘉獎 夫以倭奴之頑悍 屈於折札 野人之桀驁 燬於偏師 非恩信素孚而威靈遠讐 則何以得此哉 初世子禔避謗在外二十年 召還京 群臣切諫皆不納 事二兄友諸弟 極其敬愛 以至九族之親 亦皆敦睦 王英睿冠古 輔以聖學 自卽位以來 宵旰求治 禮樂刑政 制度文爲凡先世所未遑者 皆舉而力行 酌古今文質之中 修五禮儀注 述祖宗功德之盛 作定大業等樂 創制訓民正音 以二十八字 盡通天下言語 文字紐切之妙 人所叵測 損益累朝憲章 以成經濟六典 規模宏遠 條貫詳密 可爲萬世法程 尤洞曉天文律曆 修七政算內外篇 作諸儀象 所以授人時也 取資治通鑑諸家註釋 讎校纂輯 名曰訓義 又撰三綱行實 治平要覽等諸書 所以隆文教厚人倫也 哀矜庶獄 則有恤

刑之教 慮民淫僻 則作戒酒之書 虛懷受諫 尊賢禮士 終王之世 大臣無有遭刑戮者 尤重親民之職 朝臣未經守令者 不敢陞授顯秩 三十年間 吏稱其職 民安其業 朝廷清明 四方晏如 號爲東方堯舜云 妃昭憲王后沈氏 青松世家 皇曾祖諱龍 高麗贈門下侍中 青華府院君 祖諱德符 相高麗恭愍王 再爲門下侍中 逮我恭靖王朝 爲議政府左政丞 封青城伯 皇考諱溫 某官 皇妣安氏 領敦寧府事諡昭懿公天保之女 封三韓國大夫人 以洪武乙亥九月己未 生王后于楊州私第 少有聰慧貞淑之德 永樂戊子歲 后將笄 以選嬪于王 封敬淑翁主 敬事兩宮 篤承眷愛 后之進退 王必起立 其見敬禮如此 丁酉秋九月 改封三韓國大夫人 王之封世子也 進封敬嬪 及即位 封恭妃 壬子正月 有司言中宮有美稱非古也 改封王妃 后正位中宮之後 益自謙謹 禮接嬪媵 甚得歡心 後宮有進御者 必加慰納 所生諸子 養之宮中 盡心撫育 同於己出 御膳進則必躬自省視 宮中之事 無敢專制 大小皆稟於上 亦未嘗爲親戚子弟求官與婚 儉以律身 慈以逮下 雞鳴進戒 述宣陰教 配德並明 母儀一國 於戲 世宗有文王之聖 王后石有大妣之賢 故以能致關雎之化 螽斯之慶 本支百世 祚流無極 正統十一年丙寅春三月二十四日辛卯 以疾薨于外第 春秋五十二 王悼失良佐 以白衣素膳終三十日 夏六月 降冊諡昭憲王后 越五年庚午春二月十七日壬辰 王亦以疾薨于別宮 春秋五十四 在位三十三年 文宗率群臣上諡曰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廟號世宗 又表請易名 帝遣使致祭 賜諡莊憲 初 合葬于獻陵之西岡 以今上殿下即位之元年己丑春三月初六日庚寅 移葬于呂興府治之北城山南向之原 實成化五年也 后誕八男二女 長文宗恭順大王 景泰三年壬申五月十四日薨 次世祖惠莊大王 成化四年九月初八日薨 次瑢 歲癸酉 謀不軌賜死 次璆 臨瀛大君 先遷陵二月卒 次瓊 廣平大君 次瑜 亦謀不軌賜死 次琳 平原大君 與瓊皆先卒 次琰 永膺大君 先遷陵二年卒 女長未笄而卒 贈貞

昭公主 次貞懿公主 下嫁延昌尉安孟明 慎嬪金氏生六男 長璿 桂陽君 次玨 義昌君 次琛 密城君 次璉 翼峴君 次璋 寧海君 次璫 潭陽君 遷陵之年 唯密城在 餘皆先卒 惠嬪楊氏生三男 長이(玉+於) 次玠 壽春君 早卒 次璫 與이(玉+於)以瑒黨貶死于外 淑婉李氏生一女 貞安翁主 適儀賓沈安義 尙寢宋氏生一女 貞顯翁主 適鈴川尉尹師路 宮人姜氏生一男璵 亦以瑒黨貶死于外 文宗顯德王后權氏 贈議政府左議政專之女 誕一男一女 男卽魯山君 女敬惠公主 下嫁鄭悰 司則楊氏生一女 敬淑翁主 適儀賓姜子順 世祖慈聖王妣尹氏 贈議政府左議政璠之女 誕二男一女 男長懿敬世子 早卒 次卽今上殿下 女懿淑公主 下嫁儀賓鄭顯祖 某官朴氏生二男 長曙 德原君 次晟 昌原君 瑒娶贈左議政鄭淵之女 生二男 長友直 次友諒 皆連坐死 臨瀛娶右議政崔承寧之女 生五男二女 男長澍 烏山君 次浚 龜城君 次淳 定陽君 次淨 八溪君 次澄 懼城君 女長中牟縣主 適兵曹參判居昌君慎承善 次清河縣主 適司禦正安友騫 側室生四男六女 男長涵 英陽副正 次潏 丹溪副正 次濯 輪山副正 次沃 玉川副正 女皆幼 廣平娶某官申自守之女 生一男 溥 永順君 瑜娶贈左議政崔士康之女 生一男 平原娶贈左議政洪利用之女 無子 永膺娶某官宋福元之女 生一女 側室生一男一女 皆幼 璵娶密山君朴仲孫之女 無子 側室生一男 桂陽娶左議政韓確之女 生七男三女 男長澧 寧原君 次灑 江陽君 次湜 富林都正 餘幼 女長適某官安繼宋 餘幼 側室生一男一女 男幼 女適某官鄭從善 義昌娶某官金脩之女 生一男二女 男灑 蛇山君 女長適參奉辛禹鼎 次幼 이(玉+於)娶戶曹正郎權格之女 無子 密城娶軍器副正閔承寧之女 生四男二女 男長誠 雲山君 次諱 春城君 次상(言+賞) 遂安都正 次誦 石陽都正 女長適某官某 次幼 壽春娶全州府尹鄭自濟之女 生一女 適某官沈順老 翼峴娶某官趙鐵山之女 生一男一女 男漬 槐山君 女幼 璫娶朴彭年之女 寧海娶某官

申允童之女 生一男一女 皆幼 貞懿公主生四男二女 男長安如獺 僉知事
次溫泉 副正 次桑雞 典籤 次貧世 參判 貞顯翁主生二男 長尹礪 僉知事
次磷 護軍 貞安翁主生一男一女 男幼 女適某官崔孟思

영릉(寧陵)

1. 연혁

능 주 : 효종(孝宗)과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

위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지정번호 : 사적 제1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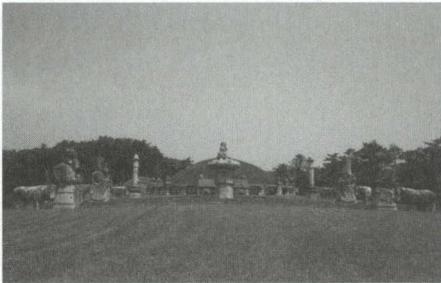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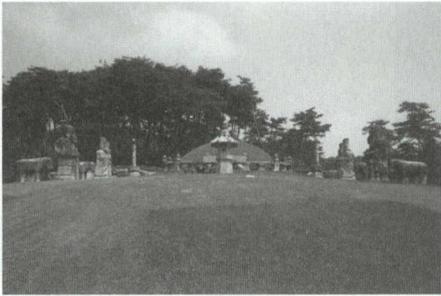
봉릉연대 : 1659년(현종 1)

전릉연대 : 1673년(현종 14)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남양주시 도농삼거리에 이르면 춘천으로 가는 46번 국도와 양평으로 가는 6번 국도의 갈림길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6번 국도를 타고 한강변을 따라 양평까지 달려가면 여주군으로 갈 수 있는 37번 국도와 만나게 된다. 다시 37번 국도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 달려 나가면 여주군 초입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2007년 8월 개통된 세종대교에 올라타



영릉 봉분 근경. 효종릉(위), 인선왕후릉(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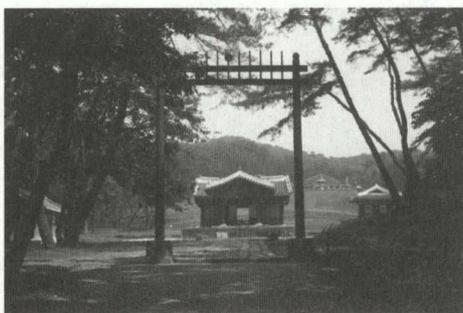
서 남한강을 건너면 바로 영·녕릉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

영릉은 조선 제17대 효종(1619~1659)과 인선왕후 장씨(1618~1674)가 모셔진 쌍릉이다. 효종릉 역시 능역과 푸른 소나무들이 주변에 울창하여 그윽함을 풍기지만 세종릉에 비하면 찾는 이가 적어 사방이 사뭇 조용하고 호젓하다. 능을 감싸며 유창하게 흘러내려온 묘내수는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를 빠져 나와 참도 가운데 금천교가 놓인 것이 주변의 경관과 어울려 이채롭고 절묘

하다.

영릉(寧陵)은 원래는 경기도 양주군(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건원릉 서쪽에 봉안하고 익릉(翼陵)이라 하였으나, 현종 14년(1673)에 현 위치로 옮겨왔고, 1674년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왕릉 앞에 왕비릉을 쌍릉 형식으로 조성하였다.

영능 입구에 들어가면 숲속 나무사이로 남향으로 지은 재실로 이어지는 곧은 길이 나오면서 사방이 조용하다. 재실은 관리사무소로 쓰이는 다른 왕릉의 경우와 달리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다. 재실 앞 숲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잔디가 깔려 있고 홍살문까지의 길도 잘 정리되어 있다. 잘 흐르도록 돌로 만든 수로를 타고 묘내수가 능을 감싸며, 유장하게 흘러 내려와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 참도 중간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금천교가 특이하게 홍살



영릉 원경

문과 정자각 사이 참도 가운데에 있게 된 것은 이곳의 산과 계곡이 자아내는 산수의 조화가 절묘하여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정자각 뒤의 두 봉분을 자세히 바라보면 정자각 가까이 바로 우측에 보이는 왕비릉은 곡장이 없고 그 뒤 왕릉에는 곡장이 있다. 쌍릉이면

서도 서로 좌우로 이웃한 다른 능과 달리 한 언덕위에 앞뒤로 엇비스듬하게 위치를 달리하고 있다.

영릉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내력이 있다. 원래 효종의 능은 건원릉 서쪽 산줄기(운릉자리)에 병풍석을 갖춘 왕릉으로 조영되었다. 그 후 15년 뒤인 1673년(현종14)에 석물에 틈이 생겨 빗물이 스며들 염려가 있다 하여 천릉 계획을 짜고 여주 영릉곁에 천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릉을 열고 보니 깨끗하여 의론이 분분했고 이것이 당론으로까지 번져 시끄럽게 되어 전일 영릉도감의 책임자들이 면직되었다. 현재의 자리로 천장한 다음해 왕비 인선왕후의 능이 동원에 택정되어, 왕릉 앞에 비릉을 써서 현재와 같이 앞뒤로 나란히 쌍릉을 이루게 되었다 한다.

영릉이 자좌 오향(정북에서 정남방향)의 언덕에 앞뒤로 놓여 쌍릉을 이룬 것은 풍수지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릉을 좌우로 나란히 놓을 경우 생기가 왕성한 정형을 비켜야 하기 때문에 양릉 모두 정형에 두고자 한 데서 연유한다. 효종릉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멀리 왕비릉의 뒷모습과 그 너머 정자각의 뒷모습이 오른쪽에 보인다. 그리고 보면 이 왕과 왕비릉이 있는 언덕은 유난히 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왕과 왕비릉 중간을 인공적인 공

사로 이은 것이 아니면서 길게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뻗어 있는 지형이다.



영릉 봉분 원경



영릉 장명등

이런 곳에는 보통 복상이라는 개념으로 부부의 묘와 조상의 묘를 복상하여 차례로 배치했다. 영릉은 이러한 복상의 개념으로 왕을 위로 모시고 왕비를 아래로 모셨던 것이다. 이 위치가 바뀌면 이를 도장이라 하여 아주 좋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역적이 나면 삼족을 멸한 후 그 조상의 묘를 그같이 옮겼다고 한다. 효종의 능에만 3면의 곡장이 있어 쌍릉임을 나타내고 있을뿐 두 능의 상설제도는 같다.

상석을 받치고 있는 고석에 새겨진 귀면에 검고 푸른 이끼가 드리워져 있



영릉 무인석



영릉 문인석

다. 사악함을 내쫓는다는 뜻으로 새겨넣은 귀면은 험상궂은 얼굴과 검고 푸른색의 이끼가 어울려 더욱 무시무시하게 보인다. 십이지신상을 새긴 병풍석이 세조의 광릉 이후 없어졌다가 한동안 부활하여 쓰였는데 여기에 와서 다시 폐지되어 없다. 그래서 다시 난간석을 받치고 있는 동자석주에 글씨로 새겨 바위 위에 표시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광중에는 석실을 쓰지 않고 회격으로 하여 그 바닥에 처음으로 지회를 사용하여 조선능제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각 능의 봉분 앞에는 망주석 1쌍, 문, 무인석 각 1쌍, 석양과 석호 각 2쌍, 석마 2쌍, 능 아래는 수라청, 망료위, 표석등이 배치되어 있다.

재실(齋室)은 제관(祭官)의 휴식, 제수(祭需) 장만, 제기(祭器) 보관 등의 제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능의 부속건물이다.

영릉재실(寧陵齋室)은 1659년 경기도 양주군(현 경기도 구리시)에 익릉 조성 시 능의 인근에 건립되었으나, 1673년 영릉을 천릉하면서 현 위치로 이 건하였다.

건물들은 전반적으로 외벌대 장대석기단, 방형초석, 각주, 민도리 흙처마 집으로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세부수법에 있어서는 짜임새 있게 건립되었고, 안향청, 제기고, 재방, 전사청, 행랑채(대문 포함), 우물 등의 시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유기적으로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경내의 재향과 관계있는 향나무와 느티나무, 회양목(천연기념물 제 495호) 등의 고목과도 함께 어울려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선 왕릉의 재실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이후 대부분 멸실되어 그 일부만 존치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영릉 재실은 조선시대 왕릉 재실의 기본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다.

3. 능주 소개

효종은 조선 제17대왕으로 이름은 호(溟), 자는 정연(靜淵), 호는 죽오(竹梧)이다. 인조의 둘째아들로 어머니는 인열왕후(仁烈王后)이며, 비는 우의정 장유(張維)의 딸 인선왕후(仁宣王后)이다.

1619년 5월 22일 서울 경행방(慶幸坊) 향교동(鄕校洞)에서 태어났고, 1631년 12세에 장씨와 혼인하였으며, 1626년(인조 4) 봉림대군(鳳林大君)에 봉하여졌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의 명으로 아우 인평대군(麟坪大君)과 함께 비빈·종실 및 남녀 양반 등을 이끌고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이듬해 강화가 성립되자, 형 소현세자(昭顯世子) 및 척화신(斥和臣) 등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 청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형과 같이 지내면서 형을 적극 보호하였다.

청나라가 산해관(山海關)을 공격할 때 세자의 동행을 강요하자 이를 극력 반대하고 자기를 대신 가게 해달라고 고집하여 동행을 막았으며, 그뒤 서역(西域) 등을 공격할 때 세자와 동행하여 그를 보호하였다.

청나라에서 많은 고생을 겪다가 8년 만인 1645년 2월에 소현세자가 먼저 돌아왔고, 그는 그대로 청나라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해 4월 세자가 갑자기 죽자 5월에 돌아와서 9월 27일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1649년 인조가 죽자 창덕궁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였다.

효종은 오랫동안 청나라에 머무르면서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서쪽으로는 몽고, 남쪽으로는 산해관, 금주위 송산보(錦州衛松山堡)까지 나아가 명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고, 동쪽으로는 철령위(鐵嶺衛)·개원위(開元衛) 등으로 끌려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청나라에 원한을

품은 데다가 조정의 배척(排淸) 분위기와 함께 북벌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와 연결된 김자점(金自點) 등의 친청파(親淸派)를 파직시키고 김상헌(金尙憲)·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 대청(對淸) 강경파를 중용하여 은밀히 북벌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김자점 일파와 반역적 역관배(譯官輩)인 정명수(鄭命壽)·이형장(李馨長) 등이 청나라와 은밀히 연결되어 있어 이들의 밀고로 청나라에 알려졌다. 그 결과 즉위초에는 왜정(倭情)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남방지역에만 소극적인 군비를 펼 뿐 적극적인 군사계획을 펼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하여 강경책을 펴던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多爾袞)이 죽자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태도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1651년(효종 2) 12월 이른바 조귀인(趙貴人:인조의 후궁)의 옥사를 계기로 김자점 등의 친청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고, 청나라에 있던 역관배들도 실세(失勢)함으로써 이듬해부터 이완(李浣)·유혁연(柳赫然)·원두표(元斗杓) 등의 무장을 중용하여 북벌을 위한 군비확충을 본격화하였다. 즉, 1652년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을 대폭 개편 강화하고, 금군(禁軍)을 기병화하는 동시에 1655년에는 모든 금군을 내삼청(內三廳)에 통합하고 600여 명의 군액을 1,000명으로 증액하여 왕권강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남한산성을 근거지로 하는 수어청을 재강화하여 서울 외곽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중앙군인 어영군을 2만, 훈련도감군을 1만으로 증액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한편 1654년 3월에는 지방군의 핵심인 속오군(東伍軍)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조 때 설치되었다가 유명무실화된 영장제도(營將制度)를 강화하는 동시에 1656년에는 남방지대 속오군에 보인(保人)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서울 외곽의 방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원두표를 강화도, 이후원(李厚源)을 안흥, 이시방(李時昉)을 남한산성, 홍명하(洪命夏)를 자연도(紫燕島: 경기도 부천시)로 보내어 성지(城池)를 수보하고 군량을 저장하여 강화도 일대의 수비를 강화하였다. 나선정벌 이후에는 남방은 물론 북방지대에도 나선정벌을 핑계로 산성 등을 수선하는 등 군비의 확충을 적극화하였다.

또한 표류해온 네덜란드인 하멜(Hamel, H.) 등을 훈련도감에 수용하여 조총·화포 등의 신무기를 개량, 수보하고 이에 필요한 화약을 얻기 위하여 염조(焰硝)생산에 극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단히 직접 관무재(觀武才) 등에 참가하여 군사훈련 강화에 노력하였다.

1655년 8월에는 능마아청을 설치하여 무장들로 하여금 강습권과(講習勸菓)하도록 하였으며, 이듬해 정월에는 금군의 군복을 협수단의(夾袖短衣)로 바꾸어 행동을 편리하게 하는 등 집념 어린 군비확충에 노력하였으나 재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때로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효종의 군비확충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국세가 이미 확고하여져 북벌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다만, 군비확충의 성과는 두 차례에 걸친 나선정벌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효종은 두 차례에 걸친 외침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경제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육(金堉)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1652년에는 충청도, 1657년에는 전라도 연해안 각 고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전세(田稅)를 1결(結)당 4두(斗)로 고정화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리고 군비확충에 필요한 동철(銅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진(行錢)의 유통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김육의 강력한 주장으로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 유통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한편 문화면에 있어서도 1653년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법(曆法)을 개정하여 태음력의 옛법에 태양력의 원리를 결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1일간의 시간을 계산하여 제작한 시헌력(時憲曆)을 사용하게 하였다.

1654년 《인조실록》을, 이듬해 《국조보감(國朝寶鑑)》을 편찬 간행하였으며, 공주목사 신속이 엮은 《농가집성(農家集成)》을 간행하여 농업생산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656년에는 전후에 흐트러진 윤리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혜왕후(昭惠王后)가 편찬한 《내훈(內訓)》과 김정국(金正國)이 쓴 《경민편(警民編)》을 간행하였다. 이듬해에는 《선조실록》을 다시 《선조수정실록》으로 개편 간행하였다.

효종은 평생을 북벌에 집념하여 군비확충에 전념한 군주였으나 국제정세가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부족하여 때로는 군비보다도 현실적인 경제재건을 주장하는 조신(朝臣)들과 뜻이 맞지 않는 괴리현상이 일어나 북벌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659년 5월 4일 41세를 일기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죽었다. 선문장무신성현인대왕(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의 존호(尊號)가 올려지고, 묘호(廟號)를 효종이라 하였다. 그해 10월 29일 능호를 영릉(寧陵)이라 하고, 경기도 양주의 건원릉(健元陵) 서쪽에 장사하였으나 뒤에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로 옮겼다.

인선왕후(仁宣王后, 효숙대비)는 조선 17대 왕인 효종의 비로 현종의 어머니이다. 덕수장씨(德水張氏)로 아버지는 우의정 유(維)이며, 어머니는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딸이다.

1630년(인조 8) 봉림대군(鳳林大君)의 부인으로 간택되었다. 병자호란 뒤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이 심양(瀋陽)에 인질로 갈 때 같이 가 8년간 머물렀다. 처음에 풍안부부인(豊安府夫人)으로 책봉되었다가, 1645년 봉림대군이 세자가 되자 세자빈으로 되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다. 1662년(현종 2) 효숙(孝肅)의 존호를 받았다. 그녀가 죽은 뒤 시어머니인 인조비 조대비(趙大妃)의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예송(禮訟)이 일어나, 기년복(基年服)을 주장하는 송시열(宋時烈)과 대공복(大功服)을 주장하는 윤휴(尹鑄) 간의 대립으로 당쟁이 크게 격화되었다. 많은 한글편지를 남겼으며 특히 5명의 공주에게 보낸 궁체로 씌어진 「언간(諺簡)」이 유명하다. 휘호는 경렬명헌(敬烈明獻)이다.

4. 영릉표석음기

朝鮮國

孝宗大王寧陵

仁宣王后祔下

己亥五月四日甲子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薨其年十月二十九日丙辰葬于楊州健元陵右近岡癸丑十月七日癸卯移葬于驪州英陵東弘濟洞子坐午向之岡越明年甲寅二月二十四日戊午仁宣王后張氏薨以其年六月四日戊戌祔葬在下

5. 영릉지

《孝宗實錄》附錄 孝宗大王寧陵誌文

嗚呼 我大行大王 以聰明睿智之聖 有傾否濟屯之志 臨御十年 克勤克恤 未嘗一日或怠 海隅倉生 方且岐踵延頸 以望功成治定之日 乃以己亥四月二十二日辛亥 有疾不豫 猶愍稼穡之病 露立禱雨 越五月初四日甲子 禮陟于昌德宮之正 寢壽四十一 嗚呼 天乎 眞所謂創創業未半 中道崩殂者 嗚呼 天乎 我殿下攀號莫及 與小大臣 考古諡法 謹上尊號曰 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 廟號孝宗 群臣相與言曰 諡者行之跡 號者功之表 今其庶矣乎 將以十月二十九日丙辰 葬于寧陵 實健元陵之西麓也 我殿下 以臣時烈 自始侍講于初潛 暨末年復侍帷幄 遂以幽宮之誌命臣 臣辭謝不敢不獲命 則遂泣血拜手稽首而獻文曰 嗚呼 天之迫於氣數屈伸 而生大亂 亦生大聖人 以擬其時 將降大任於是人也 亦必窮厄其身 以增益之 故王誕降之夕 彩氣呈瑞 既生九歲 而遭丁卯之難 十七歲而母大妃薨 哭泣悲哀 庭中不忍聞 十八歲而遭丙子之難 入于江華 十九歲而丁丑正月 得朝仁祖於南漢之城下 仍質乎瀋陽 既而西至于蒙古界 南至于山海關 又南至于錦州衛松山堡 見諸將敗降 又東至于鐵嶺衛開元衛 又東北至如奚部 鑿玄水丈餘 而飲其水 二十六歲 而居北八年 始得東歸 未數月 旋入燕山 見京邑灰燼 二十七歲乙酉 自燕山歸國 前後二十餘年之間 天之憂戚玉成者 靡所不至 遂由次適 而升儲位 由撫監 而履至尊 王心知天意之有在 不敢自暇逸 惟修德立政 日不暇給 其修德曰 學以明其心 行以踐其實也 故在東宮 書無逸豳雅及古昔箴戒之語以自警 嘗問宮僚 漢之文武孰勝 皆曰文帝勝 王曰 武帝不忘平城之憂 武帝勝 及卽位 日三御經筵 嘗曰 予氣質多偏 惟學可以變化 然靜而常敬 默而常信 此最要法 又曰 緊切工夫

無如敬以養心 如是則本源澄澈 人慾退聽矣 然亦須義以方外 然後動靜相資 體用兼該也 敬義之說 雖始於孔子 而舜禹所謂精一者 已是此理 精一之說 雖始於舜禹 而前此聖人 亦必以是相傳矣 故名其閣曰養心 齋曰敬義 又曰 克己須從性偏處下功 予性多在於怒 怒時處事 每不中理 近得一術 事有不可必 待中夜怒弛而處之 頗覺其寡過矣 又曰 慾之潛隱者 甚可畏 予雖自謂不復喜酒 然程子大賢 猶復有喜獵之心 心其可少忽哉 且心術隱微處 最可深察 予每有及民之事 不無使民德我之意 是知無所爲而爲者 眞聖學之要也 此可見王用功之精密也 又曰 禹之勤勞 甚於百戰創業者 然禹絕無私天下之心 此所以爲聖人也 此實深造默契之言 非懸度揣模之可及也 蓋王英睿絕倫 甫成童 講尙書 如璣衡律呂之法 曉解如破竹 至如菴三百 雖老師宿儒 猶病其難通 王一見無復礙滯 自是 於精微肯綮處 不甚思索 而灑然通透 克至于高明之域 實非後世人主所可跂望也 又嘗曰 講學 所以明理 明理 將以躬行 躬行之實 孝悌爲先 堯舜之道 孝悌而已 故承事兩殿 順敬備至 自幼侍側 器物必整理 時新之物 不先入口 兩殿每日 吾家孝子 其在燕藩 思慕不自克 興言必涕泣 及仁祖大漸 割指進血 及喪哭泣之哀 顏色之戚 感動臣隣 至窆 將詣陵臨訣 群臣以毀疾請止 教曰 昨於郊外 瞻望靈輿 歸來殿宇 聞寂更無憑依 今見此啓 予懷之悲 實與天地無窮也 魂殿小祭祀 非疾甚 未嘗不躬行 嘗幸山陵 降陟進止 哭不暫止 喪畢群臣請依例陳賀 固辭不受 嘗講蓼莪詩 悽咽泣下曰 詩本性情 信矣 況予先志未伸 含痛窮天者乎 筵臣以爲 新免於喪 是適然矣 其後語及 未嘗不然 茲可謂終身而慕者歟 繼大妃善病 王奉養調娛 翼翼油油 以所處狹隘 親自視址 以營別殿 曰萬壽曰春暉 嘗上壽其中 禮肅而愛至 物儉而儀備 既罷 仍問國中高年 各賜米肉 以廣推及之意 繼大妃嘗曰 王之誠孝 將無以報矣 與昭顯蒙難于北 孔懷之情益至 或不無蓋底之方圓 而

能以誠意諧之 清人欲以昭顯從戰 王輒請自行 辭氣懇款 清人感而止 昭顯諸子 仁祖朝 坐其母 皆廢置海島 王憐而赦回 後封其子嫁其女而撫愛 與諸公主 絕無纖毫厚薄 謂群臣曰 吾與昭顯 崎嶇異域 冒犯霜雪 左右提挈 未嘗暫離 東還未幾 人事奄忽 每常悼念 今若視其子 異於己子 逝者豈無憾恨 常以春秋 謁諸陵 當幸孝陵 昭顯墓在其傍 王曰 予疇昔之夢 昭顯見予 歡若平生 今又夢子執手悵然 覺來悲懷難狀 遂於拜陵訖 省其墓而歸 愛母弟潛甚至 幼時宿必同衾 後常源源接見 日未夕 不許出 有以危語持潛者 王怒杖殺其人 潛疾 就見之 及聞其革 以約徑出 則已無及矣 王悲痛忒甚 至斂又却桃茷以臨之 庶弟澂瀟 其母與姊 舊已稔惡 與金自點謀逆 有司請斷恩處以法 王以事係繼大妃 只賜其母死 而子女放置于外 不絕衣食 後王念其逢霧露以死 命還之 澂瀟入宮見王 王喜而泣語 潛沒 王益悼其終鮮 泣諭群臣 悉復其官爵 王之尊屬 備 仁祖弟也 玘瑛 宣廟子也 王愛敬之 沒身不衰 其於疏屬 恩禮周至 無有怨恨不滿者 我殿下稍大 王雖甚愛之 然教之必以法度 故絕無奇袂雜進 以害其德性 此王修德之實 自身而行於家者也 其立政曰 任人以誠 而保民以仁也 故始宅宗 首起金 尙憲金集 集山林宿德 尙憲身任大義 嘗拘執在北 姦人以此媒孽之 禍將不測 王應機善處 事以得解 後亦眷向不少怠 巖穴之士 無不禮致 嘗問 宋神宗歎無人材 而不用二程何也 筵臣對曰 程子嘗極陳治道 神宗曰 此堯舜之事 朕何敢當 神宗其志如此 雖欲用之得乎 又嘗論朱子 筵臣曰 朱子生南渡時 志在經濟 蓋欲人君正心克己 養民養兵之外 子然無一事以間之也 王曰 宋有程朱而不能行 今不能推行其道 則豈不復爲後人所恨也 又曰 君臣固難相信 而任將尤難 韓信曰 漢王言聽計用 雖死不易 人主苟信用臣子 則臣下寧有欲去者乎 又曰 每念宋高有宗[高宗有]李韓岳 而不能行 蹙處江南 不能進一步 未嘗不悵然太息也 王神采嚴毅 人不敢仰視

而每對群臣 言笑樂易 開心見誠 洞徹無間 故人人咸得以自盡 其言直則賞之 其人可用則獎拔之 不拘資格 雖已死者 褒寵不已 忠賢子孫 特加收錄 儒先祠廟 悉賜扁額 有司恤罄 請削朝廩 不許曰 忠信重祿 所以勸士也 無寧盡損御供也 愛養生民 常如不及 歲惡免入發積 未嘗少靳 數遣御史 廉問其疾苦 歸則輒親見問 有白其死飢之狀 王惻然泣下曰 此不忍聞 食其下咽 卽減常膳 疾疫民死 命齋內藥以救之 守令必引見 敷納以言 因勉勵之 或於恒調擢授右職曰 嘗爲某邑 嘉爾治績 天旱必親禱 禱輒應不移晷 凡民之惡 欲罷置如飢渴 雖力討軍實 而尤弱者免 雖愛惜官爵 而耆艾者與 尤慎祥刑 自點獄起 悉焚其所親交書 每寒暑甚時 必問獄囚 疏出其細犯 嘗使近臣閱囚 有無衣者 命所司備給曰 罪有常服 凍殺則不可 湖民被誣告 逮繫者甚衆 王一見爰辭 卽釋之 亦給衣糧 皆叩頭流涕而去 讀呂刑哀敬之文 喟然興歎 面諭刑官 使之盡心 有失入者 輒坐之不以恕 以故好生之德 浹于民心 然有罪者 一斷於法 不自爲輕重 雖外挾內訌者 衆所疑懼 亦殄戮之 無所撓 增損學制 以造俊升 而尙慮闕民無法 命梓三綱行實警民等篇 以頒中外 蓋帝王爲治之道 大本旣立矣 方將修舉廢墜 振起綱維 以挽回世道 以克酬聖念之所欲爲者 而卒未能就 嗚呼 且以文王之德 百年而崩 猶未洽於天下 況形勢之難易 又萬萬於殷周之際者 而天之降年 又未及文王之中身哉 嗚呼 痛哉 昇遐之日 京都士庶 填咽哭踊 深山窮谷 莫不悲號曰 吾其奈何 嗚呼 茲所謂未施哀 而民哀者歟 王諱湊 字靜淵 仁祖子也 母妃韓氏 西平府院君浚謙之女 神皇末年 天下始發亂 本朝方且淪喪 天命已歸仁祖 而王以萬曆己未五月二十二日生焉 昭顯世子 王母兄也 昭顯卒 有子 仁祖以王有聖德 故立之 王妃 故新豐府院君張維女 誕一男 卽我殿下 五公主 洪得箕沈益顯鄭齊賢鄭載崙元夢麟 其駙馬也 一翁主幼 諸公主下嫁 事舅姑 甚執婦道 此見王化之一端也 嗚呼

自三代以後 治不本於學 故道術爲天下裂 惟王遜志來修 以御家邦 故駭
駭乎王道之純 三代以下 惟功利是尙 故多愧於天理民彝 惟王正誼明道
無所計較 故聖志克定 卓然如青天白日 罔日不克 罔日民寡 惟厥心厥事
是既是慎 常有日暮道遠之歎 又歎曰 古語一二臣同 不爲無助 今則小大
敷同 惟目前是圖 誰與我共此者 故時有荊南幄對之賜 其沈機妙算 有非
人人所可窺測者 尤好宋儒書 有以心學說進者 卽授筵臣訂正曰 得無或悖
於程朱否 蓋秉天理明聖學正王法伸大義 以繼春秋大一統之業 以承聖考道
心之傳 而以不負皇天生聖之意者 豈非建天地而不悖 質鬼神而無疑者乎
世無知德者 固不能象成歌詩 疏越薦誠 使人愀然如復見乎盛德之容 然以
經傳所載 模像而蠡管之 其乃武乃文 祖乎堯 孝弟盡道 宗乎舜 儉勤惡旨
酒 法乎禹 不邇聲色改過不吝 效乎湯 視民如傷卑服卽功 師乎文王 發揚
蹈厲 恐不逮事 象乎武王 自漢以下 則恢廓大度 高祖如之 重厚直溫 光
武同之 信義彰著 昭烈近之 弧矢鐵柱 寤寐豪英 而齋志不伸 惜乎宋孝以
之 此則時勢然也 王在燕 忽見五彩盈室 而神龜出 見昔禹抑洪水 而天乃
以是錫禹 使王志業成就 則將不在禹下矣 奈何天示之兆 而不畀之壽 使
天下萬世 不得卒受其賜歟 孰謂之亂之可治 變之可正 而陽不可終無歟
匪風下泉之終於變風 其意安在 豈所謂天不勝氣數屈伸而然者歟 雖然建
皇極之正 明人理之晦 其正大宏遠之規 日星乎中天 以遺我聖子 以基億
萬年無疆之業 則其與地平天成 萬世永賴者 未嘗不同也 嗚呼 龜真有知
也歟 噫 此可以少慰臣子無窮之痛也歟 臣猥蒙知獎 不卽禱蟻 忍以文字
紀事纂言 乾坤之大 日月之明 固難繪畫 而且恐遭辭之際 華而不實 則罪
有深於華元樂舉 故寧質而不敢溢 以對揚疇昔遠佞之聖德云 [崇政大夫議
政府左參贊臣宋時烈製進]

宋時烈,《宋子大全》卷 181,陵誌 寧陵誌文

遷陵時附識

寧陵下還之翌年庚子 陵上石儀罅隙生焉 我殿下議將改封 旋慮驚動玄宮 只命以石灰逐旋填補 今年癸丑四月 因一宗室上疏 亟命公卿以下以及三司諸臣同往奉審焉 其罅隙細大 皆如宗室言 殿下驚懼駭隕 徧謫前後任事諸臣 因慮雨水或從罅隙中滲漏 遂議遷奉 卜吉于驪州弘濟洞 以九月二十九日乙未 啓欝宮 十月初四日 廠衛臨壙 初七日癸卯 依禮克襄 去我世宗大王英陵八百九十七步而近 蓋弘濟洞自古稱聖人葬地 今其果協矣 夫幽誌册文 皆因舊貫 陵制一遵英陵儀式 并昭慈儉之德 其萬世永寧 垂佑無疆之慶 可期而無疑矣 嗚呼 我聖考盛德嘉謨 倘能備記 以經聖人之手 則必在清廟生民之列矣 何渠參伍於費秦二誓之間哉 嗚呼 今去上賓之時十有五年矣 臣民之思慕悲痛 如一日不怠 當初啓 自殯殿以至陵所 遠邇含生 彌山滿野 至誠哀號 今聞緬禮之舉 又相與涕洟而言曰 我聖主復臨灤水之朝 嗚呼 是孰使之然哉 天佑聖德 我殿下適誕神孫名某 丁未正月二十二日 册封爲世子 太係神人之望 噫其休矣 聖考嘗論張 范二人曰 良之背鴻溝約 其忠憤急於復讎 念何暇及他 義理便在其中矣 增也每爲項羽圖帝業 將置義帝於何地 及其義帝弑 而猶從羽不去 是不識天無二日之義也 其罪大矣 而蘇軾顧捨此不論 乃咎其味幾被害 其學謬矣 嗚呼 此亦超越百王之見 而亦豈無微意於其間耶 此前誌所逸 故今并追識焉 一公主錫號淑安 下嫁益平尉洪得箕 生子致祥 二公主錫號淑明 下嫁青平尉沈益顯 生子廷輔 廷協 三公主錫號淑徽 下嫁寅平尉鄭齊賢 生子台一 四公主錫號淑靜 下嫁東平尉鄭載崙 生子仁先及一女 五公主錫號淑敬 下嫁興平尉元夢麟 生一女 淑寧翁主降爲錦平尉朴弼成妻 生一女 我殿下生明善 明惠 明安三公主 長次夭 後十四年癸丑十月日 判中樞府事臣宋時烈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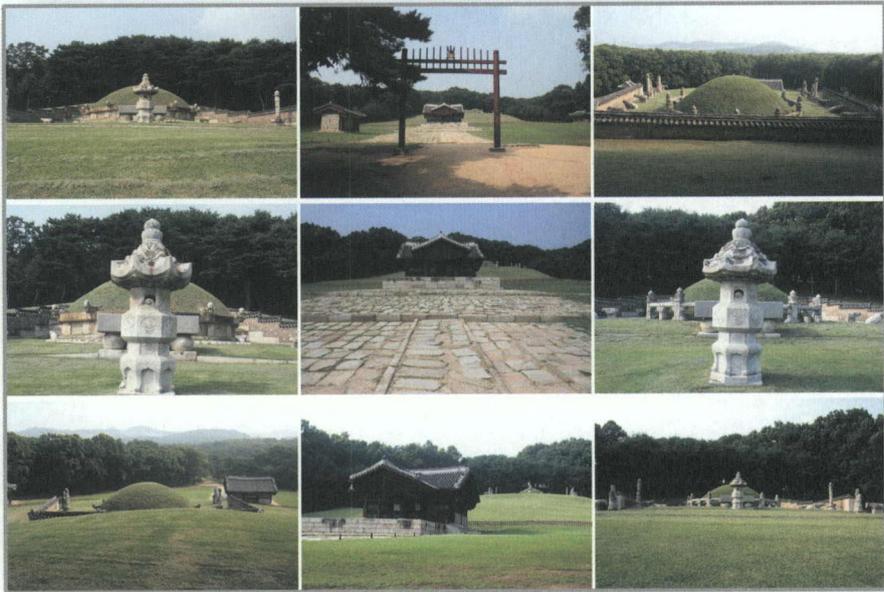
《顯宗實錄》卷 22, 顯宗 15年 6月 4日 丁酉 仁宣王后誌文

申時 葬仁宣王后於寧陵 行判中樞府事金壽恒 撰進誌文 其文曰 仁宣王后禮陟之五月 治方中既完 我殿下乃降所述行錄 命臣壽恒 撰進玄宮之誌 臣拜手稽首 受而讀之曰 於乎 至哉 我聖后之德 而聖上之紀之也 誠無間然矣 既不獲辭 則敢就行錄 纂次而敘之 謹按王后 姓張氏 其先日順龍 本中國人 當元時 以宣武將軍鎮邊總管 從公主東來 仍仕高麗 累官門下贊成事 食采德水縣 子孫仍籍焉 入我朝 有日翮 漢城府判尹 四傳而至 玉 能文章 早擢大魁 承文院判校 贈吏曹參判 於后 爲五代祖 高祖諱任重 掌隸院司議 曾祖諱逸 木川縣監 祖諱雲翼 刑曹判書 亦以魁科早顯 後贈補祚功臣領議政德水府院君 考諱維 右議政新豐府院君 諡文忠公 受知仁祖 策靖社勳 文章德行有大名于世 配曰 永嘉府夫人金氏安東望族 忠臣右議政文忠公諱尙容之女 一時稱門第者 推甲乙焉 以萬曆戊午十二月庚辰 誕后 生而端淑 不妄游戲 六歲 祖母朴夫人 取而鞠之 嘗隨往季父水原府衙 時於暗中 思父母嚔泣 祖母覺而問 輒拭淚對以他辭 不使貽其憂 祖母奇愛之 后有兄 苦面瘡 或言兒矢最効 金夫人陽爲不欲汚手 以弑后意 后即手自傳之 不見厭惡色 文忠公大悅而異之 蓋其至誠自幼然也 崇禎庚午 孝廟爲鳳林大君 仁祖親簡其配 見后周旋應對有則 甚賢之 后遂膺選 辛未秋 嘉禮成 封豐安府夫人 既入闕 夙夜夔慄 孝敬無違 最爲仁烈王后所眷愛 過四年 出閣居邸 秉家綜理 井井然 梱內事無纖鉅 不敢自專 仁烈王后有姊 嫠而窮居 后調球 曲有恩意 丙子冬寇難入江都 明年正月 敵兵渡江 宮中鼎沸無不號哭蒼黃 后獨從容整暇 言動不少爽 人皆服其有守 及孝廟與昭顯世子 質于瀋陽 后亦隨行 羈危險阻 首尾九年 其所處事 不失常度 兩宮之間 無間言 乙酉始返國 昭顯世子卒 孝廟受仁祖命 陟儲位 册后爲世子嬪 后益自抑畏 飭躬以禮 事上以誠 得一異味 必

先獻于仁祖 己丑 仁祖賓天 孝廟踐祚 后既正位中壺 陰教益彰 聽內職率
嬪御 和而穆 嚴而惠 庶幾樛木葛覃之化 然小心翼翼 持以柔巽 常曰 婦
而自聖 鮮不害于家國 牝鷄之戒 可不慎歟 己亥 孝廟疾惟幾 后籲天請代
逮至不諱 哭擗踰禮 然於送終之事 自大[湖]蚤湔以往 雖微必親 不委之替
御 務盡誠信而後已 未卒哭 只齧糜粥 我殿下泣請進食 則曰 自絕其命
則誠過矣 強飯以救活 亦予所不忍也 我殿下嗣位 尊后爲王大妃 辛丑 進
徽號曰孝肅 當冊寶之上也 后不欲親臨 我殿下至誠固請 [后]亦體孝廟平
昔之教 泣而許之 行禮之日 哀動左右 至賀禮 則竟不受焉 每遇災異 憂
懼形于色 諭我殿下曰 予心猶然 爾可忽諸 所以誠誨者甚切至 后自己丑
大感過毀致疾 遂因以沈痼 嘗屢幸湖西之溫陽 試湯泉小效 至甲寅二月
疾忽亟 以二十四日戊午 薨于慶德宮會祥殿 春秋五十有七 有司議諡 諡
法 施仁服義曰仁 聖善周聞曰宣 遂上尊諡曰仁宣 又加上徽號曰敬烈明獻
先是 孝廟山陵有故 至癸丑冬 遷于驪州之弘濟洞子坐午向之岡 至是 遵
后治命 以六月初四日 祔葬于其下 以其同原而近也 因稱以寧陵 后資性
貞靜 又襲訓法門 動容出辭 舉可爲儀範 雖疾病燕私之際 必以禮自將 對
子姓亦未嘗有惰慢之色 於私親 雖甚周睦 絕不許曲徑干恩 內外截如也
孝廟於麟坪大君 友愛篤至 后亦待其夫人 一出於誠 事慈懿大妃數十年
慈孝無間 宮闈之內 和氣融洽 自后有疾 不得以時進見 每歎曰 有生何爲
大漸之夕 神氣已昏霧 忽聞大妃來臨 卽驚悟 促進坐席 諄諄告訣 柔聲和
色 雍容若平日 猶以不飾而見 爲恨 遷陵之日 輦車多憂 輦士顛殞 后聞
之 愀然曰 先王在天之靈 必不安於此矣 及女侍自山陵還 聞知傷人無多
始有和豫色 今茲[六]引之舍輿而舟 蓋亦體后之遺意云 孝廟之昇遐也 雖
窮閭僻壤 如喪考妣 愈久而不忘 及后之薨 民之奔走號慕 亦如之 嗚呼
豈無所由而然哉 后誕有一男五女 我殿下聘領敦寧府事金佑明女爲妃 五

公主 長曰淑安公主 下嫁益平尉洪得箕 次曰淑明公主 下嫁青平尉沈益顯
次曰淑徽公主 下嫁寅平尉鄭齊賢 次曰淑靜公主 下嫁東平尉鄭載崙 次曰
淑敬公主 下嫁興平尉元夢麟 淑靜 淑敬 竝先卒 我殿下誕生一男三女 世
子聘兵曹判書金萬基女爲嬪 女曰明善公主明惠公主明安公主 明善明惠皆
未字而夭 洪得箕一男 沈益顯二男 鄭齊賢一男 鄭載崙一男 元夢麟一女
洪惟我寧考 盛德宏規 駕軼百王 其惕厲奮發 以昭大義於天下者 惟后內
贊之功 是資我聖上仁心仁聞 浹人肌髓 使域內肖翹之類 咸宥於雨露之澤
者 亦惟后慈覆之化 是承博厚之德 尊配坤元 是宜受祿無疆 永享岡陵之
壽 而昊天不弔 遐算遽促 嗚呼痛哉 惟其徽音懿烈之昭在耳目者 託之琬
琰 藏于幽隧 將與塗莘之盛 竝垂於萬禩 猗歟 休哉

화성시



응릉(隆陵)

1. 연혁

능 주 : 장헌세자(사도세자) 장조와 혜경궁 홍씨(헌경의황후)

위 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6호

봉릉연대 : 1762년(영조 38)

전릉연대 : 1789년(정조 13)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 오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병점역 앞 사거리에서 한신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84번 국지를 타고 약 10분 정도 달리면 용건릉 입구에 도착한다. 용건릉은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 쉬우며, 부근에 원찰인 용주사가 함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과 함께 둘러보



용릉 원경

는 관광 코스가 되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온다.

용건릉은 조선 21대 영조의 둘째 아들이며 사도세자로 잘 알려진 정조의 아버지 장헌세자(추존 황제 장조)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헌경의황후)가 잠들어 있는 용릉(隆陵), 정조와

그의 비 효의왕후 김씨가 잠들어 있는 건릉(健陵)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사도세자는 영조와 영빈 이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이복형 효장세자가 요절하자 그 뒤를 이어 3세의 어린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1749년(영조 25) 부왕을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하던 중 노론세력과 대립하면서 주변의 무고 등으로 부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1762년(영조 38) 5월 세자의 비행을 고한 나경언의 고변 사건으로 영조의 명에 의해 뒤주 속에 갇힌 뒤 생을 마감하였다.

세자의 사후 뒤늦게 이를 후회하게 된 영조는 그에게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고 경기도 양주의 배봉산에 장례하고 묘호를 수은묘(垂恩墓)라고 하였다.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는 곧 자신의 생부인 사도세자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추존하고 수은묘를 영우원(永祐園)으로 격상하였으며, 경모궁(景慕宮)이라는 사당을 세워 생



용릉의 참도와 정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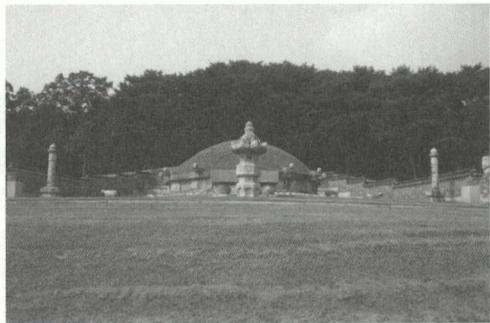
뒤에서 바라본 용릉 전경

부에 대한 효심을 표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1789년(정조 13) 띠가 말라죽고 청룡이 풀리고 국내와 정자각에 뱀이 포아리를 뜬다는 이유를 내세워 천장을 청하는 박명원(朴明源)의 상소를 시작으로 영우원 천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원소는 일찍이 효종의 능침을 정할 때 윤선도 등이 반룡농주(盤龍弄珠)·대주향공(對珠向空)의 형국을 지닌 최길지(最吉地)라고 평가한 바 있는 수원도호부의 주산(主山) 화산으로 결정되었고, 그해 7월 하순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10월 16일에 천원이 완료되었다.

그 후 1815년(순조 15) 사도세자의 비인 혜경궁 홍씨가 서거하자 함께 현릉원에 안장되었고 1899년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면서 왕릉으로 격상되어 용릉이 되었다. 고종 때 의황제(懿皇帝)로 추존함과 동시에 어머니도 의황후(懿皇后)로 올랐다.

관리사무소를 지나 작은 출입문을 통과하면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 길을 따라 약 5분 정도 걸어가면 용릉에 도착한다. 봄이면 길 양쪽으로 붉은 진달래가 만개하여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듯이 내려가



용릉 봉분 전경



용릉 장명등

솔숲을 지나면 금천교가 나오
고 그 너머로 홍살문과 정자각,
그리고 봉분이 보인다.

홍살문을 지나면 정자각까
지 신도(神道)와 어도(御道)가
이어져 있다. 왼편의 신도는 홍
살문을 통과한 영혼이 걸어 들
어오는 길이고 신도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진 오른편의 어도는 임금이나 세자가 다니는 길이다. 그런데 참
도가 다른 능과는 다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을 폭의 참도는 물론이고 그 아
랫단 왼편에도 정자각까지 넓게 박석을 깔아놓고 있다. 참도 왼쪽에는 수복
방이 위치하고 있고, 신도와 어도를 따라 걸어가면 정자각과 만나게 된다.
정자각은 왕릉이나 원의 앞에 있는 제전으로 건물 형태가 ‘장정 정(丁)’자 모
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면 3칸과
측면 1-2칸 정도에 맞배지붕이며 능제를 지내는 민묘의 상석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비각 안의 비는 두 개인데, 하나는 ‘조선국사도장헌세자현릉원(朝鮮國思
悼莊獻世子顯隆園)’이라고 쓰여져 있고 다른 하나는 ‘대한장조의황제용릉
헌경의황후부좌(大韓莊祖懿皇帝隆陵獻敬懿皇后附左)’라고 쓰여져 있다.
정자각을 지나 계좌정향(癸坐丁向: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의 능 위로 올라
가면 능의 특이한 모습이 펼쳐진다.

정자각 뒤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를 모신 봉분과 각종 석물들이 조성
되어 있다. 정조는 부친에 대한 사모의 정을 표하기 위해 당시의 문화적 역
량을 총동원하여 가능한 한 화려하게 꾸미고자 하였다. 난간석은 왕릉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략하였지만 병풍석을 두르고 바깥쪽에 호석(虎石)과 양석(羊石)을 각각 2기씩 배치하였으며 원상 앞에는 고석(鼓石)받침의 혼유석, 망주석 1쌍, 장명등, 문인석 1쌍, 무인석 1쌍, 마석(馬石) 1쌍을 배치하였다. 봉분 밖에는 3면의 곡장을 둘러 봉분을 감싸도록 하였다.

각각의 석물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조와 인열왕후의 능인 장릉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병풍석은 모란과 연화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꽃봉오리 모양의 인석에는 방위를 나타내는 문자를 새겨 넣었다. 장명등은 전기의 팔각장명등과 숙종·영조 연간의 사각장명등의 양식을 합한 새로운 양식으로 조성되었으며 다리에는 구름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문인석과 무인석은 가슴에 파묻혔던 목이 위로 나와 답답하지 않고 신체의 비례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정조시대 석물 조각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세자의 묘임에도 무인석을 세웠고, 문인석이 사각의 복두가 아니라 금관(金冠)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정조는 불행한 삶을 보낸 아버지의 묘소를 같은 격의 어느 원보다도 훌륭히 상설하였다. 이는 정조의 부친에 대한 효심의 발로이며 왕릉 상설로라도 치장하고 싶었던 정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현릉원 조성 당시 정조는 화려한 석물 배치와 함께 주변의 조경과 식수에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서 이장 후 몇 년에 걸쳐 조경 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용릉 주변은 지금도 수목원을 연상시킬 정도의 정연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원행에 나섰던 정조가 현릉원 주변 소나무에 송충이가 번식하여 소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것을 보고 진노하여 송충이를 잡아 씹었다는 이야기는 정조가 얼마만큼 현릉원 주변의 조경에 신경을 썼는가를 잘 보여준다.

아름다운 소나무 숲과 화려한 봉분, 그리고 정조의 효심이 깃들어 있는 용릉은 사시사철 새 옷을 갈아입은 듯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특히 겨울철 노

송 위에 하얀 눈이 쌓인 모습은 용건백설(隆乾白雪)이라고 하여 화성팔경(華城八景) 가운데 제1경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장관이다.

3. 능주 소개

후세인에게는 사도세자로 더 잘 알려진 장조(莊祖)는 1735년(영조 11년) 1월 21일에 창경궁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선, 자는 윤관(允寬)으로, 영조의 둘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영빈 이씨(映嬪李氏)이다. 이복형인 효장세자(孝章世子, 주존황제 진종)가 요절하고 영조가 40세가 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2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고 10세에 영의정(領議政) 홍봉한(洪鳳漢)의 딸과 혼인하여 별궁에 거처했다.

세자는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3세 때 이미 부왕과 대신들 앞에서 효경(孝經)을 외우고, 7세에 동몽선습(童蒙先習)을 떼었다. 글씨를 좋아해서 수시로 문자를 쓰고 시를 지어서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10세에 벌써 정치에 대한 안목이 생겨 집권세력인 노론이 처결한 신임사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1794년 부왕을 대신하여 청정(廳政)에 임하게 되자, 그를 싫어하는 노론들과 이에 동조하는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 문씨(淑儀文氏) 등이 영조에게 무고를 했다.

함부로 궁녀를 죽이고, 여승을 입궁시키며, 한 나라의 서정(庶政)을 맡고 서도 몰래 왕궁을 빠져 나와 평양을 내왕하는 등 난행과 광태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영조가 이를 듣고 수시로 세자를 불러 크게 꾸짖으니 마침내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부자간의 대립관계가 표면화된 것은 영조가 병석

에 있을 때 신하들이 세자에게 약을 부왕에게 권할 것을 종용했으나 거절하므로 영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세자를 보좌하던 소론의 영수 이종성(李宗城)이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때부터라고 한다. 1761년, 세자가 임금 모르게 관서지방을 유람·순행하고 돌아왔다. 그러자 윤재겸(尹在謙) 등이 상소하여 세자의 체통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영조는 세자의 관서순행에 관여한 자들을 모두 파직시켰다. 다음해 5월, 영조의 계비 김씨(정순왕후)의 아버지인 김한구(金漢耆)와 그 일파인 홍계희(洪啓禧), 윤급(尹汲)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羅景彦)이 세자의 실덕(失德)과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려 무고하는 사건이 있고, 문소의가 부자간의 이간책을 쓰자, 격분한 영조는 세자를 불러 자결을 명했다. 영조는 세자가 끝내 자결을 하지 않자 그를 서인으로 폐하고, 세자와 영빈 이씨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뒤주에 가두어 8일 만인 5월 21일에 죽게 했다. 세자의 춘추 28세 때의 일이었다.

영조가 뒤에 세자의 일을 후회했지만, 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적인 사건의 계기가 된 부자간의 불신과 이간은 노·소론의 당쟁에서 비롯되었고, 남인·소론 등이 부왕 영조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세자를 앞세워 보수적인 노론정권의 전복을 도모하다가 실패한 사건이라고 논하는 사가(史家)들도 많다.

사도세자는 정조 즉위년(1776년) 3월에 존호가 장헌(莊獻)이라고 추상되었고, 수은묘도 영우원(永祐園)으로 바뀌었다. 영우원은 1789년(정조 13년)에 현재의 위치로 천장되어 다시 현릉원(顯隆園)으로 원호가 바뀌었다가 1899년(광무 3)에 장조의 묘호(廟號)인 융릉(隆陵)으로 올렸다. 사도세자는 1899년 12월 19일 묘호가 장종에서 장조(莊祖)로 다시 바뀌고, 제호(帝號)를 써서 의황제(懿皇帝)로 추존되었다.

영의정 홍봉한의 딸인 혜경궁 홍씨는 1744년(영조 20) 사도세자와 혼인하

여 왕세자빈으로 책봉된 후 노론세력인 친정과 남편인 사도세자의 대립에서 남편을 잃는 비운을 겪고 혜빈(惠嬪)으로 봉해졌다. 정조 즉위 후 혜경궁으로 올려지고 1899년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됨에 따라 경의왕후로 추존되었다. 사도세자의 죽음과 자신의 일생에 대한 자전적 회고록인 《한중록》을 저술하였다.

4. 영무원비

正祖, 《弘齋全書》卷 15, 碑 永祐園碑

思悼莊獻世子 崇禎紀元後一百八年乙卯正月二十一日誕生 初封元子 丙辰 冊封王世子 己巳 受命代理 壬午閏五月二十一日 薨逝 壽二十八 贈諡思悼 七月二十三日 葬于楊州南中梁浦拜峯山甲坐之原 小子嗣服之年丙申八月 追上諡曰莊獻 園曰永祐 宮曰景慕 嬪豐山洪氏 議政府領議政鳳漢之女 有二男二女 長懿昭世孫 次卽小子 清衍郡主 下嫁光恩副尉金斗性 清口郡主 下嫁興恩副尉鄭在和 又有庶男三庶女一

5. 현릉원비

正祖, 《弘齋全書》卷 15, 碑 顯隆園碑

思悼綏德敦慶 弘仁景祉 莊獻世子 崇禎紀元後一百八年乙卯正月二十一日誕生 初封元子 丙辰 冊封王世子 己巳 受命代理 壬午閏五月二十一日薨逝 壽二十八 贈諡思悼 七月二十三日 葬于楊州南中梁浦拜峯山甲坐

之原 小子嗣服之年丙申 追上諡莊獻 園號永祐 癸卯 追上尊號綏德敦慶
甲辰 加上尊號弘仁景祉 己酉十月初七日 遷奉于水原花山癸坐之原 改園
號顯隆

6. 용릉표석음기

大韓

莊祖懿皇帝隆陵

獻敬懿皇后祔左

莊祖思悼綏德敦慶弘仁景祉章倫隆範基命彰休贊元憲誠啓祥顯熙神文桓
武莊獻廣孝懿皇帝表隧之石 正祖宣皇帝所親書也乙卯追上尊號章倫隆範基
命彰休 哲宗乙卯追上尊號贊元憲誠啓祥顯熙 光武三年己亥十月追尊爲王上
諡神文桓武莊獻廣孝 上廟號莊宗 封陵爲隆陵 同年十一月追尊恭上 諡號曰
懿皇帝 廟號曰莊祖 后孝康慈禧貞宣徽穆裕靖仁哲啓聖獻敬懿皇后洪氏開國
三百四十四年乙卯六月十八日誕生 甲子冊封世子嬪 壬午賜號惠嬪 正祖即
位進宮號惠慶 純祖乙亥十二月十五日昇遐 壽八十一 丙子三月三日葬于水
原顯隆園同封而祔左 哲宗乙卯追上尊號裕靖 光武三年己亥十月追尊爲王后
上徽號仁哲啓聖 上諡號獻敬 同年十一月追尊恭上諡號曰懿皇后 今又立石
于原表之次敬書前面與追記庸伸小子之微忱焉 光武四年 月 日

7. 용릉지

正祖, 《弘齋全書》卷 16, 誌 顯隆園誌

顯隆園在水原府之花山癸坐丁向 己酉秋 錦城尉朴明源建言 舊園體制多疵類 請改厝 遂卜于花山 卜云盤龍弄珠之象 卿士從 庶民從 乃移葬于是年冬十月己未 改上園號曰顯隆 嗚呼 小子不肖 抱徹天極地之冤 不死至于今 冥然苟然頑然如土石者 且有待於錫胤而託重 得遂誕報之大願至祝 天乎天乎 人欲天從 小子敢於此取必焉 夫然後小子之生 始可永有辭於天下後世也耶 仍舉狀德之狀 泣血謹識于玄宮 狀曰 諱某字某 肅宗元孝大王之孫 英宗顯孝大王之子 暎嬪李氏所誕也 謹稽行錄曰 自誕前數日有星雲之瑞 及誕 日表照人 聲音如洪鐘 英廟喜甚 謂大臣曰 三宗血脈將絕 今則有歸拜列祖之顏矣 命遵肅廟庚午故事 坤殿取以子之 定號爲元子 卽乙卯正月二十一日也 告廟社 大赦中外 睿質岐嶷 未踰數月 已如二三歲兒 命諸臣入瞻 仍令近侍書誠敬二字 舉而示之 諦視若謹受者 秋行輔養官相見禮 命鈔孝經章句 使左右 日誦習于前 丙辰 立爲世子 以三月十五日 備儀衛 行冊禮于養正閣 筵臣趙顯命曰 邸下克肖孝廟典型 實宗社无疆之休也 英廟命宮官 書文王世子篇于屏以進之 及是 已解字義 見王字 指英廟 見世子字 自指之 又解天地父母等六十有三字 丁巳 始開書筵 講孝經小學鈔解 宮官進讀 仍手拈文王二字以示 宮官請授音讀 聲明亮至數行無錯 又寫五大字 心畫強正典實 宮中嘗以八卦粉糕進 不御曰 形象八卦 其可食乎 尋見宓義圖 命左右揭于前 屢拜而致敬 邃於易學 權輿乎此 秋始行師傅相見禮 讀千字文 至侈字 指所御半臂衣及紫羅珠帽曰 此侈也 卽去之 英廟嘗問紬與綿孰勝 對曰 綿勝 又問服何者 對曰 當服綿 英廟喜而對諸臣言如此 及成長 常御綿衣 昭儉之德 根自天稟 而賊謀

反以爲媒禍之階 此國人之所共知也 一日對夕饌 英廟命呼 卽吐哺應聲而起 左右曰 何遽也 曰 小學曰 食在口則吐之 英廟曰 年纔三歲 能識體認之工矣 戊午 英廟御賓筵 吏曹判書趙顯命進曰 臣待罪賓僚 瞻望東宮 睿質絕異 英僑豪爽 有凌駕千古之象 蒙養之方 宜不激不隨 將來成就 責在殿下 後小朝教曰 豐原此語 有心界之脗合者 所以眷待之 終始靡替也 己未 英廟下備忘記于廟堂 準乙酉舊典 行內禪之舉 教曰 予卽位今十五年 九五之位 視若草芥 幸有元良 已滿五歲 予雖釋負 豈忽元元 宋太宗置朕何地之說 是何心也 命下 廷臣力請乃止 仍命小朝 受賀于時敏堂 蓋因內禪之旋寢也 夏上徽號於東朝 且法服行禮 進退有度 未或失儀 宮中咸嘖嘖 按記注曰 宮官趙重晦疏言 天日之表 一瞻可知 視瞻非常 儼然若成人 此實天縱之聖 請以四五日 一接僚屬 八九日 一引賓客爲式 從之 自是每臨講筵 未過數遍 已成誦 久而無遺 壬戌 行廟見禮 禮罷 上教曰 元良侍傍 問以私廟之行 將在何日 彼八歲 猶欲伸禮後數日 詣私廟展拜 都民仰瞻睿姿 蹈舞歡呼 上曰 世子禮容閑習 儀度無錯 陟降豈不悅豫乎 三月 行入學禮 御儒衣冠 酌獻于文宣王 至明倫堂 就博士席 講小學題辭 環橋而觀者 凡千萬計 嘗講學 講官仰問平日所欲學者 答曰 願學堯舜 外此則不知已 講官退語曰 三代之盛 可復見也 又有以孝悌誠敬仰勉者 卽書四字 付之座右 講官質以誠敬用功之先後 答曰 誠敬如車輪鳥翼 不可分而二之也 宮官請見睿藻 詩中有日出東方明四海之句 宮官賀曰 此詩氣象 同符藝祖日出詩 癸亥三月十七日 行冠禮 以法服朝謁于大朝 退受百官賀 按行錄曰 嘗侍英廟坐 英廟問曰 我朝搢紳 自古有黨論 何以則已乎 對曰 一視竝用則可 英廟大加嘉歎 英廟視事 或至夜分 必整衣端居 候就寢乃寢 每讀書 必竟晷忘倦 英廟常令止之 有疾 英廟若臨視 必進衣起坐 未或以憊色見於外 按宮中記聞曰 甲子正月十一日 行嘉禮 娶領議政豐山

洪公鳳漢之女 粵三日 與嬪宮從上行廟見禮 先是 有星孛之異 至嘉禮時 星忽不見 上書古鏡重磨方篇題 命宮官進講 上問曰 心何比於鏡 誠敬何比於磨 對曰 敬爲徹上徹下之工 誠是真實之謂也 誠敬乃治心之方也 賓客李宗城仍敷衍以對 言甚懇摯 自是感其誠意 際遇甚隆重也 冬上違豫 及瘳 行進宴禮 既而臨講 講官仰問曰 臨筵讀書 與參宴聽樂 孰好 答曰 讀書 所以窮理 聽樂 爲是侍歡 讀書固好 聽樂 亦自爲好也 乙丑 上製常訓 命進讀 教曰 字音能續 敷對有據 寔賴陟降之陰鷲 爲僚屬者 亦善導也 春行畫講 講小學北齊太子救高允事 謂宮官曰 太子非矣 以子而欺父 烏乎可也 高允之直書 史體也 非可死之罪 以此意救之 太武如不從涕泣而諫亦可 丙寅春 陪上觀種稻于後苑 上問曰 稼穡奚謂艱難 對曰 盛暑水熱如湯 而農人襁褓耕鋤 艱難可想也 上命以卽景賦詩 教曰 首句卽憫旱望雨 落句卽勉予修德 予年已踰五旬 而得元良加勉之語 可媿亦可嘉也 仍行夜對 教曰 今日見東宮詩 意思宏遠 大雨行一句 有大風歌氣象 予心自此有所恃也 嘗與宮官論辛壬事 洞辨義理源頭 仍下愛日箴以示意 上在靜攝 召接藥院諸臣 副提調洪象漢曰 昨見世子達夜侍側 夫孝者 百行之源而冲年能如此 實宗社之福也 上親製勸學歌以諭之 仍教曰 元良近又勤讀 雖於夜深之後 起坐讀書 予無寐時 聞元良讀書聲 氣益勝矣 丁卯 宮中有痘患 命避寓于慶德宮 每以久曠三殿起居爲憂 筵臣有以白上者 上教曰 冲年愛親之心可尙 卽日駕臨 及還宮 又以躬詣承候屢請 上特命還次 嘗親自種麥 上問曰 物之可種者多 不種奇花異木而必種麥 其義何取 對曰 以其爲穀而欲觀其成實也 上大喜 五月 上御歡慶殿 命賓客春桂坊入侍 開書筵 講讀論難 竟夕而罷 上大悅 賞賜宮僚有差 冬又移寓于慶德宮 至翌年戊辰春 令宮官請承候 上諭止之 每於問安宮官之行 輒附奏以爲常 宮官李彝章等 進故事 答以自古聖王孰非大孝 而鄒聖之獨稱大舜者 常人

之情 易隨物遷 而舜則以天下不移也 故稱之 飯糗而茹草 被袵衣鼓琴 舜何與焉 又曰 伊尹以斯道覺斯民 道也者 卽所謂堯舜之道 堯舜覺之先者也 伊尹之覺 後於堯舜 而斯民又晚覺者 覺有大小淺深 覺則一也 道亦一也 又曰 百里奚不諫虞公 而孟子稱其智 然張南軒謂使在當諫之地而不諫 是爲不忠 人臣事君之義 當以南軒之說爲正 又曰 人君有好賢之誠 則舉一君子 足以勝衆小人 孟子以薛居州孤立無助爲憂 君子孤立 則可憂者豈獨一居州也 又曰 氣 體之充也 善養則爲堯舜 不善養則反爲害事 如漢武是已 此非氣之罪也 要在養之如何耳 嘗臨筵教羣臣曰 賢邪進退 係國興喪 左右諸大夫國人 固言之矣 黜之陟之 更有何疑 而猶且難慎者 苟不明辨於好惡與公私之分 則輿誦衆謗 亦不可泥 看此孟子所以取匡章於衆謗之中 譏仲子於輿誦之際 也須以吾之權度 裁制取捨 然後庶可免於撓奪 不如是則太阿將倒柄矣 御書筵講孟子 論攸不爲臣之義 教曰 周德至矣 天下咸服 當是時 不爲周臣者 是皆稔惡害民者也 爲天吏 安得不征之 後儒必以助紂離商等語 爲武王分疏 其見局矣 又曰 善者 天下之公理 誠心樂取 則天下之善 莫非已有 此大舜至公無私之心也 然知不明則無以知人之善 故爲學必先致知 又曰 心者 一身之主宰 不可斯須放失 此心一放 甚事可做 又曰 利莫大於仁義 此易所謂美利利天下也 孟子言仁義而不言利 政謂美利之利也 又曰 孔子則曰微管仲 吾被髮左衽 孟子則曰 管仲曾西之所不爲 隨時立言 各有所當 孔孟豈有異哉 非聖人 孰能知時之義乎 是年夏 和平翁主卒 先是誕彌之初 上教暎嬪曰 不重則不威 當此定號之初 宜大其規模 以尊一時瞻聆 過百日 乃命小朝移御于景廟舊御之殿 殿名曰儲承也 女官寺人 皆以逮事景廟 而迸出於甲辰庚戌者 悉充之 蓋滌染汙安反側 以導迎和氣也 此輩乃反 陰幸其得志 居無何 鼓吻抵掌 戒其徒曰 暎嬪雖誕世子 卽私親也 有君臣之義 勿使之頻見 見必用嬪御謁正

殿之禮 以拘制於禮數儀節之間 於是 暎嬪不能頻造 或日一至 或間日間數日至 或月一再至 計既成 又忌大朝之頻臨 列入宮巷中 覘上動靜 日以蜚語眩惑之 小朝以此狀細陳於上 上始悔之 然女官寺人 卽景廟朝舊物 不忍寘之辟 而聖意自不得若常也 時翁主泣陳曰 事關景廟 其嫌甚小 三宗血脈 所係甚大 豈可以一時銷刻 不念宗社之重乎 以是兩宮之間 和氣漸至 索然 直欲痛哭而溢然也 又切諫於母嬪 是時上在集福軒 與儲承殿距甚遠 及丁卯 命移次于景春殿 蓋取其便近而從翁主請也 至是翁主忽有疾不起 小朝痛悼 盡傷 深究處難之方 外廷之知此事者 莫不爲東宮危之 豐原府院君趙顯命 靈城君朴文秀 右賓客李宗城等 發臨機衛護之議 己巳春 命小朝代理庶政 按記注曰 正月二十二日夜四更 上下一封書于政院 蓋內禪事也 承旨請對 繳還曰 俄過德成閣 東宮已明燭而坐 其驚隕罔措 尤當如何 已而邸下進至大朝戶外 俯伏涕泣 領議政金在魯等 入侍 拆見封書 卽首舉內禪 次及代理也 諸臣迭請還寢 上命邸下來前者再 邸下進伏於御座前 嗚咽垂涕請懇 上曰 自有古例 須勿驚也 右議政趙顯命曰 辛丑聽政命下之時 殿下垂涕臨筵 何不以殿下其日之心 度東宮今日之心乎 上始感悟 止命代理 顯命曰 第一件幸蒙還收 而雖第二件 臣等豈敢奉承 上不聽 邸下猶俯伏涕泣 上屢命始退 粵六日 御時敏堂 行代理朝參下令旨 俾小大臣工 精白寅協 一心輔國 又令諸道懷保民生 又令京外婚葬過時者 自官顧卹 右參贊元景夏白上曰 臣等見初筵令旨 孰不相傳鼓舞而思所以精白寅協之道耶 戶曹判書朴文秀曰 代理命下之時 東宮涕泣滿面 處義中節 外人聞之 皆以爲慶幸矣 後數日 因上教中元良勝子之教 文秀力陳調護之說 又數日 請以用人恤民等事 願賜面教 使小朝遵法 後又言 帝王家家法 厥載雖美事 不可一向太嚴矣 上曰 我朝家法 本自如此 體昔年小心 予亦至于今日 按宮中記聞曰 御書筵講詩經 教宮官曰 陟岵不言己之思親 只

言親之念己 孝子以父母之心爲心 其說如此 而自己思親之情 自在其中 講尚書 教曰 堯舜大聖也 其臣猶以無怠無荒戒之 人臣告君之道 宜主責難 況不及堯舜 而臣無讜直 其可爲國乎 又曰 殷三宗周文王 所其無逸而享國長久 帝舜逸於任人 而歷年最多 雖若異 然無逸而後乃逸 人君之道 捨無逸奚以 庚午八月 懿昭世孫誕生 告廟頒赦 按行錄曰 九月英廟幸溫泉 其翌日雨 召留都大臣領議政趙顯命等 教曰 大駕纔發 昨日雨甚 聖候不瑕有損 用是燥鬱 召見卿等矣 仍命勞留都軍兵 自是至還宮 幾近二旬 夜必整衣達朝 以久違天顏 日夕慕戀 輒不禁涕下 宮中甚訝之 問其故 教曰 自余生來 初當遠離 思親之心 不得不然 及回鑾 英廟聞此教曰 元良事 每出意想之表 按記注曰 辛未秋 以諸道癘疫之熾盛 下令旨 飭方伯別加周卹 壬申春 以大朝上號 庭請屢日 上詣皇壇 有請命之舉 諸臣泣請還內 不許 小朝便服 步出至上前 泣懇不已 命只行慈殿進號 上還內 小朝詣明政殿月臺 伏閣至明發 三月 懿昭世孫薨逝 小朝克自寬抑 上慰三殿 九月 誕元孫 教曰 今日之欣慶 勝於庚午 冬睿候有紅疹之漸 藥院直宿 引接必備儀 諸臣請於臥內召接 教以著一重衣何難 而臥接臣隣乎 時廷議歧貳 英廟却藥 小朝謂承旨曰 余代理四年 不能仰體聖教 至有却藥之舉 余何心服藥乎 十一月 上因事激惱 下傳禪之教 旋即還寢 十二月 幸松峴宮 又命傳禪 過數日 御宣化門 復宣前命 小朝俯伏涕泣 稽首請命 額血沾于席 領議政李宗城曰 東宮泣涕滂沱 誠孝極至 殿下既許反汗 不可食言 如此深冬 觸寒甚悶 況重病之餘乎 命宗城等 中途付處 翌日 駕臨毓祥宮 小朝將執裾力請 上旋駕 臨彰義宮 閉閣 是夜 小朝步至宮門外 上疏 不答 待命至曉 排闥入請還寢 不從 仍促命還宮 及翌夜 又詣宮門外 俯伏 上不許 退至敦化門外 席藁待命 如是者屢日 上將臨北漢行宮 小朝涕泣謂承宣曰 余之死生 固不足恤 當此嚴沍 聖體觸冒 中心如割 不能

按住 卽令藥院之臣 更進蔘茶於上 過數日 上始還宮 寢前命 按宮中記聞
曰 時有和協翁主之喪 慟惜不自勝 教曰 吾於此姊 別有顧念之情 而今忽
奄逝 此慟何比 無以躬臨洩哀 卽余至恨 癸酉正月 領議政李宗城 遭彈出
城 至三月 始還鄉里 時文女有娠 中外違違 宗城力主衛護之論 前年冬
幾爲異志者所擠 至是下石益急 宗城退至城外 終不還鄉 至三月初 文女
生女 始曰 吾家世受國恩 不可以時人之欲逐 動吾素志 雖拳踢交加 惟知
有進無退 一死而已 今幸聞翁主生 自此吾可決歸 遂上書告退 還鄉里 小
朝曰 百人雖言文女之事 余則曰決無是 設有之 以大朝日月之明 豈患其
不賜嚴斥乎 但羣下依違之計 賴有相臣 得以鎮安云 冬 承命行三覆 決死
囚 全活者多 自後 每歲如之 夜召宮官講論至漏分 賜貢橘于宮官 橘盡盤
中有詩 宮僚卽席拚和 甲戌 令諸道還穀 行哀益之政 俾除小民切苦之瘼
禁大同軍布代錢防納 太學儒生 以齋隸 持御賜銀杯而夜出 爲邏卒所捕
遂捲食堂 教曰 大朝重儒之德意何如 敢因微事起鬧 致令聖廟無人可乎
重推本兵長 仍命勸入齋儒 嘗講論語 至三月不違章 講官奏曰 此孔子言
也 顏子名 不當諱也 教曰 孔子雖言之 讀之者 後人也 遂諱而不名 下令
旨 在外書筵官 并敦敕赴召 講四勿箴 教曰 夫私慾之發 有大小淺深 而
略於小失 馴致大過 則其害均耳 昭烈曰 勿以惡小而爲之 此誠至言 上聞
之 嘉賞曰 講學之力 誠不淺 講小學教曰 藹然四端 隨感而見 既見則擴
充之 未見時 亦須有主敬工夫 未發時主敬 然後可以發皆中節 敬之旨 先
要分明識得 又曰 孫思邈云心欲小而膽欲大 武王師渡孟津 政是發揚奮勵
氣象 而猶曰夙夜祇懼 聖人之心小膽大 此亦可見 冬以日寒 放輕囚 乙亥
逆變 上御帳殿鞫囚 命小朝侍坐 教曰 辛壬疏下六賊及考輝 今始迫施逆
律 自此義理始明 不可不知也 講綱目教曰 卽墨之堅守不下 似是威王時
受賞之大夫 嘗有保障之功 得力於是日矣 又曰 幸臣九人 既讒田單 惟貂

勃訟其冤 齊君宜疑 以有私乎田單 而不但不疑 乃反用之 齊君誠賢矣 又論澠池之會曰 夾谷之會 孔子以禮導君 齊君慚服 不敢有加於魯 果使相如 以禮爭之於初 則必不如是費力也 又曰 漢文帝可謂賢君 而尚黃老制短喪 有賈誼而不能用 終難免後世譏議 但賈誼之疏 徒規規於時政得失 不及本源之病 較諸董子正君心之論 自有差等矣 又曰 唐玄宗謂朝事付宰相 邊事付將帥 朕復何憂 此與古所云勞於求賢 逸於任人者 似不相悖 而玄宗則不能勞於求賢 但知逸於任人 馴致天寶之亂 可不懼哉 且其論韓休蕭嵩時 私語左右者 已不能誠心樂賢 有勉強拂戾之意 此非可繼之道 可知其治之不終矣 又曰 衛嗣君以祖宗土地 易一胥靡 立法則嚴矣 謂之知輕重則未也 又曰 樂毅伐齊 劇辛以孤軍深入難之 然魏略宋地 趙收河間 足以牽制齊師 一舉成功 是故 兵貴審勢 夏甚熱 宮官請改書筵時刻 令曰 早暮稍涼 正宜誦習 且大朝晝講以午時 余何敢憚熱而改時乎 遂不許 書筵官宋明欽以縣官陞辭 特命召對 討論大學誠正之義 從容咨訪 酬酢如響 明欽曰 誠正之說 宋帝之所厭聞 而邸下闢發微奧 亶亶不倦 此可見睿學之實心用工矣 講孟子 教宮官曰 禹驅龍蛇而放之菹 禹何以驅逐龍蛇耶 禹既疏水通道 潞爲沮澤 則水之所歸 龍蛇隨之 自然有驅逐之勢也 故曰 勢而已 聖人審時察幾 無入而不自得者 亦惟曰順其勢 知進退存亡之幾者 時中之聖人也 丙子五月 樂善堂火 按記注曰 下令旨曰 余不肖 濫承代理 已八年 無一事仰體聖意 每貽憂於聖心 至于今日 實羞對臣僚 幸賴我聖上至慈至仁 伏承昨日下午教 感惶交極 不覺涕下 在廷大小臣僚 勿以余不敏 隨事匡救 上聞之 教曰 元良責己之言 豈否德攸致 荷陟降之眷佑 大小臣工 體我元良此意 至誠輔導 按宮中記聞曰 小朝素不近杯酌 宮中大小之所知 而時有相反之說 小朝以聖訓無勉之意下旨 反躬自咎 亦以過飲告于上前 左右以無是而曰有是 反爲不誠答 以至慈至明 自可辨燭其虛實

我何敢以自明之說 發諸口乎 俄而上聞下旨責躬 甚嘉悅 教曰 此等辭說之流行 皆予之過 屢示感悟之意 又下傳教 示聖意於中外 先是火起之翌日 上責羣下曰 近來事 無人告予 朝臣無可恃矣 賊臣金尙魯對曰 小天亦可畏 故不敢矣 次詢承旨 承旨李彝章奏言 世豈有如此道理 殿下將安用如此之臣乎 上曰 是矣 承旨言果是矣 彝章又言 父有過失 子未嘗不諫 故古語曰 父有爭子 子有過失 父未嘗不教責 故傳曰 人樂有賢父兄 父子間有過 諫之責之固也 而聖人所謂父爲子隱 子爲父隱者 諫之責之 而使外人不知其諫其責 是之謂隱 今朝辭教 實有違於聖人一隱字 此何事耶 上遂怡然曰 所達出於至誠 如承旨者 如是憂之 而不逞輩必聞而喜之 彝章猶不悉本事 故所奏止於此 及令旨先降 傳教繼下 宮中與外廷聞者 相賀曰 感悟由於聖慈 所以感悟 亦由於睿孝云 又下令旨 求直言極諫 飭中外勸農賑乏 咨訪民隱 冬患痘候 及平復 陳賀頒赦 丁丑二月 貞聖王后昇遐 小朝號呼攀擗 皇皇若靡泊 自殯至鞠 五時之奠 七時之哭 罔不躬將而致其誠 曉夜朝晡 幾不輟聲 戚畹執事者 皆感激讚歎 中外聞之 亦莫不揮涕 上教諸臣曰 予則無所疚懷 而今見元良哀毀之狀 將何以抑遣乎 判府事俞拓基奏曰 向來聖候未寧 入侍崇文堂 竊仰東宮達曙焦熬 或慮有大病患 今若任情哀疚 則傷損必至 惟望聖念之加護也 至三月 仁元王后又昇遐 上哀毀逾節 小朝左右寬譬 情禮咸備 六月 貞聖后鞠啓 至闕門外哭辭 哀動左右 都人士女爭覩容光 掩泣攔前 前驅辟之 令日止之 恐傷人也 至虞返 迎神輦于郊次 哀哭移時 涕流席如雨 教曰 廠衛與余儀仗相隔 無以瞻望 其令分隊而行 親撰幽宮之文以藏之 外臣皆不得知之 自後寢疾甚篤 而力疾行兩魂殿七虞及朔望祭 疾愈篤而哀愈毀 時輔德尹東昇調護周旋之力居多 每教曰 非東昇 曷能導達昭暴乎 按記注曰 戊寅秋 上俯伏魂殿庭口奏 卽不敢聞之教 仍命史官書之 命罷領議政李天輔職 翌朝 都承旨蔡

濟恭等 率諸承旨史官奏言 殿下何爲而有此舉耶 爲臣子者 不特不敢見 亦當不忍見 孰敢搦管移書於記注乎 臣等冒萬死繳還 退伏鈇鉞之誅 仍自袖中奉出口奏謄本 跪置于上前 良久 上曰 言則是矣 予當受之 至是月晦 上御明政殿月臺 小朝席藁時敏堂後庭 領府事李宗城求對言 殿下典學四十年 而今乃處君臣父子之間如此 此臣之所痛心也 上曰 今又責予 予將退歸矣 仍欲起立 大臣奏以領府辭不達意 請令更陳其所懷 宗城曰 臣之言非辭不達意也 人臣之義 在大朝則責難於大朝 在小朝則責難於小朝 今日之事 毋論臣等之心 雖六軍萬民 莫不延頸願死者 爲是吾君之子也 惟其有宗社神人之託 故日夜所冀望 惟願過失之無聞 不幸有過失 亦不欲彰著者 卽天理人情之自然 若言其所以然之由 卽爲是吾君之子也 殿下之於東宮 卽是一體 何可分而二者耶 以一體而分以二視之 此臣之所痛心也 仍以遠佞斥讒之意發端 語未卒而退 濟恭與諸大臣還至時敏堂庭 進對 小朝下責躬求助之教 宗城濟恭 迭陳積誠回天之方 按宮中記聞曰 翌年正月 領府事李宗城卒 臨死語人曰 吾恐死不得其所矣 樂善堂入侍 欲以死自明而不得 明政殿入侍 又欲以死痛陳而徑退 今已矣 生爲負國之人 死爲不瞑之鬼 報聞 上驚悼嗟惜久之 小朝御素帶素膳 至成服日 卹孤賜祭需 終三年 己卯 行世孫册禮 行中宮殿册禮 按行錄曰 小朝事中宮 一如貞聖王后 宮中咸仰誠孝之篤 英廟歎曰 予見元良事內殿 誠無間然 以是內殿 亦備盡慈愛 是年 頒武技新式于訓局 按宮中記聞曰 小朝自幼時 志度已英爽 遊嬉必陳兵威 上試叩其所存 有問 輒條對甚悉 凡坐作進退 緩急虛實之方 皆手畫口授 無或差爽 又喜讀兵家書 奇正變化之妙 無不默識精通 孝廟嘗喜武技 暇日御北苑 輒馳馬試藝 所御青龍刀鐵鑄大椎 尙在儲承殿 武士之有膂力者 莫能運 小朝自十五六歲 已皆舉而用之 又善射御 執矢對鵠 發必中心 臨轡飛鞚 悍馭亦馴 宮中相語曰 豐原筵奏 克肖孝廟之說

果有先見云 至是憂將臣之不閑武技 編成一書 名以武技新式以頒之 蓋戚志所載 武技所傳者 只六技 曰棍棒 曰藤牌 曰狼筈 曰長槍 曰鎗鈚 曰雙手刀 而演習之制 多失其方 就舊書悉訂正之 又以竹長槍旗槍銳刀倭劍交戰月刀挾刀雙劍提督劍本國劍拳法鞭棍凡十二技 刵演爲圖 以示擊刺之勢 彙成全書 付之訓局 使肄習之 嘗教曰 我國偏小 用武無地 然東接倭 北隣胡 西南大洋 卽舊時中原 今雖邊塞無警 宜講苞桑之謨 况孝廟志事 無處可伸 而北囿尺壇 愴我寤歎 噫 兵器雖在 安謐無虞之時 聖人猶且制置以待暴客 况我國地方兼有孝廟志事乎 每誦陶侃日運百甓之語 靜夜宴閒 輒自試之 又教曰 醫者 疑也 人之臟腑心肝 雖難盡知 而摸索推類 亦可理會 醫國之手尙矣 苟能粗解藥性 稍辨脈理 一日醫一人 二日醫二人 漸就鍊熟 自當爲一時名醫 儒者之學 自有疑求無疑 况醫家之以疑決疑者乎 自是凡有指畫 莫不立效 然以其小技 不屑留意也 又教曰 古者衣服之制 各有攸象 今所謂斃衣與圓袂衣 余嘗惡之 斃衣則塞三面而通後幅 其象屬陰 古人云中國屬陽 夷狄屬陰 東國斃衣之制出 而始有北通建州之漸 圓袂衣則前疊二幅 後拖一幅 亦非面南背陰之義也 宴居必御臥龍冠鶴斃衣 而鶴斃傲司馬光深衣之制也 又教曰 我國正服 是團領與貼裏 團領乃王朝會同之服也 貼裏卽黃帝衣裳之度也 至於戰服狹袖 俱是尙古制 而禦戎事之衣也 又教曰 近俗不知備豫之謨 節儉之道 豫則無憂 儉則裕財 今之服著器用 華皖而近奢 捷利而便體者 余未嘗近之 又教曰 宮中人有以自中過失來告余者 輒使告人被告人 相與辨質 若無驗則罪告人 雖或有實 必兩治之 自是告訐者少息 司直朴致遠上書陳勉 優批答之 後因重臣徐志修筵席陳戒 教曰 是誠愛我 前後以睿德言事者 咸被嘉獎之教 嘗以桂坊羅蓼曾於胄筵 多有鯁直之言 後對宮僚 必問其安否 一日 宮官有以時事之憂虞仰問者 大加嚴責曰 此間我兩宮也 宵小之目 政謂此輩 按記注曰 時

掖隸有憑藉下令 橫濫民間者 事覺 卽令出付有司 仍下令旨曰 近來紀綱解弛 此後之無此弊 未可知 更有犯者 法司直爲自斷捕治 庚辰秋 上移御慶熙宮 七月 幸溫泉 八月 還宮 按行錄曰 時小朝久有寢疾 英廟命浴溫泉 駕到江頭 水漲船路不固 至晚始渡 在船上 與宮官李壽鳳等 講君舟民水之說 翌日 至水原府 府治之北 有花山 卽己亥寧陵置標地也 登臨周覽 嘆賞良久 還次山城 閱武技 輦路所過 父老擁遮爭瞻 輒駐駕詢疾苦 命減征徭 一路大悅 有一衛士馬逸 入菽田 蹂且吃 招地方官 厚償田主 亟治衛士 存卹邑中高年 敦召遺逸之士 及到溫泉 逐日開講筵 遵列朝溫幸時召對玉堂官故事也 下絕句一篇 命宮官和之 及月改 行望闕禮當否 詢于宮僚 仍教曰 久離京闕 慕戀難耐 是日遂還駕 將直詣慶熙宮承候 英廟遣知申迎諭于城外曰 病餘驅馳 宜直還調養 竢間來見 相臣進對奏曰 鶴馭一臨 湖中人士始識睿德之度越 父老士庶 莫不讚頌德意 實臣民之幸也是行自出宮至還駕 輒令壽鳳馳還所過地方 慰諭居民 仍察傷稼 又以時值極暑 命藥院劑藥 以救將卒之在道中暍 及還 無一人病者 辛巳 問時措之策于大臣 大臣不能對 遂有西邑之行 蓋欲請命於上 以沮賊謀也 賊臣洪啓禧欲從中搆亂 小朝聞之 促御徑還 時有一承宣白於上 請覽廷臣章疏之上小朝者 事機急迫 小朝躬詣上前 悉告以處變之本意 上始釋然 後小朝臨賓筵教曰 儲君亦君也 名以臣事 包藏奸謀可乎 仍以逆禧之無嚴 荐下厥教 比之江充 自是謀益急 壬午五月 賊人羅景彥伏誅 按記注及宮中記聞曰 景彥投呈一狀于刑曹 狀中 有殿下肘掖之臣 皆懷不忠 變在呼吸之語 刑官自曹坐 袖其狀請對 時逆禧以畿伯 先爲來待 上并命入侍 刑官以狀告 上大驚 問內侍曰 景彥是掖隸尙彥之族乎 內侍對以卽尙彥之兄 而曾屬掖隸者 上問逆禧曰 宮城扈衛可乎 逆禧進前奏曰 國家有變 扈衛宮城 戊申 亦已行之 上卽命閉城門 發兵把守宮門 仍御太僕 鞫景彥 景彥

自衣縫中 又出一封書 長過五寸 圍盈一握 因上之 上覽已 示左相 左相纔見數行 失聲號泣曰 臣請先死 東宮若聞此 當作何心 臣請往慰之 上曰 唯 判義禁韓翼誓等言 景彥譱出凶言構誣 上逼東宮 其罪當戮 屢請嚴鞠正法 上始命加刑 司書任城奮然謂翼誓曰 凶言豈景彥所自爲耶 翼誓又請亟覈指嗾 上怒 罷翼誓職 大司諫李心源 救翼誓 又罷職 翼誓等既黜 景彥竟以誣陷東宮服 於是諸臣同聲請置極律 同義禁李彝章曰 誣人猶當爲逆 况誣貳君乎 凶言既皆歸虛 罪人今已輸款 不可與此賊俱生 進前力言 責教荐下 而言愈截直不少沮 時小朝步往胥命于闕門外 上命入來 遂進伏于庭 涕淚沾袍 羣下莫敢仰視 夜將曉 鄭鞏良始請對奏曰 罪人既以四字自服罪 不可一日容貸 上乃命景彥正刑 翌朝 小朝始還宮 泣謂諸臣曰 賴有止慈 得免駭機 閏五月二十一日 薨逝 賜諡思悼 賜宮墓號曰垂恩 以七月二十三日 葬于楊州拜峯山甲坐之原 葬之日 上臨壙 以御筆題主 翌月 荐棘趙載浩于北邊 其姪維鎮株連繫獄 臺臣請置法 上教曰 瞻彼銅龍 予意若何 在諸臣 宜思不忍言之心 命亟停 仍罪言者 維鎮累被拷掠 抗言無二辭 遠配道死 按記注曰 閏五月十三日 檢閱尹塾下庭叩額 血流被面 潰出衛外 招醫官持藥以進 時諸大臣在閣外 不得入 塾叱衛士 挺身躍出 執大臣手偕入 塾責申晚等曰 當此危急之時 大臣不能碎首天陛 以死力爭 將焉用大臣爲也 賊臣具善復洪麟漢等 各逞凶圖 塾竟坐謫黑山島 而上猶稱此人可愛可愛 分司翰林林德躋隨伏庭下 不離左右 上命逐出 猶據地不起 衛士曳而黜之 德躋叱曰 吾手秉史筆 此手可斷 不可曳也 命竄旌義 尋命塾與德躋放宥 後德躋甄用 宮官任城權正忱等 拚死不出 分注書李光鉉 亦挺身牽醫官以入 都承旨李彝章叩頭涕泣 抵死爭難 上怒命付軍門梟首 既出 又排闥以入 伏地痛哭 命書傳教 泣曰 臣當就死 不敢聞命 趨而出 俟命于金吾門外 命牌招 終不進 後命差墓所敦匠之任 宋瑩中等 以臺

諫搆他語彈之 上嚴斥之 及卒 卽命錄用其子 有國亂思良相之教 分司提調韓光肇排闥直入 免冠呼泣 上命罷職 光肇曰 臣不惜死 臣有一言 又命推出 光肇痛哭匍匐而出 其父曰 未能碎首辦死 何以參班 遂不參頒教 光肇坐謫大靜 尋放 後教曰 頃者處分 予自悔矣 及卒 親製文祭之曰 父子同朝 一片忠赤 仍錄其子 承旨趙重晦涕泣力陳 命島配旋寢 重晦又進伏抗言不撓 坐遠竄 後有烈風知勁草之教 屢陞爲冢宰 提學韓翼謬五違召命 不製教文 教曰 分義似然 其勿招 又命製進致詞 召牌凡八下 終不進 席藁金吾 坐削職 後屢加嘉歎 擢拜上相 承旨李翼元 力抗不書傳教 承旨鄭純儉上殿大聲曰 請殺臣 臣雖死 不敢頒此教 坐罷職 摠管李泰和免冠叩頭極爭 後特命加資 甲申秋 行入廟禮 上臨視 乙酉五月忌辰前一日 命停視事 下綸音于廷臣若曰 去年後初當此日 停經筵 豈自便也 嗚呼 心不若此 非慈也 又何以慰靈 吁嗟臣工 知望八其君今日之心 而若有臣分浮囂躁競之心 若春雪春冰自消解 大臣等仰請靜攝中 卽進常膳 翌日 又命垂恩墓獻官洪樂仁行祀後 看審局內回奏 及登筵 詳詢樹木長養 至秋 上幸於義宮 命世孫往拜廟宮 垂涕送之 多有追思之教 仍步登苑麓 倚牆遙望者移時 自後每於中夜 輒叩闕歎曰 古有思子宮望思臺 予豈料身踐斯境乎 又教筵臣曰 伊時廷臣 能有安金藏之忠乎 到今挾雜更提 抑何心腸乎 戊子 上御殿庭 行香祇迎禮 至孝章廟以下各廟香祝諸臣 以壓尊 不卽鞠躬 上厲聲命陪參諸臣罷其職 仍命拿入兵曹判書及侍衛諸臣 下教若曰 嗚呼 一隅青丘 卽朝鮮而已 貳君祇迎 諸臣焉敢不爲 吁嗟垂恩 今日諸臣 十年臣事者多 莫日無心 無心二字 此等處豈宜恕乎 還御資政殿 召大臣諸臣於殿前 飭諭以俾知十年臣事之義 粵二日 行大政 又諭大小臣僚曰 嗚呼 忍說壬午事乎 姿質美而予實不慈矣 庚寅御王府 教曰 追提往年事 使予聞之逆心也 甲午夏旱 親臨墓所 親製文行奠酌禮 世孫隨焉 顧教諸臣曰

今日當得甘雨矣 仍命贊禮以下隨駕近臣 賞賜有差 至丙申春 命政院日記及公家文蹟之自丁丑至壬午 事關不忍言之文字 并洗草 教曰 聞世孫此疏特許其請 此時予心不堪傷惻 仍玉淚汎瀾 命書傳教曰 今予夙夜一心 在於宗國 今者此舉 寔爲冲子 嗚呼 壬午閏五月日記 思悼冥冥有知 必也歛涕以爲余將無恨云 其時日記 依實錄例 承旨注書 同詣遮日巖洗草 嗚呼 因子涼德 遭萬古所無之事 而末世人心浮囂 雖及見日記者 更提文字 則當以戊申梟獍餘種嚴懲 況他日乎 此後語及壬午事 當以逆律論 咸須聽此 莫犯邦憲 冲子既承面諭 予將高枕矣 翌日 又命世孫往墓所 展拜行祭 教曰 臥思世孫今日之心 豈特冲子心 子心若何 今日用心 果生來初也 按宮園儀曰 丙申追上諡號曰莊獻 改宮號曰景慕園 號曰永祐 癸卯 追上尊號曰綏德敦慶 甲辰 又追上尊號曰弘仁景祉 廟中祭禮 降太廟一等 園儀亦準此 按行錄曰 有二男二女 長懿昭世孫諱某 次卽小子 御諱 女嫁光山金箕性 烏川鄭在和 有庶男三 禍禎禱 庶女一 適唐城洪益惇云 子孫錄 姑從舊狀 以待陟降之垂驚

《純祖實錄》卷 16, 純祖 16年 1月 21日 辛丑 惠慶宮誌文

惟惠嬪 思悼綏德敦慶弘仁景祉章倫隆範基命彰休 莊獻世子之配 我寧考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之本生母也 寧考以英廟 命爲思悼兄孝章世子嗣 故寧考卽位 遵英廟遺教追尊孝章爲王 賢嬪爲后 奉之宗廟 示民不貳本 乃惟所生之義 至尊至大 追諡思悼曰莊獻 稱廟曰景慕宮 祭儀下宗廟一等 稱墓曰園 而進嬪宮號曰惠慶 恒言稱慈宮凡尊奉之禮 進獻之節 亦下大妃一等 於是國人 服寧考之孝 而事嬪擬於長樂者 四十年如一日矣 我聖上嗣服之十五年乙亥十二月十五日乙丑 嬪薨于昌慶宮之景春殿 春秋八十有一 大臣閣臣獻議 引宋程正公頤論濮園禮 上及王大妃服大功 中宮

服小功 王世子服總 有司攷諡法 聰明睿智曰獻 夙夜儆戒曰敬 遂上諡曰獻敬 明年丙子三月初三日 祔于莊獻之顯隆園 禮也 園舊號永祐 在楊州治之拜峯山 寧考己酉 以風水不叶吉 移奉于水原府花山癸坐之岡 改今號陵墓 追祔多同兆而異封 是園之法方中也 寧考命虛其左 爲合墳之制 曰予之情事異於人也 至是因其制以相役 嗚呼 慟哉 上 以臣祖淳夙事寧考地又屬肺腑 命進幽宮之誌 而慈殿又書下行錄于廷 俾撰詞者 得以徵信 臣承命悸懼欲辭 而情又不敢 則乃拜手稽首而撰次焉 謹按嬪姓洪氏 系出安東之豐山縣 上祖之慶 高麗國學直學 自是世有顯人 入我朝 有諱履祥 復大顯 官大司憲 贈領議政諡文敬 再轉而爲永安尉文懿公諱柱元 尙宣祖女貞明公主 高祖諱萬容 禮曹判書 諡貞簡 曾祖諱重箕 司僕寺金正 贈左贊成 祖諱鉉輔 禮曹判書贈領議政 諡貞獻 考諱鳳漢 遭際英廟 官至領議政 諡翼靖 娶韓山李氏高麗韓山伯穉之後 觀察使漢之女 以英廟十一年乙卯六月十八日丙戌 生嬪于盤松坊外氏第 前夕 翼靖公夢黑龍蟠寢上 金鱗照耀 厥明嬪乃降 自幼孝友慈仁 莊重溫和 未嘗違父母志 甫四五歲 卽不出中門之外 戲嬉不事 不喜芬華 見同輩兒衣飾華麗 泊然無歆艷色 七歲貞獻歿時 外氏因婚而宴 或請與往觀 不肯曰 身有祖父服 何忍與吉事 其人以 七歲不受服 強之 嬪曰 吾雖不受服 父親在纒經中 不可赴也 聞者大奇之 癸亥 英廟爲莊獻擇配 嬪方九歲 膺三揀 英廟命翼靖公 授小學內訓御製訓書等書于別宮 嬪一聞輒通 其義記誦無遺 我寧考嘗語筵臣曰 我慈宮 自少凡耳目之所經涉 終身不忘 自宮中故事 以至國朝典憲 人家氏族 靡所不記 予或有所疑 未嘗不仰質 仰質未嘗不歷歷指教 聰明博識 予不敢仰企也 甲子正月 冊爲世子嬪 是月行嘉禮 朝見于英廟及仁元大妃 貞聖后祥和之貌 渾然天成 進退周旋禮儀 棣棣六宮 觀者無不動色 三殿相賀曰 得此佳婦 國家之福也 既上奉三殿及暎嬪 洞屬如不及 問寢必坐

而待曙 恪遵英廟訓誨 盡力服行 待諸翁主 友愛篤洽 諸主亦皆誠心輻輳 雖鄭致達妻之性狡難化者 不敢露纖芥之色 而嬪之所以推誠處之者 驩然有餘裕也 [庚]午冬懿昭世孫生 未幾薨 三殿大傷疚 嬪恐其增戚也 進見之際 色辭如常 至壬申九月我寧考誕降英廟喜甚謂嬪曰 汝以貞明之孫 嬪于王家 今有大功於宗社 奇幸何可勝也 嬪愈小心恭慎 不敢自懈撫愛 寧考極其慈恩 然教導必以義方 衣服飲食 務從儉約 勸學勉德 每以聖人爲期 我寧考邃學峻德 實由天縱 而蒙養之正 蓋有賴耳 及至庚戌大慶 睿齡已近六旬 而保抱看護 不憚晝夜 殷勤劬勞 若寧考 初寧考每日 慈宮至誠上格神明 有此邦慶 誕辰同日 天意豈偶然也 丁丑 貞聖仁元兩后 相繼禮陟 嬪悲慕哀痛 九時哭泣 未嘗一闕 祭奠必皆躬執曰 不於此時 少伸微誠 何以報眷愛之恩也 自兩后之喪 內政無統攝 嬪嚴束宮人 不敢失舊規 奉承英廟 尤致誠敬 英廟嘉賞不已 常稱孝婦 己卯貞純后入宮 嬪執婦道如事貞聖 既而二外家不相能[搆][構]釁日深往往事有至難言者 嬪恭怡遜默 和氣藹然 宮中上下 至今悅服 以爲難也 壬午閏五月 莊獻薨 嬪抱穹壤之痛 懷宗社之憂 屏俟私第 不遠而復 則銜恩制義 黽勉人世 祇見之日 和敬彌著 英廟大感歎 手書扁曰 嘉孝堂 命揭寢室 由是思媚兩殿 導迪聖胤 茹荼如甘 履艱愈泰 終乃措國本於磐石 垂令名於無窮 苟非至誠動天地 至性盡人倫 則何以有此 嗚呼 偉哉 是年賜號惠嬪 丙申英廟昇遐 嬪號慕罔極 哀毀過制 見者感動 寧考二年戊戌 進號孝康 七年癸卯 加上號慈禧 八年甲辰 加上號貞宣 十九年乙卯 以莊獻及嬪寶甲載回 加上號徽穆 二月寧考奉慈駕 詣顯隆園 祇謁仙寢 還至水原府 行大宴禮于行宮 問高年 賜士庶米推恩 賜六十一歲及七十以上爵 上及百官 皆簪花入都 光輝之盛 簡牒所未有也 明年丙辰六月 寧考行內宴于迎春軒 命戚臣之與宴者 皆得仰瞻 每歲誕日 必進饌以開慶 寧考常稱朱文公但願年年似今日之句曰 晦

翁先獲我心也 庚申六月 寧考开有司備饌 俄忽弗豫 竟至賓天 天乎冤哉 嬪以七旬之齡 遽嬰逆理之痛 崩貫冤酷 幾不能保 自此不復進常膳 惟以粥飲度日也 今上服闋 將加上尊號 力拒之曰 吾遭庚申之變 而不死亦頑矣 何忍受號 爲甲子以册禮舊甲 上自內進饌 而命詞臣撰樂章及致詞 其後又再行 八年之間 三舉是禮焉 乙丑元日 以寶齡望八廷賀 是月貞純后禮陟 是時已及大耋 不能行步 猶哀慕如丙申 乙亥 以望九如乙丑禮 是秋患痰眩 設議藥廳 彌月少瘳 遂撤直舉賀儀 未幾疾旋篤 及奉諱日 衣襟衿冒 以至巾帷之微 皆嘗預具曰 他日無煩民市也 嗚呼 盛哉 誕二男二女 長懿昭世孫 次卽寧考妃 卽今王大妃殿下父清原府院君靖翼公金時默 女長清衍君主 下嫁光恩副尉金箕性 次清璿郡主 下嫁興恩副尉鄭在和 寧考二男二女 宜嬪成氏生文孝世子 一女未周歲卒 今上殿下及淑善翁主皆綏嬪朴氏誕生 中宮金氏父永安府院君祖淳 主下嫁永明尉洪顯周 今上一男卽王世子 一女幼未封 嬪天姿愷悌 識慮高明 非禮勿動 處事惟慎 事莊獻克敬克順 濟以箴警 莊獻甚敬重之 時有諮議 多所裨補 厥或違忤 從容理奪 關雎鍾鼓之樂 近代罕比 己巳以後 莊獻受命代理 則深存憂懼 十四年間 審[幾]察微 彌綸調護者 百千其方 寧考每與筵臣 語及當時事 未嘗不感然改容也曰 慈德慈功 外人何以能盡知也 孝純后宮人 有竊毀莊獻法服者 事覺 宮中悚慄 將聞於上 后大感其人 自分必死 嬪和顏謂后曰 下輩無識 卽何足責 願勿感也 戒宮人無敢洩 不令上知之 后終身感德之 而后家人道此事 至有泣下者 德性之寬和如此 國榮之稔惡也 納其妹於宮中 號爲元嬪 覬覦匪分 中壺幾危者數 逆折奸[萌] 極力保護 終底於安泰 而宮中事秘 莫有知者 故不逞之人 反倡邪說 以爲 中壺之瀕危 慈宮有力焉 嗚呼 其謂天可誣也 已是不可以不辨也 莊敬之心 至老不已 奉先之誠 根於天性 故恒居必早御盥櫛 齊整端肅 雖末疾沈篤之時 尋常昏嚙 亦皆侍

奉貞聖貞純兩聖母之語 而至英廟誕辰 夜中命侍者 扶起而坐曰 今日行真殿酌獻 吾何敢偃臥乎 時不能轉側者 已有日矣 今上克繼寧考之志 奉養如昔日 兩宮慈孝 融融洩洩 而上每過宮則喜溢于色 必設饌以勸也 常以不得日日見爲恨 及大漸之朝 上 侍側而已 不能省矣 嗚呼 痛哉 臣竊伏惟念日月之光 非摸[畫]可得 瀛海之深 非測蠡可窮 然今臣之所述 非臣之所敢揄揚也 英廟而爲之舅 寧考慈殿而爲之子若婦焉 二考 堯舜也 慈殿任姒也 聖人而媿其婦 聖人而顯其親 言可以耀千秋 行可以爲萬世 則又何加焉 若夫正壺儀於貳極 啓長發之嘉祥 天也 居其實 無其名 巍巍乎有而不與 亦天也 天之所作爲 非人之所敢知也 雖然 有仙闕宮并宗廟而饗之 於千萬年 本支昌熾 聖子神孫 繼繼繩繩者 皆嬪之德之功之賜也 豈曰不顯 又誰曰不然 嗚呼 盛哉 嗚呼 痛哉 [檢校提學金祖淳製]

건릉(健陵)

1. 연혁

능 주 : 정조(正祖)와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

위 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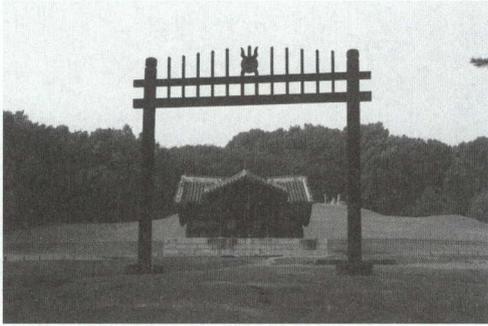
봉릉연대 : 1800년(순조 즉위년)

전릉연대 : 1821년(순조 21)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 오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병점역 앞 사거리에서 한신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84번 국지도를 타고 약 10분 정도 달리면 용건릉 입구에 도착한다. 용건릉은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 쉬우며, 부근에 원찰인 용주사가 함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과 함께 둘러



건릉 원경

보는 관광 코스가 되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온다.

용건릉은 조선 21대 영조의 둘째 아들이며 사도세자로 잘 알려진 정조의 아버지 장헌세자(추존 황제 장조)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헌경의황후)가 잠들어 있는 용릉(隆陵), 정조와

그의 비 효의왕후 김씨가 잠들어 있는 건릉(健陵)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관리사무소를 지나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건릉에도착한다. 건릉은 조선 22대왕 정조와 그의 비 효의왕후 김씨의 합장릉이다. 처음에는 정조의 유언대로 용릉 동쪽의 두 번째 언덕에 안장되었다가 이후 풍수지리상 좋지 않으므로 길지를 찾아 천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여러 길지를 물색하던 중, 정조의 비 효의왕후 김씨가 승하하자 순조 21년인 1821년 현 위치인 현릉원 서쪽 언덕에 이장하여 효의왕후와 합장해서 오늘날의 건릉이 되었다.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왕(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다. 순조 즉위년인 1800년에 묘호를 정종(正宗)으로 했다가 1899년(광무 3) 12월 19일에 다시 묘호가 정조(正祖)로 바뀌고,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황제로 추존되어 선황제(宣皇帝)가 되었다.

건릉은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의 참도가 특이하다. 1단이 높은 참도만이 아니라 좌우 양



건릉 정자각



건릉 장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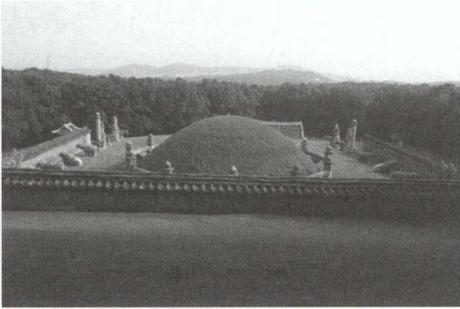
쪽에 정자각까지 넓게 박석을 깔아 놓았다. 건릉은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 둘렀으며 그 밖의 모든 상설은 용릉의 예를 따랐다. 그래서 합장릉인데도 상석을 하나만 놓았고, 방향표시를 위해 난간석주에 문자로 십이지를 표시한 것이 보

인다. 팔각장명등은 둥근 향로와 같은 기단부 위로 잘룩한 허리에 안상이 있고 혼유석에는 면마다 둥근 원을 그리고 매난국(梅蘭菊) 무늬를 새겼다. 문인석과 무인석은 사실적인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정시대 문물제도의 발달을 잘 보여준다. 문, 무인석은 등신대에 가까우며, 특히 입가에 미소를 띤 모습이라 여유가 있어 보인다. 문인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입고 있다.

이 밖에 3면의 곡장과 상석, 석마 2쌍, 망주석 1쌍이 배치되어 있다. 정자각 외에 수라간, 망료위, 재실, 비각 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각에는 1800년 초장 때 김재찬이 지은 능표비와 1900년 황제로 추존될 때 고종이 세운 능표비 2기가 안치되어 있다.

3. 능주 소개

정조(正祖)는 1752년(영조 28) 9월 22일 영조의 둘째 아들인 장헌세자(일명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산,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이다. 1759년에 세손에 책봉되고, 아버지 사도세



뒤에서 바라본 건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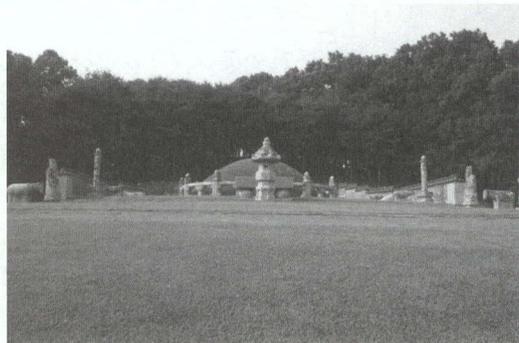
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자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뒤에 진종으로 추존)의 후사(後嗣)가 되었으며, 영조가 승하하자 1776년에 왕위에 올랐다.

세손 시절인 1775년부터 대리청정을 하다가 다음해에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 생부인

사도세자가 당쟁에 희생되었듯이 정조 또한 세손 시절에 갖은 위험속에서 홍국영(洪國榮) 등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즉위 후 호학(好學)의 군주로, 퇴색해버린 홍문관을 대신하여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여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기성의 인재를 모으고 참신한 인재를 양성했다. ‘우문지치(右文之治)’와 ‘작성지화(作成之化)’를 규장각의 2대 명분으로 내세워 한편으로는 기성의 인재를 모아들일 뿐만 아니라 참상(參上)·참외(參外)의 연소한 문신들을 교육하여 국가의 동량으로 키우고,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했으며 세손 때부터 추진한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수입에 노력하며 서적

의 간행에도 힘을 기울여 새로운 활자를 개발했다. 임진자(壬辰字)·정유자(丁酉字)·한구자(韓構字)·생생자(生生字)·정리자(整理字)·춘추관자(春秋館字)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왕조 초기에 제정, 정비



건릉 근경

된 문물제도의 보완·정리를 위하여 영조 때부터 시작된 정비작업을 계승, 완결했다.

《속오례의(續五禮儀)》·《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대전통편(大典通編)》 등을 편찬하고 자신의 저작물도 정리하여 뒷날 홍재전서(弘齋全書)로 정리·간행하게 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당쟁에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시행했다. 1788년(정조 12)부터 그간의 양척신당에 비판을 가해온 청류를 끌어들이어 준론탕평정책(峻論蕩平政策)을 취했다. 기존의 노론 우위의 정국에 변화를 일으켜 왕권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정조는 남인에 뿌리를 둔 실학과와 노론에 기반을 둔 북학과 등 제학파의 장점을 수용하고 그 학풍을 특색있게 장려했다.

정조는 학문적으로 남인학과와 친밀했고, 그의 학자적 소양으로 인해 노론 중 진보적인 젊은 자제들이 형성시키고 있던 북학사상에도 관심을 기울여 북학파의 종장(宗匠)인 박지원의 제자들을 규장각의 검서관에 등용했고 이들이 주장하던 서얼통청운동(庶孽通淸運動)에 부응했다. 또한 당시 중국을 통해 전래되어 정치문제로 되고 있던 서학(西學)에 대하여 정학(正學)의 진흥만이 서학의 만연을 막는 길이라는 원칙 아래 유연하게 대처했다.

문화의 저변확산을 꾀하여 중인 이하 계층의 위향문학(委巷文學)도 적극 지원했다. 이 밖에도 《일성록(日省錄)》의 편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편찬, 장용영(壯勇營)의 설치, 형정(刑政)의 개혁, 궁차징세법(宮差徵稅法)의 폐지, 노비추쇄법(奴婢推刷法)의 폐지, 《천세력(千歲曆)》의 제정 및 보급, 통공정책(通共政策)의 실시 등 많은 치적을 남겨놓았다. 정조는 당쟁의 희생물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온갖 정

성을 다해 조영하고, 수원에 성까지 새로이 수축하여 유수경(留守京)으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정조의 재위기간 동안은 그의 학자적 소양에서 기인하는 문화정책의 추진과 선진문화인 건릉문화의 수입이 자극제가 되어 조선 시대 후기의 문예부흥기를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조는 1800년 6월 28일 보령 49세로 승하했다.

처음에는 그의 유언대로 용릉 동쪽의 두 번째 언덕에 안장되었다가 이후 풍수지리상 좋지 않으므로 길지를 찾아 천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여러 길지를 물색하던 중, 정조의 비 효의왕후 김씨가 승하하자 1821년(순조 21) 현 위치인 현릉원 서쪽 언덕에 이장하여 효의왕후와 합장해서 오늘날의 건릉이 되었다.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왕(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다. 순조 즉위년인 1800년에 묘호를 정종(正宗)으로 했다가 1899년(광무 3) 12월 19일에 다시 묘호가 정조(正祖)로 바뀌고,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황제로 추존되어 선황제(宣皇帝)가 되었다.

효의왕후는 청풍김씨로 청원부원군 김시점의 딸이다. 영조 38년 10세에 간택되어 세자빈에 책봉되었고 정조 즉위와 함께 왕비에 책봉되었다. 평소 효성이 지극해 시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지성으로 모셨다. 1821년(순조 21) 춘추 69세로 승하하여 정조와 함께 건릉에 합장되었다. 건릉은 원래 정조의 유언에 따라 장헌세자의 묘인 현릉원 동쪽 언덕에 있었으나 1821년(순조 21) 효의왕후의 능침을 정하면서 풍수지리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현 위치인 서쪽 언덕으로 이장되었다. 능호를 정릉(靜陵)이라 했다가 건릉에 합장되면서 능호를 따로 쓰지 않았다.

4. 건릉구표석음기

朝鮮國

正宗大王健陵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崇禎紀元後一百二十五年壬申九月二十二日
誕生 己卯冊封王世孫 乙未聽政 丙申卽位 庚申六月二十八日昇遐 十一
月初六日 葬于華城顯隆園東第二岡亥坐之原 在位二十四年 壽四十九

5. 건릉천릉표석음기

朝鮮國

正宗大王健陵

孝懿王后附左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崇禎紀元後一百二十五年壬申九月二十二日
誕生 己卯冊封王世孫 乙未聽政 丙申卽位 庚申六月二十八日昇遐 十一
月初六日 葬于華城顯隆園東第二岡亥坐之原 在位二十四年 壽四十九 辛
巳九月十三日 遷奉于園之右麓子坐之原 妃睿敬慈粹孝懿王后金氏 崇禎
紀元後一百二十六年癸酉十二月十三日誕生 壬午冊封世孫嬪 丙申冊封王
妃 庚申今上嗣位 尊爲王大妃 辛巳三月初九日昇遐 九月十三日 附葬于
健陵而同封 壽六十九

6. 건릉표석음기

大韓

正祖宣皇帝健陵

孝懿宣皇后祔左

正祖敬天明道洪德顯謨文成武烈聖仁莊孝宣皇帝開國三百六十一年壬申九月二十二日誕生 己卯册封王世孫 乙未聽政 丙申卽位 庚申六月二十八日昇遐 在位二十四年 壽四十九 十一月初六 鈔葬于華城隆陵東第二岡亥坐之原 辛巳九月十三日遷奉于陵之右岡子坐之原 光武三年己亥追上尊號敬天明道洪德顯謨 十一月追尊恭上諡號曰宣皇帝 廟號曰正祖 后莊徽睿敬慈粹孝懿宣皇后金氏開國三百六十二年癸酉十二月十三日誕生 壬午册封世孫嬪 丙申册王妃 庚申純祖嗣位尊爲王大妃 辛巳三月初九日昇遐 壽六十九 九月十三日祔葬于健陵而同封 光武三年己亥追上尊號莊徽 十一月追尊恭上諡號曰宣皇后 敬書前面與陰記庸仲小子之微忱焉 光武四年 月 日

7. 건릉지

《正祖實錄》附錄 正祖大王健陵誌文

我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在宥十有三年己酉 遷顯隆園于水原府之花山 揭御眞于園之齋殿 以寓晨昏之義 大城厥邑 以拱衛象設 歲一謁 輒涕泣不能起 及庚申春正月 旣拜園 遂御東麓 喟然歎曰 美哉 斯邱 守臣汝其伐石以識之 粵六月十一日壬戌 有疾不豫 二十八日己卯 禮陟于昌慶宮之正寢 將以十有一月六日甲申 因東麓面南而大葬聖人焉 嗚呼 豈非天

哉 今殿下 以臣行佞 最被殊遇侍軒墀日久 命臣以玄宮之志 臣頑然不能下從 忍執斯役 而學術譾薄 不足以知聖人 則天地之大 日月之光 其敢日摹畫萬一云乎哉 嗚呼 道之大原 出於天 而天生聖人 爲之君爲之師 以弘道於天下 伏羲黃帝堯舜禹湯文武是也 惟孔夫子不得其位 而刪詩書作春秋 行素王之事 夫子歿百有餘年 孟氏出而明天理淑人心 以接夫子之統 自秦漢以來 異端橫流 正學遂泯 及宋程朱相繼而興 講明先王之道 繼往聖開來學 其功不在孟氏下 程朱既遠 邪說又作 衆口爭脛 靡所準式 天開奎運 吾道遂東 我先王正位凝命 以君兼師 德尊而行備 學崇而業廣 主敬以立其本 窮理以致其知 知有以窮性命之奧 而達造化之原 仁有以同萬物之體 而普天下之公 勇有以克有我之私 而成悠久之業 嚴恭寅畏 不敢荒寧 厯恩厚澤 延及群生 煦燠覆育 熙熙穰穰 庶幾乎三古之氣像焉 蓋天以我祖宗積德累仁 克昌其後 爲之含弘亭毓 篤生聖人 啓東方一治之運 而遺風餘庥 將萬億年是賴 於乎 盛哉 遂拜手稽首 投血而書之石 曰王姓李氏 諱祜字亨運 英宗顯孝大王之孫 思悼莊獻世子之子 母惠嬪洪氏 領議政鳳漢之女 妃金氏 贈左議政時默女 先是 王伯父孝章世子 聘左議政趙文命女 早薨無子 及莊獻薨 英宗命以王承孝章統 王卽阼 尊孝章爲眞宗 妃趙氏爲后 立莊獻廟曰景慕宮 尊惠嬪曰惠慶宮 始莊獻世子夢見神龍入寢 覺而異之 畫其狀於壁 王乃以壬申九月二十二日己卯誕降 嚶嚶之聲若巨鍾然 神彩燁如日月 穆穆有天人表 二歲知文字 三歲就傅受小學書 睿智日長 不煩師承 八歲冊爲王世孫 十歲齒于學 拈小學題辭明命赫然之義 問于博士曰 明命在吾身 果指何境 欲求赫然 當下何工 博士不能對 圍橋門觀者 無不動色相賀曰 眞聖人也 其在春邸 日與賓僚相問難 如四七之辨 中和之說 性道之已發未發 縷析毫分 皆可爲斯文定論 及夫大猷時升 年德俱進 仁精而義熟 教成而化敷 則觀乎御定諸書 而積中彰外之

文 尚可得其一二焉 推王跡之所興 演景籙之無疆 以貽我子孫萬世之柯則
日國朝寶鑑也 皇祖有訓 涕泣以受 別嫌明微 得盡我所得爲 日宮園儀也
煌煌鈇鉞 掃除奸兇 義闡乎金滕 象列乎夏鼎 樹倫綱於千秋 日明義原續
之編也 虞廷五教 惇德允元 日五倫行實之書也 遏慾存理 尊王黜霸 日鄒
書敬選也 雲龍風虎 蔚焉合章 惕號暮夜 有戎勿恤 日軍旅大成也 休老勞
農 秩然有序 風流篤厚 百嘉嚮遂 日鄉禮合編也 稽古酌今 序列六官 燦
然爲一王之制 以昭來許 日大典通編也 由博反約 常目存茲 追刪述之遺
旨 日五經百篇也 甲乙丙丁 元元本本 攀英撫實 縱橫丹鉛 日經史子集手
圈也 刪繁蕪正 體裁嚴華夷寓哀鉞 日宋史真詮也 詩道教人 詠歎淫液 鏗
然如舜韶之九成 日雅誦也 地負而海涵 家戶而戶祝 言有教動有法 揭斯
文之一統 日朱文諸編也 聖作而賢述 真衍而丘補 纂次部分 垂經世之要
範 日大學類義也 顯忠崇節 載棹載楔 馬城之祠 龍灣之壇 義問宣昭懷我
好音 日尊周錄也 制禮以節事 修樂以道志 日春官通考也 其難其慎 日維
庶獄 廣五聽之慈 布三宥之澤 日秋官審理錄也 此王之立言而鴻號鉅跡
聲流無窮 可以撰次風雅 被諸管絃 與旱麓生民之詩 同其傳也 其窮格之
精 存養之密 又有濂閩諸賢之所未發者 論太極則曰 太極在天地之先 而
不爲先 在天地之後 而不爲後 靜爲動之根 柔爲剛之本 易曰 一陰一陽之
謂道 又曰 闔戶謂之坤 又曰 生生之謂易 先陰後陽 生生之義見矣 商易
首坤 蓋有以也 論心性則曰 言心自禹謨始 言性自湯誥始 而孔子曰性相
近也 又曰 繼之者善 遂分形而上下而言 宋儒所謂本然之性也 氣質之性
也 蓋祖於此 聖遠言湮 言性者不惟不言善 或曰惡 或曰善惡 而本然大中
之體 無以闡發於後世 則首言性善孟子 蓋亦不得已也 程叔子又繼而明之
俾人人者 知有本然之性 而本然則皆純善也 然而徒知本然之爲純善 而反
遺乎氣質者 往往有之 如孔子後於孟子 不可不言本然如孟子 而在今之世

者 又將言氣質 予以是知孔孟之訓 隨時而不同焉 論格物致知則曰 知之未至 由於理之未窮 窮此理也 物格在其中 日致日格 雖不可以相混 亦不可以相離也 論涵養省察之工則曰 涵養要熟 省察要疾 要熟也故既曰戒慎 又曰恐懼 不憚其重言而複言 要疾也故 一言以蔽之 使人專心乎體察 論幾微則曰 誠無爲 何也 未發也 幾善惡之所由分 而所謂動之微也 既曰動之微 則豈非已發耶 論知行則曰 知行不可偏廢 而所謂真知者 知善之可爲也 惡之不可爲也 如飢食渴飲 水不可蹈 火不可狎 是謂真知 知則可以行耳 知固貴真 而其求知也亦宜擇術焉 論謹獨則曰 心爲天君 欺心卽欺天也 天可欺乎 天德王道 其要祇在謹獨 論闢邪則曰 戎狄膺而已矣 龍蛇驅而已矣 正學明邪說自熄 此所以董之以威 開自新之路也 論李延平 靜中體認未發之旨 則曰 體認則思也 思則已發 夫人之心 湛然虛靜 無偏倚而後 應事不差 靜時若不主敬 發使能中節 譬如十月純坤 陽氣斂藏 霜雪凝沍 草木凋落 陽雖生於下 而隱而未露 春來發生之功 專資於斂藏凝固 周子之言靜 程子之說敬 皆此理也 論誠仁之訓則曰 仁爲心之德 誠爲行之實 夫人之生也 且天地之理 故滿腔皆生意也 生意既發 自赤子入井 以至於仁民愛物 覆冒四海 而罔不自此焉推之 曷嘗有私意利欲 間乎其間哉 無私意利欲以間之則一矣 一則誠也 仁與誠 豈有二也 論爲治之法則曰 君人者 但恥不及乎三代 使動植之物 風雨霜露之所霑被者 皆得其所 而休徵嘉瑞 如麟鳳龜龍諸福之物 爲我能事 如此然後 始可謂位育之極功也 論文章則曰 文章有道術 道不可不正 術不可不慎 必主之以理 而輔之以氣 使潛穀曠引之神機 不敢離正路一步 可免於侈言夸辭之歸矣 夫汪洋河漢之談 不足以垂後者 拙於理也 藻繪雕篆之作 不足以名家者 薄于氣也 況治教爲之汙隆 而世道隨以升降者乎 予以朱書爲一世之學的者 不惟尊其道 亦爲其文章理氣之真也 此王之立德 而可以見爲學用工之次序 鑽彌

堅仰彌高 宗廟百官之盛 金聲玉振之美 集衆之粹 會聖之精 爲萬世開太平 苟非達天德者 孰能與此 王 每朝起整衣 北面瞻仰辰極 雖盛暑 臥則閉戶不敢對天 四十年如一日 詩所云 小心翼翼 昭事上帝 王實有焉 事英宗至孝 十年侍疾 未嘗解帶 及宅宗 哀動臣隣 躋桓王於原廟 樹莊寢之配 墀 奉慈殿慈宮 婉容愉色 致其養 玉牒金泥 揚其徽 詩所云 有孝有德 以引以翼 王實有焉 王之代理也 戚黨憚王英明 內外危逼 勢如綴旒 王 從容應變 處群不逞 曲當其宜 及宰臣徐命善之疏出 英宗誕定大策 卒畀王機務 則王首陳私痛 泣而請 寧考感其孝 就尙書記注 刊其不忍者 踐位之日 渙發絲綸 致嚴乎不貳本之義 胥匡以遵先王之道 而有頑不率 鼓倡凶論 則告于寧考之靈 誅竄如法 書所云 四罪 而天下咸服 志所云 聖人處變 而不失其正 王實有焉 所慎在祀 肅齋齊明 攝儀無間乎親祿 疏節克謹 乎縉文 凝神致虔 坐而待朝 陵園有事 輒進粉全以嘗之 拜影殿戒蹕 先於曉鐘 霧露風雪 未始或闕 月覲闕宮 優然有終身慕 而至痛在心 每諱辰必浹旬齋居 若喪之初 詩所云 春秋匪懈 享祀不忒 王實有焉 優優三千 克昭節文 葬寧考則正朝祖之失禮 嗣寶位則概釋冕之非經 名儒享夫子之廡 大老配先祖之庭 經所云 禮者履也 義者宜也 王實有焉 有庶弟禍禩禩而禍坐逆當誅 神人所不容 猶不忍加辟 并家室移置江華 命內府衣服飲食之極其豐足 問訊織於路 歲輒召見 廷臣爭之力 王曰 吾過矣 吾過矣 終不聽 禩於英宗時 謫死耽羅 王追念蠶然 錫美諡 臨其廟親奠之 禩爲凶徒所推載而死 王每歎曰 禩之死 由於洪國榮 國榮之廢 所以報也 予於異日有媵御舉丈夫子 必爲禩立後 英宗女有爲鄭致達妻者 挾其子厚謙與逆臣洪麟漢 當王代理時 謀危宗社 而賴王大妃聖德神功 炳幾折萌 凶謀不得售 而廷討遂行 王 以其爲英宗所鍾愛 暫流畿島 自島而陸而京 至引入大內見之 廷臣亦爭不得 傳所云 不藏怒焉 不宿怨焉 王實有焉 慎乃儉德

維懷永圖 器無彤鏤 衣有澣濯 綿褥蒲茵 處之裕如也 所御之堂 僅數架 不施丹雘 牕壁烟煤如塗 有司請葺理 則王曰 子豈惜其費乎 顧素性安此耳 經所云 克勤于邦 克儉于家 王實有焉 性豁達 待人一以誠 胡越一家 庭衢八荒 蝸涓之暇 會朝之時 表裏無間 洞然無不可 對人言者 嘗自號以 萬川明月主人翁 大書特書 昭揭殿閣 經所云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實有焉 際天之所覆 極地之所載 摠以攬之爲己分之所有 而星曆兵農九流百家 罔不包羅搜剔 措諸實用 又推以及人 妙選年富文學之臣 考課講製 日月 琢磨 有如群飲于河 各盡其量 而不見其涯涘 詩所云 肆成人有德 小子有 造 王實有焉 右賢而左戚 屏宦官宮妾而接賢士大夫 置奎章之署 常引諸 學士 講論經史 及至大漸 警御猶不敢近 而承弼諸臣 左右舉扶 嘗有人言 士類國之戕斧者 王曰 謂士類戕斧 而國其父乎 予所共者 士類也 斥其人 不用 詩所云 濟濟多士 文王以寧 王實有焉 與諸臣 觴于芙蓉之亭 筵几 既肆 琴瑟既張 有燕巢樑將哺子 飛繞不入 王憐之遂起 後御是亭 輒問燕 巢 常曰 吾不欲以養人者害人 遂蠲雉鮮之貢 侵鹿豕之獵 經所云 人不易 物 惟德其物 王實有焉 一念黎元 蚤夜孜孜 靡隱不察 靡弊不舉 損上益 下 撫之綏之 利澤之滲漉人者 浸灌醲郁 久而愈著 而猶且視之 如傷 恐 一物之不獲自盡 頒珍劑以救病 傾廩財以掩骼 因內帑而別儲備荒之需 設 壯營而擬罷均役之法 以至庶孽之甄拔也 奴婢之勿世也 糶糴之更張也 蓋 欲次第施措而未遑 然其已然之効 則市廛之民曰橫索絕矣 在野之民曰積 案清矣 輸將之民曰羨耗除矣 嘉肺之民曰幽冤洗矣 都鄙之民曰田疇墾矣 筦庫之民曰出納允矣 衣冠之民曰菁莪棫樸之化 不知文王何如也 於是乎 三元調八風協 嘉瑞降豐年應 曖然如春 油然如雨 恬然如在光天化日之中 而及夫昇遐日 自夫王宮國都 以至荒徼絕塞 深山邃谷男婦稚老 岐踵喙息 之倫 率皆奔走號哭 如不欲生 詩所云 群黎百姓 徧爲爾德 王實有焉 此

王之立功 著之八域之廣 而崑崙蕩蕩民無能名者也 若其酬酢萬變 折衷義理 充養發揮 剛健純粹 無所容乎人欲之私 而有以全夫天理之公 研窮經傳之旨 則提綱而挈領 辨別事爲之故 則銖量而銚較 是以綸告筵論 動合典謨 矯時正俗 彰善癉惡之志 哀矜惻怛 于末命 有足以透金石而感豚魚 則非言語文字所由述也 嘗曰 予所願學孔子也 學孔子 當自朱子始 既倣朱子綱目 定春秋左氏傳 將建閣御苑之中 妥朱子遺像 取大全語類群書箋注之出於朱子者 編以爲書 序其中而不及行焉 居常無樂乎南面 慨然有脫屣千乘之想 朝廷請加徽稱者屢 終不許 築華之役 蓋有微意存焉 故堂曰老來 亭曰未老閑 而卒不能假我數年 俾千古帝王所未有之盛節 不得見於當世則天也 嗚呼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之謂神 蓋謂聖人之所以配天也 維天之命 於穆不已 蓋謂天之所以爲天也 陵號曰健 取諸天行 不其然乎 自羲農至文武 功烈見於事 自孔孟至程朱 功烈見於言 其範圍天地澤利萬世 則言與事 未始不同 而易地則皆然也 王 聖人也 發明斯道之體 主張斯道之命 其事則羲農文武 其言則孔孟程朱 千世之下尙論者 庶幾乎登清廟之瑟 愀然一唱而三歎 特撮其天德王道 布濩人耳目者 以揭夫宏儒哲辟之憲度章程 如此云爾 [尹行恁吏曹參判製]

《正祖實錄》附錄續篇 正祖大王健陵遷陵誌文

嗚呼 我烈考正宗大王 既大葬于華城顯隆園之東麓 是曰健陵 國人之有識慮者 皆竊憂其地淺夷 非聖人安久之藏 後二十二年辛巳三月九日己未 我孝懿王后薨 將筮兆于先陵 領敦寧府事臣金祖淳 上疏極言陵地可憂狀 請精擇吉土爲萬年之圖 我殿下涕泣下批曰 大行大妃 平日以是大憂 屢下教於小子 今見卿疏 益不勝摧咽悶悚 卽召大臣卿宰廷議之 議僉同無貳 遂命大臣禮官及敦匠之臣 廣行相視 又使再三覆按 乃得顯隆園之右坐子

之岡 爲尤吉治 方中爲同穴之制 緬奉先王 而后祔焉 陵仍舊號 實是年九月十三日庚申也 於是國人又皆太息相慶曰 誠舊陵之爲憂 而華固先王之志 今而後兩無憾矣 始先王十三年己酉 遷永祐園于水原府之花山 更號顯隆 大築華城 以拱衛象設 揭御眞于園之齋殿 以寓晨昏之義 歲輒展謁 哀慕不自勝 十九年乙卯 奉慈宮 謁于園 還御華宮 進爵上壽 教曰 以予孤露 行是禮於是地 至願粗伸矣 每拜園 駕還 駐蹕遲遲之臺 回瞻夷猶 不忍發去 命華宮之堂曰老來 樓曰新豐 蓋有微意存焉 無樂乎南面 殆將脫蹤千乘 而獨拳拳于華者如此 是則孟子所謂大孝終身慕者也 今者復臨灑水之朝 而及竊以度 又在於華 是又天之所以大感于我先王 而此與之宅也 亦惟我殿下類孝之至 永綏我烈考文母也 於戲其盛矣 殿下 以臣象奎 獲事先王 又今備官太史 命爲玄宮之誌 誠惶恐不敢當 竊伏以爲我先王盛德至善 冒溢區宇 史不勝書 誦于永世 無待幽石之紀纂 而天地之大 日月之光 又非如臣淺陋所可摹象 然而稽于記 孔子之喪 公西赤爲志 志者 謂志識也 是不過志識其地 重實不在於文 謹拜手稽首 泣而敬書曰 王姓李氏 諱祘 字亨運 英宗顯孝大王之孫 思悼莊獻世子之子 母惠嬪洪氏 領議政鳳漢之女 及莊獻薨 英宗命王 嗣孝章世子 王之伯父也 王卽阼 追尊孝章爲眞宗 墓爲永陵 嬪趙氏爲孝純王后 豐陵府院君文命女也 上號思悼曰莊獻 墓曰永祐園 廟曰景慕宮 尊惠嬪曰惠慶宮 莊獻世子嘗夢神龍抱珠入寢 覺而畫其狀於壁 已而誕王 英宗二十八年壬申九月乙卯也 聲覃訃鬯聞 隆準海口 質相特異 英宗臨視喜甚 手撫額曰 是絕類我 卽日定號爲元孫 未百日而能立 甫能行步 坐必端跪 自未語見文字則輒喜 三歲就傅 受小學書 八歲册爲王世孫 陪英宗駕過雲從街 許士民仰瞻世孫 還宮問曰 今日百姓觀者甚衆 亦知望於汝者 何事乎 王對曰 望臣之爲善也 曰 爲善易乎 對曰 易也 英宗大喜 十歲齒于學 請業于博士 問小學題辭明命赫然之義

日 明命在吾身 指何境 欲求赫然 作何工 博士不能對 園橋門觀者數萬 動色相賀曰 眞聖人也 壬午秋 英宗 命依皇朝時事 以世孫爲東宮 置兩坊 官 贊善宋明欽 應召入對 王 講孟子 明欽仰問孟子宗旨 王曰 邇人欲存 天理也 明欽請問立志 王曰 所願則堯舜也 明欽退語人曰 聰明英睿 上智 之姿也 一日侍坐英宗 講官有言三南饑民菜色狀 王聞之 是日夕膳 舍肉 不御 英宗問其故 對曰 適思饑民 心惻然自不忍下箸也 王 自八九歲 益 莊默無疾聲遽色 罕與宦妾語 英宗每教曰 世孫絕無一毫走作意 禁苑花發 非從予 未嘗一往遊賞 日靜坐讀書 此豈勉強可爲 卽其天性然也 英宗寶 齡益高 寢多違豫 王 十年侍疾 晝夜未嘗離側 衣不解帶 少有添劇 則遑 遑憂灼 涕泣露禱 坐臥起居 躬自扶護 英宗悶其瘁也 或命左右代之 旋蹙 曰 未若我孫之便吾體也 和緩主 王之姑也 其子鄭厚謙 倚主橫甚 洪鳳漢 之弟麟漢 席其兄而爲相 英宗倦勤 兩兇 相糾結植黨 與貪權玩法 壞亂朝 政 獨憚王英明 出入窺伺 謀欲誣毀動搖之 主又長處宮中 爲其子助兇 王 從容處變 夷然若無事 英宗疾益彌留 欲使王代理機務 諸賊益懼 英宗命 公事 入于東宮 麟漢揮手止承旨勿書傳教 游辭力沮之 英宗竟罪麟漢等 命王代聽庶政 遂幸東宮受賀 設九爵禮 群臣皆呼千歲 英宗顧笑甚樂 王 旣聽政 卽上疏陳私痛 言甚哀切 英宗覽疏泣 取起居注 丁丑至壬午 凡語 屬不忍者 洗其草 教曰 正宗統爲三百年宗國 洗日記 伸子心於萬世也 乃 製諭書 書孝孫二字 鑄銀印授于王 自是諭書銀印 凡朝會動駕 常陳于前 及英宗大漸 王 水漿不入口 哭不輟聲 旣成服 王曰 迫於群情 忍將踐位 而冕服行禮 於予心益覺怵然 此禮見於康王之誥 蘇軾譏其非禮 亮陰之制 雖不得行 釋衰從吉 其可乎 群臣以古禮與國制力請 王 泣而從之 旣嗣位 釋冕反喪服 大諭中外曰 寡人 思悼世子之子也 先王爲宗統之重 命予嗣 孝章世子 禮不可不嚴 情亦不可不伸 享祀之節 宜從祭以大夫之禮 而不

可與太廟同 惠慶宮亦當有京外貢獻 而不可與大妃等 不逞之徒 藉此而有
追崇之論 先王遺教在焉 當以當律論 以告先王之靈 其尊奉莊獻 遵宋濮
王故事 祝式用朱子定論 稱皇叔父從子 五享用牲用樂 惠慶宮凡四進冊號
曰 禮或近於貳尊 拂義任私 強欲崇奉 非吾所謂崇奉也 前史皇子公主之
錫號 本朝順康昭寧之加號 無貳尊之嫌 有揚名之義 予所以義起而行之也
金尚魯之爲相也 陰結後宮文氏 始構壬午之禍 英宗嘗教王曰 尚魯 汝讎
也 乃追施逆律 王之在春邸也 趙載翰等 托壬午懲討之義 因闖入 聞于王
王 察其姦而心惡之 及大喪 李德師又上疏 如載翰之說 王曰 此誣先王之
逆也 乃誅載翰德師等 大行因山期至 王 欲隨鞠行 群臣以毀疾請止 且言
古無是禮 出辭於城外 靈駕既遠 猶佇立瞻哭 哀音上徹 聞者莫不雨泣 魂
殿小祭祀 必皆躬行 值忌辰 齋沐悲慕 二十年如一日 每謁太廟 至十三室
鞠躬磬拱 儼然肅然 若有見於位者 每朔望 將五鼓必拜眞殿 風雨寒暑 未
嘗或闕 於景慕宮 垣建日瞻月觀之門 簡輿衛 無時展省 每年五月十三日
至二十一日 彌旬齋居 事貞純大妃惠慶宮 三朝愉婉 先意承歡 志物備盡
誠孝兩至 每日 國有大小事 予未嘗不稟慈聖而行 惠慶宮患癩 晝宵焦憂
親自熬藥 傅之手爲之腫而不覺也 嘗有疾 浹月始平復 群臣請賀 王曰 不
存无妄之戒 久貽惟疾之憂 是誠自訟 敢受賀乎 群臣屢請晉號 王曰 上號
之請 曾謂卿等不如林放乎 禮固緣情 義以制禮 千載之下 庶有知予志者
終王之世 群臣不敢復以爲請 記曰 踐其位行其禮 事死如事生 事亡如事
存 孝之至也 其王之謂乎 賜洪麟漢鄭厚謙死 誅其黨沈翔雲閔恒烈洪相簡
等 三司請孥籍麟厚 教曰 法者天下平 雖人君不可以私意低昂 斷死罪 未
死而結案 死而準律文 卽常典 自今未結案而用逆律 已死而追施孥籍 次
律結案而加以極律 竝除之 盜入慶熙宮 索之不獲 及移御昌德宮 盜又越
宮垣 爲舖軍所捕 鞠之 洪述海之子相範所遣也 相簡既斃 其父趾海叔績

海竝島配 述海亦以海藩犯賊 滅死杖流 其子姪妻妾 日夜怨望國家 謀爲不軌 述海之妻孝任 使妖巫 詛呪埋凶 洪啓能與述海之姪相吉相格李澤遂等 陰謀以太甲桐宮癸亥反正爲說 所欲推戴者 宗臣禛也 諸賊皆伏誅 群臣以禛王室至親 名入推戴 請逮問 王遽起入不出 百官伏殿庭力請誅禛 王猶不許 大臣禁堂 卒致禛于王府 令自盡 禛拒不從 復告于王而賜之死 王傷慟 命內司厚葬之 於是 纂明義原續兩錄 以著諸逆始末 洪國榮自宮官時 特被寵任 王卽位 驟加顯擢 握重兵處禁中 日益驕恣 擅作威福 王漸燭其奸 隱忍未發也 時貞純大妃下內教 命揀選士族 置諸嬪御 以廣求儲嗣 國榮之妹應嬪 選未幾嬪喪 國榮乃倡言曰 廣儲嗣之舉 不可再也 禍有子湛 國榮視以奇貨 改其君號曰完豐 恒言曰吾甥也 使爲洪嬪守嬪官 聞者驚心 道路以目 又引宋德相 假儒名應召而至 投疏言儲嗣事 有曰 某樣道理 非在下者所可指陳 臣對宿衛將臣 以此事爲第一義 宿衛將臣 卽國榮 而此事指湛事也 王 顧欲保全其終始 前席數其罪 使之引退 尋命放之田里而死 文孝世子生五歲而薨 大妃又下內教 布示國榮陰圖移國之罪 又以喪變 責群臣之緩討 於是 賓廳請奪湛封爵 絕其屬籍 斷禍以王法 王取其啓火之 湛之母舅宋樂休 又上變告將臣具善復 通關禍湛事盡發 善復遂伏誅 百官庭請置禍於法 王 輒閉閣却膳 諸臣伏閣免冠固爭 乃命禍竝其家室 置江華 教曰 昔梁獄至僭 漢景力保梁武 賴有田叔之忠耳 惜乎今日廷臣 非田叔之罪人乎 且其待予何太不若漢景 王 雖島置禍 而命內府 繼其衣食 問饋織於道 又常遣內司官 密召入見 廷臣每爭之 王曰 此所謂周公之過也 後又全釋厚謙之母 王 以其先王之所愛 雖絲惡貫盈 曲加寬貸 始流畿島 後令入京 至於引入大內見之 廷臣亦爭不得 禍禛禛 皆王之庶弟 禛於英宗時 謫死耽羅 王 追念畫然 用崇品宗臣禮改葬 臨其廟 奠祭 錫美諡 親製其墓碑 王於中歲以後 嘗慨然曰 漢家四百年基業 豈不

由於風流篤厚 禁網踈闊乎 予欲使今之世 非身犯惡逆者 竝爲疏蕩 朝無罹辟之人 世無見棄之家 豈非導和祈命之本乎 於朝臣 曲察下情 存沒之際 隱卹尤至 方春將賞花 已日 相臣在殯 豈可遊行乎 尤惓惓於民事 方伯守令之差送 必引對面諭 察民隱救民瘼 時遣繡衣 刺舉匪法而伸無告 或召見郡邑朝正吏 詢民疾苦 置器測雨 豎竿占風 一雨一暘 必關聖慮 明禮宮爲東宮別帑 王 於代理初 日宜先清本 卽付之度支 各宮房私遣宮差 徵稅納於宮庄所在 橫拏虐斂 民不堪其苦 內司刷官 往諸道 推刷奴婢 操縱百端 刷官所至 村里爲空 弊皆久痼 王曰 利於國 利於民 肌膚何惜 先王所以諄諄於寡人也 宮結之代盡未收 法外加受 損國用 宮差橫斂 尤害民 遂查代盡及加受者 竝還地部 宮稅各邑直納戶曹 戶曹劃給各宮 而罷宮差永革刷官 令諸道比摠施行 又裁省宮人 罷移送名色 以其費歸之經用 京營獵 雉軍卽鷹師舊契 每行獵軍 十百爲群 橫行 騷擾 至有殺越人者 乃罷獵雉軍 減關西貢蔘 蠲濟州貢鰓 曰此先王意也 又蕩減八道舊糴十萬石 曰 先王五十年苦心愛民 如子繼述之道 無先乎此 遇荒年 日接廊廟之臣 講究調球之策 列荒政之要 書之殿壁 常目而施行之 遣近臣慰諭董飭 一札十行 遍於諸道 蠲常貢減常稅 發倉移粟以賑之 停糴餉以寬之 捐帑貨以補之 畿甸饑 王曰 今之發賣 卽漢之賑貸也 令京兆 抄饑民 減直給米 都下錢荒 出官錢十五萬緡 除其殖 以貸貢市民 以耽羅處絕海 每歉荒 憂軫尤勤 嘗下帑錢百萬於湖南 令買粟濟之 親製文祭海神祈利涉 又愍幼穉之遺棄道路者 倣古廣濟院育嬰社之法 著字恤典則 頒中外 以收養之數 每月登聞 其收養人 官給口糧 京師疹疫熾行 王曰 禳祭 古禮也 命設別厲祭于四郊 令五部 訪問坊曲之貧 不能自力療治者 兩醫司揀醫人 診視給藥 時 方有文孝之喪 而王猶日飭有司救恤 所全活甚衆 又命京外 盡掩埋邱隴之朽露者 王之世 蓋無一民不被其仁 生死竝浹 矜慎刑獄 惟恐一

夫之或枉 每判諸道錄案 侍臣承書 更番至暮 而王未有倦色 內閣哀輯御判 爲審理錄二十六卷 其一字 皆惻怛審克之意也 飭獄官 常灑掃獄戶 洗滌杻械 小罪卽決 遣取笞杖 枷棍之不如法者 皆釐正 撰欽恤典則 通行爲式 又教曰 唐宋皆五日一錄囚 我朝十日一錄啓 十日之間 雖有被枉之囚 安得以自達乎 自今該曹 五日一錄囚 寢園植木有蟲損 方捕之 古皆掘坑 焚瘞 王曰 蟲是生物 驅而放諸 勝於烈而焚之 嘗聞蟲飛入海 化爲魚鰕 其令投之海浦 嘗譙于芙蓉之亭 有燕巢樑 將哺子 飛繞不入 王憐之 遂起去 是又禽蟲之微 亦囿於至仁之澤 傳曰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其王之謂乎 英宗御製旣編印 王 以光廟肅廟兩朝 但有奎章閣之名稱 而未有設置 無御製尊閣之所 如宋龍圖天章之制 乃建奎章閣於內苑 列聖宸章寶翰 別爲奉謨堂奉之 又以先朝編次人 有其事而無其官 倣龍圖閣學士直學士 置提學直提學 又置直閣待教 以倣直閣待制 摹寫御真 奉于閣之宙合樓 御書摘文之院 扁直署 遂臨院 命時原任閣臣 挾册升堂 講近思錄 辨論經義 敷陳治道 因幸弘文館 講心經 後置大提學 以文衡圈望人 待旨擬差 而竟未有拜者 行抄啓文臣講製 王 以文臣專經之講 月課之製 作輟無常 非作成之道 命政府 抄啓槐院參上參外三十七歲以下人 月講經史 旬試程文 考優劣行賞罰 時常勸課 至誠不倦 自辛丑選以後凡十選 今之公卿大夫 多是選中人也 御春塘臺 召講太學儒生 仍設食堂 曰 程子見僧舍會食 歎其有三代威儀 况賢關之食堂乎 鼓進齒坐 秩然其可觀 予故樂與諸生共之 堯鹽雖薄 勝於珍饌 下御題于泮宮 試諸生 召被選人 宣法醞 撤常御 銀盃賜之 鑄其腹曰 我有嘉賓 諸生賦歌詩 以詠其事 親綴銘詩序以弁之 曰 太學銀盃詩集 修明太學講試之規 或臨軒親試 或頒題親考 或條問經義 往往賜上第 除初仕 賞賚遍及 至于八方 莫不賓興 有瓊林聞喜錄正始文程 嶠南關東耽羅豐沛關北關西賓興錄 樂育譽髦之盛 古未有也 命大臣

銓臣方伯之臣 薦進專治朱子書者 誅習西洋耶穌邪教者尹持忠權尙然 王自養德春宮 非問寢視膳 則潛心經籍 及御極 一日萬幾 宵衣旰食 而左右縹緲 仰思俯索 夜以繼晝曰 予豈有問學工夫 而以經歷之多艱 不能無動心忍性之益 又曰 予始留意於作家 又從事於經學 亦嘗用工於端拱曲跪 今而思之 未覺有補於身心 且帝王之學 與韋布不同 自有大於此者 心性理氣 猶不必毫分縷析 況詞章述作 何足費吾心力 其發爲雲漢 神明變化 灑灑颯颯 可與典謨雅頌竝美 有弘齋全書三集一百卷 又有大學類義尊周彙編經史子集四部手圈宋史真詮五倫行實鄉禮合編八家百選 朱子書會英選統百選會選節約諸編 有以契夫刪述之旨 而其積中彰外之文 皆於是乎 在明正學闢邪術崇經訓黜雜稗 田五教三物 大興庠序 一時待文之士 莫不鼓舞振作於鳶魚飛躍之中 傳曰 文王既沒 文不在茲乎 其王之謂乎 [○]王天挺勇智 神武蓋世 閱歷艱虞 掃蕩群兇 摠攬王綱 太阿在手 舒慘弛張 人莫敢窺其際 宮府一體 表裏洞達 內自朝廷之上 以至窮閭遐陬 人人以謂上帝臨汝 置宣薦禁旅 以開入穀之塗 罷守禦京營 設北關兩鎮 以汰冗兵 而拓邊荒 著兵學通武藝圖譜 以盡衝衡奇正坐作擊刺之法 暇日御內苑肄陳以觀之 顧眄指揮 風雲翕歛 蓋我寧陵滌惱堂試馬之志也 其於射藝得於天分 五十發輒四十九中 曰 物不可盈也 至於壯勇營之設 不徒以備宿衛 飭戎垣 常以均役之法 減布惠民之先朝至意 而任事之臣 不能對揚 率苟且不便 擬將罷此而更之也 其規畫施措 神算所及 蓋非摸度驟議者所可知 又如外營之定衛部舊制 亦有深意在焉 嗚呼 其已矣 書曰 布昭聖武 兆民允懷 其王之謂乎 丙申追奪李光佐趙泰億崔錫恒官爵 王 以辛壬義理宜先闡明 命遵乙亥處分 辛丑賜祭于四忠祠 贈故學生徐德修職 甲辰 賜祭四大臣三將臣四節度及達城府院君徐宗悌 贈判書李廷燾 旌贈判書趙聖復 贈參判金省行閻 戊申三月 教曰 是年是月 卽我先王揚武戡亂之年若

月也 舊甲云回 徒見山高而水清 以小子追感之心 曷其不驕忠報勞 以答前寧人攸受休哉 乃遍酌殉節勤事諸臣 命諸道 訪問從征將士生存者收錄之 又追念壬午以前盡分諸臣皆加褒美 初世祖命大提學申叔舟 撰太祖太宗世宗文宗四朝寶鑑 而後只有李端夏所編宣廟寶鑑 李德壽所編肅廟寶鑑 及英宗實錄成 王 命仍纂寶鑑 又以十二朝尙未有寶鑑 并爲編輯 凡六十有八卷 教曰 列朝玉冊金寶 倣周廟之陳寶器 必皆奉安于入廟之時 而寶鑑所以揄揚功德 垂裕來嗣 實與西序大訓同 其規模 雖琬琰之表徽 璽章之昭度 猶不足以喻其重 乃親上于宗廟永寧殿 分葺各室 尊英宗爲世室王 又得英宗所編葵塲錄曰 列聖朝治法征謨 盡在是矣 寶鑑編年 是錄彙類 便於覽省 尤要且切 命閣臣續纂之 王凡一日事爲 輒有記識 以起居注之多錯漏 命內閣 別爲編錄 取曾子曰三省之義 名曰日省錄 閣臣又錄登筵承聆聖語 爲日得錄 王 諭之曰 此錄如經義問難時政酬酢 欲資觀省也 若但溢美鋪張 後之觀者 謂此時何如也 嘗曠感於端廟時事 親製文致酌六臣 博考殉義諸臣 凡得二百三十人 設壇于莊陵側 春秋配食侑祀 有莊陵配食錄 每望拜皇壇 輒遣官審宣武祠 命李提督世祀不祧 宣額於龍灣之顯忠紀忠兩祠 竝膺七義士 林寅觀等九十五人 壇而酌之 以慰漢冠之獨葆秉義 斥和諸臣 竝皆表獎存錄 建忠臣義士壇 撰旌忠尙武碑 有尊周錄 王於三皇忌辰 輒御素膳曰 近古以上 公坐會食 不食牛肉 國忌 朝臣皆茹素兩日 先朝初年猶如此 今則不然矣 觀刈于東藉 賜勞酒田夫 下綸音勸農 每於元正 必下綸音勸農 而以觀刈又申之 王 常謂欲法堯舜 當法祖宗 恢廓之度 承乎太祖 巍煥之文 監乎世宗 英武若光廟 至行若孝陵 寤寐風泉 大義彰著 若孝廟 進退賢邪 威斷有赫 肅祖之治體也 建其皇極 保我世臣 英考之心法也 書曰 丕顯哉 文王謨 丕承哉 武王烈 其王之謂乎 先王魂殿 旣啓殯 王曰 喪禮補編 以魂箱行朝祖 夫喪禮 有進而無退 檀弓負夏

主人既祖 推柩而返之 子游譏其失禮 戶庭之內 推而返之 猶譏其失禮 況以魂箱出辭太廟 還奉殯殿 又魂返室堂 卽先儒之言 朝祖不以梓宮 而以魂箱俱非禮意 欲準古禮 則古今異宜 此不可遽議也 遂命依五禮儀 國制禫之日 陳軒懸振作 王曰 祥而縞 是月禫 徙月樂 孟獻子禫懸而不樂 夫子曰 加於人一等 慨廓之餘 何忍遽聞鐘鼓之音乎 禫月 大小法樂 懸而不作 著爲式 吉禘于太廟 特命忠獻公金昌集 配享于英宗廟庭 文正公宋時列 追配孝宗廟庭 始 政府議上英宗配享諸臣 以昌集未及逮事 不入於議 王曰 宋張浚 有功於孝宗建策 時議者有事在異朝 難於配庭之論 而楊萬里獨以爲當配 故相決策之大義 殉身之危忠 正當援張浚之事 又曰 孝廟之於先正 契合密勿 卽春秋大義也 不爲配享 誠欠典 於昭在上之靈 安知不有待於芬苾焄蒿之時乎 翼成公黃喜 追配世宗 文敬公金安國 追配仁宗 文正追配 又可已乎 桓祖誕降之八回甲乙卯 遣大臣 行酌獻禮于咸興本宮 咸興儒生 有以永興本宮典祀廳故蹟上疏者 王感悟 詢議廷臣 乃遣大臣禮官 躋享桓祖大王懿惠王后于永興本宮 兩本宮之奉先王先后位版 蓋原廟之制也 舊令內司別差典祀享 率多違禮 王 乃悉正其儀節 歲封衣幣 必宿齋躬蒞 祈穀于大社 陞爲大祀 飭諸路社壇 修治禁護 月報宗伯 考勤慢 享皇壇 始定親省牲器 從祀文靖公金麟厚於聖廡 改諡文正 賜額文正公宋時烈祠之在驪州者曰大老祠 御製御筆 爲碑樹其庭 徧修檀君箕聖 三國高麗始祖諸王陵 號溫祚王廟曰崇烈殿 禁宦侍毋敢與外臣接語 盡出巫覡于江外 僧尼勿許入京城 下綸音于諸道 講鄉飲酒之禮 又誥休老勞農廣敬因本之義 緣農書 應旨進書者甚多 我朝經制之書 世宗創六典 世祖著經國大典 成宗時有續錄 肅宗時有輯錄通考 先朝有續大典 王以原典續典 各爲一書 艱於考據 命取二典及續典後先王教令當寧受教 可著爲令者 通爲一書 是爲大典通編 頒行中外 嘗行大政 教曰 西京最重吏選 今也不然

用人既用科目 而文之侍從 反不若蔭武 內而未爲掌賦之官 外而未爲字牧之任 金穀甲兵 皆所茫昧 若使新進文臣 試吏下邑 習知民生之疾苦 及其駟召而來 箴言退牘 陳其利弊 九重雖邃 四野在邇 其有裨於民國 勝於日遺繡衣 乃飭文蔭武互差之政 王以不世出之姿 有大有爲之志 董正治官 斟酌質文 凡吉凶軍賓之儀文度數 莫不參伍經曲 博極今古 禮樂物采 粲然備成 以至官府郡縣 莫不有志 量衡律度 莫不有則 等謨銓注軍實獄決 邦用民數 莫不有考 而一部大典 秩然一王之成憲 詩曰 遙求厥寧 遙觀厥成 其王之謂乎 王 嚴恭寅畏 昭事上天 容光所照 未嘗跛倚 更衣便旋 未嘗北向 曰北辰所居也 遇疾風迅雷甚雨 必變必興 親祿宗廟 周旋出戶 齊齊乎其敬也 升降薦獻 趨進翼如也 百辟駿奔 莫不肅雍 其或命攝 則遣近臣 眠其事 出御齋殿以候 聞禮畢乃休 其陵園諸享 必進餽果糗餌 跪而嘗之 嘗大暑 御賓筵教曰 今日熱 輒有卿等夙退之意 此怠心也 仍竟日乃罷 清燕晉接 簡其禮數 天笑每新 溫然若家人父子 俄而出御法殿 群臣俯伏 仰首 莫敢仰視 曾經賓客兩坊官者 雖蔭官 稱其職而不名 雖內覲私昵 戚畹之臣 不敢干朝政 中涓之輩 非公事不敢輒至於前 嘗曰 接士大夫時多 接宦官宮妾時少 予於此庶無愧也 若金龜柱之以胄筵語 論洪鳳漢於大朝 則島棘之 洪樂任置頒曆單 洪守榮差享官 則竄兵判銓官 處分必赫然兩嚴 勤於政事 凡朝參常參賓對輪對 必皆行之 諸臣章奏 中外狀牘 卽報可否 無一或淹日 輒引接臣隣 多至夜分 禁鑰未開 命令已下 至中戾不遑暇食 有以過於勤勞爲言者 王曰 我自不疲 守成之君 只當以勤政憂民爲心 不如是 亦將安所用其心哉 慎乃儉德 衣有屢澣 非袞服則未嘗御錦綺 御膳 無珍奢奇鮮之味 寢殿樸陋 窓壁至熏煤如塗 有司請葺理 王曰 是豈有甚費而不爲哉 我自不見其爲陋也 御座之側 圖書器物 皆齊整有定處 堂皇 竅奧之內 井然如位著 亦可以仰知幽獨之地也 傳曰 齊莊中正 足以有敬

也 其王之謂乎 旱將祈雨 知製教撰進祭文 王曰 冊祝無罪己之語可乎 命改之 遂下綸音 以十事責躬 又嘗禱雨于大雩 列日中屏傘 蓋御步輿 至壇露坐 竟日既訖事 還宮不脫袞冕 以待已而果雨 王 顧諟明命 上帝是祗 每日 天遠乎哉 在方寸間 或有災沴 恐懼省檢 於始靡懈 固聰明聖知 百代之治亂 九流之藝術 人物之性情 鬼神之變化 無不心喻而意解曰 理一而已 包羅萬有 酬酢百爲 每臨筵 啓奏迭前 廟謨臺章刑獄財賦 一時并舉 泛應曲當 沛然有餘暇 取人爲善 不以踈遠卑賤而或遺 群臣進見 必假之顏色 導之使言 言或拂意 未嘗加之威怒 求言之教 前後十數下 嘗曰 先朝晚年 尙多危言激論 近日無敢言者 豈以寡人惡聞其過乎 急賢如渴 有以經術進者 有以文學進者 有以才猷進者 有以世祿勳舊進者 或拔擢於衆棄之中 或拂拭於罪累之餘 皆得自效其尺寸之能 嘗扁寢殿曰 蕩蕩平平室 又著萬川明月主人翁序以自喻 易曰 聖人崇德而廣業 崇效天卑法地 其王之謂乎 十四年庚戌 綏嬪嘉順宮 誕我殿下 王 命王妃 取以爲子 乃大赦 賜者民爵百歲人加給米肉 蠲諸道舊糴 減除諸稅 是歲大熟 二十四年庚申 正月上日 拜景慕宮 是月拜顯隆園 伏地嗚咽失聲曰 今日又忍辭園而歸耶 比還駕 益疚懷 自是頻有不安節 二月乙酉 冠我殿下 冊爲王世子 遵顯宗故事 嘉禮將并行於是年 嬪宮初揀 今坤殿膺選 永安府院君安東金祖淳女 是日還第也 特命具儀衛如三揀焉 至六月初 又有癩候 日沈劇 猶以民事不可緩 教承旨 毋滯啓奏 二十八日己卯 疾大漸 大臣閣臣入候臥內 王已不能語 而微微有玉音曰 壽靜殿 卽貞純大妃所御殿 蓋聖意若有仰告於慈聖者也 遂昇遐于昌慶宮之迎春軒 春秋四十九 大喪之日 都人士庶 顛仆哭踊 深山窮谷 莫不悲號 如喪其父母焉 嗚呼 痛矣 我殿下 與大小臣 考古諡法 謹上尊諡曰文成武烈聖仁莊孝 廟號正宗 若王之爲正 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道學之正也 建天地而不悖 俟百世而不惑 義理

之正也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治法征謨之正也 諡者 行之跡 號者 功之表 嗚呼 其庶矣 而大德得其名 獨不得其壽 天之所以保佑命之者 果何徵 豈亦所謂氣數之使然 而雖然儀式刑文王之典 日靖四方 宗廟饗之 子孫保之 萬世永賴 此可大徵矣 王妃金氏 清風府院君忠翼公諱佑明 顯宗明聖王后考也 而於后爲五世祖 左參贊贈領議政清原府院君靖翼公諱時默唐城府夫人南陽洪氏 后之考妣也 以英宗癸酉十二月十三日 誕后于漢師之私第 園之桃李 忽盡再榮 家人異之 已而后生焉 后德容天成 貞閒婉孌 動止有則 九歲膺揀選 英宗嘉甚 手書五世繼昔寔爲宗國八字賜之 至十歲之二月 冊爲世孫嬪 丙申正位中壺 庚申我殿下嗣服尊爲王大妃 議進尊號 后曰 先王不受號 以至慟在心也 未亡人受之 於先王精義何 我殿下雖缺然於孝心 而群臣益感服 庚辰冬 大臣禮官奏 再明年慈壽躋七旬 禮當稱慶 而其歲壬午也 請進行賀禮於膺揀周甲之明年 乃月正元日 殿下率世子百官 奉箋上賀 又將仰稽英宗丙子仁元大妃盛事 以議慶喜之典 后則益以爲疚 始微不豫 閱月漸劇 禮陟于同宮之慈慶殿 嗚呼 痛矣 后性仁孝恭儉 自入宮之初 屢際艱難之會 壬午之閏 有命惠嬪及后 各還私第 后願隨惠嬪所在 英宗聞而善之 事莊獻世子未半年 以承事之無幾 益爲沒身之慟 奉惠慶宮 怡愉洞屬 常若不勝 庚申以後 又一以王之所以事之者事之 於貞純大妃亦然 與二郡主 友愛甚至 恥言人過 喜怒不形於色 戚屬有失 未嘗加之誚責 但淵默不言 其人率慙惶甚於被譴云 尤以私家恩澤爲戒 雖以物施者 未嘗輒有私與 自奉甚疎約 服飾器用 僅取供給而已 中年 后忽有候若娠 王喜甚 亟設產室 踰歲竟無育至 庚戌即定大倫 顧復之恩 不啻已出 我殿下又愛敬篤盡 慈孝之盛 宛然如昔日 始戊戌 臺臣朴在源 以貞純諺教 有坤殿患候嗣續無望之語 請求良醫調治 國榮大怒 公坐叱罵在源 當此時 后之處洪嬪之難可知也 而王卒察在源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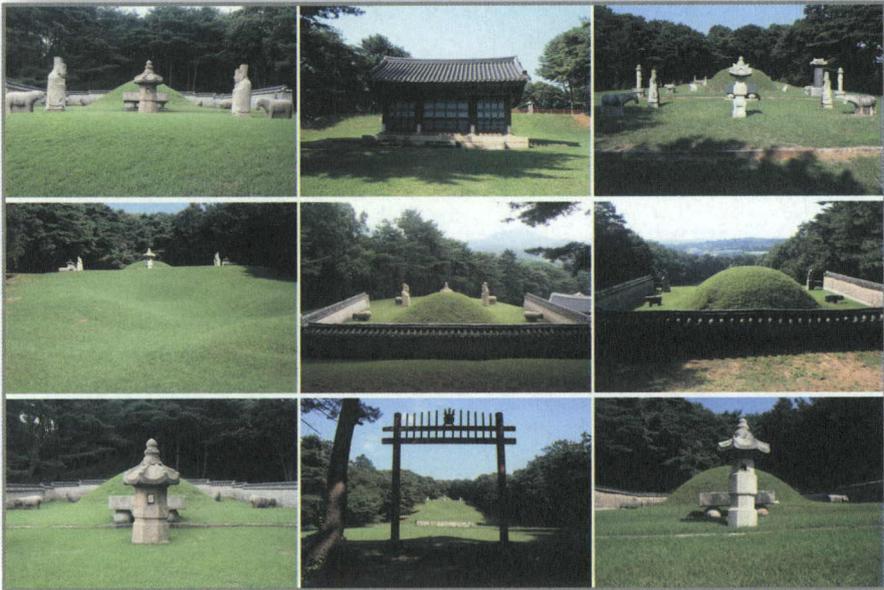
忠 特贈美官以旌之 兩殿之無間然又如此 此皆王之明而后之德也 其在長樂 則益無得以形容上天之載 嗚呼 其德之至矣 群臣悉慎錄上諡號曰孝懿 徽號曰睿敬慈粹 嗚呼 亦庶矣 后之籍系世德 有前大提學金祖淳所撰誌文 詳之 嘉順宮又生淑善翁主 下嫁永明尉洪顯周 殿下生二男 長世子 次不育 二公主 長封明溫 次未封 一翁主亦未封 淑善生一子 嗚呼 先王 亦嘗察臣戇拙 再攀墮髯 忍不葶蟻 而猥執記述 誠懼不足以知德之萬一 其忍敢溢 千歲在後 是可以質之矣 [大提學沈象奎製]

시군별 원모



여 백

1. 원
고양시



순창원(順昌園)

1. 연혁

원 주 : 순회세자(順懷世子)와 공회빈(恭懷嬪) 윤씨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지정번호 : 사적 제198호

봉원연대 : 1563년(명종 18)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을 지나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으로 접어들면 바로 오른쪽에 해발 235m의 응봉 산자락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서오릉에 도착하게 된다.

원래 서오릉은 ‘서쪽에 다섯 개의 능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오릉에는 5릉(경릉·창릉·익릉·명릉·홍릉), 2원(순창원·수경원), 1묘(대빈묘)가



멀리서 본 순창원

있어서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 왕실의 가족묘를 이루고 있다. 경릉은 덕종과 소혜왕후 한씨(인수대비), 창릉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 익릉은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 김씨, 명릉은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와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 홍릉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 서씨의 능이다. 또 순창원에는 명종의 맏아들 순희세자와 그의 부인 윤씨가, 수정원에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선희궁 영빈 이씨가, 대빈묘에는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가 묻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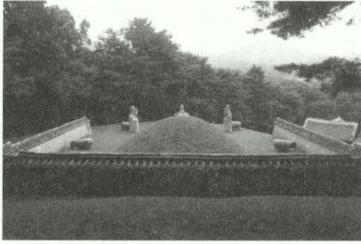
순창원은 조선왕조 제13대 명종의 원자 순희세자와 공회빈 윤씨의 능이다. 의경세자(懿敬世子, 추존 덕종)와 그의 비 소혜왕후 한씨의 능인 경릉 가는 길쪽에 위치하고 있다. 순희세자는 명종의 제1자로 명종 12년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3세에 세상을 떠났다. 공회빈 윤씨는 윤옥의 딸로서 선조 25년 3월 3일 세상을 떠났다.

홍살문 뒤로 짧고 좁은 참도가 남향의 정자각까지 이어진다. 정자각은 단청을 하지 않아 그야말로 고색창연(古色蒼然)하다는 표현이 절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묘소는 정자각과 일직선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45°정도 동남 방향으로 비스듬히 틀어 위치하고 있다. 이는 지형상 산줄기의 흐름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정자각을 기준으로 처진 울타



순창원의 참도와 정자각



뒤에서 본 순창원 봉분과 석상

이 보인다. 봉분은 단묘로 이루어져 있고, 봉분 주위에 양과 호랑이가 한쌍씩 에워싸고 있다. 그 앞에 상석과 장명등이 있고, 문인석 한쌍과 석마 한쌍이 있다. 망주석은 없다.

리 때문에 밑에서는 봉분이 보이지 않고 곡장과 장명등의 윗부분, 문인석 1쌍과 석마만 보일 뿐이다. 아래에서 올려다 보이는 문인석은 그 표정이 아주 온화하다.

홍살문을 지나 참도를 따라가면 정자각이 보이고, 정자각 뒤로 곡장을 두른 봉분

3. 원주 소개

순창원은 조선 13대 명종의 큰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 1551~1563)와 그의 빈 공회빈(恭懷嬪, ?~1592) 윤씨의 능이다. 순회세자는 7세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황대임의 딸과 혼담이 오갔으나 그녀가 병약하여 1년 넘게 가례를 미루자 1559년(명종 14) 윤옥의 딸로 세자빈이 교체되어 가례를 올렸다, 그러나 순회세자는 가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후사도 잇지 못한 채 1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순회(順懷)이며, 1603년(선조 36)에야 비로소 신주(神主)가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명종의 대를 이어 중종의 손자 하성군(선조)이 대통을 이었다.



공회빈 윤씨는 호군(護軍) 윤옥(尹玉)의 가까이에서 본 순창원의 모습



장명등과 혼유석

품의 품계)로 삼고 윤옥의 딸을 다시 뽑아 가례를 올리니 그녀가 바로 공회빈 윤씨이다.

그러나 순희세자는 몸이 약하여 13살의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그 바람에 공회빈은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고 30여 년 후인 159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살아서도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는데 죽은 후에도 불행했다. 그녀가 죽던 무렵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선조는 의주로 몽진을 떠나기 직전 장례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궁궐 후원에 임시로 가매장했다. 그리고 한성 탈환 후 돌아와 보니 가매장한 무덤은 파헤쳐져 흔적도 없었고 시신 또한 사라지고 없었다. 선조는 사람을 풀어 후원을 모두 파헤치며 시신 발굴에 나섰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선조는 시신없이 신주만 모셨는데,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신주마저 잃어버렸으니 죽어서도 불행한 여인이 아닐 수 없다.

4. 즐기 및 애책문

《燃藜室記述》卷11, 明宗朝故事本末 順懷世子

순회세자가 여섯 살이 되니, 어릴 때 교육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조정의 학행 있는 이를 뽑아 보양관(輔養官)이라 일컫고 수시로 접촉하게 하니, 안현(安炫)·이준경(李浚慶)·조사수(趙士秀)·임호신(任虎臣)이 뽑혔다. 《동각잡기》

○ 18년 계해년(1563)에 순회세자가 졸하였다.

과거에 임금이 어려서 정권이 대비에게 있고 간신이 국정을 마음대로 하니, 을사년의 옥사는 임금이 아는 바가 아니었다. 세자가 죽자 임금이 매우 애통하다가, 얼마 뒤에 “내 울어 무엇하랴. 을사년에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들이 죄 없이 떼죽음을 하였는데도 내가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 말리지 못하였으니, 우리 집안이 어떻게 대대로 군왕이 이어질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풀름하도다 임금의 말씀이여. 후세의 신하를 울릴 만하다. 《부계기문》

○ 선조 임진년에 공회빈(恭懷嬪) 윤씨가 창경궁 통명전에서 졸하였다. 세자의 무덤에 부장하려고 날을 정하였으나, 난리로 파천하게 되어 마침내 후원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이듬해 환도하여 보니 이미 파헤쳐 없어져서 끝내 찾지 못하였다. 《공사견문(公私見聞)》

○ 과거에 순회세자의 가례(嘉禮)를 행하게 되었을 때, 윤원형(尹元衡)이 그 사위 안대덕(安大德)의 가까운 친척 황대임(黃大任)의 딸을 점쟁이와 짜고 오주(五柱)를 고쳐 만들어 가장 길하다 하고 올렸다. 혼례 기일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대임의 딸이 갑자기 복통으로 매우 앓으므로, 임금이, “병자를 동궁에 짝할 수 없고 또 다른 데로 출가시키기도 어렵다.” 하고, 강등하여 양제(良娣 세자궁의 궁녀의 직함의 하나)로 삼았더니, 조금 있다 죽었다. 윤옥(尹玉)의 딸을 다시 뽑아 가례를 행하였는데, 이듬해에 순회세자가 요절하고, 임진년에 윤빈이 죽었다.

신축년 선조가 전교하기를, “공회빈 일은 내가 차마 말을 할 수 없다. 사변

으로 인하여 국가가 황망하여, 아직 신주를 세우지 못하였고, 순회세자 또한 신주가 없으니, 내 이를 생각하면 말할 때마다 눈물이 흐른다. 유사(有司)에 명하여 신주를 세우라.” 하였다. 《문헌비고》

○ 순회묘(順懷廟)가 도성 안 북쪽에 있어서 순회세자와 공회 윤빈을 모셨더니, 인조 병자란에 신주가 없어져서 정축년에 다시 만들었다.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 25年 3月 3日 甲子 <卒記>

順懷世子嬪尹氏卒 尹氏 參判珪之女 十歲應選 冊封德嬪 翌年世子卒 仁順王后遺命勿令出宮 上且未建儲嬪 仍處東宮 上待遇盡誠 諸妃嬪皆從受學 嬪性至貞潔 自世子喪後 終身常如宅憂 絕不許親戚出入宮禁 爲祈祝先靈 頗從事供佛 上憐之不禁 至是 卒 諡曰恭懷 將附葬世子園 工役大興 值倭變卒急 未及葬 而上出幸 侍嬪官吏若干人 欲權□後苑 而梓室重 不能移運 俄而宮殿火起 官吏皆散矣 宮人追慕悲慟以爲 嬪生時 崇尚釋典 邂逅火葬 亦合先旨 云

소경원(昭慶園)

1. 연혁

원 주 : 소헌세자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지정번호 : 사적 2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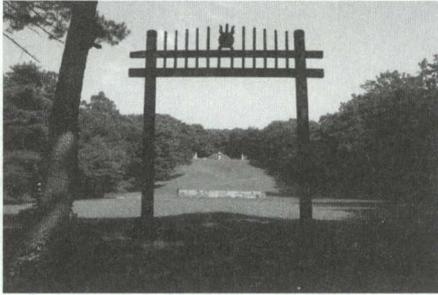
봉원연대 : 1645년(인조 23)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문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통일로를 달려가다 보면 고양시 삼송동 4거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356번 지방도로를 따라 조금 가면 농협대학 입구 삼거리에 이른다. 농협대학 안내 표지판과 함께 써있는 서삼릉 표시를 따라 달려가면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멋들어진 포플러나무 가로수길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곳을 지나면 서삼릉 입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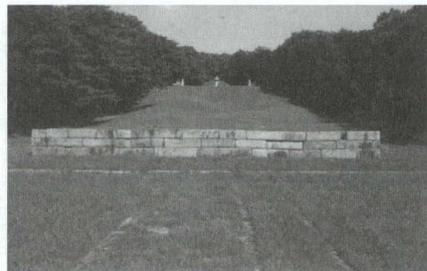


소경원 전경

서삼릉은 도성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릉(禧陵), 효릉(孝陵), 예릉(睿陵)이 이곳에 있다. 이 능역에는 이외에 소현세자의 소경원(昭慶園), 장조의 아들 의소세손의 의령원(懿寧園),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효창원(孝昌園) 등 3원과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懷墓)를 비롯해 조선 말기까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 등 46묘(墓), 태실 54기(基)가 들어서 있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왕실의 집장묘가 된 셈이다.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무덤인 소경원은 서삼릉에 있는 묘소들 중에서 가장 후미지고 외떨어진 장소에 있다. 특히 소경원 바로 옆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어렵다.

현재 소경원에는 홍살문은 있지만 정자각은 파손되어 그 터만 남아 있다. 봉분 주위에는 곡장을 둘러쳤고, 석호와 석양이 주위를 지키고 서있다. 혼유석과 장명등, 그리고 문인석 한쌍, 석마 한쌍이 소경원을 외로이 지키고 있을 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매우 한적하기까지 하다. 다만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어지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처음에는 소현묘라 했으나 고종 때 소경원(昭慶園)으로 격상되었다.



소경원 원경(앞에 보이는 단은 정자각터)

3. 원주 소개

소경원의 주인인 소현세자 [1612(광해군 4)~1645(인조 23)]는 인조의 맏아들로 이름은 왕이다. 어머니는 영돈녕부사 한준겸(韓浚謙)의 딸 인열황후(仁烈王后)이다. 빈(嬪)은 우의정 강석기(姜碩期)의 딸 민회빈(愍懷嬪)이다.



소경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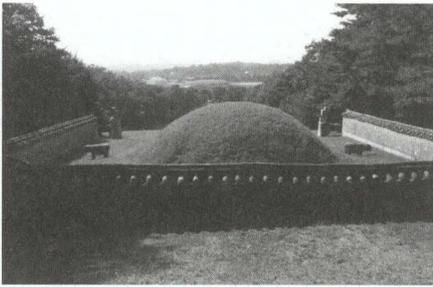
1625년에 세자에 책봉되고,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전주로 내려가 남도의 민심을 수습했으며, 그 해에 참의(參議) 강석기(姜碩期)의 딸 민회빈(愍懷嬪)과 혼인하였다.

이원익(李元翼)·장유(張維) 등을 빈사(賓師: 세자시강원의 1품관)로 맞아 왕자의 덕을 닦았다.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옮겨 청나라에 항전하려 했으나, 청군의 빠른 남하로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하다가, 중과부적으로 삼전도(三田渡)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다.



소경원 장명등과 봉분

그 뒤 자진하여 봉림대군(鳳林大君) 및 주전파 재신(宰臣)들과 같이 인질로 심양(瀋陽)에 갔다. 심양에 9년 동안 있으면서 1642년 3월과 1644년 정월에 두 차례 본국을 다녀가기도 하였다. 심양에서의 그는 단순한 질자(質子)가 아니라 대사(大使) 이상의 외교관 소임을



뒤에서 바라본 소경원 전경

하였다.

즉,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무리한 물자를 요구하면 그를 막으려 노력도 하였다. 청나라는 조선과의 일을 인조가 병중이라서 담판할 수 없다 하여 세자의 재량으로 처리하도록 강요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자는 본국에서는 무력한 존재이나, 심양관에서는 조청(朝淸) 양국간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자로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때문에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격이 되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청의 왕족 및 장군들과 친교를 맺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노력하였다.

1644년 9월에 북경(北京)에 들어가 70여 일을 머물면서 서양인이 주관하고 있던 천문대를 찾아가 역법(曆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인 신부 아담 샬(Schall J.A., 일명 湯若望)과의 친교로 천문·수학·천주교 서적과 여지구(輿地球)·천주상(天主像)을 전래하는 등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조정은 서인들의 집권과 함께 반청친명정책(反淸親淸政策)을 고수, 소현세자의 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하다.

특히, 소현세자는 300명이 넘는 시강원 관원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청의 요구를 막지 못하고 그들과 영합하면서 막대한 경비만을 국고에 부담시켰다. 또 때로는 사무역(私貿易)을 자행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행위로 인조에게 친청적인 인물로 보였으며, 후계자로서 부적격하다고 간주된 듯하다.

게다가 인조의 총비 조소용(趙昭容)은 세자빈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세자를 백방으로 모함, 심양관에서 세자의 과도한 영리 추구는 잠도역위(潛圖易位 : 세자가 인조를 대신해 왕위에 오르기 위한 공작) 또는 세자를 대신하여 인조를 청에 입조시키려는 공작이라고 모함하였다.

그리하여 인조는 심양관에 밀정을 보내 세자의 동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세자는 9년 간의 인질생활 끝에 1645년 2월 18일에 입경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환영보다는 냉대였으며, 세자에 대한 군신의 진하(進賀)도 못하게 막아버렸다. 세자 일행이 북경에서 가져온 서양 문물에 관한 서적과 물자도 인조의 노여움을 가중시켰다.

그는 뜻하지 않은 부왕과의 갈등으로 그 해 4월 23일 병석에 눕게 되고 4일 만인 26일에 급서하였다. 이와 같은 세자의 급서는 의관 이형익(李馨益)의 책임이라 하여 엄벌을 요구하였다. 이형익은 조소용의 외가와 관련된 인물로 3개월 전에 특채된 의관이였다.

인조는 세자의 사인을 규명하려 하지 않고 관례적인 책임도 지우지 않은 가운데 입회인을 제한하여 입관을 서둘렀다. 《인조실록》에는 시신은 9월에 서 출혈하고 있었으며 진한 흑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여 은연 중에 독살되었음을 시사하고 그 하수인으로 이형익을 지목하고 있는 느낌을 주게 한다.

그 뒤 세자빈이 역모를 꾸몄다 하여 민회빈은 물론 두 아들과 그의 친정식구, 그리고 세자빈과 친했던 많은 궁녀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세자를 죽인 장본인은 바로 인조일 가능성이 높다.

사후 소현(昭顯)으로 증시(贈諡)되었으며, 이식(李植)이 그의 묘지(墓誌)를 썼다.

4. 소경원지

李植, 『澤堂先生別集』卷6, 昭顯世子墓誌

上之十五年 有南漢之厄 王世子入質于清國 越九年乙酉二月 始獲返國 越四月戊寅 王世子有疾遽劇 卒于昌慶宮之歡慶殿 上在違豫中 親莅喪制 嗚呼 天運之戾 一至於斯 上下之慟 寧有既乎 擇卜越六月十五日丙寅 梓室發引 十九日庚午 葬于孝陵右洞坐乙向辛之原 命臣植爲之誌 臣謹按世子諱某 萬曆壬子正月四日己亥 誕生于會賢坊之潛宮 幼而岐嶷穎異 上之登寶位也 首選耆儒五臣 教訓備至 乙丑正月 禮加元服 策命爲王世子 丁卯之變 車駕將幸江都 先命世子分朝 鎮撫南服 大臣李元翼, 申欽等輔之行駐全州 開撫軍司 月餘兵罷 入覲江都 扈從還京 是年十月 行入學禮 十二月 聘參議姜碩期女 封嬪親迎如禮 甲戌六月 皇朝因奏請 頒降策封 誥命 并賜冕服彩段 大監盧維寧來宣 世子迎送享禮如儀 乙亥冬 仁烈王后升遐 秉禮宅憂 猝值丙子之變 從幸山城 丁丑 西行入藩 明年 請歸國行大祥祭而不得 庚辰春 始得請歸覲 甲申春 復歸覲 皆不得久留 是秋轉入燕京 清國已定河北 卽促世子輟還 嬪御及諸公卿質子大歸 上告廟頒赦 國人相慶 世子久留異域 數從軍旅 東獵朔荒 西穿燕塞 跋履山川 備經危險 雖神氣自若 而內受勞傷 還宮以後 連有寒熱之感 醫方錯誤 竟至不祿 嗚呼痛哉 世子壽三十四 嬪宮舉三男四女 元孫某 方就傳受學 餘竝幼 世子資性孝友 識度英毅 冲年撫軍 已自令旨指揮 一從大朝命戒 節損供御 殿飭陪從 專務省弊裕民 申令州縣 毋失東作 路見藁草覆澤 令曰 此以飼馬 軍興之時 切勿屑用 又廚禁牛肉 酥酪亦不許供 戒以勿殺耕牛 從臣請乘駕輜 不許 中途復請 則曰 今明日 乃大駕去邠日也 安敢坐乘 終不許 兩道帥臣 分三邑兵數千 以備護衛 世子曰 吾避敵南下 安用軍衆

可速入援京師 及次全州 西報又急 大臣議轉向嶺海 世子又不肯 湖南幾撓而復定 旋駕之日 南民父老男女 沿途頌祝 至今稱之 上之初駐山城 群臣請亟出如丁卯故事 世子哭泣 不欲違難遠離 既而清將 脅我以世子爲質 城中盡駭 三司力爭以爲決不可從 上亦不忍也 世子卽自請曰 苟安社稷而保君父 則臣何憚行 及被拘而西也 大君偕行 同館以處 怡愉日篤 諸從者一無間言 寧錦之役 見迫從軍 而世子會有微疾 從臣圖代以大君 及當再行 世子憫大君獨勞 諉以他故 而堅請自行 適以軍門之令 止之而止 時和好初定 事釁多端 殊方重譯 讒巧百端 世子處於兩間 不懼不忤 蹈難如夷 接應彌縫 舉無失辭 諸王群帥 久益歡洽 終不敢加以無禮 世子坦懷待物 絕去邊幅 待遇宮臣 一以和厚 諸有疾病困厄者 必周恤拯濟 盡力乃已 文學鄭雷卿在館 挑禍不測 世子冒危伸救 卒不得 則握手泣訣 哀動左右 襲斂諸具 皆自內備 聞者莫不感聳 常時尊敬師傅 聞其逝歿 必舉哀臨弔 雖已去職 特念舊恩 斷以己意而行之 此前所未有之舉也 上用廷臣議 取明德有勞行見中外之義 贈諡曰昭顯 吁其至矣 臣謹就耳目所聆睹 而志其大者如右 其他如春防所記禮儀之節 辭令之文 書筵講問 行館舉措 非係德行之本者 不能盡著 謹誌

5. 소현세자시책문

李植, 《澤堂先生別集》 卷1, 冊文 昭顯世子諡冊文

天降大戾 遽遭繼體之喪 國有彝章 宜備崇終之禮 勉循公議 少酬至情 惟爾世子某 孝友因心 英明挺質 詩書就傳 早膺儲貳之尊 監撫分朝 普慰軍民之望 豈料魯難之滋甚 而致秦質之久淹 星霜九年 祗續音問 水陸萬

里 備經艱關 尙賴中孚之感人 終獲前曜之返國 承華再闢 率土交權 將謂
否泰回環 大開宗社之慶 亦知拂亂增益 丕恢付託之圖 嗟予負何罪辜 俾
爾罹此天札 殆由勞瘁而成瘵 豈徒鍼藥之乖方 父子相逢 曾未數月 幽明
永隔 奄及一朝 投血拊心 忘疾疹之在己 殷憂永念 若夢寐之非眞 爰思表
德而流光 要在易名而詒後 茲遣某官某 捧册贈諡曰昭顯 於戲 重哀不暇
虛飾 嘉典不容溢辭 儀形已亡 雖莫追於泉壤 行迹可紀 尙有徵於簡編 庶
幾精靈 欽此寵命

6. 소현세자애책문

《潛谷先生遺稿》卷10, 册文 昭顯世子哀册文 乙酉

維歲次乙酉四月癸丑朔二十六日戊寅 昭顯世子卒于昌慶宮之歡慶殿 六
月壬子朔十九日庚午 將遷于高陽孝陵之後岡 禮也 銅龍曉闕 鐵鳳高騫
廠車整駕 齋翼前翻 遵幽坎之寂居 謝明離之胄筵 都民灑淚而頓地 且僚
泣血以呼天 我聖上以止慈之情 抱無涯之戚 哀朝出而不返 悲夜臺之永隔
日三朝兮何時 夢九齡之難得 爰降綸於金門 俾傳徽於寶册 其詞曰
猗歟聖朝 奕業重光 本支百世 神孫繼昌 惟我青宮 稟質純剛 早正位號
騰頌元良 波澄少海 彩增前星 心存典學 志在橫經 遭時不幸 百六斯丁
搶攘爲患 及於近壩 湖海分飛 兩宮行色 仁聲入人 在處涵澤 父老扶杖
延頸拭目 還于大都 離亂消息 如何慘禍 十年復作 國步斯頻 邦域一堞
危於綴旒 我是用急 挺身請行 幄後揮泣 苟紓其難 遑恤乎他 旣車言邁
萬里風沙 割慈忍愛 酸鼻驚骨 載馳載驅 不日不月 冰塞龍河 雪漫狼山
逾越險阻 備嘗艱難 逮乎留館 困甚邯鄲 馬不生角 鷄未鳴關 陟岵吞聲

念切回腸 秦聲越吟 奚獨思鄉 從于射獵 出入戎行 酷暑嚴寒 寧不致傷
方重歡於會合 庶萬年之和樂 忽一疾之無妄 遽徂芳於嗣德 嗚呼哀哉 物
極必反 不終則泰 信天道之常然 豈斯理之或悖 謂此後之能亨 已盡殄乎
災厄 曾日月之幾何 降禍變之斯酷 嗚呼哀哉 日晏龍樓 風悲鳳殿 禮絕問
寢 誰爲視膳 幸元孫之岐嶷 欣匕鬯之有托 繫億兆之顛望 知國祚之綿歷
慘樂樂之孺慕 增至尊之悲怛 嗚呼哀哉 書帷寂寞 講席淒涼 螺贏鳴恣 烏
衣語樑 塵牙籤之萬軸 消寶篆之清香 餘舊日之老璫 對宮官而涕滂 嗚呼
哀哉 日月有期 佳城載卜 龍盤虎踞 富媪儲福 百靈來朝 三方拱揖 依喬
陵之神隧 又蒼蒼兮松柏 仁祖在南 聖母在北 想英靈之相望 宛怡愉於平
昔 嗚呼哀哉 彭殤不齊 萬古若一 固定數之無改 雖大德其難必 惟其勞勩
而促算 恨與天地而罔極 紀遺蹟而掄揚 永垂休於窀穸 嗚呼哀哉

여 백

수경원(綏慶園)

1. 연혁

원 주 : 장조 사친 영빈(映嬪) 이씨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지정번호 : 사적 제198호
봉원연대 : 1764년(영조 40)
전원연대 : 1970년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을 지나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으로 접어들면 바로 오른쪽에 해발 235m의 응봉 산자락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서오릉에 도착하게 된다.

원래 서오릉은 ‘서쪽에 다섯 개의 능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오릉에는 5릉(경릉·창릉·익릉·명릉·홍릉), 2원(순창원·수경원), 1묘(대빈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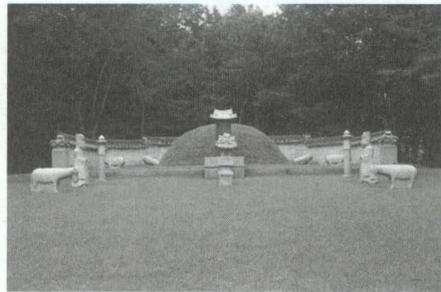


수경원 신도비

있어서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 왕실의 가족묘를 이루고 있다. 경릉은 덕종과 소혜왕후 한씨(인수대비), 창릉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 익릉은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 김씨, 명릉은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와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 홍릉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 서씨의 능이다. 또 순창원에는 명종의 맏아들 순회세자와 그의 부인 윤씨가, 수경원에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선희궁 영빈 이씨가, 대빈묘에는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가 묻혀 있다.

수경원은 영조 후궁 선희궁(宣禧宮) 영빈(暎嬪) 이씨(李氏)의 묘소이다. 처음에는 지금 연세대학교 의대 후편에 묘소를 정하고 의열묘(義烈墓)라 하였다가, 정조가 즉위하여 선희묘(宣禧墓)라 고쳤으며, 광무 3년(1899)에 영빈 이씨의 시호를 소유(昭裕)라 추증하고 묘소 또한 수경원으로 추봉하였다. 서오릉 경내로 옮겨진 것은 1970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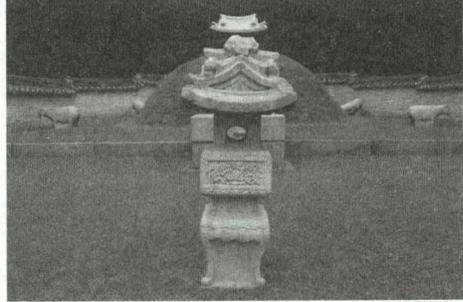
수경원은 낮은 언덕 위에 아담하게 꾸며져 있다. 봉분 뒤로 곡장을 두르고, 혼유석과 ‘영빈전의이씨지묘(暎嬪全義李氏之墓)’라 새겨 있을 뿐인 묘 중앙의 묘비, 뚜껑돌의 장식이 무거워 보이는 장명등, 그리고 키 작은 문인석 1쌍과 석마가 서 있을 뿐이다. 망주석은 새로 세운 듯 보인다. 묘 주위의 조용함이 아들 사도세자의 비운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미로서의 영빈을 쓸쓸하게 떠올리게 한다.



수경원 봉분 전경

3. 원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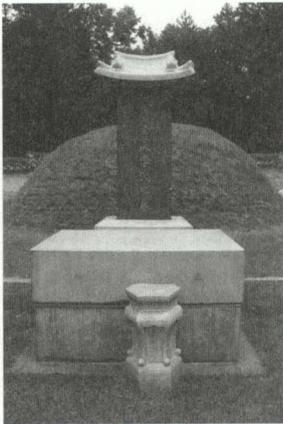
영조의 후궁인 영빈이씨[1696(숙종 22)~1764(영조 40)]는 조선 제21대 영조의 후궁이며, 사도세자(思悼世子: 莊獻世子)의 생모이다. 어려서 궁중에 들어가 귀인(貴人)이 되었으며, 1730년(영조 6) 영빈으로 봉해졌다.



수경원 봉분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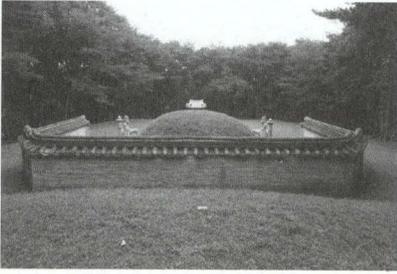
영조의 깊은 총애를 받았으며, 4명의 옹주를 낳은 뒤 1735년 원자를 출산하여 후사(後嗣)를 기다리던 영조를 크게 기쁘게 하였다.

1762년 사도세자가 폐위당하는 와중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1764년에 죽자 영조는 매우 애통해하면서 후궁 제일의 예(禮)로 장례하게 하였고, 이듬해 시호로 의열(義烈)을 추증하면서 친히 선시지례(宣諡之禮)를 행하기도 하였다. 소생으로 사도세자 외에 5명의 옹주가 있었다.



수경원 묘비석과 봉분

한편 영빈이씨(暎嬪李氏)의 신주를 봉안한 묘사(廟祠)인 선희궁(宣禧宮)이 있어 영빈이씨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宮井洞) 육상궁(毓祥宮) 내에 있었던 왕실의 사묘(私廟)인 선희궁은 1764년(영조 40)에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생모인 영빈이씨(暎嬪李氏)의 신주를 봉안한 묘사(廟祠)이다.



뒤에서 바라본 수경원

왕실의 사모란 조선 시대 정실왕비(正室王妃)가 아닌 후궁에게서 태어난 임금이 그의 어머니의 신위(神位)를 모신 곳이다. 1764년에 영빈이씨가 사망하자 시호를 의열(義烈)이라 추증하고, 묘의 이름을 의열묘(義烈廟)라고 하였다가 1788년(정조 12)에 선희궁으로 고

쳐 격을 높였다.

원래는 한성의 북부 순화방(順化坊 : 현재 종로구 신교동 부근)에 있었는데, 1870년(고종 7)에 신주를 육상궁으로 옮겨 모셨다가 1896년 선희궁으로 되돌려 모셨고, 1908년에 다시 육상궁에 옮겨 모셨으며, 그 옛 터에는 건물의 일부가 남아 있다.

전하는 바로는 영친왕이 태중(胎中)에 있을 때 순헌엄귀비(淳獻嚴貴妃)의 꿈에 영빈이씨가 나타나서 폐(廢)한 사당을 다시 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였는데 그뒤 영친왕을 낳고 나서 꿈을 꾸었던 일을 고종에게 말하여 제자리에 사당을 새로 지어서 다시 신주를 받들었다고 하나, 1908년에 신주를 다시 육상궁으로 옮겨 받들었다.

4. 영빈이씨 즐기 및 관련 기록

《英祖實錄》卷104, 英祖 40年 7月 26日(丙子)

暎嬪李氏 捐逝 上臨哭之甚哀 命以後庭一等禮葬之 惠嬪宮 依儀禮經傳 庶子爲父後者 爲其母服總之文 服以總服 暎嬪 誕生 思悼世子 在後

庭四十餘年 謹慎沈默 而處不幸之時 有保護之功焉

《英祖實錄》卷106, 英祖 41年 7月 11日(甲申)

上詢于大臣禮堂 特贈 暎嬪李氏 諡 義烈 親製教書祭文 駕臨于本宮
行宣諡之禮 惠嬪 宮王世孫 亦隨詣 夕還宮

《承政院日記》高宗 36年(光武 3年) 8月 10日(양력 9월 14일)

○ 의정부 의정 윤용선(尹容善)이 삼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칙지를 받들어 영빈(暎嬪)의 시호(諡號)와 원호(園號)를 의
정(議定)하여 들입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영빈의 시호망(諡號望)은 소유(昭裕) - 덕이 밝고 공로가 있는 것이 ‘소
(昭)’이고, 배우기에 힘쓰고 문기를 좋아하는 것이 ‘유(裕)’이다. - 였는데 삼
가 그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고, 원호망(園號望)은 수경(綏慶)이었는데
삼가 그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여 백

의령원(懿寧園)

1. 연혁

원 주 : 장조 장남 의소세손(懿昭世孫)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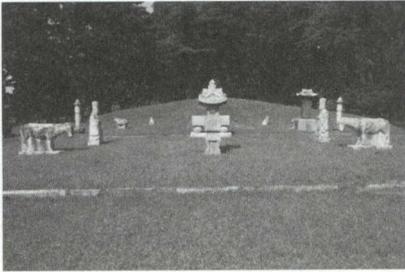
봉원연대 : 1752년(영조 28)

전원연대 : 1949년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문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통일로를 달려가다 보면 고양시 삼송동 4거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356번 지방도로를 따라 조금 가면 농협대학 입구 삼거리에 이른다. 농협대학 안내 표지판과 함께 써있는 서삼릉 표시를 따라 달려가면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멋들어진 포플러나무 가로수길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곳을 지나면 서삼릉 입구이다.



의령원 전경

서삼릉은 도성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릉(禧陵), 효릉(孝陵), 예릉(睿陵)이 이곳에 있다. 이 능역에는 이외에 소현세자의 소경원(昭慶園), 장조의 아들 의소세손의 의령원(懿寧園),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효창원(孝昌園) 등 3원과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懷墓)를 비롯해 조선 말기까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 등 46묘(墓), 태실 54기(基)가 들어서 있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왕실의 집장묘가 된 셈이다.

의령원은 조선 영조 때 왕세손에 책봉되었던 의소(懿昭)의 묘소이다. 의소는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큰아들로 영조의 손자가 되며 정조의 형이다. 1750년(영조 26) 사도세자와 혜빈홍씨(惠嬪洪氏) 사이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 그 해에 왕세손에 책봉되었으나 불과 3세 만에 죽었다.

영조는 세손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여 예절을 갖추어 묘소를 꾸미고 사당인 의소묘(懿昭廟)를 도성 내 영조가 왕에 오르기 전에 거처하던 창의궁(彰義宮)에 세워 절기에 따라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묘소는 도성 서쪽 안현(鞍峴)의 남쪽 기슭, 현재의 서대문구 북아현동 중앙여자고등학교 내에 세워져



의령원 묘비석



의령원 장명등과 분분

의소묘로 불리다가 1871년(고종 8) 의령원으로 승격되었다. 그 뒤 1949년 서삼릉으로 이장되었다.

현재 묘소에는 표석(表石)·장명등(長明燈)·혼유석(魂遊石)·망주석(望柱石, 1쌍)과 문인석(文人石)·마석(馬石)·호석(虎石)·양석(羊石)이 각 2구씩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나 장식은 모두 간소하다. 표석의 전면에 있는 큰 글씨와 음기(陰記: 표석의 뒷면에 쓴 글씨)는 영조의 친필이다.

3. 원주 소개



측면에서 바라본 의령원 근경

의소세손(懿昭世孫, 1750~1752)은 조선 장조(莊祖, 사도세자)의 적장자이며, 현경왕후(혜경궁 홍씨) 소생이다. 이름은 정(琜)이다. 정조의 형이기도 하다. 동궁에서 태어났고, 곧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 세손에 책봉되었으나, 1752년 3살의 어

린 나이로 일찍 서거하였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1899년 장종(莊宗)으로 처음 추송되었을 때, 의소세자(懿昭世子)로 격상되었고, 곧 장종이 장조의황제로 다시 추송되자, 의소태자(懿昭太子)로 역시 격상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당시 영조 때의 호칭에 맞추어 의소세손으로 불린다.

능원은 의령원(懿寧園)이며, 조카인 문효세자의 묘소 효창원 앞에 자리하고 있다.

4. 즐기, 시책문 및 애책문

《英祖實錄》卷76, 英祖 28年 3月 4日(乙丑)

王世孫薨于通明殿 教曰 數朔之內 哭婦哭孫 此懷何喻 世孫以今三月初四日卯時薨逝 儀曹知悉

趙觀彬, 《悔軒集》卷16, 應製文 王世孫冊封竹冊文

王若曰 震邸毓長男之祥 聿迓稀慶 泰統定世孫之號 爰舉彝章 輿情胥欣 國勢彌固 咨爾元孫某 降茲異表 在厥初生 叶聖母企望之情 晚景是慰 符寧考誕彌之節 哲命斯徵 襁褓未離 外庭聞岐嶷之譽 福祿攸萃 上穹鍾仁厚之姿 恤嗣昔年 悶何晚於主鬯 抱孫今日 喜猶早於含飴 此實祖宗陰隲之休 亦惟國家罕覩之慶 積德所暨 瓜瓞綿百世之支 重統有歸 磐石鞏萬年之業 念爾生之冲眇 不須位號之早加 顧予齡之衰遲 政合典禮之亟舉 茲乃稟承於慈旨 仍以詢決於僉謀 茲命爾爲王世孫 爾其副兩宮期 膺百神佑 在幼而仁孝天得 宜保赤子之心 及長而德學日將 可勉大人之道 爲父爲祖 精一之家法相傳 有子有孫 蕃昌之邦運方屆 幾何成長 隨問寢於龍樓 遐不賢明 贊延祚於鳳曆 而遠圖遵豫建之法 斯顯謨先蒙養之方 師傅僚屬之必親溫文 自學語始 阿保近習之母狎凝嚴 從在抱初 儘有孩提之良知 詎無訓戒之明諭 故茲教示 想宜知悉

趙觀彬, 《悔軒集》卷16, 應製文 懿昭世孫諡冊文

王若曰 至情無殤 撫斑衣而齋慟 尊名有諡 揭寶冊而揚徽 彝典式循 遺蹟斯著 惟爾世孫 自予抱爾 謂天祚邦祥 光亘星辰之墟 適值肇降 異姿挺日月之表 矧在嫡傳 惟岐嶷溫文之容 自有帝王家貴象 若仁厚慈孝之性

莫非孩提年良知 逮夫小邸之定名 倍多哀境之慰意 氣質儼成德器 纔二三
齡 聰明能辨隸書 餘六十字 長置寢殿之側 曠省輒悽 常侍膳牀之傍 臨餐
必勸 至於厭巧美而喜樸厚 允矣稟儉約而基淳彫 愛篤撫嬰 惟幸列祖之有
佑 期深託嗣 庶卜宗祧之無憂 胡彼天降甚酷之災 伊吾孫罹早闕之禍 始
謂例證之偶 劇治則自瘳 誰意異質之遽摧 奪之何速 既使生而又使夭 厥
理難徵 雖在天而亦在人 此恨靡極 虛期在初之哲命 永孤胎後之翼謨 三
殿抱違膝之哀 曷慰暮景 八域缺拭目之望 從見輿情 想形而悅覲朗眸 殯
留虛閣 迹蹟而益攷哀涕 事載實編 苟非節惠而垂名 則何賁幽而播遠 懿
是德性之內蘊 既淑且純 昭乃法容之外彰 惟恭與美 博採公議 少酬予恫
茲遣臣某 奉冊贈諡曰懿昭 襁褓罹災 縱未延於長筭 簡冊揚德 庶可徵於
寸毫 只冀不昧之靈 尚欽非溢之諭 嗚呼哀哉

《英祖實錄》卷76,英祖 28年 5月 12日(壬申)

葬 懿昭世孫 前一日 代奠官行啓殯奠 參贊 洪象漢 跪白曰 參贊 洪象
漢 謹以吉辰啓橫塗 繕工監官陞撤橫塗 參贊以巾拂拭梓室 覆以棺衣 祖
奠時至 行祖奠 亥時行遣奠 訖 讀哀冊官 韓光肇 詣冊案前 讀哀冊文曰
維歲次壬申三月初四日乙丑 懿昭世孫 卒于 昌慶宮之通明殿 越三月五月
辛酉朔十二日壬申 將遷于楊州 鞍峴之南麓 禮也 素帑初啓 丹旌載颺 工
祝撤祖而紛泣 池紵戒途而長往 惟我主上殿下 悼孫星之遽淪 悲少邸之永
閔 爰命詞臣 俾揚徽躅 其辭曰 天眷大東 篤生神孫 祥光耀霄 祿道祉繁
聰哲溫文 星眸日角 三殿奇愛 兩宮至樂 章幘受冊 接武少陽 甫及周歲
指對四方 辨字維幾 六十有九 曠省而涕 啓餐于手 玉音微聆 色聳喜騰
本然之孝 克邁 閔 曾 取樸厭華 尚質之德 宗祊警泰 八域延拭 胡穹昊之
宵漢 竟神理之多違 颺輪逝之難遏 渺真遊之莫追 嗚呼哀哉 蘭蓀夙茂 麟

騶競頌 謨貽燕翼 權洽含弄 縱嬰疚而彌留 期勿藥而遄復 俞 技窮而罔效
奄沖齡之不淑 嗚呼哀哉 雕檻兮淒淒 總帳兮寂寂 俯仰成陳 觸境增盡 想
朗音而在耳 緬岐姿而森目 恫無涯於重宸 矧衆渙之盈掬 嗚呼哀哉! 有苑
新岡 密邇天闕 英靈不昧 晨夕朝謁 慰聖懷之哀傷 詎有間於幽顯 玄扃掩
而厚夜 象設儼而擯獻 嗚呼哀哉! 今古丘原 脩短同歸 煌煌琬琰 千禩芳菲
寫至情於雲漢 淚字字而忍讀 嗟! 令名之永終 庶不泯於汗竹 嗚呼哀哉 訖
以冊還置於函 遂發輅 昇梓室官以淺淡服進輅 攝翊禮以淺淡服跪 贊請陞
輿 以教命冊印諡冊印哀冊 各置於腰舉 香爐香盒置於香亭 魂帛函安於腰
舉 神主函置其後 攝翊禮進 當梓室前跪 贊請詣輅 內侍奉銘旌降階 參贊
以淺淡服 帥昇梓室官及內侍 以輪輿奉梓室 降階 覆以素錦褚 攝翊禮跪
贊請陞輅 至外門外 攝翊禮跪 贊請陞輿 又跪贊請進發 魂帛輿腰輿羽葆
銘旌及鬻以次陳列 承旨淺淡服 講書院衛從司官衰服步從 [至板廡屏門 乘
馬隨行]至 宗廟 前路 昇士弛擔 攝翊禮跪 贊請進發 至 昌德宮 前路 亦
如之 至 崇禮門 外路祭所行路祭訖 百官奉辭 應陪從群官 以次陪從 至
墓所 奉安梓室於靈帳宮 行朝奠上食 行遷奠 參贊 洪象漢 跪 白啓攢塗
攝翊禮跪 贊陞輿陞輅 至羨道南奉辭位 用轆轤 奉下梓室 參贊 洪象漢
帥昇梓室官等 奉梓室 安於玄室大棺內北首 參贊率內侍 再整棺衣銘旌
令平正 都監提調率其屬 以黼鬻毳畫鬻 樹於梓室兩傍 鎖閉玄室 參贊
及持平 朴師訥 同監鎖 師訥 書其封曰謹封 參贊覆土九錘 仍築灰以塞
又以哀冊 跪奠於退壙之西 以贈玉帛函 跪奠於哀冊之南 都監提調帥其屬
奉明器服玩等諸具 以次陳之 帥作工續以終事 下誌石 群官哭再拜奉辭
誌文曰 我世孫幼諱 昌興 此乃百日命名也 卽祚二十六年庚午八月二十七日丑時
生於 昌慶宮之景春殿 生時紅光亘霄焉 卽 嬪宮 洪氏 誕生也 外
祖參判 鳳漢 永安尉 玄孫也 翌年辛未五月十三日封世孫 以五章服 抱奉

行禮於 崇文堂 生已碩大 儼然若成人 及册封 復命名曰 琯 處於同宮 歡慶殿 歲壬申三月初四日卯時 薨逝於 通明殿 得年纔三歲也 嗚呼 痛矣 此我世孫生卒也 嗚呼 三歲幼兒 豈述行錄 而有諡焉有誌焉 其無行錄 何以徵焉 飲泣以記 心膽欲摧 既述始末 宜錄行誼 而嗚呼 予豈忍爲三歲孫一字夸大乎 只錄其概焉 自二歲冬臘 能識字 古人六歲始教方名 而纔周年已指四方而對其所 知字數 侍者記之 乃六十有九字 且指李字而又自指 此謂我姓之意也 予有所食 來立案右 手開其蓋 昨冬因 孝純 喪 臨視者曠焉 若聞稱予 輒必飲涕 且聞予聲 雖遠且微 必聳聽而喜 是乃本然之孝也 凡兒性喜華美 而常取厚而質者 以此良知之孝 與其聰明 一疾彌留月餘 終至于難醫之境 明星之眼 開朗之音 何復見聞 嗚呼 痛矣 嗚呼 痛矣 親製行錄 仍作誌文 并與梓室上字 墓表前後面皆親書 [行錄藏於玄室 本廟 而誌文藏於魂遊石下]凡諸儀物 必也減制 令後人爲我孫哀殤焉 四月十二日 賜諡 懿昭 五月十二日 葬于楊州 鞍峴 南麓已向原 時皇 明 崇禎 紀元後三壬申暮春 爲我良知賢孫痛泣以識 俟閉玄室 題主官 洛豐君 楸陞詣卓前 先題陷中曰 朝鮮國 王世孫諱 琯 神主 次題前面曰 懿昭世孫 神主 訖 行立主奠 仍爲返虞 [并遵喪禮補編儀式]封墓制度 前面高六尺三寸三分 後面高五尺七寸三分 左右高六尺二分 經十九尺 圓五十七尺 樹表石 前面書曰 朝鮮懿昭世孫之墓 御筆也 後面御製文曰 予卽阼二十六年庚午八月二十七日誕生 壬申三月初四日卒 噫 得年纔三歲 五月十二日葬于 楊州 鞍峴 南麓已向原 嗚呼 此我世孫生卒也 前面大字 後面陰記皆親書 凡諸儀物 減其數減其制 令後人爲我孫見墓而垂淚焉 上具無揚黑紗貼裏 乘輿出明政門 百官以常時青戎服 只佩劔侍衛如常儀 上到宣仁門前路 召宣傳官教曰 舉動之時 路邊禾穀易致蹂躪 觀光民人侍衛軍兵 勿令踐踏之意 持二令旗 分付禁衛營都監 各別申飭 至懿昭墓所 入幕次 改

且哀服哭臨 午時臨壙 見下梓室 又爲哭臨後 還大次 且單紗戎服 乘輿出齋宮外 命奪大司諫 趙載敏 告身 罷持平 朴師訥 職 前日 上下臨壙一哭之教 諸承旨請對 上沕下嚴教 重推諸承旨及提稟中官 至以壅滯法駕 事係軍律責之 而兩司未及請對 是日 上自墓所 將回鑾 大司諫 趙載敏 始求對 上問之 載敏曰 親臨壙上 卽帝王家常禮之外 職在臺閣 何敢不言 上曰 只欲爲臺體而來耶 命補 機張 縣監 促令肅命 載敏 問承旨曰 “肅單當親呈乎 上以爲慢蹇 命投畀於 機張 持平 朴師訥 前進 上以其立奏而不伏 重推 師訥 纔發大諫二字 上以其被推而不爲引避 遞之 及上乘馬 師訥 未及戎服 以朝衣祇迎 命拿處 已而寢之 改命 載敏 奪告身三等 師訥 罷職 遂還宮 領議政 金在魯 入言 中官若不稟承旨求對 則是上下阻隔也 仍救 趙載敏 朴師訥 命竝絃用

효창원(孝昌園)

1. 연혁

원 주 : 정조 장남 문효세자(文孝世子)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2호

봉원연대 : 1786년(정조 10)

전원연대 : 1944년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문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통일로를 달려가다 보면 고양시 삼송동 4거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356번 지방도로를 따라 조금 가면 농협대학 입구 삼거리에 이른다. 농협대학 안내 표지판과 함께 써있는 서삼릉 표시를 따라 달려가면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멋들어진 포플러나무 가로수길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곳을 지나면 서삼릉 입구이다.



효창원 신도비

서삼릉은 도성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릉(禧陵), 효릉(孝陵), 예릉(睿陵)이 이곳에 있다. 이 능역에는 이외에 소현세자의 소경원(昭慶園), 장조의 아들 의소세손의 의령원(懿寧園),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효창원(孝昌園) 등 3원과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懷墓)를 비롯해 조선 말기까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 등 46묘(墓), 태실 54기(基)가 들어서 있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왕실의 집장묘가 된 셈이다.

효창원은 조선 제22대왕 정조의 원자인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이다. 당시 경기도 고양군 울목동(栗木洞 :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효창공원내)에 위치하였으며, 1944년 10월 9일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西三陵) 경내로 이장되었다.

서삼릉 경내로 이장하기 전에는 효창원 안에 순조의 후궁인 숙의 박씨(淑儀朴氏)와 그의 소생인 영온옹주(永溫翁主)의 묘가 문효세자의 생모인 의빈 성씨의 묘소와 함께 있었으나, 지금은 서삼릉내 의령원(懿寧園) 바로 앞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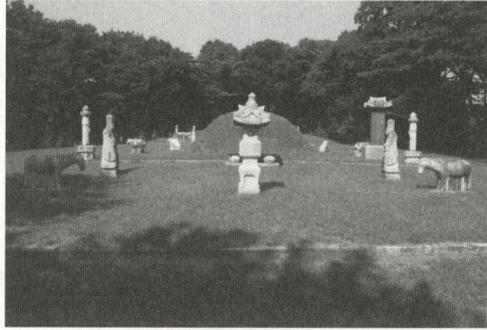
정자가 뒤 분릉에는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마석(馬石) 1쌍, 양석(羊石) 1쌍, 호석(虎石) 1쌍이 배치되어 있으며, 묘소 좌측 아래에 신도비가 있다.



효창원 정자각

3. 원주 소개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 ~ 1786)는 정조가 의빈 성씨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휘는 향(享),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1782년 9월 7일 새벽에 태어나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1786년 5월 11일에 5세로 요절한다. 그의 무덤인 효창원은 의빈 성씨, 영온옹주 무덤과 함께 현 효창



효창원 전경

공원 자리에 있었으며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이뤘으나 일제 강점기 때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되었다.

한편 의빈 성씨(宜嬪 成氏, 1753년 ~ 1786년)는 조선 정조의 후궁으로, 정조의 장남인 문효세자를 낳았다. 정조가 궁인들을 매우 불신해 멀리한 까닭인지 궁녀 출신 후궁은 의빈 성씨가 유일하다.



효창원 장명등

1753년 7월 22일 태어난 의빈 성씨의 아버지는 양반으로 생전 종2품 가선대부 벼슬까지 오른 증찬성 윤우이고, 어머니는 증정경부인 임씨이다. 정조의 후궁 화빈 윤씨의 처소 지밀 나인이었으나 정조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고 내명부 정5품 상의(尙儀)로 승격됐다가 1782년(정조 6년) 9월 7일, 성씨가 왕자를 낳자 그 뒤, 왕자를 원자로 책봉하고 왕세자로 책봉했다. 1784년(정조 8년) 윤 3월 20일에는 의빈 성씨가 딸을 낳지만 그렇게 얻은 옹주

는 첫 돌을 넘기기도 전에 사망하고, 문효세자는 1786년 5월 11일에 홍서한다. 1786년(정조 10년) 9월 14일 의빈 성씨는 세 번째 출산을 한 달 앞둔 몸으로 요절한다. 학계에서는 의빈 성씨의 죽음이 효의왕후에 의한 독살이라는 의혹이 있다.

모는 지금의 효창공원, 옛 효창원 자리에 있었으나 1944년에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일본의 의도로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됐으며 정조의 다른 후궁 무덤에는 없는 어제비 등이 남아있다. 현재 원빈 홍씨의 무덤과 나란히 있다. 정조는 특별히 안국동에 의빈 성씨의 사당을 만들어 의빈궁이라 불렀고 이는 고종 때 칠궁에 속했으나 순종 때에 매장되었다.

4. 문효세자책봉축책문

吳載純, 《醇庵集》 卷3, 應製錄 文孝世子册封竹冊文

篤生元良 荷宗祜錫羨之慶 早正儲位 遵國家鞏本之圖 爰稽舊章 庸舉顯冊
 咨爾元子 睿諱聰睿日就 岐嶷天成 冲齡之德器異凡 既挺美質 尺衣之周旋有
 度 不煩訓辭 嘉樹呈生花之祥 可占皇天之降佑 彌月叶流虹之節 尤驗聖祖之
 垂庥 肆致仁聞之夙彰 允宜封號之邁舉 統緒之托斯在 亮予衷之庸嘉 臣隣之
 籲屢勤 亦輿情之可見 早喻思法於周代 政須蒙養之方 徽規式循於皇朝 詎緩
 豫建之禮 茲命爾爲王世子 爾其誕膺遐福 懋闡丕猷 置師傅賓僚之官 俾導養
 之咸正 肆詩書禮樂之教 佇就將之漸新 惟修身莫如親賢 惟明理莫如講學 孝
 悌爲德行之首 實資孩提之良知 誠正作治平之基 宜勉精一之聖訓 夙興夜寐
 勿替誥誡之言 海潤星輝 庶副神人之望

5. 문효세자시책문

李福源, 《雙溪遺稿》卷5, 冊文 文孝世子諡冊文

旻天不吊 奪我元良 靈辰有期 錫爾嘉謚 寔循彝典 少慰至情 惟爾世子 其生也祥 所托者重 仁孝溫文之德 自夫始步能言 碩厚凝遠之姿 必然大受遐到 符聖祖之誕月 靈長之景福已占 用明德之古規 愛戴之輿情夙係 晚舉故兩宮之喜采切 早建者三代之禮式遵 受寶冊於周甲昌辰 瑞暉叶星海之頌 講孝經於重陽舊節 英音聳賓僚之聽 見子輒欣 盖愛敬之天賦 於物無好 獨編簡之日親 朝野延頸之誠 咸曰泰山磐石 日夕撫頂之祝 惟有松柏岡陵 何意无妄之痾 遽纏不淑之痛 疹憂迺復 既涓吉於呼嵩 醫技竟殫 奄傳哀於匝域 愴往事於涖灘 僅加二齡 泣諱辰於寢園 又屬此月 密邇玄隧之新卜 慘愴青邱之舊儀 斑衣在瞻 想音容之髣髴 甲觀如夢 凜宗國之孤危 蒙養燕謨 嗟萬事其已矣 節惠象德 惟二字爲庶幾 濟剛柔而成章 文以質美 自孩提而知愛 孝爲行源 爰命使臣 奉冊 贈謚曰文孝 於戲 名旣不浮 靈庶有格 默思大運之否泰 天理難諶 追述芳年之始終 予懷曷忍 昭垂簡策 永留不朽之光 幽贊神明 迺續無疆之曆

6. 문효세자애책문

金燧, 《竹下集》卷19, 哀冊文 文孝世子哀冊文

維丙午歲五月癸卯朔 十一日癸丑 文孝世子卒于昌慶宮之別堂 殯于瑤華堂 是年閏七月壬申朔 十九日庚寅 將遷于高陽栗木洞之原禮也 羽葆啓前 星斗正中 青鳥載卜 銅龍遂空 辭丹掖而逖違 就玄扃而永閔 匝千官兮兩泣 導百神兮雲衛 惟我主上殿下 情惟止慈 慟實由臆 悼離日之奄淪 念

震鬯之靡托 拊終事而曷慰 揭遺躅而將傳 爰命蘭臺 俾宣瑤鐫 其辭曰猗
我列聖 德配上帝 維帝維佑 克昌厥世 錫茲元良 承爲冢嗣 先休叶時 物
靈呈異 慶占流虹 祥符華棗 半夜嘒嘒 神光滿抱 克岐克嶷 天表日角 仁
孝良能 溫文自得 甫及三歲 儼若成德 聿循輿請 進策春邸 丹幘玄袞 步
采中禮 喜溢延頸 歡深繼體 繞膝怡愉 日侍殿宮 袞冕之臨 藹然笑容 履
綦之旋 怒焉啼呼 百行之源 殆其性乎 嗜好 在書 珍玩不易 未學語時 不
捨方冊 遊嬉必是 手摩目寓 若有心契 病猶不措 賓僚之接 克慎其儀 瞻
視必端 穆如有思 冲齡受經 肅祖攸行 時維重陽 歲又同庚 雷肆聽講 百
僚咸扑 德宇天成 睿思日闡 寔受景貺 宜壽宜福 鞏我國本 期永千億 胡
明兩之繼照 奄儲貳之告災 朝嚶嚶而夕咷 杳雲輶而莫回 嗚呼哀哉 曩罹
無妄 遘獲勿藥 庭呼有期 廟告在卽 俄二豎之復嬰 遽一曙之示憊 刀圭進
而罔效 牲幣遍而無賴 回縛儀而舉訕 輟賀班而頒哀 風輪轉而電掣 孰所
使而相催 嗚呼哀哉 挾雲漢兮籲蒼旻 叩著蔡兮質黃神 既周邱之毓靈 儘
湯降之不遲 若自天而申休 佇景命之無違 憑玄理而莫徵 繫誰咎而誰怨
書帷夕兮已闋 鷄寢曉兮誰問 嗚呼哀哉 瞻彼瑤華 玄纘載設 扇蓋在御 冊
盞陳列 爐香藹兮唱臚 宛鶴駕兮斯格 攀素帶而撤祖 拊陳蹟於觸目 追末
音於再呼 想孺慕於哀淚 顧羣情之若割 况宸痛之何既 嗚呼哀哉 佳城有
苑 栗林之岡 雙闕孔邇 二墓入望 觚稜峩而迥接 松柏夔而相向 倘幽顯之
靡間 庶晨夕之無曠 嗚呼哀哉 幽宅啓兆 靈馭戒紼 素衛外備 丹旒前發
銀漏盡兮月沈 玉宇寒兮露晞 仙遊邈兮上征 嗟一逝兮無歸 嗚呼哀哉 理
固難齊 物本同原 盈有定 得喪無門 雖懿德之未章 尚令名之不騫 撫遺範
於五齡 寫至哀於一篇 徵宸翰而紀實 庶垂曜於永年 嗚呼哀哉

7. 문효세자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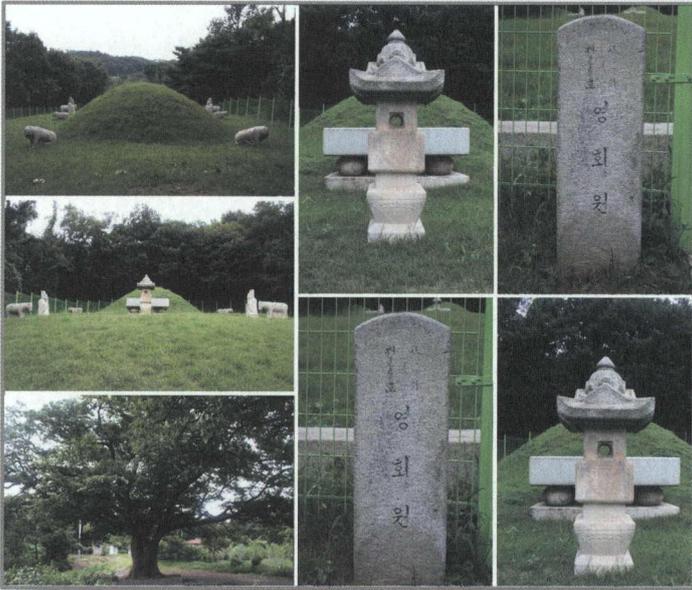
金鍾秀, 《夢梧集》 卷7, 墓誌 文孝世子誌文

世子姓李 諱回 今王殿下之長子 英宗大王之曾孫也 我殿下以莊獻世子之子 爲伯父孝章世子後 追尊孝章世子爲眞宗大王 英宗大王命也 宜嬪成氏 以壬寅九月七日寅時誕世子于昌德宮之讌華堂 是夜 忽有一道紅光照寢 如出日 比曉世子誕焉 英宗大王暨我殿下聖節 皆是月也 初慶熙宮庭中 有大棗樹 元宗大子在潛邸時繫馬云 其後樹枯 及顯宗大王辛丑 樹忽開花 而肅宗大王以是秋誕降 其後樹又枯 至是又花 實旣熟 上頒之近臣 聞者異之 同年十一月 封元子 上命王妃殿下 取而子之 甲辰八月 册爲王世子 英宗大王登極之年月甲子適一周矣 乙巳重陽 始講孝經于恭默閣 肅宗大王始講孝經之年月日再周甲也 丙午五月 患紅疹 旣平復 旋添膈痞 十一日未時 薨逝于昌慶宮之別堂 春秋甫五歲 我殿下親涖終事 事無纖巨一以禮 衣衾內出 不煩有司 議政府取剛柔相濟 慈惠愛親二法 上諡曰文孝 廟號曰文禧 墓號曰孝昌 閏七月十九日 禮葬于高陽栗木洞壬坐原 上以玄室之誌 命臣鍾秀 旣又書下御製錄紙 俾資撰述 臣上疏請遵仁顯王后明陵故事 以御錄作爲誌文 不許則謹就御錄 參以一二見聞 稽首流涕而叙之 世子儀表豐盈 器宇宏朗 慈良寬裕 仁心外形 望之嶷嶷然淵淵然 恒若有所思念計度者 動止有度 接賓僚 未嘗遊目 嘗夜室中偶失火 侍者皆睡 聞世子呼而覺 火不遂燃 時世子生未晬矣 及行册禮 方其受册于庭 而陞堂受賀也 端坐不抱扶於人 禮畢 上命諸臣近前仰瞻 諸臣一時陞陞 四面簇擁 而世子注眸周視 弗遺遠曲 上笑曰 是兒也 見生面人不羞澁 異哉 諸臣相顧嘖嘖曰 眞天人也 世子生而育於惠慶宮邸下 嬉戲率不離膝下 每上入 世子迎必以笑 及玉趾出戶 則呱呱而索之 疾旣殆 神識已離矣 忽大聲

呼殿下者再 于時上方御夾室也 翼日 上臨視則遽欠伸 開睫泣數行下 已而屬續 至性之終身不少變也如此 未學語 已知愛好書籍 室中有書字屏張 坐臥顧眄 不令須臾去側 幼多疾恙 雖牀褥中 不見有痛楚之色 或值啼號不寧之時 則左右不以奇玩以書卷 進周興嗣千字文 編條爲之垢弊 及疾欲試取書卷對展 則潛心諦視 若有領會者 始我殿下春秋鼎盛 而未有儲嗣 國人憂之 及世子誕生 卽婦孺下賤無不歡欣踴躍 民心之維係 盖已在名位丕定之先矣 又其生質之卓異 休徵之萃輳 有可以承精一之傳 撫熙洽之運者 皇天之眷顧我邦家 若有不偶然者 而奈之何不吊 一朝降割 遂致儲位空虛 匕鬯無主 嗚呼此何理也 臣竊伏惟念 世子睿質雖天縱 而方在冲齡 起居食息不離乎姆保之手 德美之外見者 盖尠矣 雖然 御錄六百有餘言 以我聖上辭令文章之動合典謨 而得之於顧復之間過庭之際者 可比惇史天質之剛柔合度 卿大夫之所瞻望而知之者也 愛親之根於天性 嗜書之殆同良知 宮中人之所傳頌而稱之者也 後千百代 觀於御製一通謚法八字 尙可徵其爲我聖上之肖子矣 嗚呼 豈不盛矣乎哉

여 백

광명시



영회원(永懷園)

1. 연혁

원 주 : 소현세자빈 민회빈(愍懷嬪) 강씨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지정번호 : 사적 제357호

원묘조성 : 1646년(인조 24)

봉원연대 : 1903년(고종 7)

원묘형태 : 단묘

2. 원 소개

서울에서 서부간선도로를 따라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달려가다 금천교에서 빠져나오면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가는 큰 길을 만날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한 치고개를 넘어가면 애기능저수지 입구



영회원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에 도착하는데, 이 저수지로 진입한 후 저수지를 따라 농원 안으로 들어가면 영회원을 만날 수 있다.



영회원 전경



영회원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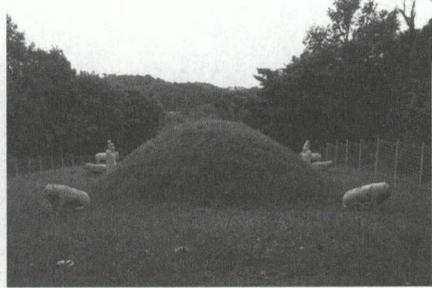
영회원 장명등과 봉분

영회원은 소현세자의 부인 민회빈 강씨의 무덤이다. 민회빈 강씨는 강감찬의 19대 손녀이기도 하며,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로 끌려가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다. 귀국 후 소현세자가 죽자 인조의 후궁 조씨 등이 민회빈이 소현세자를 독살하고 왕실을 저주한다는 모함을 하여, 궁궐에서 쫓겨나 1646년 사약을 받고 죽었다. 숙종 44년(1718)에 죄가 없음이 밝혀져 다시 복위되고, 고종 7년(1903)에는 무덤을 영회원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원묘의 시설은 봉분(封墳)·혼유석(魂遊石)·장명등(長明燈)·문인석(文人石)·석마(石馬)·석양(石羊)·석호(石虎) 등이 있으나 비석(碑石)과 정자각(丁字閣)은 남아 있지 않다.

3. 원주 소개

세자빈 강씨는 우의정을 지낸 문정공(文貞公) 강석기(姜碩期)의 딸로 인조 5년(1627)에 세자빈이 되었고 병자호란 때는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평소 민회빈과 사이



뒤에서 바라본 영회원

가 좋지 않았던 인조(仁祖)의 후궁(後宮) 조씨(趙氏) 등이 민회빈이 소현세자를 독살하였고 왕실을 계속 저주한다고 거짓 꾸며대는 바람에 인조 23년(1645)에 폐빈(廢嬪)되고 그 다음해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하였다. 그 뒤 숙종(肅宗) 44년(1718)에 세자빈 강씨의 결백함이 밝혀져 민회빈으로 복위되고 고종 7년(1903)에는 이 묘를 영회원(永懷園)이라 이름 지었다.

4. 민회빈복위반교문

송상기(宋相琦), 《玉吾齋集》 卷12, 愍懷嬪復位頒教文

愍幽冤而伸枉獄 旣循舉國之羣情 復舊號而備縟儀 聿修曠世之盛典 颺
茲天命 諭予深衷 言念乙丙年間 正值百六邦運 元良喪逝 懷乎國勢之多
虞 巨 猾恣睢 猖然禍心之潛蓄 讒言交煽於內外 釁孽遂起於宮庭 獄情
幽 盟坎之計何異 天威嚴重 覆盆之冤難明 逮有辛生之構誣 益肆壬人之
鍛鍊 闔門邁禍之慘 舉世同悲 聖祖恤孤之恩 微意可見 二三臣進言雖切

七十載飲恨無窮 人心久鬱則必通 事若有待 天道無往而不復 理亦可徵
肆庸集議於羣工 遂定追復於貳壺 乃於本月二十一日 以愍懷嬪姜氏 合奉
昭顯世子廟 滌丹書之舊案 爰及父母兄弟 配青宮之遺祠 仍共享祀芬苾
尊名寔表於行跡 像設更聯於寢園 禮數咸登 奚但邦典之無歉 泉塗改照
抑亦神理之獲安 茲爲稀闊之令章 豈非吉祥之善事 於戲 施仁布澤 旣無
間於存亡 蕩垢滌瑕 庶可推於遐邇 故茲教示 想宜知悉

5. 민회빈시책문

송상기(宋相琦), 《玉吾齋集》 卷12, 冊文 愍懷嬪諡冊文

滌九地之銜冤 追復位號 揭二字之節惠 寔遵彝章 斷自予衷 慰彼輿望
惟云云 親膺妙選 早配元良 受名父之訓辭 濡染有素 居家人之正信 內外
相成 懽愉久奉於兩宮 警戒寧忘於一日 間值虜氛之凌逼 奄見國步之蒼黃
隨廟社於江都 備經艱險 作羈質於瀋館 屢易星霜 逮鶴駕之言旋 並象服
而無恙 夫何哂笑之未久 遽爾倚伏之相仍 痛身世之未亡 但有血泣 怨昊
穹之不弔 若無憑依 嗟乎邦運之愈屯 重以宮掖之有變 孽豈自作 蓋緣讒
間之孔深 事有難言 終致恩愛之莫保 哀哉母子之并命 慘矣兄弟之何辜
孤墳久寄於松楸 已失離祔 私廟堇延於香火 曷稱情文 道路爲之咨嗟 婦
孺莫不傷盡 構獄之兇賊肆市 足徵天道之好還 訟冤之直臣復官 可見聖祖
之微意 覽文貞之徽蹟 世德可占 瞻永慶之遺祠 感懷彌切 全家之枉盡洗
儷鬯之位重光 儀章一新 追視震邸之例 物采咸備 若在京室之初 邦禮自
此得宜 神理亦應無憾 祇告太廟 詎嫌先朝之未遑 移奉別宮 幸睹曠典之
克舉 謹遣臣云云 於戲 除丹書之舊籍 庶慰孤魂 托彤管之新詞 永垂遐祀
嗚呼哀哉

여 백

남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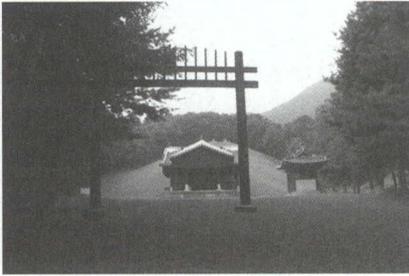
순강원(順康園)

1. 연혁

원 주 : 원종 사친 인빈(仁嬪) 김씨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동
지정번호 : 사적 제356호
봉원연대 : 1613년(광해군 5)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으로 가는 47번 국도를 따라 포천쪽으로 가다 보면 밤섬유원지를 지나게 되는데, 이곳을 지나면 내각리로 들어가는 삼거리 길이 나온다. 이곳 삼거리에서 내각리 마을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면 마을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순강원에 도착할 수 있다. 현재 순강원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나, 관계기관의 허락을 받으면 관람



순강원 원경

할 수 있다.

순강원은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후궁이며 원종(元宗 : 후에 추존됨)의 생모인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묘(墓)이다.

인빈 김씨는 조선 16대 인조의 할머니이며,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추종된 왕)의 생모이다. 무덤 주위를 둘러싸

는 담장(곡장)을 둘렀으며, 묘비석을 비롯하여 여러 석조물이 있다.

원(園)의 시설로는 봉분(封墳) 곡장(曲墻) 석호(石虎) 석양(石羊) 묘비석(墓碑石) 혼유석(魂遊石) 망주석(望柱石) 문인석(文人石) 장명등(長明燈) 사초지(莎草地) 등이 있으며 묘소 앞에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이 있고 묘진입로에 신도비(神道碑)와 재실(齋室)이 있다.

기록은 묘갈(墓碣)의 전면에 「유명조선국인빈김씨묘(有明朝鮮國仁嬪金氏之墓)」라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기록이 없다. 정자각의 동측 비각안에 있는 비(碑)의 전면에 「유명조선국경혜인빈순강원(有明朝鮮國敬惠仁嬪順康園)」이라 새겨져 있으며 건립시기는 「황명승정기원후삼십이해초추립(皇明崇禎紀元後三十二亥初秋立)」이라 새겨져 있어 숙종(肅宗) 21년(年)(1695)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조 31년(1755)에 무덤을 순강원이라 명하고 지위를 승격시켰다. 또한 위패는 저경궁에 모셨으며, 순종 2년 역대 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의 생모인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칠궁(七宮)으로 포함되어 옮겼다.



순강원 정자각

1755년(영조 31)에 영조는 인빈김씨의 사우(祠宇)를 봉안하고 증축하려 하였으나 국법에 어긋나서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과 예관(禮官)을 불러 모아놓고 추숭(追崇)할 것을 토의하여 육상궁(毓祥宮)의 전례를 좇아서 사우를 저경궁(儲慶宮)으로 하고, 묘를 순강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그의 지위를 승격하였다.



순강원 전경



순강원 장명등과 봉분

그리하여 궁원(宮園)의 식례(式例)에 의거, 수호군(守護軍) 원호(元戶) 30명을 병조에 명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역사를 시작하였다.

3. 원주 소개

인빈 김씨[1555(명종 10)~1613(광해군 5)]는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후궁으로 본관은 수원(水原)이고, 아버지는 감찰 한우(漢佑)이며, 어머니는 충의위(忠義衛) 이성(李誠)의 딸이다.

명종의 후궁 숙의 이씨(淑儀李氏)의 외종(外從)으로 궁중에서 자라났는데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가 보고 기특히 여겨 선조에게 부탁하여 후궁으



순강원 비각

5년(1613) 10월 29일에 59세로 별세하였다. 사후(死後) 칠궁에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있다.

영조 때 시호를 경혜(敬惠), 궁을 저경(儲慶), 무덤은 순강원(順康園)으로 정하였다.

로 두게 하였다. 이때 나이 14세였다.

후궁 가운데에서 가장 왕의 총애를 받아 정원군(定遠君 : 元宗)을 포함, 4남 5녀를 두었다. 인빈(仁嬪)은 후궁이 되어 저경궁(儲慶宮)·인조의 잠저]에서 살았으며 광해군(光海君)

4. 인빈김씨즐기

《光海君日記》 卷71, 光海君 5年 10月 29日(癸丑)

宣祖 後宮 仁嬪金氏 卒 [嬪生 義安 信城 元宗大王 義昌 四君及五公翁主 有術數 善於彌縫 弟 (金公亮)[金公諒] 以賤官 交結李山海父子 山海 遂以飛語 通于內間 讒大臣去之 自此嬪得干政之刺 而山海 亦爲士論所棄矣 王母恭嬪 素與仁嬪 有隙 及恭嬪 以産病卒而仁嬪代之 王兄弟寵遂衰 山海 讒大臣者 乘此機也 王兄弟因此甚怨 嬪家人亦爲嬪危之 及王在東宮 數失 宣廟 意 自大妃以下諸後宮 遇東宮多不敬 嬪獨厚事東宮 其所欲爲 皆密白 上遂之 柳永慶之攻 鄭仁弘 宣祖 方怒東宮 嬪爲伸理得解 及王卽位 起臨海之獄 嬪從中有力 故元宗 義昌 皆參定社功臣 王

嘗曰 吾受庶母恩 得保今日 義不敢忘 是以終嬪之世 元宗 兄弟皆無恙]

5. 관련 기록

이금익, 《燃藜室記述》 卷22, 元宗故事本末

경혜 인빈(敬惠仁嬪) 김씨는 감찰(監察) 한우(漢佑)의 딸이며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을묘년에 태어나서 계축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는 59세였다. 궁의 칭호는 저경(儲慶)이고, 어머니는 이씨인데 충의위(忠義衛) 효성(孝性)의 딸이다. 무덤은 순강원(順康園)이다. [양주(楊州) 풍양리(豐壤里)에 있는데 자좌오향(子坐午向)이다.]

○ 인목왕후(仁穆王后)의 대례(大禮)를 거행하던 날에 여러 후궁들이 불평한 기색이 많았으나, 유독 인빈(仁嬪)만은 말과 얼굴빛도 태연하였고, 임금에게 곤룡포를 받들어 올릴 때에도 좌우에서 시중들면서 특별히 기쁜 일이 있는 것처럼 하였다. [《공사견문(公私見聞)》]

○ 인빈은 임금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 네 왕자와 다섯 옹주(翁主)를 낳았다. 자녀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면 인빈은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 불안히 여기면서 “나라가 불행하여 중전께서 왕자와 공주를 낳지 못하고 내게 자녀가 있음은 다만 나의 배를 빌려서 낳은 데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내가 어찌 감히 그대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으리오.” 하고, 또한 감히 너라고 부르지 않았다. [《공사견문》]

○ 선조의 중년(中年)에 김공량(金公諒)이 인빈의 오빠로서 임금의 두터운 종애를 받으니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도 조관(朝官) 한 사람이 더욱 지나치게 친하니 구성(具晟)이 마음속으로 그 하는 짓을 미워하

였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대각(臺閣)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사람을 탄핵할 것이다.” 하니, 조관(朝官)이 구성을 빼에 사무치게 원망하여 김공량을 시켜 증상모락을 꾸몄다. 이에 선조(宣祖)가 구성이 혹시 훗날에 인빈 자손들에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이때 정원군으로 있던 원종(元宗)을 드디어 구성의 누이동생의 배필로 삼았는데 이가 인헌왕후(仁獻王后)이다. 후에 인조(仁祖)가 왕위에 오르자 구성의 자제들은 훈척(勳戚)으로서 여러 대로 세력이 혁혁했으니 그 까닭을 따져보면 모두 조관(朝官)이 구성을 증상하려고 계책한 것이 도리어 영화가 되었으니 재앙과 복이 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다.[《공사견문》]

○ 과거에 명종이 늦도록 대를 물릴 아들이 없으므로 문정대비(文定大妃)가 매우 걱정하였는데 어느 날 저녁 꿈에 이인(異人)이 고하기를, “상주(尙州)의 이 아무개가 딸이 있는데 궁중에 들여오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꿈을 깨어 사람을 시켜 물색했으나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는데 문득 한 승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가리켜 주어, 드디어 찾아서 후궁에 들였으니 바로 이숙의(李淑儀)였다. 숙의는 끝내 아들이 없었으나 인빈은 그(이숙의)의 외종(外從)으로서 궁중에서 길러졌는데 인순왕후(仁順王后)가 보고 기특히 여겨 선조에게 부탁하여 후궁으로 두게 했는데 이때 나이 14세였다. 뒤에 4남 5녀를 낳아 길렀는데 원종도 인빈이 낳았다.[《계곡집》]

○ 저경궁(儲慶宮)은 승례문 안에 있었다. 옛날 명칭은 송현궁(松峴宮)이고 본래는 인조의 잠저(潛邸)였는데 영조 을해년에 인빈의 신위를 봉안(奉安)하고 궁(宮)과 원(園 무덤)의 칭호를 정하며 시호를 정하도록 명령하여 곧 거행하니 시호를 경혜(敬惠)라 하고, 궁은 저경(儲慶宮)이라 하고, 원은 순강(順康)이라고 정하였다. 축문(祝文)에는 선비(先妣)라 쓰고, 임금이 친히 제사지내고 성묘할 때는 백관이 예를 행하였다.

6. 인빈김씨신도비명

張維, 《谿谷先生集》 卷13, 碑銘 仁嬪金氏神道碑銘[并序]

崇禎六年冬十有一月 上命臣維若曰 自予受封有國 于今且一紀矣 仁嬪墓道顯刻闕焉 非緩也 蓋有待也 今將樹樂石 爾其銘之 臣承命祇慄 謹按金氏本出水原 考諱漢佑 司憲府監察 妣李氏 忠義衛孝性之女 以嘉靖乙卯二月甲午 生嬪 幼有異質 婉婉靚穆 迥出倫類 雖當游戲 不違女則 表姊淑儀李氏 明廟後宮也 取嬪養于宮中 仁順王后見而異之 屬宣祖大王備後庭 時年十四歲 嬪自受內職 承上以敬 涖下以恕 睿眷彌隆 飭身愈謹 宮中翕然稱美 以爲儀則 萬曆癸酉 賜號淑媛 序陞貴人 懿仁王后弗豫 嬪躬侍藥餌 日夕不離側 及上仙 自含襲斂殯 凡禮之在內者 嬪悉司焉 舉無愆違 丙午 進爵仁嬪 戊申 宣廟昇遐 嬪哀毀踰制 過三年 出居私第 屏去華飾 笑不見齒 恒以未卽下從爲隱痛 時節子姓或備禮設壽席 而未嘗以爲權 癸丑十月某日 以疾卒 春秋五十有九 是歲十二月某日 葬于楊州豐壤里子坐午向之原 嬪天資溫粹 婦德淳備 承宣廟恩渥四十年 自持卑遜 終始不爽 平生無疾言遽色 雖娛隸之微 不以惡言詬詈 親疏貴賤 各得其心 方光海無道 宣廟支屬 咸惴惴危懼 不保朝夕 而嬪處之有方 光海亦敬服 終嬪之世 不敢加以禍患 嬪旣卒 而綾昌之獄作矣 嬪育四男五女 男長曰義安君城 未娶夭 次信城君珩 娶漢城府判尹申砬女 次卽元宗大王 次義昌君珖 娶某官許箴女 女長曰貞慎翁主 適達城尉徐景靄 次貞惠翁主 適海嵩尉尹新之 次貞淑翁主 適東陽尉申翊聖 次貞安翁主 適錦陽尉朴瀾 次貞徽翁主 適全昌君柳廷亮 元宗大王初封定遠君 配連珠郡夫人具氏 議政府左贊成思孟之女 誕三男 長卽我殿下 次綾原大君備 娶柳氏女 坐其父累 奪封爲妾 次綾昌君佺 少有儁才 爲光海所忌 被誣以謫卒 光海昏虐日甚 幽囚母后 毒痛萬

民倫紀數絕宗社將危至天啓癸亥我殿下因中外之望撥亂反正奉大妃復位大妃命殿下承大統乙丑夏皇帝遣太監王敏政胡良輔冊封國王賜誥命冕服初追尊定遠君爲定遠大院君連珠郡夫人進府夫人久之追上大院君尊號曰元宗敬德仁憲靖穆章孝大王夫人曰敬懿貞靖仁獻王后請命于皇朝天子下制追封賜王諡曰恭良於是上命有司仁嬪祠廟每忌辰節日官供祭具又置守冢十五名于墓所殿下聘王妃韓氏領敦寧府事浚謙之女誕生王世子某次鳳林大君溟次麟坪大君潛世子聘判書姜碩期女爲嬪鳳林娶新豐君張維女麟坪幼未婚信城君有一女適典籍安弘量達城尉有三男五女男曰貞履縣監正履慎履學生女適進士金珪次適直長李命寅次適學生沈伉次適佐郎權堦次幼海嵩尉有二男曰墀文科水原府使丘文科修撰東陽尉有五男四女男曰冕生員昇進士炅最高學生女適洗馬洪命夏次適學生姜文斗次適生員金佐明次幼錦陽尉有一男世橋學生全昌君有二男二女男曰淦參奉洽學生女適進士李重揆次幼安弘量有二男一女男曰鉞曰某女適韓以成徐貞履有一男一女金珪有一男弘錫進士李命寅有三女沈伉有二男曰之游之泳權堦有二女尹墀有一女適學生金益兼申冕有一男昇有一男一女炅有一女最有一女洪命夏有一男一女姜文斗有一男金佐明有一女朴世橋有二女柳淦有二男二女李重揆有一男臣維竊觀天人合應之理似微而實顯以仁嬪之柔嘉懿範上承宣祖盛德克迓天休篤生聖子神孫光啓中興赫業跡其所以臻斯盛者夫豈無自而然哉易稱視履考祥又曰自天佑之吉無不利以今驗之理有不可誣者猶歟休哉始明廟晚而無嗣文定大妃憂之甚一夕夢異人告之曰尙州李某有女子納之則吉覺而使人物色之不能得忽遇一僧指其所居遂得之納于後宮是爲李淑儀淑儀竟無子而仁嬪實因淑儀得進厥後嗣續昌大五廟之統卒有所歸文定當日之夢殆天之啓衷乎臣旣敘次如右系之以銘曰

曜炳靈 昭質挺世 蘭芳玉潔 明詩服禮 青規密侍 彤管自飭 居寵若驚 履泰彌約 惟和惟順 協于下上 神之聽之 百福來嚮 錫以祚胤 既蕃且仁 螽斯蟄蟄 麟趾振振 聖子篤祐 神孫膺命 宗祀重光 彝倫再正 遠矣餘慶 式至今休 于邦于家 本支同庥 豐岡鬱蔥 有石崇崇 刻此銘詩 永示無窮

申欽,《象村稿》卷27,神道碑銘 仁嬪金氏神道碑銘[并序○餘稿]

仁嬪金氏既卒之十一年 我殿下受命踐阼 越五年丁卯 命樹麗牲之石於仁嬪墓道 敎臣申欽紘之 臣欽謹拜手稽首而言曰 若稽金氏 自出水原 考曰漢佑 司憲府監察 妣曰李氏 忠義衛李誠之女 嘉靖乙卯二月甲午生嬪 稟有淑質 與倫類殊 婉婉靚穆 已著於弄瓦之日 雖爲游戲 不違女則 表姊李氏爲明廟後宮 取養于宮中 時年十四 仁順王后一見輒異之 屬宣祖大王 備後庭 嬪目受內職 益兢兢飭已 承上以敬 莅下以恕 居寵而畏 臨事而謹 令聞徽赫 壺闕之中爲式焉 萬曆癸酉 賜號淑媛 序陞貴人 庚子 懿仁王后不豫 嬪日侍側夔夔 躬調藥餌 久而彌勤 及上仙 含襲服殮以泊于殯 嬪俱司之 率禮無愆 丙午 進爵爲仁嬪 戊申 宣祖大王陞遐 嬪哭擗哀毀 有踰於制 過三年出居私第 癸丑十月 邁疾棄養 春秋五十有九 是年十二月 卜楊州豐壤里子坐午向之原窆焉 從亡子兆也 嬪有四王子五翁主 王子長曰城 義安君 未娶而夭 次曰珣 信城君 娶漢城判尹申砬女 亦早歿 女一人 安弘量 次曰瑋 定遠君 娶贊成具思孟女 封連珠郡夫人 次曰玠 義昌君 娶吏曹判書許箴女 無子 翁主長曰貞慎翁主 適達城尉徐景霽 次曰貞惠翁主 適海嵩尉尹新之 次曰貞淑翁主 適東陽尉申翊聖 次曰貞安翁主 適錦陽尉朴瀾 次曰貞徽翁主 適全昌尉柳貞亮 定遠君有三男 惟我主上殿下居冢子之位 見光海當宁 幽囚母后 殄滅倫紀 虐害黎元 中外離心 宗社之危 僅如一髮 癸亥春 因臣民之望 撥亂反正 克奠神天 乙丑夏 皇帝差詔使太

監王敏政 胡良輔冊封 降誥命冕服以章之 我殿下考據典禮 追崇定遠君爲定遠大院君 連珠郡夫人爲連珠府夫人 墓號興慶園 聘領敦寧府事韓浚謙女爲妃 誕生世子諱 大君三人 曰溟 鳳林大君 曰潛 大君 曰滾 大君 世子聘承旨姜碩期女爲嬪 其次備 綾原君 娶□□□□□□ 其次佺 綾昌君有僞才 爲光海所忌 年十七被誣謫卒 人皆冤傷之 達城有三男五女 男曰貞履 直長 其餘幼 女曰金珪 死於癸丑之獄 有一男曰弘錫 次日沈伉 有二男 次日李命寅 有一女 次權堦 次幼 海嵩有二男 曰墀 弘文館應教 曰丘 進士 東陽有五男四女 男曰冕生員 曰昇 曰昷 餘幼 女曰洪命夏 有一子 餘幼 錦陽有一男曰世橋 全昌有二男二女 男曰滄進士 次日洽 嬪溫而粹 塞而淵 寬而厚 柔而順 承宣廟恩過四十年 持以卑巽 終始不忒 疾言遽色 不形於容儀 絮語詈罵 不施於奚史 親疏貴賤 咸得其心 葆厥德美 嚮周福履 螽斯麟趾 莫不艷慕 宣廟服闋之後 屏華去飾 笑不見齒 居恒稱未亡人 唯以不遘死爲痛 佳辰令節 子姓來寧 或時奉觴上壽 未嘗以爲歡 戊申以來 世道大變 宣廟支屬 俱惴惴不保朝夕 而顧嬪當無道之時 處之有方 雖光海 終嬪之世不敢加以禍患 嬪之卒而綾昌之獄作矣 嗚呼傷哉 仁心仁聞 在人耳目 理不終泯 命亦靡常 天其茂貯休祥 鸞佑我邦家 光啓中興之熙運 而思齊之烈 實爲有開之先歟 臣謹繼之以銘曰

天鍾異質 昇德泊貴 以順承之 仁經禮緯 睿眷方隆 寅畏小心 壺範宣昭 上嘉下欽 銀潢派遠 玉葉芳敷 惟我聖明 誕膺貞符 彝倫復敘 宗社再康 衛烈寔彰 永詔無疆 蔚彼佳城 在國之東 衆靈輿衛 有碑斯豐 臣拜稽首 綴以銘旆 本支百世 日月長鮮

7. 인빈상시죽책문

李天輔, 《晉菴集》 卷8, 冊文 敬惠仁嬪上諡竹冊文

衍景祉於萬世 緬懷懿規 修曠典於百年 聿陳顯冊 敢云彰美 祇由伸誠
恭惟仁嬪飭行端貞 稟性溫粹 夙齡膺名家之選 叶異夢於長秋 哲範播六宮
之譽 贊柔化於樛木 處福綏而若懼 益迓休吉之來 履艱危而終亨 寔著和
順之積 惟毓慶誕裕邦國 故錫羨乃昌本支 聖子承床 載垂燕翼之烈 神孫
御極 果符龍飛之祥 基祚靈長 實資啓佑之遺澤 年代夔邈 詎忘淑嘉之餘
徽 顧典禮亶合於致隆 而表章猶闕於考德 香火替奉於私第 曷勝永慕之懷
儀文未違於列朝 宜有追報之道 昨歲修章陵之舊邸 夫豈偶然 前春拜豐壤
之故岡 尤有感者 宮園揭號 援近例於顯親 祠廟增輝 慰神理於移享 是謂
若待今日 庶幾無憾此心 上諡號曰敬惠 伏惟冀鑑微衷 俯賜昭格 紀蹟彤
管 垂芳猷於簡編 流慶瑤圖 降冥隲於宗

여 백

휘경원(徽慶園)

1. 연혁

원 주 : 순조 사친 수빈(綏濱) 박씨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지정번호 : 사적 제360호
봉원연대 : 1823년(순조 23)
전원연대 : 1855년(철종 6), 1863(철종 14)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조선 22대 정조(재위 1776~1800)의 후궁 수빈 박씨(1770~1822)의 무덤이다. 수빈 박씨는 숙선옹주를 낳고 수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정조 14년(1790)에는 왕자 순조를 낳았다. 순조 22년(1822)에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2월 27일 장례(葬禮)하였다. 철종(哲宗) 6년(1855)에 순조(純祖)의 능(陵)인 인릉(仁陵)의 천장지(遷葬地)를 구하면서 휘경원(徽慶園)도 천장하기로



휘경원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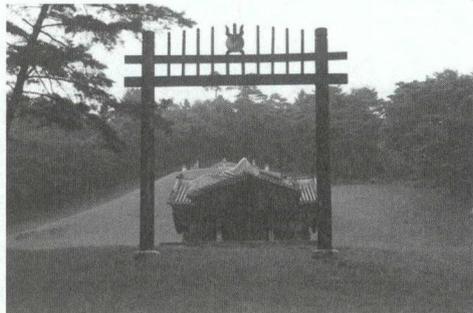
하여 순강원(順康園)(양주군 진접면 내각리)으로 옮겼다가 동 14년(1863) 5월 풍수지리상(風水地理上)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다시 현위치(現位置)로 재천장하였다. 수빈박씨(綏嬪朴氏)의 위패(位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칠궁(七宮)안 경우궁(景祐宮)에 봉안하고 있다.

그런데 1907년에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慶嬪金氏)가 죽자 그 묘소를 수빈 박씨의 묘소가 있는 휘경원 경내 서쪽 기슭에 정한 뒤 산역(山役)을 시작해 장례를 치렀다. 여기에서 묘소의 명칭도 수빈 박씨의 원호(園號) 그대로 휘경원이라 부르게 되었다.

당시의 상설(象設)로는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양석(羊石) 1쌍, 표석(表石)·제각(祭閣) 등이 있었다. 또한 휘경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令, 종5품) 1인과 참봉 1인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현재는 혼유석과 표석만이 남아 있다.

원(園) 시설은 봉분(封墳) 곡장(曲牆) 혼유석(魂遊石) 망주석(望柱石) 장명등(長明燈) 문인석(文人石) 석마(石馬) 석양(石羊) 사초지(莎草地) 등이 있으며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을 갖추고 있다.

묘비(墓碑)는 세워져 있지 않고 정자각(丁字閣) 앞에 비(碑)를 세웠는데 비(碑)의 전면(前面) 비명(碑銘)은 ‘유명조선국현목수빈 휘경원(有明朝鮮國顯穆綏嬪徽



휘경원 전경



휘경원 근경

배봉산묘좌원원호휘경당우육년을묘시월팔일천봉우양주순강원후강간좌
 십사년계해오월팔일천봉우양주달마동임좌향원 승정기원후이백삼십육년
 월 일’(英宗四十六年庚寅五月八日誕生正宗十一年 丁未宣敎命爲綏嬪賜宮
 號嘉順十四年 庚戌誕純祖二十六年
 任午十二月二十六日厭代? (破損) 五
 十三上諡顯穆癸未二月二十七日葬
 于楊州拜峰山卯坐原園號徽慶堂于
 六年乙卯十月八日遷奉于楊州順康
 園後岡艮坐十四年癸亥五月八日遷
 奉于楊州達摩洞任坐向原 崇禎紀元
 後二百三十六年 月 日)’

慶園)’이라 새겨져 있고 후면의 비
 문(碑文)은 다음과 같다. ‘영종사십
 륙년경인오월팔일탄생정종십일년
 정미선교명위수빈사궁호가순십사
 년 경술탄순조이십육년임오십이
 월이십륙일염대? (파손) 오십삼상
 익현목계미이월이십칠일장우양주



휘경원 비각

3. 원주 소개

수빈 박씨[1770(영조 46)~1822(순조 22)]는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의
 후궁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좌찬성 준원(準源)의 딸이며, 어머니는 원

주 원씨(原州元氏)이다. 그가 잉태될 때 어머니 원부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큰 구슬을 바치매 그 광채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한다.



뒤에서 바라 본 휘경원

어릴 때 두 여형(女兄)과 함께 있었더니 별안간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뜰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두 여형은

놀라서 넘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렸으나, 그는 조용히 걸어가서 방안으로 들어가니 모두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다.

1787년(정조 11)에 정조의 빈이 되어 순조와 숙선옹주(淑善翁主)를 낳았다. 왕자를 낳은 뒤 왕자를 낳지 못하는 왕비를 위로하고 공경하니 온 궁중에 화기(和氣)가 가득하였다.

또한 행실이 착하고 예절이 바를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이 적으며 의복과 일상용품들을 극히 검소하게 하니 조야에서 현빈(賢嬪)이라는 칭송이 자자하였다.

어느날 그의 궁에서 시중을 드는 내인(內人)이 의복을 만들 때 작은 천 조각을 버렸다가 크게 꾸중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 또한 후궁인 그의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자 아침하는 무리들이 그에게 은밀히 귀중품을 진상하였다가 의금부에 잡혀간 일도 있었다. 창덕궁 보경당(寶慶堂)에서 죽었다.

궁호(宮號)는 가순(嘉順), 시호는 현목(顯穆), 원호(園號 : 무덤의 명칭)는 휘경(徽慶)이며, 효자동 경우궁(景祐宮)에 제향되었다.

4. 휘경원지문

《純祖實錄》卷 26, 純祖 23年 2月 3日 癸卯 徽慶園 誌文

嬪姓 朴氏 系出 潘南 斯盧王之裔也 有諱 尙衷 高麗 恭愍王 時 以道義顯 學者稱之曰 潘南 先生 本朝追諡 文正 有子曰 嘗 入本朝 官左議政 諡 平度 五轉而有諱 紹 號 冶川 學問文章 爲時名儒 贈領相諡 文康 自是以來 蟬聯赫奕 代有名宦 派分支列 咸爲顯族 五世祖諱 世城 當 肅宗 時嘗斥 尹善道 權認 官至左副承旨 贈吏參 高祖諱 泰遠 牧使贈吏參 曾祖諱 弼履 贈吏判 祖諱 師錫 縣令 贈左贊成 考諱 準源 號 錦石 判敦寧府事 贈領相 諡 忠獻 妣 原州 元氏 贈參判 景游 女 原平府院君 斗杓 五世孫 嬪其第三女也 嬪以 英宗 庚寅五月八日 生 正宗 丁未被選 嬪 號曰 綏 宮號曰 嘉順 今上殿下二十二年壬午十二月二十六日 厭代于 昌德宮 之 寶慶堂 壽五十有三 有司上節惠曰 顯穆 園號曰 徽慶 明年二月二十七日 葬于 楊州 拜峰山 坐卯原 寔 永祐園 舊基之左也 誕一男今 殿下 一女 淑善翁主 下嫁 永明尉 洪顯周 殿下 二男 長卽世子邸下 次不 育 三公主 長封 明溫 一翁主 初 元夫人 夢 老人跪獻一大珠 光彩滿室 旣而生嬪 幼有異質 兒時與二女兒 同坐 有虎突至庭 二兒皆驚仆啼哭 嬪 獨徐步入戶 若無所見 人皆知其不凡 文孝 旣卒 先王春秋已晚 孝懿后 及和嬪諸御 皆無育 上 憂甚復揀名媛 而嬪居第二 及三揀 遂膺首選 上 爲告廟 修聘 宣誥 且蓋仗迎入行 禮貌之盛 古未有也 常曰 是不可與 他嬪御同視 當有以別之 及庚戌有慶 上遇愈重 嬪猶謙慎寅畏 事 孝懿 惟謹 處同列愈和 宮中咸稱其賢 殿下嗣位 志物之養漸備 己巳 世子生 殿下追惟先王之遺志 推原啓發之濬祥 命賤臣論於庭 於是 時原任大臣筭 請隆奉 而禮官議 群臣稱邸下 時節慶賀 中外奉箋獻方物如儀 嬪曰 是雖

聖孝所及 於心大不安也 前年秋季 忽有風痰之祟 殿下命藥院 設直宿 已而少愈 撤直 請賀 嬪力辭於殿下 寢之 然患候輾轉沈飢 遂及不諱 竟貽我殿下終天之慟 悲夫 殿下遵古禮服緦 治喪事儀節 多像生 殯于 歡慶殿 御筆改園官號爲參奉 命有司葺都摠府 將返虞 於是以寓居廬奠饋之義 廷臣多言不可 殿下堅不撓 蓋聖心以爲 喪服者 禮之大防 而人君之尊 固不敢以踰名位者 歷代之背經而見譏於後世 皆不得爲而不可爲者也 若其儀文節度之間 得爲而不爲者 非所以皎於心 雖創之於今 未爲汰也 臣竊惟傳 言非王者 不議禮不考文 李宸妃之喪 殯(斂)[斂]勸用后儀 而 朱文公載之 名臣言行 我殿下處考文議禮之地 折衷斟酌 起於義而合於情 守經達權 自盡崇報之道 斯義也 聖賢復起 必不易矣 于以見大聖人所作爲 出尋常萬萬也 殿下以玄室之誌命臣 而嬪常言 婦人安用誌狀 我身後無庸下行錄爲也 故其日用常行之 可以炳彤管而耀青簡 無從而細考 然其德盛而功大 塗耳目而莫掩者 僅述一二 嬪性度明達莊重 平居寡言笑 御下恩而有嚴 服开器用 不貴珍奢 奉 惠嬪 克盡孝順 事先王罔有違言 養殿下衣服常用浣濯 教導必以義方 而自庚申後 至今二十餘年 保護聖躬 洞屬如不及 日而忘膳 宵而忘寢 至於勞瘁而不自恤 夫孰無止慈之情 憂國之念 而一(段)[段]血誠苦心 可以格神明而貫金石者 歷論千古 殆惟嬪而已 噫 德有以冠六宮 功有以基萬世 非秉筆者所敢私 卽八域含生之所共誦也 曷不休矣 臣昔以簪筆之任 恭睹入宮之盛儀 尙記當日我先王歡喜之色 嘉褒之音 歷歷如隔晨 而[老]白首不死 復值我殿下哀違號賞之日 忘其僭陋 猥進幽刻之辭 俯仰今昔 不覺涕淚之沾襟云[領敦寧 金祖淳 製]

5. 綏嬪朴氏諡册文

《純祖實錄》卷 26, 純祖 23年 2月 3日 癸卯

禮有限於厭屈 今日曷爲予懷 德莫大於劬勞 昊天欲報罔極 肆稽節惠之典 庸崇賁終之規 豈云顯揚 惟切掩抑 伏惟 綏 嬪 邱 下行循嘉則 姿凝順思 藍珺久胚 鍾善慶 於華閼 蘭薰在襲 藹淑聞於芳閨 娠夢既驗於獻珠 兆若先於懷日 幼儀無怖於見虎 奇不啻於當熊 發册問名 是膺皇考禮揀之盛 封爵賜號 俾踵君子福履之綏 遂長發於殷祥 迺永錫乎周胤 棣郊遲於降乙 國勢幾凜綴旒 堯 門關於維庚 宗脈實賴繇眇 極歡愛於三殿 亶爲存儆而含和 爭頌美於六宮 莫不仰耀而薰德 嗚呼 涖灘之降割 閔予冲年之多難 梧雲莫攀 痛眞遊之寢邈 草暉偏煦 荷慈恩之愈隆 常勤疾憂而保護之是恃 或遇災咎則警誨之有諄 三朝見七章之隨 縱慰含飴之念[卅]載致千乘之養 猶歎洗腆之誠 [卅]來感悴之崇深 采懷喜懼之忱切 先君之思以勛 雖哀茶沈淹之罔間 人子之心無窮 惟耆艾康寧之是祝 遐籌漸躋於耳順 將爲春秋八千 愆度比喜於翼彥 願如岡陵松柏 方期壽母之興詠 遽驚寶婺之淪精 齊疏未闕於三年 狄臯又慘於一夕 愴孺慕而靡逮 東殿仍[虛]廓慈覆而何依 北堂俄闕 卜茲履露之舊域 想神理之大安 寓我終天之至哀 幸瞻展之孔邇 苟無懿嫩之亟述 可奈音徽之長違 輿衛備厥 [親]喪固所自盡 典册斯具 舊章率由不忘 篤實輝光 顯是名行之昭著 端莊齊整 穆爲德美之兼全 謹遣使臣 上尊諡曰 顯穆 尙冀明靈 俯諒微悃 欵遠日之倏屆 休範詎闕於玄扃 庶來世之永垂 流芳增煒於彤管[戶曹判書 沈象奎 製]

6. 綏嬪朴氏哀册文

《純祖實錄》卷 26, 純祖 23年 2月 3日(癸卯)

畫旌啓塗 雕輜肅軻 犧罇既撤 蜃衛將進 違紫闥而徐引 指玄室而漸遠
惟我主上殿下 攀號靡逮 摧慕采新 慟此日之終天 念厚夜之莫晨 爰命瑤
臺而紀績 俾鑄寶牒而恭陳 其辭曰 潘南 靈緒 世襲圭組 彬鬱名碩 華赫
門戶 寧考在宥 儲位久缺 廣求哲媛 于彼顯閥 嬪於是時 光膺揀擇 迺徵
迺幣 殊禮曠昔 性度淵懿 神襟蘭郁 三朝殿宮 瑜佩雖然 書紳女則 率行
無愆 深荷天眷 仰贊坤化 終始一德 令聞遠播 太歲在戌 無疆邦錄 慶溢
區宇 功存宗祏 遇泰益謙 小心翼翼 奄遭天崩 慟纏晝哭 歸侍玉欄 常願
其速 然猶抑情 保護聖躬 疾恙飲食 寒暑雨風 造次不弛 一念憧憧 運回
十一 謠騰四重 喜深繞膝 歡均延頸 昕夕怡愉 娛茲晚景 孝心所推 志物
備養 一國隆奉 六宮慕仰 无妄一疾 乍瘳旋添 胡昔祝之岡壽 僅五旬而踰
三 羌冥漠其若茲 竟難追於德音 嗚呼 哀哉 一人悲疚 千官悽愴 歲籥倏
換 卽遠而葬 服麻縵於三月 遵古聖之定制 耀竹册於千載 節臺惠而爲謚
珠襦兮香歇 鏡奩兮塵委 風簾動而蕭瑟 夜臺邈而悽悲 瞻寶鬋之逶迤 去
復去兮無歸 訪瑤池兮玉馬 響躡銀渚兮金鶴飛 異平生之慈顧 非昔時之瞻
依 嗚呼 哀哉 路出青門 佳城新得 青鳥 告吉 玄龜協卜 信山明而水麗
發地秘與天作 百靈呵禁 松栢蔥鬱 庶體魄之安安 綿景祿於瓜瓞 嗚呼 哀
哉 賢而無壽 難諶者天 原有始則有終 自古亶而已 然惟懿德之在人 載彤
管而不朽 猗 芳烈之闡揚 傳百世而永久 嗚呼 哀哉[判府事 南公轍 製]

흥원(興園)

1. 연혁

원 주 : 현의대원왕(獻懿大院王)과 순목대원비(純穆大院妃) 민씨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지정번호 : 경기도기념물 제48호

봉원연대 : 1898년(광무 2)

전원연대 : 1906년, 1966년

원묘형태 : 단묘

2. 원 소개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46번 경춘국도를 따라 춘천쪽으로 가다 보면 남양주시청을 지나 서울리조트를 끼고 있는 마석고개를 넘어가게 된다. 마석고개를 넘어 화도읍 마석우리 읍내로 들어가서 마석우천을 따라 삼일제재소를 찾아가면 흥선대원군 입구를 알리는 조그만 현판을 찾을 수 있다. 현판을 따라 산길을 올라가면 텃밭으로 바뀐 흥선대원군묘 입구에 이르는데, 여



흥원입구 표지석과 철문

기서 산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흥선대원군의 무덤인 흥원을 만날 수 있다.

흥원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묘로 원래 처음 1897년에 경기도 고양군에 모셔졌으나, 1906년 경기도 파주군으로 옮겨졌다가, 1966년 4

월 지금의 자리로 다시 옮겨졌다. 묘역은 조선시대 능원제도(陵園制度)를 따르는 듯하나, 대군에 맞도록 간략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상하 2단으로 나뉘어졌다.

상단에는 호석으로 둘러싸인 단분(單墳)인 봉분과 그 둘레에 석호(石虎), 석양(石羊) 각 1쌍이 있고, 그 바깥에 곡담과 사성이 둘러쌓여 있으며, 묘 앞에는 상석이 있다. 하단에는 망주석, 문인석, 석마(石馬)가 좌우에 각 1쌍이 있고, 묘 앞 중앙에는 방형의 장명등이 놓여져 있다.

3. 원주 소개

흥선대원군[1820(순조 20)~1898(광무 2)]의 이름은 이하응(李昰應)이고, 자는 시백(時伯), 호는 석파(石坡)로 대원위대감(大院位大監)이라고도 불렸다. 아버지는 영조의 현손 남연군(南延君) 구(球)이며, 아들은 조선 제26대 왕 고종이다.

1841년(헌종 7) 흥선정(興宣正)이 되었고, 1843년



흥원 표지석



흥원 입구에 서 있는 신도비

흥선군(興宣君)에 봉해졌다. 1846년 수릉천장도감(綬陵遷葬都監)의 대존관(代尊官)이 된 뒤 종친부 유사당상·사복시제조·오위도총부도총관 등의 한직을 지냈다. 안동김씨의 세도정치하에서 그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시정의 무뢰한들과 어울려 난행을 일삼으면서, 한편으로 후사(後嗣)가 없는 철종의 유고시에 대비하여 조대비(趙大妃)와 가까이 지냈다. 1863년 12월 철종이 죽자 둘째 아들 명복(命福 : 고종의 아명)이 조대비에 의해 왕위에 올랐고, 자신은 흥선대원군으로 진봉되었으며 조대

비에게 섭정의 대권을 위임받아 서정(庶政)을 총괄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조대비와의 동맹관계 및 김병학(金炳學)·김병국(金炳國) 등 안동김씨 일부 세력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권 후 김병기(金炳冀) 등 일부 안동김씨 세력을 축출하기도 했지만, 안동김씨를 중심으로 한 권력층의 명문 양반가를 포섭하면서 양반지배층 내부에 존재하는 각 당파에 관직을 안배하여 세력균형 속에서 정권을 유지해나갔다. 이와 함께 세도정권기를 거치면서 실추된 왕족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종친(宗親)과 선파인(璿派人) 등 왕족을 집중적으로 발탁하여 재정·군사·경찰 등 권력의 핵심부분에 등용했다. 총명하고 재주 있는 중인계층을 선발하여 각 조(曹)에 집리(執吏)로 배치하고, 의정부에는 팔도도집리(八道都執吏)를 배속시켰다. 제도면에서



흥원 전경



흥원 장명등과 봉분

는 권력체제의 골간인 중앙정치 기구 개편에 착수했다. 1864년 1월 세도문벌세력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는 장으로 활용되던 비변사의 기구를 축소하여 중외(中外)의 군국사무(軍國事務)만을 관장하게 했다. 대신 의정부가 정부의 모든 사무를 주관하게

하고, 조두순(趙斗淳)과 같이 삼정문란(三政紊亂)을 수습해갈 수 있는 인물과 홍순목(洪淳穆) 같은 친대원군계 인물로 의정부를 구성했다. 이듬해 3월에는 정부와 비변사를 합치고 비국(備局)을 정부의 한 부서로 만들었으며, 1868년 축소된 비변사를 대신하여 군국사무를 전담할 군령기관으로 삼군부(三軍府)를 복설(復設)했다. 또한 훈련도감을 정비하여 세도문벌의 군사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정지시키고 실질적인 군영으로 재건했으며, 국왕의 친위병인 용호영(龍虎營)도 정비하여 병조판서가 통할하게 했다. 또한 <대전회통(大典會通)> · <양전편고(兩銓便攷)> ·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편찬 간행하는 등 법전 및 운영규칙을 정비했다. 한편, 유교질서의 재확립을 위해 이단사상을 탄압하여, 동학교조 최제우(崔濟愚)를 처형하고 천주교도를 박해했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경복궁 중건사업을 했으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거목(巨木) · 거석(巨石)을 징발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원납전(願納錢) 징수, 결



흥원 문인석



뒤에서 바라본 흥원 모습

두전(結頭錢) 부가, 성문세(城門稅) 부과, 당백전(當百錢) 주조 등을 했다. 이어 종묘·종친부·6조 이하의 각 관서와 도성까지 수축함으로써 한양의 면모를 일신했다. 그리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양반들의 세력확장의 기반이

각각 경제적 폐단의 온상이었던 서원 정리에 나섰다. 1864년 8월 서원 보유 토지의 면세를 축소하고 소속노비의 신분을 변정(辨正)하여 군포 수입을 늘렸으며, 이듬해 3월에는 만동묘(萬東廟)를 철폐했다. 1868년 서원에 정원 이외로 끼어든 자를 골라내고 서원 전결에 세금을 내도록 했으며, 수령이 서원의 장이 되어 사무를 주관하게 했다. 이어 1871년 3월 사액서원(賜額書院)이라 하더라도 1인 1원(院) 이외 첩설(疊設)한 것은 모두 철폐하게 하여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을 모두 없애버렸다. 서원의 철폐로 국가재정은 확충되었으나, 지방 양반들과 유생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후일 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대원군은 1862년(철종 13)에 발생한 임술농민항쟁의 원인을 삼정문란으로 파악하고 삼정을 개혁함으로써 농민의 불만을 수습하려 했다. 우선 전정(田政)에서는 조세지의 확보를 위해 진전(陳田)이나 누세결(漏稅結)을 색출했으며, 문제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 양전(量田)을 시행하여 새로운 양안(量案)을 만들고 수세결도 늘렸다. 군정(軍政)에서는 전주민에게 균일하게 세를 부과하는 호포제(戶布制)를 시행했다. 호포제는 양반도 호포세를 내는 것으로 양반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시행됨으로써 상민은 부담액이 줄었고 신분적 평등의식도 고취되었다. 환곡문제는 1862년 삼정이정책에서

결정되었던 파환귀결(罷還歸結)이라는 근본적 개혁안을 채택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허류곡(虛留穀) 120여 만 석을 탕감하고 재정확보의 자원에서 호조별비곡(戶曹別備穀)·병인별비곡(丙寅別備穀) 등 새로운 환곡을 마련했다. 환곡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사창제(社倉制)를 도입하여 관리들의 간여를 금지하고 민간에게 운영을 맡겼으나, 고리대화한 환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될 수 없었다. 그밖에 국가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포량미(砲糧米)를 신설하고, 도성의 문세(門稅)를 징수했으며, 궁방(宮房)이나 포구 주위의 유력자들이 불법으로 부과하던 각종 사세(私稅)를 혁파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재정에 편입시켰다. 또한 경복궁 중건과 병인양요에 소요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당백전을 주조하고 청나라 화폐인 청국소전(淸國小錢)을 강제로 유통시켰는데, 이는 물가를 폭등시킴으로써 상민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한편 향촌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토호의 무단(武斷)을 철저히 탄압했으며, 궁방전(宮房田)도 세금을 내게 했다. 또 민폐가 많던 도장(導掌)·궁차(宮差)의 파견을 금지하고, 신설 궁방에 토지 지급을 폐지하는 등 궁방에 대한 억제정책도 시행했다. 반대세력의 억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령의 구임(久任)을 강조하는 한편, 수령에 대한 고과(考課)를 엄격히 하고 수령 재임시의 부정을 살피기 위해 해유문기(解由文記)의 작성도 철저히 했다. 또한 향리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여 조세횡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무연한에 따라 서리들을 입역(立役)하게 했다.

1866년 8월 천주교도 박해를 구실로 쳐들어온 프랑스 군대를 격파한 병인양요를 겪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대원군은 외국인에 대해 더욱 적개심을 가졌다. 그러한 가운데 1868년 4월 E. 오페르트가 충청도 덕산(德山)에 침입하여 군아(郡衙)를 습격하고, 이어 가동(伽洞)에 있던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

군의 묘를 도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써 대원군의 외국인 배척사상은 굳어지게 되었다. 1871년 4월 제너럴서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 함대가 쳐들어와 덕진진(德津鎭)과 광성보(廣城堡)를 점령하자, 서울의 종로 네거리를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고 결사항전을 준비했다. 조선정부가 외교교섭에 응하지 않고 전투가 장기화되자 미국 함대는 그해 5월 철수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후 근대적 조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대원군은 왜양일체(倭洋一體)라는 입장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이 일단 저지되었으나, 이후 더욱 강화된 쇄국정책으로 인해 조선은 세계사에 자주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홍선대원군은 외척세도를 봉쇄하기 위해 보잘 것 없는 가문 출신인 민치록(閔致祿)의 딸을 고종의 비로 맞이했다. 그러나 민비는 척족을 규합하고 대원군 반대세력을 결집하여 대원군 축출을 추진했다. 이에 1873년 최익현(崔益鉉)이 대원군의 정치를 정면으로 공격한 상소를 계기로 11월 고종이 진정(親政)을 선포하자 대원군은 정계에서 물러나 양주에 은거했다. 그러나 대원군은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계 복귀를 꾀했다. 1880년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일본에서 가져온 《조선책략(朝鮮策略)》의 반포를 계기로 이듬해 전국 유생들의 척사상소운동(斥邪上疏運動)이 전개되었는데, 그때 송지 안기영(安驥永) 등이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대원군의 서장자(庶長子) 재선(載先)을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누설되어 처형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에 홍선대원군이 관련되었으나, 국왕의 아버지라 하여 불문에 붙여졌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고종에게 사태수습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자, 이 기회에 정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즉 대원군은 궁궐에서 도망쳐나간 민비가 죽었다고 공포한 후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별기군(別技軍)을 폐지하고 5군영을 복설했으며, 통리기무아문을 폐지

하고 삼군부를 복설하는 등 반개화정책을 폈다. 그러나 곧 흥선대원군은 민씨정권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 청나라 텐진[天津]으로 납치되었고, 이어 바오딩부[保定府]로 옮겨져 유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이홍장(李鴻章)의 밀의에 의해 1885년 8월 서울로 돌아왔는데, 운현궁에 반감금상태로 있었다. 1894년 조선에 진주한 일본군은 경복궁 쿠데타를 일으켜 민씨정권을 무너뜨린 후, 그를 앞세우고 개화파를 중심으로 새 내각을 만들어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했다. 그때 그는 일본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펴다가 이노우에에 의해 정계 은퇴를 강요당했다. 그 후 1895년 8월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가 주도한 을미사변 때 일본군과 함께 궁성으로 들어가 고종을 만나고 새로운 내각을 조직하게 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고종이 궁성을 빠져나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고 친러파 정권이 들어서자 대원군은 다시 양주로 은거했다.

대원군은 서화에 능했으며 특히 난초를 잘 그렸다. 그는 10년간의 집권기를 통해 왕권강화를 꾀하면서 체제의 내적 개혁으로 봉건제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며,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는 위정척사적 입장에서 국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의 개혁정치는 일시적으로 내부적 모순을 완화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후 조선사회는 더욱 급격히 해체되었고 외세의 침략도 더욱 심화됨으로써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1907년 대원왕(大院王)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헌의(獻懿)이다.

영원(英園)

1. 연혁

원 주 : 영친왕 이은(李垠)과 부인 이방자 여사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7호

봉원연대 : 1970년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삼거리에 이르면 춘천으로 가는 46번 국도와 양평으로 가는 6번 국도의 갈림길에 이른다. 이곳에서 46번 국도를 따라 경춘가도를 달리다 보면 남양주시청 못미처 금곡동 사거리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홍유릉 입구에 도착한다.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洪陵)과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황제와



영원 재실



영원 전경

순명효황후, 계비 순정효황후의 능인 유릉(裕陵)이 나란히 위치해 있기에 이 두 능을 합쳐 ‘홍유릉’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으로 조영된 왕릉이다. 이곳 홍유릉의 담장 밖으로 나있는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영친왕 이은의 무덤인 영원을 만날 수 있다. 현재 영원은 울타리로 막혀 있어 일반인들은 관람할 수 없다.

영친왕과 영친왕비 이방자(1901~1989) 여사의 합장묘인 비공개 사적지 영원은 조선의 13개 원(園)중 마지막으로 조성됐다.

홍살문과 정자각, 그리고 비각을 지나 봉분에 올라서면 곡장에 둘러쳐 있는 봉분을 만나게 되는데, 봉분 주위에는 호석과 양석이 둘러쳐 있고 혼유석과 장명등이 있어 여느 원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영원은 원입에도 무인석과 난간석을 조성해 왕의 예우를 하고 있어 다소 이채롭다.

한편 영친왕의 무덤인 영원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아직 때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커다란 묘 하나가 있는데, 지난 2005년 7월 작고한 영친왕의 아들 이구의 묘다.

3. 원주 소개

영친왕 이은[1897(광무 1)~1970]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귀비 엄씨(貴妃嚴氏)이다. 순종과는 이복형제간이다. 1900년(광무 4) 8월 영왕(英王)에, 1907년(융희 1)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1907년 12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에 의해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잡혀갔다. 1910년 국권이 일제에 의해 강탈되면서 융희황제(隆熙皇帝: 뒤의 순종)가 이왕(李王)으로 폐위되자, 그도 황태자에서 왕세제(王世弟)가 되었다.

1920년 일본의 흡수정책에 따라 일본 왕족 나시모토노미야[梨本宮]의 딸 마사코[方子]와 정략결혼을 했다. 1926년 순종이 죽자 형식상으로 왕위계승자가 되어 이왕이라고 불렸다.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일본 육군사관학교·육군대학을 거쳐 육군중장을 지냈다. 1945년 일제가



영원 정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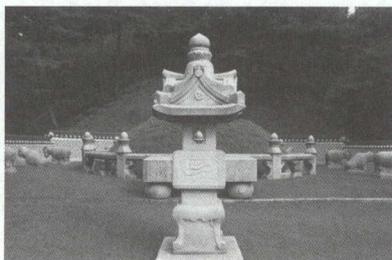


영원 비각



뒤에서 바라 본 영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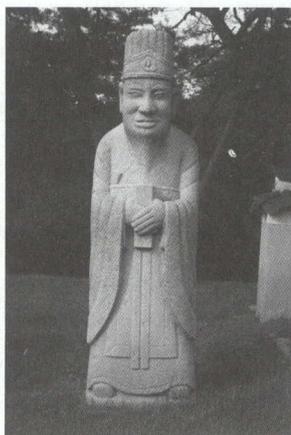
패망하자 귀국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뒤 1963년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1963년 국적을 회복하고 귀국했으나 귀국 당시 이미 뇌혈전증으로 인한 실어증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앰블런스에 실려 성모병원으로 향한 영친왕은 7년간의 입원 생활 끝에 임종을 맞으려 낙선재로 돌아왔으며, 결국 1970년 5월 1일 영면하였다.



영원 장명등과 봉분



영원 원경



영원 문인석



무인석

여 백

2. 묘

고양시



대빈묘(大嬪墓)

1. 연혁

묘 주: 경종 사친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 장씨

위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지정번호: 사적 제198호

봉묘연대: 1701년(숙종 27)

전묘연대: 1970년

묘형태: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을 지나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으로 접어들면 바로 오른쪽에 해발 235m의 응봉 산자락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서오릉에 도착하게 된다.

원래 서오릉은 ‘서쪽에 다섯 개의 능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오릉에는 5릉(경릉·창릉·익릉·명릉·홍릉), 2원(순창원·수경원), 1묘(대빈묘)가



대빈묘 전경

있어서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 왕실의 가족묘를 이루고 있다. 경릉은 덕종과 소혜왕후 한씨(인수 대비), 창릉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 익릉은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 김씨, 명릉은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와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 홍릉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 서씨의 능이다. 또 순창원에는 명종의 맏아들 순회세자와 그의 부인 윤씨가, 수경원에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선희궁 영빈 이씨가, 대빈묘에는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가 묻혀 있다.

숙종의 후궁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묘인 대빈묘는 거의 평지에 가까운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데, 봉분 뒤에 곡장(曲牆)을 두르고, 혼유석과 비석, 망주석(望柱石) 1쌍, 연꽃무늬의 장명등, 그리고 문인석 1쌍이 서 있을 뿐 나머지 석물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사대부 묘와 같은 분위기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묘 바로 뒤로 사람의 발바닥 모양 같이 생긴 바위가 있고, 그 틈에 난 소나무가 주는 느낌이 재미있다.

대빈묘(大嬪墓)는 원래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에 있었으나, 1970년에 이곳으로 이장되었다.



대빈묘 장명등과 봉분

3. 묘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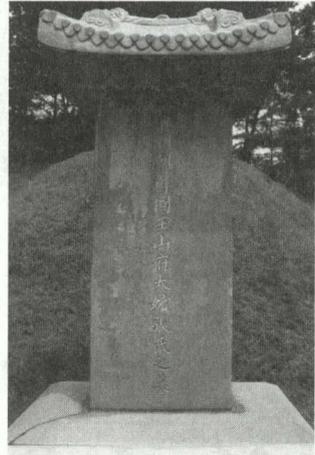
대빈묘의 주인인 희빈 장씨[?~1701(숙종 27)]는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빈이다. 본관은 인동(仁同)으로 아버지는 장형(張炯)이며, 역관(驛官) 장현(張炫)의 종질녀이다. 어려서 나인(內人)으로 궁에 들어가 숙종의 총애를 받았다.

1686년(숙종 12) 숙원(淑媛)이 되었으며, 1688년 소의(昭儀)로 있을 때 왕자 윤(昀: 뒤의 경종)을 낳았다. 이듬해 1월 숙종이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의 반대를 물리치고 윤을 원자로 책봉함에 따라 내명부 정1품 희빈으로 승격되었다.

그해 2월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권하고 남인이 집권했으며, 7월에는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가 폐위되었다. 1690년 윤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왕비로 책립되었다. 1694년 서인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赫) 등의 민비복위운동을 계기로 남인이 옥사를 일으켰으나

숙종이 오히려 남인을 제거하고 서인을 재집권시킨 갑술환국이 일어났다. 그해 4월 민비가 복위됨에 따라 다시 희빈으로 밀려났고, 오빠 장희재(張希載)와 함께 복위를 도모했으나 무산되었다.

1701년 민비가 병으로 죽자, 궁인·무녀 등과 함께 민비를 무고



대빈묘 묘비석



뒤에서 바라본 대빈묘 전경

(巫蠱)했다는 서인의 탄핵을 받고 사사(賜死)되었다. 이때 희빈장씨 및 남인에게 동정적이었던 남구만(南九萬)·최석정(崔錫鼎) 등 소론도 몰락하게 되고 노론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숙종은 이후 빈을 비로 승격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다.

4.王妃冊封玉冊文

《肅宗實錄》卷22,肅宗 16年 10月 22日(己卯)

冊禧嬪張氏爲王妃 前年有是命 而因未經莊烈王后祥禫 故未行冊禮 至是始設都監而行之 其玉冊文曰 王若曰 天地合而萬物資始 夫婦之倫成 宵晝分而二曜迭明 內外之教備 茲故帝王之治 必賴后妃之賢 毓慶堯門 魯經垂貴母之象 思媚京室 周雅著亂臣之休 今幸選德於宮闈 克叶求配於寤寐 肆正顯號 誕舉緝儀 咨爾張氏 夙稟令姿 早擒芳訓 祥徵夢日 姚翁歎天下之貴人 史記崩沙 建公卜元城之聖女 惟其儀度之中矩 是以惠問之揚芬 申儆戒於鷄鳴 不顯惟德 播聲詩於麟趾 受祿于天 值此壺位之纔虛 聿見景命之允屬 龜章翟芾 象服斯煌 日吉辰良 大禮乃舉 茲遣臣議政府領議政 權大運 行兵曹判書 閔黯 持節備禮 冊命爲王妃 於戲 衍本支於百世 基風化於四方 念驕侈常戒於易生 非節儉則奚以持滿 處崇高而愈謙畏 慎厥身修 承宗祧而主蘋蘩 裨我孝理 勉保黃裳之吉 永貽彤管之譽 故茲教示 想宜知悉【大提學 閔黯 製進】

5. 王妃册封敕命文

王若曰 震宮毓祥 纔行册儲之典 坤極宣號 肆舉建妃之儀 欲資陰功 寔本風化 咨爾張氏 動遵內則 德冠後宮 性稟幽閑 足儷美於南國 躬候溫清 曾逮事於東朝 何幸奉櫛之餘 果有完釵之慶 宗社之重有托 天佑家邦 春秋之義可稽 母以子貴 適當中饋之曠 允叶內壺之尊 念成廟故事之猶存 有足徵者 待商宗喪制之既免 在禮當然 茲涓孟冬之辰 爰正長秋之位 茲遣臣議政府領議政 權大運 行兵曹判書 閔黯 持節備禮 册命爲王妃 龜章翟芾 備典册而生耀 玉匣珠襦 隆物采而增煥 於戲 守位而必敬必戒 助治而克儉克勤 麟趾播休 國勢可固於磐石 鷄鳴進警 諫言佇聞於入宮 毋替妊姒之徽音 永膺祖宗之休烈 故茲教示 想宜知悉 【弘文提學 柳命天 製進】

6. 옥산부대빈추봉

《景宗修正實錄》卷3, 경종 2년 10월 10일(임술)

追尊張氏 爲玉山府大嬪 張氏 上所生母也 禮曹講定追報節目, 條列以進曰 擇吉日改題神主 令承文院 差送題主官 祠宇間架 制度 一如 愼妃祠宇 物力 令戶兵曹磨鍊 別定監役官造成 四仲朔 時祭 用初丁日 與忌祭竝行於祠宇 四節日祭 行於墓所 凡祭皆令內侍 無祝設行 祭需 令該曹該廳 如 仁嬪 例封進 墓所守直軍 定十五名 給復除役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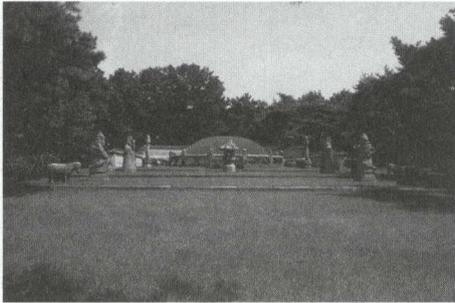
회 묘(懷墓)

1. 연혁

묘 주 : 연산군 생모 폐비 윤씨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2호
봉묘연대 : 1489년(성종 20)
전묘연대 : 1965년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문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통일로를 달려가다 보면 고양시 삼송동 4거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356번 지방도로를 따라 조금 가면 농협대학 입구 삼거리에 이른다. 농협대학 안내 표지판과 함께 쓰이는 서삼릉 표시를 따라 달려가면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멋들어진 포플러나무 가로수길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곳을 지나면 서삼릉 입구이다.



회묘 전경

원(孝昌園) 등 3원과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懷墓)를 비롯해 조선 말기까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 등 46묘(墓), 태실 54기(基)가 들어서 있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왕실의 집장묘가 된 셈이다.

성종의 둘째 부인이자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는 서삼릉의 가장 안쪽, 비공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윤씨는 성종보다 열 두 살 연상이지만 빼어난 미모로 성종 4년(1473) 숙의에 봉해지고 원비 공혜왕후가 승하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 해 연산군을 낳았으나 심한 투기와 모함으로 폐위되어 사약을 받았다. 연산군 즉위 후를 생각한 성종은 1489년 묘비조차 없던 윤씨 묘에 ‘윤씨지묘’라는 묘비를 세우도록 허락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국장기간에 연산군은 폐비 윤씨의 자식임을 알게 된다. 1504년 연산군은 윤씨의 묘를 능으로 격상시켜, 회묘에서 회릉으로 고쳤다. 능의

서삼릉은 도성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릉(禧陵), 효릉(孝陵), 예릉(睿陵)이 이곳에 있다. 이 능역에는 이외에 소현세자의 소경원(昭慶園), 장조의 아들 의소세손의 의령원(懿寧園),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효창원(孝昌園) 등 3원과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懷墓)를 비롯해 조선 말기까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 등 46묘(墓), 태실 54기(基)가 들어서 있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왕실의 집장묘가 된 셈이다.



회묘 장명등과 봉분



회묘 문인석



회묘 문인석

석물을 왕릉의 격식에 맞게 조성하고, 제향 절차를 종묘에 위패를 모신 역대 왕들의 제사 절차에 맞추도록 했다. 1506년 연산군이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자 회릉은 다시 회묘로 격하되지만 겉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회묘는 원래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었으나 1969년 10월 25일 경희대학교 공사때 이곳 서삼릉 구역으로 천모했다. 회묘가 있던 자리는 현재 경희의료원이 있다. 외따로 있던 회묘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당시 왕실 묘를 대규모로 옮겨버린 도시 개발 바람 덕분이다.

회묘는 난간석을 두른 봉분 주위를 호랑이와 양이 에워싸고 있으며, 그 앞에 망주석 한쌍과 장명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왕릉급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인석과 무인석 각각 1쌍씩과 석마 2쌍이 배치되어 있어 마치 왕릉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문무인석의 얼굴은 조선 초기 제작된 어느 것보다 손색없을 정도로 사실감있게 표현되어 있다.

3. 묘주 소개



회묘 장명등

후세에 ‘폐비 윤씨(廢妃 尹氏, 1445?~1482)’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알려진 윤씨는 판봉상시사 윤기견의 딸로,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두 번째 왕비이자, 제10대 왕 연산군의 어머니이다. 본관은 함안이다. 원래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대궐에 들어갔으나 성종 5년에 왕후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숙의였던 윤씨가 아들을 낳아 원자가 되었으므로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왕비 윤씨는 숙의로 있을 때부터 임금 성종의 총애를 받기 위하여 다른 후궁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유별나게 투기가 심했다. 특히 원자를 낳은 뒤부터는 더욱 교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일삼아 왕비로서 갖추어야 될 덕을 잃기 시작했다.

윤씨가 왕비로 책봉된 이후에도 궁중에는 ‘익명서’라 일컫는 투서와 온갖 비방 모략이 왕비 윤씨에게 집중되었고 왕비 윤씨와 연관되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 중 일부는 명확한 사실로 판명되어 성종의 노여움을 여러 번 샀다.

그때마다 성종은 왕비 윤씨의 너그럽지 못한 성격에 대해 주의를 주었으나, 왕비 윤씨가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포악스러워지자 성종은 그녀가 왕비로 책봉된 지 3년째가 되는 성종 10년(1479) 왕비 윤씨를 서민 윤씨로 폐출시켜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왕비 윤씨가 폐출된 뒤에도 윤씨에 대한 휘방과 증상이 끊이지 않고 더욱이 그녀가 낳은 원자가 곧 세자로 책봉된다 하니 세자의 생모가 살아 있다가 나중에 세자가 임금으로 등극하면 크게 양값음을 당할까 두려워한 사람들은 임금에게 그녀에 관한 불리한 고변을 하였다. 드디어 성종 13년(1482), 윤씨가 왕비로 책봉된 지 만 6년, 폐출 당한 지 3년 만에 성종은 사약을 내리게 되고 폐비 윤씨는 세상을 떠난다.

그때 성종은 ‘폐비 윤씨의 성품이 어질지 못하고 음험하며 또한 행실이 바르지 못해 왕실의 장래를 위하여 부득이 사약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전지를 내렸다.

또한 예조(禮曹)에는 폐비 윤씨가 소원하던 대로 건원릉 가는 길에 묘를 쓰게 하고 비석에는 ‘윤씨지묘’라고 쓰게 했다. 그러니까 묘는 일반 서민들의 묘나 다름없이 하였지만 성종은 ‘묘지기 두 사람을 배치하여 묘를 돌보게 하고 소재지 관원들로 하여금 한식, 단오, 추석 때마다 그녀의 묘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되 나중에 세자가 왕위에 오르더라도 그것만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는 교지를 함께 내렸다.

그러나 윤씨의 아들인 원자가 윤씨가 죽은 다음 해에 세자가 되고 19세에 성종의 대를 이어 조선왕조 제10대 임금으로 왕위에 오른 후부터 폐비된 내는 복수의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다.

연산군은 처음 왕위에 오른 후 왕권을 강력히 다지고 전국에서 널리 인재를 구하여 등용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영주(英主)의 칭호를 듣기도 하였다. 하지만 차츰 자신의 생모인 윤씨에 대한 연민의 정이 깊어지자 왕의 가슴에는 원망과 분노가 들끓었다.

연산군 2년(1496) 죽은 생모를 그리며 효사묘(孝思廟)라는 사묘(私廟)을 짓고, 아울러 폐비 윤씨의 묘에 봉분을 수리하여 회묘(懷廟), 다시말해 ‘슬픈

사연을 간직한 묘'라는 감회서린 묘 이름을 연산군이 손수 지어 받쳤다.

연산군은 태평성대가 이어지고 왕권 또한 강력해지자 차츰 향락과 횡포를 부리게 되었고 임금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을 유배를 보내거나 처벌을 일삼았다. 자연히 임금 연산군 주위에는 간사한 무리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그들의 고변에 의해 연산군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연산군 10년(1504) 이른바 갑자사화(甲子士禍)라 칭하는 복수사건은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폐출, 죽음과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사형과 유배형을 내렸고, 심지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시신까지도 땅에서 파내어 형을 가하는 가혹한 복수가 이어졌다. 그 후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를 '제현왕후'라 추모하고 회묘를 '회릉'으로 고치고, 효사묘는 혜안전으로 승격시켰다.

원래 왕과 왕비의 묘를 가리켜 '능'이라 하고 왕의 생모나 왕세자, 세자빈, 왕세손의 묘를 '원(園)'이라 하며, 대군이나 군, 공주나 옹주, 그리고 후궁들의 묘는 그냥 '묘(墓)'라 칭하는 것이 관례였건만 연산군은 생모 윤씨의 묘를 능으로 승격하였으며 그 이름도 회묘에서 회릉으로 고쳤던 것이다.

또한 능의 석물(石物) 또한 왕릉의 능묘형식을 따라 하게 하고, 제향 절차를 종묘에 위패를 모신 역대 임금님의 제사 절차에 맞추도록 했다.

그러나 2년 뒤 연산군은 난잡스럽고 포악스런 군주의 전횡에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일으킨 중종반정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뒤 회릉은 다시 회묘로 강봉되었다.

또한 혜안전은 철폐되어 폐비 윤씨의 위패는 묘 곁에 묻혀 있었으나, 1969년 10월 서삼릉으로 이전되고 이제는 옛날 회묘가 있었던 표석만이 수풀 속에 쓸쓸하게 남아있다.

4. 왕비책봉교명문

《成宗實錄》卷70, 成宗 7年 8月 9日(己卯)

上御 仁政殿 遣密城君琛 左贊成盧思慎 齋教命冊寶 封淑儀尹氏爲中宮 其教命曰 古昔哲王之理國家 必先內治 所以正其本也 粵予冲眇 纘承大統 永惟負荷之重 必資內佐之賢 壺位中缺 越有歲年 茲奉大王大妃懿旨 宮闈不可以無主 宜簡賢淑以總內政 咨爾 尹氏 早膺德選 久處宮掖 貞信勤儉 謙恭自持 三宮所眷重 爰舉彝章 冊爲王妃 嗚呼 天地定位 萬物以生 君后合德 萬化攸基 宜服寵命 終始一德敬之哉

5. 왕비책봉책문

《成宗實錄》卷70, 成宗 7年 8月 9日(己卯)

乾元生物 必待坤順之承 王者御邦 實賴陰教之助 肆循成憲 用舉徽稱 惟爾 尹氏 稟性柔嘉 宅心淵靜 雞鳴警戒 允邁 齊妃之賢 葛覃儉勤 遠追周妣之德 眷旣隆於慈極 望亦協於母儀 宜加寵章 以正位號 於戲 樛木恩逮 基風化於二南 瓜瓞慶綿 固本支於百世

4. 회묘관련기록

《燕山君日記》卷52, 燕山君 10年 3月 25日(丙戌)

下教書曰 春秋之義 母以子貴 追崇之典 著在 漢史 念我 懷墓 始以德

選 正位椒闈 終罹讒口 困於群小 其在丁酉 欲廢中止 旋復鼓瑟之和 至
有弄璋之慶 若真失德 豈有是事 厥後織構日甚 不能自明 廢在私第 遂至
大變 當初內間沮之於中 大臣 臺諫爭之於外 則以先王聖明 且有寡躬
未必無回天之力 安有投杼之疑哉 予在幼沖 罔有聞知 叨承大統 十年于
茲 究問厥由 始得其實 終天之痛 曷有其極 是用廣收群議 追尊爲 齊獻
王后 陞墓爲陵 其構成大故者 尚在先朝後宮之列 卽置罪律 其生其死視
爲庶人 庶幾正爲邪之辟 雪在天之冤 以伸予哀慕罔極之情

여 백

남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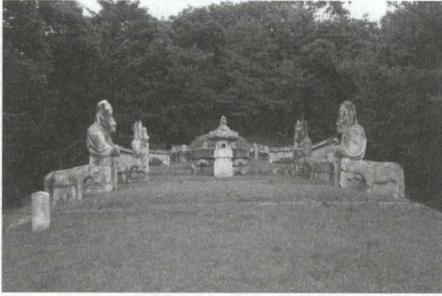
성 묘(成墓)

1. 연혁

묘 주 : 광해군 사친 공빈(恭嬪) 김씨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지정번호 : 사적 제365호
봉묘연대 : 1577년(선조 10)
전묘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경기도 남양주 도농삼거리에 이르면 춘천으로 가는 46번 국도와 양평으로 가는 6번 국도의 갈림길에 이른다. 이곳에서 46번 국도를 따라 경춘가도를 달리다 보면 남양주시청 못미처 금곡동 사거리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약 5분 정도 달리면 길가에 위치한 사릉에 도착한다. 바로 사릉 못미처 있는 하천과 다리를 넘지 않고 오른쪽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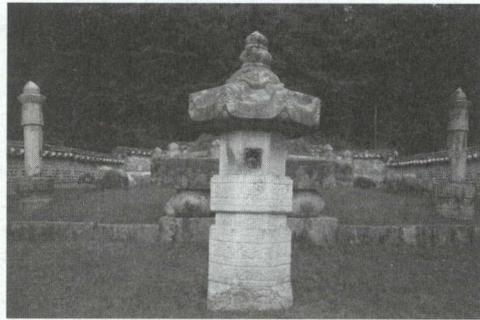


성묘 전경

약간 더 올라가면 성묘에 이를 수 있다.

성묘는 조선 선조의 후궁 공빈김씨(恭嬪金氏)의 묘소이다. 공빈김씨는 효철(孝哲)의 딸로 1551년(명종 6)에 태어나 선조의 후궁이 되었고, 1575년(선조 8) 광해군을 낳았으며 1577년에 죽었다.

묘역시설로는 곡장(曲牆), 봉분 주위의 난간석(欄干石), 석호(石虎), 석양(石羊) 등이 있으며, 봉분 전면에는 혼유석(魂遊石), 장명등(長明燈), 망주석(望柱石), 문인석(文人石), 무인석(武人石), 석마(石馬) 등이 있다. 비석은 남아 있지 않다.



성묘 장명등과 봉분

로 나있는 좁은 도로를 따라 약 10여 분 들어가면 영락교회 공원묘지 입구에 이른다. 영락교회 공원묘지 안으로 더 올라가면 비탈진 언덕에 광해군 묘소가 위치하고 있고, 광해군 묘소가 있는 영락공원 묘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봉인사 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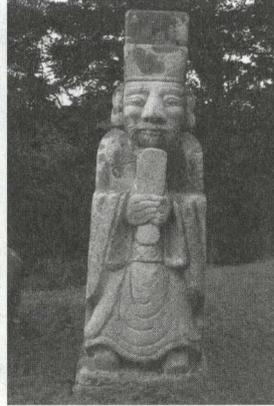
3. 묘주 소개

공빈 김씨(恭嬪 金氏, 1553~1577)는 조선 선조의 후궁이자 광해군의 생모

이다. 김해 김씨 희철의 딸로, 선조의 서장자인 임해군과 서차자 광해군을 낳고 1577년 5월 1일에 산후병으로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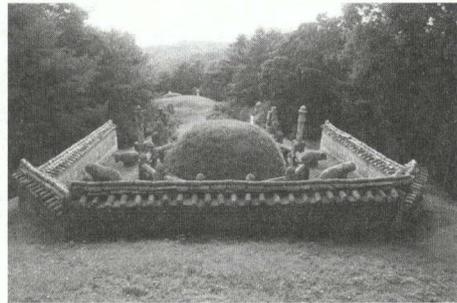
성묘 무인석



문인석

그녀는 선조의 총애를 받아 다른 후궁들이 선조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독해지자 누군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는 말을 선조에게 아뢰었는데, 그녀가 죽고난 후 또 다른 후궁인 인빈 김씨가 선조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광해군 즉위 후, 공성왕후(恭聖王后)로 추존되고 그 묘를 성릉(成陵)이라 하였으나, 광해군의 작위가 삭탈되면서 그녀도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뒤에서 바라본 성묘 전경

4. 공빈 김씨 즐기

《宣祖修正實錄》卷11, 宣祖 10年 5月 1日(戊子)

恭嬪 金氏 卒 嬪是司圃 金希哲 女生 臨海 光海 二王子 至是以產病 卒 金氏 素有寵 後宮無敢問幸 及其病革 訴于上曰 宮中有仇我者 取吾 履隻 詛呪病我 而自上不覈發 今日之死 是上使然 死不敢怨惡也 上哀悼 殊甚 遇宮人多暴急 昭容 金氏 【後爲 仁嬪】 曲爲調護 頗揚嬪宿愆 上 不復哀念曰 渠負予多矣 自是 金昭容 特承寵遇而專房 非前比矣 【初 宮中自祖宗朝有言 金 姓害於木姓 故選女時常外之 上之臨御三嬪皆 金 氏 仁穆 繼中壺 識者疑其不吉】

5. 공빈 추송시책문

李廷龜, 《月沙先生集》卷58 冊文 恭嬪追崇諡冊文

恭以顯親報本 人子之至情 節惠易名 追崇之大典 斯彝倫之所係 亦古 今之攸行 恭惟氣凝天和 道符坤順 積德名閥 爰自塗山之肇基 率禮嘉祥 粵在文王之初載 芳猷克著於輔佐 令聞久播於宮闈 宜享大德之遐齡 擬奉 長信之至樂 何知奄棄乎世 屬予纔免於懷 音容莫攀 曷堪風樹之痛 歲月 屢變 幾纏霜露之悲 迄今嗣承乎鴻圖 實荷鞠育之洪造 嗟榮養之不逮 崇 貴何安 愴位號之始尊 顯揚當急 欲報罔極 願名無能 肆薦二字之稱 少展 終身之慕 謹奉冊寶 上尊諡曰恭聖 冀昭英鑑 俯諒精衷 玉檢金泥 耀貞輝 於不朽 天長地久 錫繁祉於無窮

6. 공빈추송옥책문

李廷龜, 《月沙先生集》 卷58, 冊文 恭嬪追崇玉冊文

事光簡冊 夙彰內贊之猷 慶徹神明 荐進追顯之號 情文爰備 悲喜俱深
恭惟飭躬幽閑 凝姿端淑 刑觀嫵泐 協聖化於重華 詠播河洲 嗣徽音於太
妣 令聞方騰於彤管 仙馭奄隔於蒼梧 養莫逮於東朝 心詎安於南面 星霜
屢變 永懷欲報之忱 恩誥初頒 益結無涯之痛 曾因國誣之快雪 聿致宗祀
之增輝 惟先后輔佐之功 久而彌闡 在小子揄揚之典 今豈敢稽 肆獻不朽
之稱 用揭丕承之烈 摸天畫日 德何加乎 檢玉泥金 禮則然矣 臣不勝大願
謹奉冊寶 加上尊號曰明獻云云 伏惟冀賜英鑑 俯諒微衷 盡制盡倫 維新
厥命 俾昌俾熾 長發其祥

7. 공성왕후추봉

《光海君日記》 卷26, 光海君 2年 3月 29日(乙巳)

追尊私親 恭嬪金氏 爲 慈淑端仁恭聖王后 殿曰 奉慈 陵曰 成陵

여 백

광해군묘(光海君墓)

1. 연혁

묘 주 : 광해군과 광해군부인 유씨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지정번호 : 사적 제363호
봉묘연대 : 1641년(인조 19)
전묘연대 : 1643년(인조 21)
원묘형태 : 쌍분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경기도 남양주 도농삼거리에 이르면 춘천으로 가는 46번 국도와 양평으로 가는 6번 국도의 갈림길에 이른다. 이곳에서 46번 국도를 따라 경춘가도를 달리다 보면 남양주시청 못미처 금곡동 사거리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약 5분 정도 달리면 길가에 위치한 사릉에 도착한다. 바로 사릉 못미처 있는 하천과 다리를 넘지 않고 오른쪽으



광해군묘 전경

제와 국방에 주력하는 등 치적이 많았으나 인조반정으로 폐위되고 1623년 (인조 1) 3월 광해군으로 강봉되었으며, 같은 해 3월 폐비 유씨와 함께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제주도로 이배(移配)되었다.

1641년 7월 이배지에서 죽어 그 곳에 장사지냈다가 1643년 10월에 지금의 묘소로 천장(遷葬)하였다. 문성군부인 유씨(文城君夫人柳氏)는 지돈녕부사 자신(自新)의 딸로 1598년에 태어나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1609년(광해군 1) 왕비로 진봉(進封)되었다.

1623년 광해군과 함께 폐출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으며 그해 10월 강화도에서 죽어 광주군 적성동에 장사지냈다가 광해군이 죽은 뒤 같은 묘역에 천장하였다. 묘는 쌍분(雙墳)이며 곡장(曲牆), 혼유석(魂遊石), 장명등(長明燈), 문인석(文人石) 등이 있다.

광해군 묘비 전면에 ‘光海君之墓(광해군지묘)’, 후면에 ‘辛巳七月初一日病卒於濟州命輟朝三日(신사칠월초일일병졸어제주명철조삼일)’

로 나있는 좁은 도로를 따라 약 10여 분 들어가면 영락교회 공원묘지 입구에 이른다. 영락교회 공원묘지 안으로 약간만 더 올라가면 비탈진 언덕에 위치한 광해군 묘소에 이를 수 있다.

광해군은 초기에는 빈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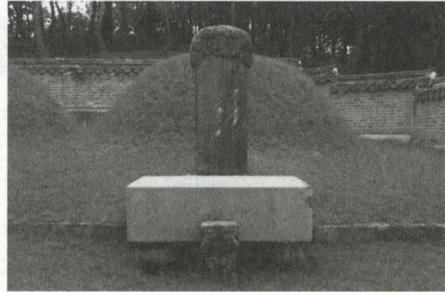
광해군묘

이라 새겨져 있다.

3. 묘주 소개

광해군(光海君, [1575(선조 8)~1641(인조 19)])은 조선 제15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1608년~1623년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이름은 혼(璉)이며, 선조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공빈 김씨(恭嬪金氏)이다.

비(妃)는 판윤 유자신(柳自新)의 딸이다.



광해군 부인 유씨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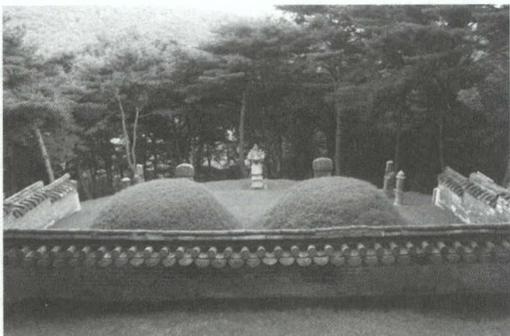
선조와 함께 의주로 가는 길에 영변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분조(分朝)를 위한 국사권섭(國事權攝)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뒤 7개월 동안 강원·



광해군묘 문인석

함경도 등지에서 의병 모집 등 분조 활동을 하다가 돌아와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멀리 거동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에 합류하였다.

서울이 수복되고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조선의 방위 체계를 위해 군무사(軍務司)가 설치되자 이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였다. 또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전라도에서 모병·군량 조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594년 윤근수(尹根壽)를 파견해 세자 책봉을 명나라에 주청했으나, 장자인 임해군이



뒤에서 바라본 광해군묘 전경

있다 하여 거절당하였다.

1608년 선조가 죽자 왕위에 오르고 이듬 해 왕으로 책봉되었다. 이에 앞서 1606년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 김씨(仁穆王后金氏)에게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이 탄생하였다.

광해군이 서자이며 둘째아들이라는 이유로 영창대군을 후사(後嗣)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소북(小北)과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大北) 사이에 분쟁이 확대되었다.

광해군이 서자이며 둘째아

1608년 선조가 병이 위독하자 그에게 선위(禪位)하는 교서를 내렸으나 소북파의 유영경(柳永慶)이 이를 감추었다가 대북파의 정인홍(鄭仁弘) 등에 의해 음모가 밝혀져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즉위한 후, 임해군을 교동(喬洞)에 유배하고 유영경을 사사(賜死)하였다.

당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원익(李元翼)을 등용하고 초당파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했으나 대북파의 계략에 빠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611년(광해군 3) 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반대한 정인홍이 성균관 유생들에 의해 청금록(靑衿錄 : 儒籍)에서 삭제당하자 유생들을 모조리 퇴관(退館)시켰다.

이듬 해에는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으로 100여 인의 소북파를 처단했으며, 1613년 조령에서 잡힌 강도 박응서(朴應犀) 등이 인목왕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과 역모를 꾀하려 했다는 허위 진술에 따라 김제남을 사사하였다. 또 영창대군을 서인(庶人)으로 삼아 강화에 율리안치했다가 이듬해 살해하였다.

1615년 대북파의 무고로 능창군 진(綾昌君恂)의 추대 사건에 연루된 신경희(申景禧)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1618년 이이첨(李爾瞻) 등의 폐모론에 따라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에 유폐시켰다. 이와 같은 실정은 대북파의 당론에 의한 책동으로 빚어진 일이었다.

전란으로 인한 전화(戰禍)를 복구하는 데 과단성 있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1608년 선혜청(宣惠廳)을 두어 경기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고, 1611년 양전(量田)을 실시해 경작지를 넓혀 재원(財源)을 확보하였다.

선조 말에 시역한 창덕궁을 그 원년에 준공하고 1619년에 경덕궁(慶德宮 : 慶熙宮), 1621년에 인경궁(仁慶宮)을 중건하였다.

이 무렵 만주에서 여진족이 세력을 확장해 1616년 후금(後金)을 건국하였다. 후금의 강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포를 주조하고, 평안감사에 박엽(朴燁), 만포첨사에 정충신(鄭忠臣)을 임명해 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 따라 강홍립(姜弘立)에게 1만여 명을 주어 명나라와 연합하였다.

그러나 부차(富車)싸움에서 패한 뒤 후금에 투항하게 하여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능란한 양면 외교 솜씨를 보였다. 또한, 1609년에는 일본과 일본송사약조(日本送使約條 : 己酉約條)를 체결하고 임진왜란 후 중단되었던 외교를 재개했으며, 1617년 오윤겸(吳允謙) 등을 회답사(回答使)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병화로 소실된 서적의 간행에도 노력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용비어천가》·《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등을 다시 간행하고, 《국조보감》·《선조실록》을 편찬했으며,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사고(史庫)를 설치하였다.

한편, 허균(許筠)의 <홍길동전>, 허준(許浚)의 《동의보감》 등의 저술도 이 때 나왔다. 외래 문물로는 담배가 1616년에 류큐(琉球)로부터 들어와

크게 보급되었다.

세자로 있을 무렵부터 폐위될 때까지 성실하고 과단성 있게 정사를 처리했지만,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대북파의 장막에 의해 판단이 흐려졌다. 또한 인재 기용에도 파당성이 두드러져 반대파의 질시와 보복심을 자극하게 되었다.

뒷날 인조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략과 명분에 의해 패륜적인 혼군(昏君)으로 규정되었지만, 실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같은 반정에 의해 희생된 연산군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

4. 왕세자 책봉 주문

《宣祖實錄》卷70, 宣祖 28年 12月 26日(甲子)

奏請使齋奏赴京 其文曰 朝鮮國王 臣 李昞 謹奏爲再疏 未蒙俞允 下情愈益切迫 懇乞聖恩 特許亟封世子 以定小邦危疑事 伏念 臣守藩無狀 幾墜先臣所傳之緒業 今日之所冀以蓋愆者 惟有擇嗣一事 而小邦國勢人心 又有大可憂者 不得不更陳情願 濫希恩許 瀆擾之罪 固當萬死 臣不幸未有嫡子當嗣 而庶子之中 爲長者曰 臨海君 瑋 次者曰 光海君 璵 蓋二子同母 而母亡 臣固無他意於取舍也 獨臣雖昏愚 爲父宜知其子 且二子俱已成長矣 臣豈不有以豫察付畀之堪否耶 瑋 性質凡近 臣爲擇師傅 授以經訓 求以變化氣質 而旣長之後 亦不遵臣戒 蠱於外誘 多冒衆怒 君國子民之寄 決難承當 曩於 萬曆 二十年 小邦猝被寇禍 國內崩潰 臣分遣諸子 號召四方 以圖恢復 而 瑋 往 咸鏡道 不善綏集 終陷賊中 璵 早自好學 聰明端厚 又能斥去紛華 簡儉自奉 臣以謂爲臣之子 此足爲賢 嗣續

之托 夙有所屬 而尚不敢遽其事 及在避賊之日 平壤 見陷 事無可爲 則臣要行赴懇於父母之邦 自往 義州 而以 義州 正當賊衝 臣勸 瑄 速行 則 瑄 涕泣言曰 今日之事 惟進往東南 通一國氣脈 然後庶或可濟 江界地窮 入而必亡 乃犯霧露 披荊棘 出平壤 黃海 東至於江原道 伊川縣 所過傳檄招募 諭以大義 林藪迸竄之民 聞聲仝集 旬日之間 得衆數萬 遂北窺 咸鏡 南通畿邑 且遏 黃海 諸路 使 平壤 之賊 後顧而不卽西向 於是忠清全慶之民 始知臣父子絲命猶存 皆思奮義 爭起殺賊 瑄 又以臣在西聲勢相懸 還往 平安道 成川府 調遣陪臣 李鎰 等 協助臣所遣諸將 堵截順安 等處(順)[賊]搶之路 以待天兵之至 天兵既至 則奔走 肅川永柔龍崗之間 督運芻糧 接濟軍前 凡所駐筭經行之地 去賊窟皆不過二三舍之遠 此誠出萬死一生之計 賊破之後 還奉廟社主 迎臣於定州 此天朝諸將官之所目見 當此之時 臣栖泊一隅 所恃以有望者 徒以 瑄 在耳 監撫之寄 一日爲急 瑄 既陷於賊 其生其死 莫得聞知 而 瑄 之勞績已著 則主器之重屬之長乎 屬之賢乎 臣至此 亦不得固守常經 而 瑄 亦無所辭於讓矣 及 瑄 自賊中還 則驚憂成病 尤不能存省人事 而 瑄 於兄弟之間 猶且友敬日篤 一國之人 所共明知 經略臣 宋應昌 亦見 瑄 爲人心所歸附 幹蠱有屬 爲之題請 經理 全慶軍務 而瑄卽前往 全羅道 全州 等處 撫摩瘡痍 召集散亡 仍調兵選將 儲峙糧餉 全慶之民 亦無不愛戴 咸願早定名號 故臣於立嗣一節 不復致疑 初疏 只照例請封 至於再疏 始舉耆老文武陪臣合詞之請 此實出於群情之不可抑 非臣所得爲(己)[己]子張皇也 而又未得蒙允 小邦愚下之民 不能深曉原降勅書內事意 徒以恩典久闕 益生疑惑 憂虞之勢 有甚於日前 此所以疆事糾紛 宗祊震懼 而臣之祈奏 愈益懇迫 而不已者也 臣受恩罔極 無路 報答 常以爲事君不欺 庶足以少效愚衷 豈有一毫修飾情形 而重臣不忠之罪也 倘臣父子及 瑄 兄弟之間 少有可疑

則是臣一家 異日無窮之禍 臣何敢不爲致謹 以誤大事 小邦經變之後 人心危懼 易以動搖 而臣又稟[疾][質]羸弱 自遭患難 疾病轉加 常有莫保朝夕之慮 深恐一朝而有不早定之悔也 伏乞皇上 俯察微情 曲遂至願 俾臣國勢危而復安 人心渙而復合 則臣雖溘先朝露 而亦得以瞑目地下矣 緣係再疏 未蒙俞允 下情愈益切迫 懇乞聖恩 特許亟封世子 以定小邦危疑

5. 광해군 즐기

《仁祖實錄》卷42, 仁祖 19年 7月 10日(甲申)

光海君 以是月初一日乙亥 卒于濟州 圍內 年六十七 訃聞 上輟朝三日 時 李時昉 爲 濟州 牧使 卽掙鎖開門 斂殯以禮 朝議皆以爲非 而識者是之 光海 之自 喬桐 遷 濟州 也 有詩曰:風吹飛雨過城頭 瘴氣薰陰百尺樓 滄海怒濤來薄暮 碧山愁色帶清秋 歸心厭見王孫草 客夢頻驚帝子洲 故國存亡消息斷 烟波江上臥孤舟 聞者悲之 至是 禮曹【判書 李顯英 參判 沈諮】 啓曰 光海 積失人心 天命歸于殿下 而殿下之篤念 光海 恩禮備至 遜位垂二十年 克終天年 殿下之聖德 無愧於古昔 傳之天下後世 豈不美哉 第念 義重宗社 迫於臣民之請 雖有放廢之舉 其於喪禮 則視它內宗 似爲有間 自上或於內庭 一次舉臨 百官亦於各衙門 變服會哭而止 則其於情禮 似無所憾 請議大臣 左議政 申景禎 議曰 旣云自絕于天 而臣民之所共棄 則衣衾棺槨之具 亦足以盡聖上骨肉之私恩 至於大內舉臨 百官變服會哭之節 該曹所啓 未可知也 右議政 姜碩期 以爲 光海之喪 視它內宗 似爲有間云者 或不無所見 但念 光海 得罪倫紀 自絕于天 宗社臣民之所共棄 而殿下篤念親親之義 備盡恩禮 竟使得終天年 及聞其喪之後

特遣禮官 中使護喪 聖上之待 光海 終始無憾矣 殿下若非違豫之時 則以骨肉之情 自內一次舉臨 容或一道 至於百官變服等節目 大義所在 恐難輕議 燕山之喪 已有前規 宜令禮官 參商舉行 上是 景禎 議 禮曹又啓曰 濟州之喪 與 江華 有異 【文城夫人 在江華 時先逝故云】 初喪棺斂等事 想已舉行 而第念 海外之事 凡具草草 其於必誠必慎之道 恐或欠缺 如不得已改棺易斂 必待發引上來之後 多官會同 廣議爲之 初喪所用 姑勿下送 發引諸具 令該曹爲先下送 且斂殯之後 不可仍在圍籬之中 出殯於官舍淨潔處 凡干奠獻之物 令本官精備 依禮設行 本道監司進到海上 凡事檢飭宜當 上從之 以蔡裕後 爲禮曹參議 與中官偕往 濟州 護其喪 上欲行素膳七日 藥房及政院諸臣相繼陳啓以爲 禮官之請以停朝 已涉非禮 況當違豫之日 不宜行法外之禮 請於過停朝後 卽復常膳 上從之 禮曹又啓曰 燕山之喪 葬以王子 今亦依此 一等禮葬何如 答曰 依啓 山所監役官 亦令擇送 光海 三年喪後 光海及文城夫人 家廟 墓祭 依 燕山 祭例 使其女子主之 【燕山 以其外孫主祀】

6. 문성군부인 즐기

《仁祖實錄》卷3, 仁祖 元年 10月 8日(乙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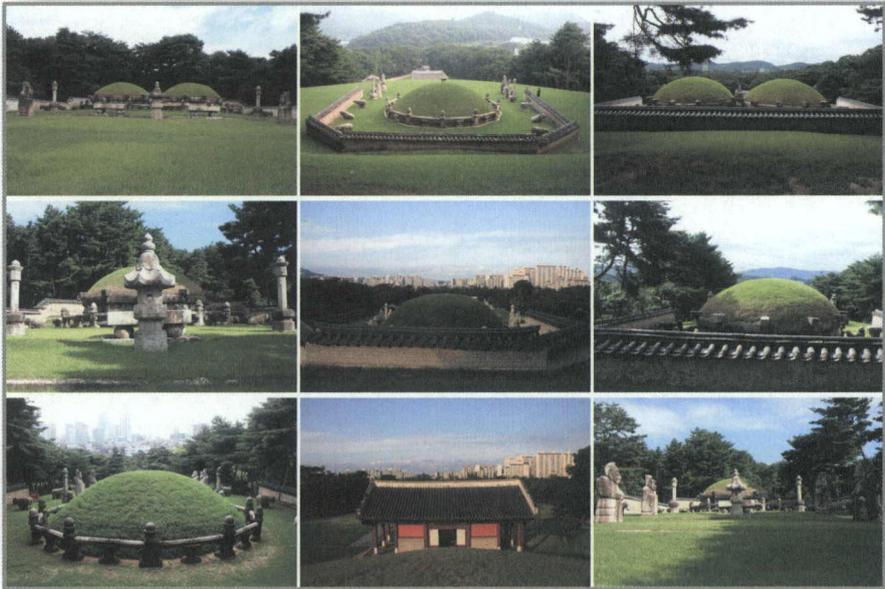
文城君夫人 柳氏 卒于江華圍籬 上下教于該曹曰 廢妃病逝 予甚驚悼 其斂殯時所用衣衾及棺板等物 急速下送 禮曹啓曰 此喪與廢嬪之喪有異 應行喪禮 令儒臣博考 且令春秋館考見實錄 據禮施行 俾無未盡之事 初喪所用衣衾諸具 令該司罔晝夜下送 且自明日 停朝市何如 從之

경기 이외 지역 조선시대 능원



여 백

1. 왕릉
서울특별시



정릉(貞陵)

1. 연혁

능 주 : 태조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1396)

위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2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8호

봉릉연대 : 1397년(태조 6)

전릉연대 : 1409년(태종 9)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국민대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정릉2동사무소 뒷쪽에 있는 중앙하이츠빌아파트를 바라보고 올라가면 정릉에 다다를 수 있다. 정릉입구까지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릉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두번째 부인인 신덕왕후(?~1396) 강씨의 무



정릉 전경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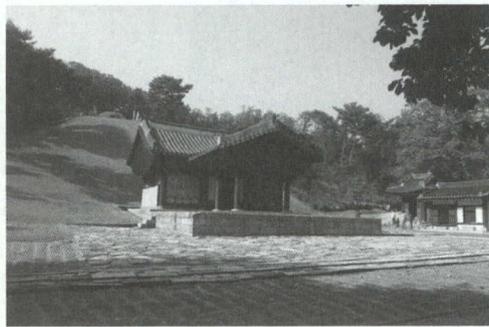
원래의 자리는 정동에 있었으나 태종 5년(1405) 의정부에서 왕의 무덤이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정릉만이 도성 안에 있고, 무덤이 크고 넓다는 논란이 있어서 도성 밖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이것은 태조가 여덟 번째 왕자인

방석을 세자로 정한 것에 대한 방원(후에 태종)의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태종은 무덤을 옮긴 후 정자각을 없애고, 홍수에 의해 없어진 광통교를 다시 짓는데 정릉의 십이지신상 등 석물을 실어다 만들게 하였다. 무덤을 옮긴 지 수백년간 정릉은 왕후의 무덤이라기 보다는 주인없는 무덤에 불과하였는데, 현종 10년(1669)에 송시열의 상소에 의해 왕후의 무덤을 보호하였다.

정릉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우지 않고, 호석과 양석이 각 1쌍으로 줄어들고, 무인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왕후의 무덤에 비하여 빈약하지만 조선왕조 최초로 만들어진 왕비의 무덤이다.

조선왕릉의 무덤 제도는 고려왕릉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약간 변화시켜 만든 것이다. 정릉의 사각명등석이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무덤인 현재 정릉의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정릉 참도와 정자각

보면, 조선왕릉은 고려왕릉을 규범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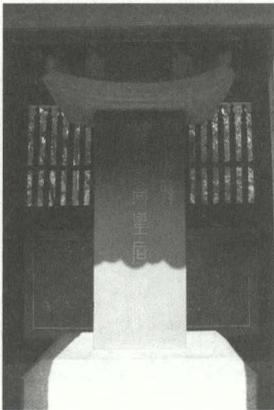
3. 능주 소개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는 본관이 곡산(谷山)으로 판삼사(判三司事)로서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에 추증(追贈)된 강운성(康允成)의 딸로 태어났다. 출생연대는 알 수 없고 6월 14일 탄생하였으며 친가는 고려조(高麗朝)의 권문세가(權門勢家)였다. 태조(太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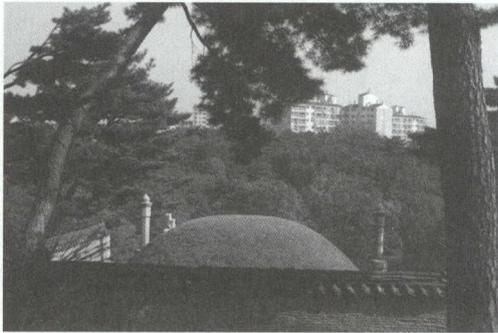
정릉 근경

는 고려시대의 풍습(風習)에 따라 향리(鄉里)와 개경(開京)에 향처(鄉妻)와 경처(京妻)를 각각 두었는데 강씨(康氏)가 경처(京妻)였다. 향처(鄉妻) 신



정릉 비석

의고황후(神懿高皇后) 한씨(韓氏)는 태조(太祖)가 등극(登極)하기 전인 고려 공양왕(恭讓王) 3년(1391) 9월 23일 이미 서거(逝去)하였으며, 강씨(康氏)는 태조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원년(1392) 8월 7일 현비(顯妃)로 책봉(冊封)되었다. 현비는 조선조 최초의 왕비였고 태조(太祖) 5년(1396) 8월 13일 병환(病患)으로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이득분(李得芬)의 사제(私第)에서 승하하였으며 소생은 방번(芳蕃), 방석(芳碩), 경순공주(慶順公主)의 2남 1



뒤에서 바라본 정릉

너지고 춘추(春秋)는 전하지 않는다.

이 해 9월 28일 현비의 존호(尊號)를 신덕왕후(神德王后)로 하고 능호(陵號)를 정릉(貞陵)으로 하였다. 이듬해인 태조 6년(1397) 1월 3일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황화방(皇華坊)

(현 서울 중구 정동에 예장(禮葬)하였으며 태조의 뜻에 따라 정릉(貞陵)을 풍후(豐厚)히 조영(造營)하였다 한다.

강비(康妃) 소생(所生) 방번(芳蕃)과 왕세자(王世子)로 책봉(冊封)되었던 방석(芳碩)은 태조(太祖) 7년(1398) 8월 왕위계승(王位繼承) 다툼인 왕자(王子)의 난(亂)으로 죄사(罪死)되었으며, 태조는 이 해 9월 5일 제2자 방과(芳果) 정종(定宗)에게 선양(禪讓)하고 상왕위(上王位)에 있었고 정종(定宗) 2년(1400) 11월 11일 정종(定宗)이 왕위(王位)를 태종(太宗)에게 양위(讓位)하였다. 태종(太宗) 5년(1405)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왕(帝王)의 능묘(陵墓)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정릉만이 도성 안에 있고 능역이 광대(廣大)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사신이 묵는 관사(館舍)에 가까우니 도성 밖으로 천장(遷葬)하여야 한다는 상언(上言)이 잇따름에 태조 승하 후인 태종(太宗) 9년(1409) 2월 23일 도성 밖 양주(楊州) 남(南) 사을한록(沙乙閑麓) 경좌갑향(庚坐甲向) ; 서에서 동향)에 천장(遷葬)하고 구릉(舊陵)의 목재(木材)와 석재(石材) 일부는 태평관(太平館)에 쓰고 태종(太宗) 10년(1410) 홍수(洪水)에 유실(流失)된 광통교(廣通橋) 복구(復舊)에 썼다.

정릉(貞陵)은 종묘(宗廟)에 부모되지 아니하여 봉번(奉蕃)이 없었는지 오래

되어 후릉(后陵)이 아닌 민묘(民墓)나 다름이 없는 형편이었고, 능의 존재마저 잊혀졌으나 200여 년이 지난 선조대(宣祖代)에 이르러 왕후(王后)의 친정 후손이 국묘태사자(國墓泰祀者)로서 군역면제(軍役免除)를 선조(先祖) 가전(駕前)에 호소함에 정릉(貞陵)을 수탐(搜探)하였으나 능침(陵寢)을 찾지 못하던 중 변계량(卞季良)의 이장축문(移葬祝文)으로 찾았다고 전한다. 그후로도 한식절(寒食節)에만 봉사(奉祀)하는 등 박대(薄待)가 여전하였으나 현종대(顯宗代)에 이르러 송시열(宋時烈) 등의 상소(上疏)에 따라 현종(顯宗) 10년(1669) 9월 29일 정릉(貞陵)이 회복(回復)되고 현비(顯妃)의 태묘배향(太廟配享)이 이루어지고 의례(儀禮)에 의한 상설(象設)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정릉(貞陵)은 병풍석(屏風石)과 난간석(欄干石)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능전(陵前)의 상석(床石) 1좌(座)와 그 양측(兩側)의 망주석(望柱石)이 1쌍이고 능침(陵寢) 주위로 양석(羊石)과 호석(虎石) 각 1쌍이 배치(配置)되었으며 그 밖으로 3면의 곡장(曲牆)으로서 제1계(第1階)를 이루고 있다. 제2계(第2階)에는 문인석(文人石) 1쌍과 마석(馬石) 1쌍이 서로 마주보고 배치되었으며 중앙에 사각옥개형(四角屋蓋石) 명등석(明燈石) 1좌(座)가 있고 제3계(第3階)는 없다. 상설(象設) 내용으로 볼 때에 상석(床石)을 받치고 있는 고석(鼓石)과 명등석(明燈石)은 구릉(舊陵)의 것을 이설(移設)한 것이며 현종(顯宗) 10년(1669) 정릉(貞陵) 회복시(回復時) 상설의물(像設儀物)을 설치함에 있어 병풍석(屏風石)과 난간석(欄干石)을 세우지 아니하고 호석(虎石), 양석(羊石)은 각 1쌍으로 반감(半減)하고 제3계(第3階) 무인석(武人石) 또한 세우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비릉(妃陵)에 비하여 빈약하다.

정릉(貞陵)은 조선건국(朝鮮建國) 후 최초(最初)로 설릉(設陵)되었으며, 조선왕릉(朝鮮王陵)의 능제(陵制) 상설(象設)이 고려왕릉제(高麗王陵制)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를 변화 수용하였던 것이므로 구(舊) 정릉(貞陵)의 실재

(實在)를 현재로서 상고할 길이 없다 하겠으나 정릉(貞陵)의 사각명등석(四角明燈石)이 여말(麗末) 공민왕(恭愍王)과 노국공주(魯國公主)의 현(玄)·정릉(正陵)의 명등석(明燈石)을 충실(充實)히 따르고 있음을 보아 조선왕릉(朝鮮王陵)이 고려왕릉(高麗王陵)을 규범(規範)으로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능원(陵原) 아래에 정자각(丁字閣)이 있으며 정자각 북측에 비각(碑閣)이 있고, 비면(碑面)에는 전서(篆書)로 대한신덕고황후정릉(大韓神德高皇后貞陵)이라 쓰고 음기(陰記)가 있으며,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어필(御筆)로서 광무(光武) 4년(1900)에 세운 것이다. 홍살문(紅箭門)은 정자각(丁字閣) 동측에 있다. 재실(齋室)은 1970년대 초에 노후 멸실되었다. 구(舊) 재실지(齋室址)의 북측에 있는 한식 건물은 정릉관리사무실용(貞陵管理事務室用)으로 건립된 것이다.

태조는 신덕왕후를 극진히 사랑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이 처음 만나 사랑을 싹틔우게 된 계기에 대한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어느 날,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매우 말라 우물을 찾았다고 한다. 마침 우물가에 있던 아리따운 그 고을의 처자에게 물을 청하였는데, 그녀는 바가지에 물을 뜨더니 버들잎 한 움큼을 띄워 그에게 건네주었다. 태조가 버들잎을 띄운 이유를 묻자 뒷날의 신덕왕후가 된 그 처녀는 “갈증이 심하여 급히 물을 마시다 체하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그리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 대답을 들은 이성계는 그녀의 가룩한 마음 씀씀이에 반하여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4. 정릉표석음기

朝鮮國

神德王后貞陵

順元顯敬神德王后康氏 太祖大王繼妃 六月十四日誕生 洪武二十五年壬申册封顯妃 丙子八月十三日昇遐 丁丑正月葬于漢城皇華坊 永樂七年己丑二月二十三日移葬于楊州南沙河里庚坐之原 顯宗己酉追祔太廟

大韓

神德高皇后貞陵

順元顯敬神德高皇后康氏 太祖高皇帝繼后 六月十四日誕生 壬申開國册封顯妃 丙子八月十三日昇遐 丁丑正月葬于漢城皇華坊 太宗己丑二月二十三日移葬于楊州南沙河里庚坐之原 顯宗己酉追祔太廟 追上徽號順元顯敬 光武三年己亥十一月追尊恭上高皇后 書前面與陰記庸伸小子之微忱焉 光武四年 月 日

5. 정릉의 폐복

《燃藜室記述》卷1, 太祖朝故事本末 정릉의 폐복

홍무(洪武) 병자년(1396) 8월에 현비 강씨(顯妃康氏)가 죽었다. 문하 시중 조준과 김사형 등이 아뢰어, 공신 한 사람을 시켜 능을 3년간 지키게 하기를 정하니, 안평군(安平君) 이서(李舒)로 하여금 능을 지키게 하였다. 처음에 정릉동(貞陵洞)에 장사지냈다가 뒤에 사을한리(沙乙閒里)에 옮겼다. 《야언별

집(野言別集)》

○ 정축년(1397) 정월 갑인일에 황화방(皇華坊) 북쪽 언덕에 장사지내고 또 능의 동쪽에 흥천사(興天寺)를 창건하여 명복을 빌었다.

절의 건축 공사가 끝나고 소상(小祥)이 되자 법채(法彩)를 성대히 베풀어서 낙성식을 하고, 권근에게 명하여 기문(記文)을 짓게 하였다. 《흥천사기(興天寺記)》

○ 정릉을 장사지낸 지 3년만에 경복궁(景福宮) 인안전(仁安殿)에 혼백을 반환하고, 3년이 지난 뒤에 인안전에 영정(影幀)을 봉안했다.

○ 태종 기축년(1409) 태조가 승하한 이듬해 에 정릉을 양주군(楊州郡) 남사아리(南沙阿里)로 옮겼다.

정릉을 남사아리에 이장함을 고하는 제문(祭文)에 말하기를, “유명(幽明)의 관계가 이치는 비록 하나이지만 나뉘는 다르도다. 신도(神道)는 청정(淸淨)함이 좋다는 옛말씀이 어찌 거짓이라. 고금을 통해 상고해 보건대, 나라의 도성에 무덤 둔 일 없도다. 예관(禮官)이 이런 뜻으로 말을 올리매, 대소신료가 이에 찬동하여 길한 땅을 택하였으니, 성 밖 동북 모퉁이로다. 물은 졸졸 흘러서 일렁거리고, 산은 뻗어 내려 서로 엮혔도다. 현택(玄宅 무덤)을 두는 곳으로 여기가 마땅한데, 누가 이곳을 도성에 가깝다 하리요. 좋은 날 택하여 이안(移安)을 고하오며 술 한 잔을 올립니다. 숙령(淑靈)이 밝히 흥향하시기를 바라며 슬픈 정성 퍼면서 울먹입니다.” 하였다. 변계량(卞季良)이 지음

○ 선조 신사년(1581) 11월에 신덕왕후를 복위하자는 의논이 비로소 일어났다. 과거에 신덕왕후가 태조를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태조의 정비(正妃)가 되어 명 나라의 고명(誥命)을 받았으며 돌아간 후에 시호를 주고 능을 봉하기를 신의왕후와 조금도 차이가 없이 하였었다. 그러나 태조가 승하하

자, 다만 신의왕후만을 같이 모시고, 신덕왕후에 대해서는 일체의 전례(典禮)를 다 폐해버리고 거행하지 않았다. 세월이 오래 되자 능 또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지가 2백년이 되었다.

이때에 와서 덕원(德源)에 사는 강순일(康純一)이 임금이 행차하는 수레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며 아뢰기를, “저는 판삼사사 강윤성(康允成)의 후손입니다. 지금 군역(軍役)에 배정되어 있으니, 국묘(國墓)를 봉사(奉祀)하는 사람들은 군역을 면하는 전례에 의하여 개정해 주소서.” 하였다. 강윤성은 신덕왕후의 아버지이다. 태조의 사조(四祖)의 후비(后妃) 고조모·증조모·조모·모)들의 부모의 묘가 북방에 있었는데, 관에서 한 사람씩 정해 ‘국묘봉사자(國墓奉祀者)’라 하여 군역을 면제해 준 전례가 있는 까닭에 순일이 이렇게 하소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이(李珣)가 앞장서 말하기를, “신덕왕후는 태조와 같이 모셔야 할 분인데, 아무 까닭없이 제사하지 않는 것은 인륜에 관계되는 일이니, 마땅히 존송하는 행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니, 조정이 모두 의논하여 비로소 예관을 시켜 먼저 능을 찾게 하였다. 문관 이창(李昌)이 신덕왕후의 외손으로 마침 조정에 벼슬하고 있었으므로, 예조에서 그를 데리고 능이 있을만한 곳을 찾아 아차산(峩嵯山) 안팎을 두루 답사하였으나 내내 찾지 못하였다. 그때 마침 변계량(卞季良)의 《춘정집(春亭集)》 가운데 정릉을 이장한 축문에 ‘국도 동북’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근거로 물색하여 산 밑 마을에 가서 찾으니, 과연 국장(國葬)으로 한 능이 산골짜 사이에 퇴폐되어 있었다. 조정의 의논이 처음에는 태묘(太廟)에 같이 모시기를 신의왕후의 예(例)와 꼭 같이 하기를 청하더니, 다른 한 의논이, 예경(禮經)에 제후는 두 번 장가들지 못하고 예(禮)에 두 적처(嫡妻)가 없다는 말들을 인용하여 이러니 저러니 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조정의 의논이 또 하책(下策)

을 내어 다만 정자각(丁字閣)을 세우고 참봉을 설치하는 것만 여러 능의 제도와 꼭 같이 할 것을 청했으나 이 의논 또한 시행되지 못하고, 다만 조묘(祧廟)의 예에 의하여 매년 한식날에만 제사지내는데 그치기로 하였다. 《유천차기(柳川筭記)》

신의왕후와 신덕왕후는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서울과 지방에 있던 두 아내이다. 신의왕후가 죽은 뒤에 신덕왕후가 계실(繼室)이 되었으니, 이것은 정충(鄭攄)의 <정릉비문서(定陵碑文序)>를 상고해 보면 알 수 있고, 신덕왕후의 칭호를 역대로 내려오면서 깎은 적이 없는 것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보아도 또한 알 수 있다. 조선의 가법(家法)이 이미 정식이 있어서, 여러 왕의 후비는 전처와 후처를 차별하지 않고 배위(配位)로 모셨으니, 제후에게 두 적처가 없다는 말을 태조에 대해서만 편벽되게 고집할 것이 아닌데,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굳이 예경(禮經)에 의거하여 신덕왕후에 대해서만 깎아 내리고자 했으니,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강순일이 처음에 하소연한 것은 다만 자기의 균역을 면하고자 한 것이나, 선비들의 의논이 분발한 것은 이것 때문이었으니, 천도(天道)는 돌아오고야 마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가만히 돕는 큰 기회인 것 같은데, 의논이 일어났다가 도로 그치고 3년을 다투다가 겨우 한식날에 한 번 제사지내는 것만 행하게 되었으니, 애석하다. 《유천차기》

○ 임오년 6월에 7대손 돈녕부 직장(直長) 이의건(李義健)이 정릉에 사유를 고하는 제문에 말하기를, “건(乾)을 짝하여 국운을 일으키고 위(位)를 바르게 하여 곤도(坤道)로써 건을 받들었다. 살아서는 국모되어 안팎에 임하였고, 돌아가서는 아름다운 칭호를 받게 되었다. 전례에 몇몇함이 있어 원릉(園陵)에 제사지냈더니, 시세가 달라져서 의논하는 신하들의 소견이 잘못되었다. 등급이나 품위가 문란하게 되어 부실(副室)로 깎아내리고 지키는 사

람이 없어 능원이 황폐해지니, 향화(香火)를 누구에게 의지할거나, 백성이 나 종들에게도 수치스럽다. 오래도록 그릇된 대로 그냥 2백년을 내려왔으니, 혈기있는 이치고 누구인들 울분을 쌓지 않으리. 일은 시기를 기다리는 법인데 마침 오늘이 그때이다. 신하와 서민들이 다 같이 여러 해를 두고 하소연하기를 마치 바다 새가 돌을 물어다가 바다를 메우듯이 하였더니, 임금의 생각이 비로소 돌이켜졌다. 폐했던 전례를 닦아 거행함이 천년에 이 한 때이다. 한 무덤 거친 능에 돌만이 여기저기 서 있고, 높은 대는 흙 속에 묻혔으며 신계(神階)는 우거진 풀 속에 숨어있으니, 산짐승이 깃들고 나무꾼과 목동들이 길을 이루었도다. 이어받들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으나 조정에서 능을 찾는데 믿을 만한 봉지(封誌)가 없다. 국사(國史)에도 시일이 오래 되어 기재된 문적이 없어졌고, 향간의 속설은 황당하여 믿을 수 없으니,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지석(誌石)을 파 보아야 여러 사람의 의심이 풀릴 것이다. 능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예로써 마땅히 제사드려야 할 텐데,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의식(儀式)이 아직 베풀어지지 않았고 시일도 좋지 못하므로 유사를 시키지 않고 이에 자손에게 명해서 이 좋은 날을 택하여 산소에 와서 사유를 고합니다.” 하였다. [봉상시 첨정 이장(李昌)이 지었다. <<정릉사적(貞陵事蹟)>>]

○ 위안하는 제사의 제문에 말하기를, “이 원릉(園陵)은 선후(先後 신덕왕후)의 유택(幽宅)이네. 떠도는 말에 다른 산록으로 옮겼다고들 하니, 비록 근거없는 말이기는 하나 조정에서는 의심을 풀기 어려워 이에 예관에게 명하여 유석을 파헤치니, 비록 표지(表誌)는 없을지라도 틀림없는 참능이네. 쌓인 울분을 푸는 것이 천년에 이 한 때이네. 역군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현궁(玄宮)을 놀라게 할까 두려웠네. 하루도 못되어 성분하는 일을 마쳤네.” 하였다. <<정릉사적>>

○ 예조 판서 김첨경(金添慶)이 대군종가인(大君宗家人)의 말을 듣고 아뢰기를, “유학(幼學) 이성장(李成章)이 이러 이러하다고 말하기를, ‘전일에 낭청(郎廳)이 능을 봉심할 적에, 일이 뜻밖이어서 비록 선대의 일이지는 하나 후인으로서 문견이 넓지 못하여 상세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들으니 공순군 부인(恭順君夫人) 왕씨(王氏)는 정통(正統) 기사년(1449)에 73세로 죽었는데, 동대문 밖 광평대군(廣平大君) 집에 있으면서 간혹 가마를 타고 가서 친히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이는 우리 조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천군 부인(南川君夫人) 최씨(崔氏)는 가정(嘉靖) 기축년(1529)에 죽었는데, 생시에 매년 속절(俗節)이면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이것을 현재 살아 있는 늙은 종 가운데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합니다.” 하였다.

○ 의정부가 아뢰기를, “정릉을 봉식하는 일은 삼사가 이미 의논을 다 했으니 상께서 모두 들어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첫째 봉식하는 일 이외에 다시 더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과 둘째 선왕이 제정해 놓은 것에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씀은 신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침우(寢宇)를 세우지 않으면 영령을 편안하게 할 곳이 없고, 재궁(齋宮)을 두지 않으면 능을 받들 사람이 없으니, 한갓 봉식했다는 말만 있고 박하게 대우하는 것을 면치 못하므로, 신 등이 매일 조정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다시 아뢰기를, “정릉에 대한 일로 온 나라가 논쟁을 하여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봉식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참봉을 설치하고 각(閣)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 순릉(純陵)과 숙릉(淑陵)은 비록 똑같이 후비(后妃)의 능이지는 하나 그것은 추숭(追崇)하는 예에 있어서 마땅히 생전에 국모 노릇하던 이보다 좀 못해야 하므로, 능침(陵寢)의 제도를 부득불 감손시킨 것인데, 해당 관원들이 정릉에 대하여서도 각각 이 두 능을 들어서 증거를 삼고 있으니, 무슨 소견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정릉을 깎아내려

대우를 박하게 하는 것을 미안하다고 하면서 영(靈) 모실 곳을 없게 하고 능 받들 사람도 없게 한다면 이것은 비록 봉식하였다다는 말은 있다 하더라도 그 깎아내려 박하게 하는 뜻이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 임오년(1581) 12월에 태학생(太學生) 채증광(蔡增光) 등이 올린 소의 대략에 말하기를, “다행히도 하늘이 한 어리석은 백성(강운성의 후손)의 마음을 유도하여 선후(先後 신덕왕후)를 위하여 원통함을 하소연하게 하였으니, 일국의 신민이 누가 태조와 태종을 위하여 신덕왕후를 부향(祔享)하는 중례(重禮)를 바르게 하여 모후(母后)의 유원(幽冤)을 씻고자 아니 하겠습니까. 윤기(倫紀)가 무너지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의례가 거행되지 못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겨 조정에서는 공론이 분발하고 초야에서도 민심이 억울하게 여기니, 이것이 어찌 한갓 신덕왕후만을 위하여 나온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신덕왕후를 폐위한 것)이 선조(先朝)에 있었으며, 후손이 마땅히 고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자못 그렇지 않습니다. 태종이 신덕왕후에 대하여 지성으로 봉양하여, 살아 있었을 때 섬기는 예를 다하였고, 원릉(園陵)을 공경히 받들어 돌아간 뒤에 섬기는 예를 다하였으며 시호를 ‘신덕’이라 하고 능호를 ‘정릉’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신의왕후를 존봉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에 태묘에 승부(陞祔)하지 않은 것은, 신들이 비록 전말을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삼가 듣건대, 고려 때의 임금도 비록 두 왕후가 있더라도 한 왕후만을 승부하였다고 하니, 태조와 태종이 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되어 전대의 제도를 감히 뜯어 고치지 못한 까닭에, 신의왕후만을 태묘에 승부한 것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환조(桓祖) 역시 세 번 장가들었으며, 의혜후(懿惠后)만을 승부하였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태조가 승하하신 때가 태종이 즉위한 8년에 있었으니, 왕후를 승부하는 예를 행한 것은 마땅

히 태종 10년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관이 신덕왕후를 박하게 대우하자는 의논이 바로 이해에 있었을 것이니, 그때 한두 신하들이 학문이 부족하여 망령되어 잘못된 의견을 고집하여 신덕왕후를 태묘에 승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향과 죽은 태종이 친히 전하는 것인데 예관이 정지하자고 청하고, 능침은 태종이 존봉하는 것인데, 예관이 폐하자고 청하였던 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덕왕후를 승부하지 않은 것은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면, 필시 몇몇 신하들의 죄일 것입니다. 태종이 신덕왕후를 깎아 내리고 박하게 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아름다운 시호를 그냥 두어 후세에 전했겠습니까. 한 때 몇몇 신하들이 박하게 하자고 한 의논이 태종에게 무슨 관계가 되기에, 전하께서 양사에 답하여 이르기를, ‘성인(태종)의 효성으로 저와 같이 처리하였으니 반드시 거기에는 당연한 이치가 있을 것이다’ 하십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그것을 홀로 태종의 허물이라고 여기십니까. 또 이 일이 혹 아직까지 발설이 되지 않았다면 후일에 그래도 여망이 있는 일이나, 다행히도 이제 성명(聖明)한 전하를 만나 이미 공론이 격발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바른 대로 귀일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당시 몇몇 신하들의 과실이 태종의 과실이 되고, 전하의 과실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 그 다음 날 다시 소를 올리기를, “신들이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뢰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태조가 나라를 얻으실 때에 신덕왕후의 내조에 많이 힘입었고, 신덕왕후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조의 마음이 무궁한 수명을 함께 누리지 못한 것을 신덕을 위하여 애통해 하시면서도 오히려 돌아가신 뒤에 함께 태묘(太廟)에서 무궁한 제사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셨을 것인데, 어찌 후세의 박한 의논이 마침내 능을 폐하고 승부(陞祔)를 끊어버릴 줄을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태조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제후를 흠향하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신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신덕왕후는 태조의 정배(正配)로서 일국의 국모가 되었다가 불행히도 먼저 돌아가셨는데 시호 정하기를 의례대로 하였습니다. ‘신덕’ 두 글자의 시호는 실로 정적(正嫡)에 대한 아름다운 이름이니, 어찌 ‘신의(神懿)’라는 시호에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신덕의 영은 맺힌 원한이 마침내 명명(冥冥)한 가운데 퍼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둘째 이유입니다. 태종은 태조와 신덕의 아들로써 태조와 신덕의 나라를 다스렸는데, 힘써 봉양하여 생전에 효도를 다했고, 진히 향과 축을 전하여 사후에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돌아가신 뒤에 부왕과 모후가 종묘에 같이 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태종의 영 또한 답답하고 송구하여 태묘에서 편안히 흠향할 수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셋째 이유입니다.” 하였다.

○ 그 다음 날 세 번째로 소를 올리기를, “임금은 선조(先朝)의 잘못된 처사를 보고 고칠 계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니, ‘선대에서 한 일을 고치지 않아야 한다’는 작은 혐의를 고집하지 말아야 그 선조의 허물을 덮고 선조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드려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왕의 잘못된 처사가 실로 선왕의 본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끌어다가 조종이 한 과실이라고 하여, 이것을 고칠 수 없는 처지에 둘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중종(中宗)이 이런 이치를 미루어 소릉(昭陵)을 복위하는 일에 감히 선조를 핑계대지 않고 여러 신하들의 소청을 좇았으므로, 지금까지 백 사십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오기를 세조의 뜻을 크게 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이 정릉을 폐한 박한 처사는 실로 그 당시에 예를 의논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선왕(태종)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전하는

무엇을 혐의하여 듣지 않습니까. 신의왕후가 돌아가신 때가 고려말이니, 태조의 내사(內事)를 도운 이는 오직 신덕왕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덕왕후를 깎아 낮추어서 태조의 정배로 하지 않는다면 태조는 개국의 성조(聖祖)로서 홀로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정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조가 이미 높여서 정배로 삼았고, 태종이 또 높여서 모후로 삼았으니, 일국의 신민이 그 누가 우리 신덕왕후를 국모로 보지 않겠습니까. 신덕왕후를 이미 깎아서 부실(副室)의 자리로 내려서 끝내 왕비의 위에 이르지 못한 신의왕후보다 낮게 보면, 이것은 태조에게 정배가 없는 것이고, 태종에게 모후가 없는 것이니, 일국의 신민에게 모두 국모가 없는 것입니다.

슬프다! 없어지지 않는 것은 천리이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없고, 보존하기 어려운 것은 인심이기 때문에 한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법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조종이 부탁하고 신민이 촉망하는 중대한 것을 잊어버린 듯이 홀로 당신의 소견만을 고집하여 없어지지 않는 천리와 보존하기 어려운 인심을 거스리려고 하십니까.” 하였다.

○ 현종(顯宗) 10년 기유 정월에 우의정 송시열(宋時烈)이 아뢰기를, “신덕왕후 강씨(康氏)는 태조의 왕비입니다. 돌아가신 뒤에 정릉에 장사지내고 국례(國禮)를 아직도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조석으로 절에서 재(齋)를 베풀었는데, 태조가 추념하기를 매우 간절히 하여 언제나 정릉에 재 올리는 종소리를 들은 뒤에 수라(水刺)를 들여오라고 하셨다니, 이것으로 태조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능침이 매몰되어 제릉(齊陵 신의왕후의 능)에 미치지 못하고 또 종묘에 배향되지 못하였으니, 예에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현종이 이르기를, “역대 왕의 기일 중에 신덕의 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처음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은 극히 황송한 일이나, 태

조가 개국하신 뒤에 정도전 등이 태종을 무함하고 신덕왕후의 아들을 세워
서 세자를 삼았다가 신덕왕후의 소생인 장혜(章惠)와 소도(昭悼) 두 공이 비
명에 죽고, 그 후 신덕왕후의 능소(陵所)를 성동(成洞)에 옮겼기 때문에 태묘
에 배향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현종이 이르기를, “신덕왕후는 다른 이
의 계비와는 같지 않다.” 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고려 때에는 경처(京
妻)와 외처(外妻)가 있었던 까닭에 태조가 잡저에 있을 때에 신덕왕후가 경
처가 되고 태조가 은혜와 예의를 다하였는데, 지금까지 태묘에 배향되지 못
한 것은 진실로 미안한 일입니다. 일이 중대하니 널리 조정의 신하들과 의논
하여 태묘에 배향하고 능을 개봉(改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현종
이 이르기를, “내가 천천히 다시 생각하여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
겠다.” 하였다.

○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아뢰기를, “신덕왕후의 능침에 대한 일은 신이
이미 진달하였습니다. 송 나라 때에 전씨(錢氏)의 능묘가 거칠어서 행인이
슬퍼하였는데, 송 나라에서 오히려 이를 위해서 묘를 수축하고 사당을 세워
주었습니다. 하물며 신덕왕후는 위와 시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 능묘가 이
와 같이 매몰되었으니, 이것은 사체(事體)로 보아 불가불 속히 수축해야 합
니다.” 하니 현종이 이르기를, “예관에게 말을 하여 봉심한 뒤에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예조에서 아뢰기를, “참의(參議) 이준구(李俊壽)가 정릉을 봉심하니 봉
릉(封陵)은 둘레가 66척이고 높이가 7척쯤 되며, 사면의 사토가 거의 다 허
물어졌고 곡장(曲牆) 또한 다 퇴락하였습니다. 석물(石物)로는 혼유석(魂遊
石)·장명등(長明燈) 각각 일좌(一坐)와 문석(文石)·망주석(望柱石)·양석
(羊石)·호석(虎石)·마석(馬石) 각각 한 쌍이 차례로 배열되고, 능은 40여
보에 둘로 사면을 쌓았고, 중앙에 모두 계단이 있습니다.안의 시설은 한 칸

쫘 네모난 석축(石築)이 있는데, 매년 한식에 막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고, 능 아래 백여 보쯤에 또 10여 칸의 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 완연하니, 이곳은 틀림없이 재소(齋所)의 옛터입니다.” 하였다. 영중추부사 이경석(李景奭), 판중추부사 정치화(鄭致和), 영상(領相) 정태화(鄭太和), 좌상(左相)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재실(齋室)을 중건하여 수직(守直)하고 수호(守護)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현종이 명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병조에서 아뢰기를, “정릉 수호군(貞陵守護軍)을 조천(祧遷)한 능의 예에 의하여 마땅히 30호(戶)로 정해 줄 일입니다.” 하니, 현종이 이르기를, “반은 보병으로 정해 주고, 반은 본릉으로부터 차차 정해 보라.” 하였다.

중건청 당상(重建廳堂上)은 이조 참판 윤집(尹鑣)과 예조 참판 이준구(李俊壽)로 삼았는데, 3월 13일에 비로소 착공하였다.

○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또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생각건대, 천하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은 대륜(大倫)을 밝히고 대법(大法)을 세우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른바 ‘대륜’이라는 것은 부자·군신·부부이고, 이른바 ‘대법’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이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밝지 못함이 있고 이 세 가지 사이에 행하는 것이 하나라도 미진함이 있으면 중국이 이적에 빠지고 인류가 금수로 되는 까닭에, 성인이 스스로 자기가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먼저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본조가 개국한 이래로 삼강이 바르고 오상이 밝아서 고려의 호속(胡俗)을 일변(一變)하고 당당하게 삼대의 대도에 오른 까닭에 중국에서 언제나 우리를 ‘소중화(小中華)’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개국초에 간신 정도전 등이 위태로운 말로 선동하고 간특한 꾀를 몰래 행하여, 태조대왕이 왕위를 현 신짜 같이 내던지게 하고 장해

(章惠)와 소도(昭悼) 두 공을 요절하게 하였으니, 간신의 죄는 죽여도 남습니다. 오직 우리 태종의 성덕(盛德)과 순효(純孝)가 전의 사람들보다 마치 요임금이 전하고 순임금이 받은 것처럼 질서 정연하여 번고를 만나 처리하는 도리가 당시에 유감이 없었고, 후세에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신덕왕후의 능에 대해서만 의절(儀節)이 부족하고 태묘에 배향하는 예가 오래 실행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당시 예관이 예의를 알지 못하고 망녕되게 잘못 해아려서 이와 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어 그대로 답습하여 이력저력 해오다가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태묘에 비록 주현소월(朱絃疏越)의 음악을 연주하고 옥찬황류(玉瓚黃流)의 제주(祭酒)를 올린다 하더라도 태종의 영은 반드시 슬피 탄식하고 벌컥 성내실 것이고, 태종 또한 반드시 그 영이 좌우에 오르내릴 때 송구스러워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또, 일국의 신민들도 성자신손(聖子神孫 태종의 자손인 역대 국왕들)이 태종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지 못함을 의심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성상께서 지극한 효성으로 먼 조상을 추념해서 특별히 예관에게 명하여 정릉을 봉심하여 나무가 넘어져 능을 누르고 있는 것은 곧 제거하고, 수호하는 관원과 재사(齋舍)를 차례로 세웠으니, 어찌 다만 조종의 신령이 명명중(冥冥中)에서 기뻐하실 뿐이겠습니까. 온 천하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효성스런 성상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묘향(廟享)의 의절을 아직까지 지연시켜 결정하지 못하고 능묘의 예를 달리하여 저것[능]은 받들고, 이것[태묘에 모시는 것]은 폐하니, 근거가 없는 처사입니다. 신이 밤낮으로 근심하여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더니, 이제 선조조 태학생(太學生) 채증광(蔡增光)의 소장을 보니, 그때 조정에서는 신덕왕후의 문제에 대한 의논이 일제히 나와 그 말들이 매우 상세하고 절실하였습니다. 또 삼가 권근(權近)이 왕명에 의하여 지은 <정릉 흥천사 기문(貞陵興天寺記

文)>을 보니, 태조가 애통하게 생각하며 시호를 추증한 뜻과 명 태조가 칙서로 조문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그 글을 상세히 살펴 보셔서 특별히 예관으로 하여금 묘향의 의절도 함께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 6월에 부학(副學) 이민적(李敏迪), 응교 남이성(南二星), 교리 윤심(尹深)·이규령(李奎齡)·부교리 김만균(金萬均), 수찬 홍주국(洪柱國), 부수찬 김만중(金萬重)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생각건대, 천하의 일이 본래 폐지되었다가 후에 거행되는 것이 있고, 또 일시에 굽혀도 후세에 영원히 펴는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 집의 신명규(申命圭), 사간 박증휘(朴增輝), 지평 신정(申景), 임상원(任相元), 정언 어진익(魚震翼) 등이 아뢰었다.

○ 2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아뢰기를, “신덕왕후를 태묘에 승부(陞祔)하자는 청은 곧 온 나라 사람들의 공공연한 의논입니다. 삼사의 신하들은 전례를 들어 논쟁하고, 포의(布衣)의 선비들은 《예경(禮經)》에 의거하여 진술하니, 살았을 때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하였으면 죽어서 종묘에 제사하는 것이 천지의 떳떳한 법이고 고금에 통하는 의리인데다 종묘에 관계되는 일이니,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명하신 전하는 천리의 당연한 바와 인정이 있는 곳을 통촉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데, 이것을 어렵게 여겨 오늘에 이른 것은 아마도 관계된 바가 중대하여 경솔히 시행하기 어려워서가 아닌지요. 그러나 신들은 일이 이미 중대하다면 더욱 빨리 시행해야 되지, 결코 시일을 끌어 천리를 어기고 인정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하였다.

○ 25일에 진사 조상우(趙相愚) 등이 상소하였다.

○ 8월에 영상 정태화(鄭太和), 판중추부사 정치화(鄭致和)가 백관을 거느

리고 정청(庭請)하고, 종실들도 정청하였으며, 봉교 조사석(趙師錫)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고, 감찰 한공필(韓公泌) 등과 성군관 및 사학의 유생들 또한 상소하여 이것을 의논했다.

○ 영중추부사 이경석(李景奭)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오늘날 논하는 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몇몇한 일인데, 의리의 바른 것과 인륜의 중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아뢰었습니다. 어제 내리신 전하의 비답(批答)을 보았는데, 또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신중히 생각하는 것은 오래 된 일이어서 경솔히 고치기 어렵다고 여기셨기 때문이겠지만, 침각(寢閣)을 증진하는 것도 전대에 해 오지 않던 일이니, 어찌 태묘에 승부하는 의절만 어렵게 여기십니까. 또 일이 조종에 관계되어 지금 와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혐의가 된다고 여기셨기 때문이겠지만, 《실록(實錄)》을 보면 신덕왕 후에 관한 처분이 당초에 태종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미진했던 전례(典禮)를 지금 와서 고친다고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본래 능제(陵制)와 묘의(廟儀)는 서로 다른 것이 없는 것인데, 당연히 차례로 거행할 전례를 아직 시비와 가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고 있으니, 이것은 또한 《주역》의 이른바, ‘건괘의 강단(剛斷)으로 쾌히 결단한다’는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다시 성대한 의례를 거행하여 신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현종이 이르기를, “내가 신중히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까지 미루어 온 것이나, 끝내 내 생각을 고집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경들의 청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나의 의견을 버리고 경들의 의견을 좇겠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예조에서 아뢰기를, “옥당에서 올린 차자에 ‘고신(故臣) 권근(權近)이 지은 <흥천사(興天寺) 기문>을 상고해 보니, 「홍무(洪武) 병자 8월 무술에 우리 소군(小君) 강씨(康氏)가 홍하다」 하였는데, 실록에 의하면 「병자 팔월

조하루 무자삭[丙子八月初一日戊子朔]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무술일은 11일에 해당됩니다.’ 하였습니다. 정릉의 기일(忌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더 상고해 볼 일입니다.”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11일을 기일로 삼았는데, 다시 《실록》 초본을 보니, 무자 밑에 ‘삭(朔)’ 자가 적혀 있지 않아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역산(歷算)하게 하니, 13일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대신에게 의논하여 이날을 기일로 삼았다.

예조에서 신덕왕후의 휘호인 순원(順元)·현경(顯敬)이라는 보전(寶篆)을 추상(追上)할 것을 아뢰었다.

○ 신덕왕후의 신주를 모실 장소를 의논하였는데, 좌찬성 송준길(宋浚吉)의 의논에 의해서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거기서 하였다. [《종묘전고(宗廟典故)》에 상세하다. ○ 시책(諡冊)을 추상하는 데 관한 수의와 승부할 때 정알(庭謁)하는 데 관한 수의도 함께 《종묘전고(宗廟典故)》에 들어 있다.]

○ 기유년(1669) 9월 29일에 강녕전(康寧殿)에 쳐 놓은 장전(帳殿)에서 제주(題主)하고 읍취당(挹翠堂)에 나아가 봉안하였다가, 30일에 종묘에 나아가서 10월 초하룻날에 종묘에 승부하고, 그 다음 날에 교서를 반포하고 과거를 보는데 경과와 합쳐서 하라고 하였다. 이상은 모두 《등록(謄錄)》이다.

○ 신덕왕후를 태묘에 승부할 때에 대신을 보내어 대행하게 하였는데, 그 죽문에 쓰기를, “삼가 생각건대, 대비는 열조(烈祖 태조)와 짝하여 명 나라 조정의 명을 받아 왕비의 자리에 오르셨다. 연대는 비록 오래 되었으나, 아름다운 칭호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승부하는 예를 거행하지 못한 지 몇 해가 지났는고. 소소(昭昭)하게 오르내리시는 영이 마치 강림하여 돌아보는 듯하니, 소자(小子) 송구스럽도다. 시월 초하루는 날과 때가 좋은 때여서 이에 상

등의 의식(儀式)을 정결히 하여 태묘에 승부하오니, 엄숙한 묘실(廟室)이여, 오른쪽은 목(穆)이고, 왼쪽은 소(昭)로다.

신이 양양(洋洋)히 강립하오니, 백세에 체천(遞遷)이 없으리로다. 소자가 병에 걸려 오랜 고질로 몸소 폐백을 드리지 못하오니, 다만 슬피 사모함이 더합니다. 정성을 모아 정결한 제물을 올리는데 재상으로 대행하게 하오니, 아, 심원한 황령(皇靈)이시여,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주(金錫胄)가 지어서 올리다.

○ 능을 봉하고 제사를 베풀던 날에 소낙비가 정릉 일대에 쏟아졌는데, 백성들은 신덕왕후의 원한을 씻는 비라고 하였다. <현릉행장(顯陵行狀)>

여 백

헌릉(獻陵)

1. 연혁

능 주 : 태종(太宗)[1362~1422]

원비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1365~1420]

위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

지정번호 : 사적 제194호

봉릉연대 : 1422년(세종 4년)

전릉연대 :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송파대로를 따라 성남방향으로 가다가 복정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서초구 세곡동 방향으로 향하다 보면 헌인릉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넓직한 주차장을 뒤로 하고 능역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순조의 무덤인 인릉이 나타나고, 여기서 오솔길을 따라 안으로 더 들어가면 태종의 무덤인 헌릉에



현릉 전경

도착할 수 있다.

현릉은 3대 태종과 원비 원경 왕후의 봉릉이 같은 언덕에 조성된 쌍릉 형식으로, 조선시대 쌍릉의 대표적인 능제이다. 병풍석의 규모와 확트인 전경, 정자각 중심의 제향공간과 능침공간 사이의 높이 차이 등 초기 조

선 왕릉의 위엄성을 잘 드러내주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현릉의 능 앞 석물들은 망주석, 혼유석, 장명등은 1쌍이고 양석, 호석은 각각 4쌍, 문무인석과 마석은 각각 2쌍씩 배치되었는데, 이는 고려 왕조의 현릉(玄陵)과 정릉(正陵) 제도를 기본으로 한 것이며 조선시대에서는 가장 웅장한 배치 방법이다.

현릉이 지닌 조선 초기 왕릉으로서의 특성을 두 가지 꼽자면 소전대와 상석 아래 놓인 고석의 개수를 들 수 있다. 정자각 북서쪽에 있는 소전대라고 하는 석물은 제례의 마지막 절차인 지방을 불사르는 시설로 태조 건원릉과 이곳 현릉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시대 초기의 석물이다. 한편 봉릉 앞 상석 아래에 놓인 고석의 개수가 5개인데, 이와 같이 고석이 5개인 능은 태조의 건원릉, 태종의 현릉으로 모두 조선 초기 상설 제도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현릉에는 불교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법석은 물론, 원찰의 설립을 금하였다.



현릉 정자각



현릉 원경

원경왕후가 1420년(세종 2) 7월 10일 수강궁(창경궁) 별전에서 태종보다 일찍 세상을 뜨자, 태종의 명으로 같은 해 9월 17일 대모산 기슭에 건좌손향으로 왕후의 능을 조영했는데, 억불정책으로 원찰을 세우지 못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422년(세종

4) 태종이 승하하자 아들 세종은 같은 해 9월 6일 어머니 원경왕후의 능 옆에 봉릉을 따로 만들어 아버지를 모시고 난간으로 연결하여 쌍릉을 조성하고 곡장을 둘렀다.

능원에는 두 개의 신도비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 손상된 원래 신도비와, 1695년(숙종 21) 하나 더 증설하여 세운 것이다. 왕릉의 신도비는 태조의 건원릉, 정종의 후릉, 태종의 현릉, 세종의 영릉 때까지 세웠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했는데, 현재 왕릉의 신도비는 건원릉과 현릉에만 볼 수 있으며 세종의 영릉 신도비는 서초구 내곡동 원래의 터에 묻혀 있던 것을 1973년에 발굴하여 현재의 청량리 흥릉동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입구에 있다.



뒤에서 바라본 현릉

3. 능주 소개

태종(太宗 ; 1367~1422, 재위기간 : 1400~1418)은 태조와 신의왕후 한씨의 다섯 번째 아들로 1367년(고려 공민왕 16) 5월 16일 함흥 귀주동 사저에서 태어났다. 1383년(고려 우왕 9)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사대언이 되었는데,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왕이 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조선이 건국된 1392년 정안군에 봉해졌다.



헌릉 장명등과 봉분(태종)



헌릉 장명등과 봉분(원경왕씨 민씨)

그러나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와 정도전 등의 경계로 세자 책봉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고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신덕왕후 소생의 세자 방석을 폐위시켰으며, 둘째 형인 영안군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양보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박포의 계략에 넘어간 태종의 넷째 형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태종은 이를 평정하고 1400년 11월, 정종에



현릉 무인석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1405년에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였고, 17년 10개월의 재위기간 동안 중앙제도와 지방 제도를 정비하였다. 사병 폐지로 군사권을 장악하고, 전국의 인구를 파악하여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에 활용하는 호패법을 실시하는 등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조선 왕조의 기반을 닦는데 많은 치적을 남겼다.

1418년(태종 18)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아 2개월 뒤에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다가 1422년(세종 4) 5월 10일 연화방(창경궁) 신궁에서 56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를 도와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지만,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와 정도전 등과 대립하여 세자 책봉에서 탈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막내아들 방석이 세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더불어 정도전이 재상 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왕자의 사병을 혁파하려 하자, 수세에 몰린 이방원은 결국 1398년(태조 7) 8월 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방원은 신의왕후 소생의 왕자들과 함께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 남은 등의 일파를 제거하고,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도 아울러 살해한다. 이 사건이 제1차 왕자의 난이다. 이 난을 통해 태조는 방원의 형인 영안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교지를 내렸고, 영안군은 곧 조선 제2대 임금 정종으로 즉위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신의왕후의 소생 사이에 권력투쟁이 일어났다. 불공평한 논공행상으로 이방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신 박포가 이방원의 넷

째 형 이방간으로 하여금 난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다. 이로 인해 이방간과 이방원은 개경 시가지에서 무력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이방원이 승리하고, 박포는 사형에 처했으며, 이방간은 유배됨으로써 진정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후 지위가 더욱 확고해진 이방원은 그해 2월 세자로 책봉되고, 11월에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 3대 임금 태종이 되었다.

한편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1365~1420)는 1365년(고려 공민왕 14) 7월 1일 여흥부원군 민계의 딸로 태어났다. 1382년(고려 우왕 8) 이방원과 혼인하고, 조선이 개국된 후에는 정녕옹주에 봉해졌다. 1400년 이방원이 세자에 책봉되는 동시에 정비에 봉해졌으며, 같은 해 왕위에 오르자 정비에 진봉되었다.

원경왕후 민씨는 태종보다 두 살이 많았는데,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들을 동원하여 1차 왕자의 난에서 태종이 승리할 수 있는 계략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겼다. 결국 태종은 원경왕후의 도움으로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태종이 즉위한 후에는 불화가 그치지 않았다. 태종이 권력의 분산과 왕권의 강화를 위해 친족배척의 정책을 쓰는 한편 후궁을 늘려나갔는데, 원경왕후는 이에 크게 질투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심기가 불편해진 태종은 자신의 왕위 등극에 공을 세운 원경왕후의 형제 민무구, 민무질 형제와 민무홀, 민무회 형제를 유배 보내고 자결하도록 했다.

진정에 이러한 불화가 계속 되고, 엇친 데 덮친 격으로 막내 성녕대군이 14세의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자 원경왕후 민씨는 묘앞에 대자암을 지어놓고 그의 명복을 비는 것으로 말년을 보내다가 1420년(세종 2) 7월 10일 수강궁 별전에서 춘추 56세로 승하하였다.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이 정도전 등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득세할

수 있었던 데에는 원경왕후 민씨의 도움이 컸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열흘 전, 정도전 일파는 왕자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을 혁파하였다. 이 때 사병을 거느린 왕족과 귀족들은 병사 뿐만 아니라 지니고 있던 무기며 군장비를 모두 내놓았어야 했다. 그러나 원경왕후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얼마간의 사병과 무기를 친정집에 숨겨두었다.

1398년 8월 26일, 당시 태조의 병환이 깊어서, 왕자들은 근정전 문 밖 서쪽 행랑에 모여 숙직을 하고 있었다. 원경왕후는 집사를 보내 자신이 갑자기 복통이 심하다는 핑계를 들어 이방원을 불러내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친형제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숨겨둔 사병과 무기를 풀어 이방원에게 내주었다.

이로 인해 1차 왕자의 난은 성공하였고, 이방원은 왕위 계승을 위한 수순을 한 차례 밟게 되었다.

4. 현릉신도비

卞季良, 《春亭先生文集》 卷12, 碑誌 有明贈諡恭定朝鮮國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獻陵神道碑銘

天之將降大任於有德也 必生聖子神孫 以開景運 以永洪祚 我朝鮮太祖康獻大王之興也 以我太宗爲子 以我殿下爲孫 噫戲盛矣 豈人爲之所能及哉 天也 其與商家賢聖君之繼作 周家太王王季文武之相承 何以異哉 臣謹按璿源 李氏 全之望姓 司空諱翰 仕新羅 娶宗姓之女 六世而至諱兢休 始仕高麗 十三世而至皇玄祖穆王 入仕元朝而長千夫 四世襲爵 咸能濟美

元政既衰 皇祖桓王 還事高麗恭愍王 積功累仁 其來久矣 我神懿王太后 以至正丁未五月辛卯 誕太宗于咸興府厚州私第 我太祖之第五子 生而神異 稍長 英睿絕倫 好讀書 學日進 年未冠 中高麗科第 時政散民離 國勢 扞捏 慨然有濟世之志 太祖愛之異諸子 嘗以書狀官 偕侍中李穡朝京師 累官至密直司代言 洪武辛未九月 神懿王太后薨 廬于齊陵之側 欲終三年 壬申春 太祖西行 遘疾而還 來侍湯藥 恭讓之臣 乘隙謀傾 勢甚急 太宗 應機制變 討除渠魁 群謀瓦解 秋七月 與諸將相倡以大義 推戴太祖 化家 爲國 封靖安君 甲戌夏 高皇帝命遣親男入朝 太祖以我太宗通經達禮 取 賢諸子 卽遣應命 既至 敷奏稱旨 優禮賜還 戊寅秋八月 太祖不豫 權臣 朋家聚黨 有欲挾幼擅政 以肆己志者 禍發斯迫 太宗炳幾殲除 時宗親將 相 皆欲請冊我太宗爲世子 太宗牢辭 推尊恭靖 上請太祖冊封世子 以定 宗社 九月丁丑 太祖疾未瘳 禫于恭靖 建文庚辰正月 逆臣朴苞謀戕同氣 陰誘芳幹父子 稱兵爲亂 太宗勒軍平之 誅苞餘悉釋 安置芳幹 不廢懿親 恭靖以無嗣 且謂開國定社 皆我太宗之績 冊爲世子 冬十有一月 亦以疾 傳位于我太宗 遣使請命 明年辛巳六月 建文帝遣通政寺丞章謹等 奉誥命 印章來 封我太宗爲王 冬 遣鴻臚寺行人潘文奎來 錫冕服 秩視親王 歲壬 午 今皇帝卽位 遣左政丞臣河崙 賀登極 帝嘉忠誠 明年癸未四月 賜以誥 印 遣都指揮使高得等來 仍封爲王 秋 遣翰林待詔王延齡來 錫袞冕九章 錦段紗羅書籍 太祖錦段紗羅 元敬王太后冠袍錦段紗羅 各有差 自是厥後 帝賚荐至 無虛歲矣 歲乙酉 以漢陽太祖所都 排群議而還 歲丁亥 帝語朝 正使臣曰 朝鮮國王至誠事大 自後每當使臣之至 輒稱至誠 戊子五月 太 祖晏駕 哀慕罔極 居于諒闇 喪葬以禮 遣使告訃 帝震悼罷朝 遣禮部郎中 林觀等 賜祭大牢 贈諡康獻 又勅太宗賜厚賻 壬辰冬 有以王氏之裔 隱於 民間者上言 攸司請誅之 太宗曰 帝王之興 自有天命 誅王氏之後 非我太

祖本意 迺下教曰 王氏之後存者 俾之各安生業 甲午六月日 甘露降于咸興府月光仇未里及定平白雲山 明年乙未四月 甘露又降咸興府德山洞 吾東方前古所未有也 政府俱進箋賀 不受 戊戌六月 以世子禔敗德廢之 封讓寧大君 以我殿下聰明孝悌 好學不倦 國人屬望 冊封世子以聞 帝命允 是年八月 禔于我殿下 遣使請命 十有一月 我殿下奉冊寶獻號 曰聖德神功上王 明年己亥正月 帝遣鴻臚寺丞劉泉等奉誥命 封我殿下爲王 五月 對馬島倭犯邊 殺掠軍士 命領議政臣柳廷顯及贊成臣李從茂等 以舟師往討之 島倭納款如舊 八月 帝遣使賜宴 勅書略曰 王至誠篤厚 祇事朝廷 一德一心 終始不怠 能簡賢命德 俾宗祀有托 以副國人之望 又賜宴我殿下 勅書略曰 爾父篤厚老成 祇敬天道 忠順之誠 愈久不替 九月 恭靖王卽世 服斬衰終易月之制 遣使告訃 明年四月 帝遣使致祭 賜諡恭靖 是年春 我殿下變群臣 請上太上王之號 不允 秋七月 元敬王太后薨 以我殿下哀毀過禮 命從易月之制 殿下涕泣固辭 乃命葬後釋服 白衣終制 九月壬午 葬太后于廣州治之大母山 陵曰獻 辛丑秋九月 我殿下奉冊寶獻太上王之號 十月 稟太宗命冊封元子 文宗諱 爲世子 太宗以不世之資 緝熙聖學 孝悌通於神明 誠敬格于宗社 事大則天子稱其至誠 交隣則倭邦服其有道 欽天恤民 崇儉節用 先德禮而慎刑罰 進忠直而黜奸邪 闢異端而禁淫祀 酌古今以定制度 昭文教而嚴武備 積弊悉革而庶績咸熙 四境安堵而民安物阜 帝王之道 嗚乎盛哉 宜其紆帝眷之隆 而再獲甘露之上瑞矣 壬寅四月 始不豫 粵五月丙寅 薨于離宮 我殿下不勝哀慟 三日撤膳 群臣涕泣請進膳 竟不許 定爲三年之喪 不用易月之制 太宗春秋五十六歲 在王位十有九年 居閒頤養五年 而弓劍忽遺 大小臣僚 下至僕隸 莫不失聲號哭 愈久愈哀 如喪考妣 嗚乎慟哉 以是年九月初二日丙辰 上尊號 曰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 廟號太宗 初六日庚申 合葬于元敬王太后之陵 遺命也

及訃聞 帝哀慟輟朝 特遣禮部郎中楊善等賜祭 其文略曰 惟王篤厚至誠 聰明賢達 敬事朝廷 忠順之誠 終始不替 訃音遠聞 良深感悼 又賜誥命 諡曰恭定 又賜殿下賻優厚 蓋我太宗功德之盛及我殿下孝誠之至 前後相承 克享天心 故於終始之際 寵異之典 如此其備至矣 中宮元敬王太后姓 閔氏 驪興世家 自高麗門下侍郎平章事文景公諱令謨 六世而至皇高祖諱 宗儒 相毅陵 位都僉議侍郎贊成事 諡忠順 忠順生皇曾祖判密直司事諡文 順諱頤 文順生皇祖大匡驪興君諱抃 大匡生皇考純忠同德贊化功臣 大匡輔 國崇祿大夫 驪興府院君 修文殿大提學 領藝文春秋館事諡文度諱霽 皇妣 宋氏 封三韓國大夫人 高麗重大匡礪良君諱璿之女 積善流慶 是生淑德 聰慧異常 將笄擇配 來嬪于我太宗 太宗少有濟世之志 留心經史 不事家 產 太后能儉於治家 謹於主饋 以勉其功 教誨多男 俾循義方 禮遇妾侍 克盡婦道 洪武壬申 封靖寧翁主 戊寅 太宗定社之際 勢甚孤危 太后盡心 輔贊 以濟大事 庚辰春 封貞嬪 其年冬 太宗卽位 封靜妃 永樂癸未 帝賜 冠袍 自是年至丁酉 累受帝賜凡五 戊戌冬 我殿下獻號 曰厚德王大妃 庚 子九月 追諡元敬王太后 春秋五十六歲 太后稟幽閒貞靜之德 克配太宗 以專內治 二十年間 壺儀肅穆 又誕聖子 俾主宗社 以享榮養 及薨 嬪媵 妾侍 莫不盡心悲慟 婦則母儀 其至矣乎 誕四男四女 我殿下居三 長卽禋 次日補 封孝寧大君 次日 封誠寧大君 先卒 女長貞順公主 下嫁清平府院 君李伯剛 非一李也 次慶貞公主 下嫁平壤府院君趙大臨 次慶安公主 下 嫁吉昌君權跬 亦先卒 次貞善公主 下嫁宜山君南暉 懿嬪權氏 生一女貞 惠翁主 適雲城君朴從愚 昭惠宮主盧氏 生一女幼 信寧宮主辛氏 生三男 七女 男長禮 封恭寧君 餘幼 女長貞信翁主 適鈴平君尹季童 次貞靜翁 主 適漢原君趙璿 次貞淑翁主 適月城君鄭孝全 餘皆幼 宮人安氏 生一 男三女 皆幼 金氏生一男 封敬寧君 高氏生一男 崔氏生一男一女 李氏

生一男 金氏生一女 皆幼 我中宮恭妃沈氏 門下侍中德符第四子溫之女 誕四男二女 男長卽世子 餘皆幼 讓寧娶金漢老之女 生三男一女 皆幼 孝寧娶前判中軍都摠制府事鄭易之女 生四男一女 皆幼 誠寧娶前全羅道都觀察使成抑之女 無子 貞順公主生一女 適龍驤侍衛司護軍李季隣 亦非一李 慶貞公主生四女 長適敦寧府丞安進 次適幼學金仲淹 餘幼 慶安公主生二男 長聘娶漢城少尹鄭淵之女 次幼 貞善公主生二男一女 皆幼 敬寧娶戶曹參議金灌之女 生二男 皆幼 恭寧娶兵曹參判崔士康之女 生二女 皆幼 臣竊觀我太宗之盛德隆功 固已高出於百王之上矣 而配匹之賢 內助之功 又有可與蜀塗莘摯 同符而儷美者矣 群臣咸願刻銘于陵之神道碑 昭示永世 殿下以命臣季良 臣季良承命祇慄 不敢辭 謹拜手稽首而獻銘 銘曰

天眷海東 降我太宗 豐豐太宗 盛德在躬 推戴聖父 克集大功 乃覲帝庭 敷奏從容 優荷睿恩 保我黎元 炳幾靖亂 嫡長是尊 雖值閔墻 友愛猶惇 孝悌之至 從古罕聞 惟德之厚 惟功之懋 天鑑孔昭 式申保佑 煌煌金寶 輝映前後 帝誥荐臻 我乃龍受 祖訓惟服 還于漢北 制作禮樂 煥乎郁郁 遭喪居廬 哀慕罔極 以葬以祭 古典是式 祇事朝廷 帝稱至誠 肅肅承事 感于神明 交隣有道 倭邦來庭 存卹王裔 俾遂其生 中外乂安 垂億千齡 泔泔甘露 歲降咸府 廢昏命德 以作民主 期享永年 父臨下土 何促賓天 一疾莫愈 哀哀聖子 慟悼無比 撤膳三日 不勝摧毀 凡百喪事 惟禮之履 帝聞慟悼 遣使以祀 贈諡褒崇 賜賻優隆 恤典之備 喜溢臣工 思齊太后 允也肅雝 密贊定社 克配亶聰 篤生聖哲 俾主宗祏 乾健離明 恭定之德 坤厚柔貞 元敬之則 琴瑟以友 藏同其域 子孫振振 吁嗟其麟 綿綿宗社 垂萬億春 臣拜獻詞 刻之貞珉 萬代不磨 昭我東垠 [碑陰尹淮記]

5. 비음기

碑陰記

恭惟我太宗大王聖德神功卓冠前古春秋未高傳畀聖子方遂優閑備享榮養而弓劍忽遺我殿下哀毀盡禮越五月合葬于元敬王太后之獻陵遵治命也陵在廣州治之西大母峰下乾亥之山乾坐巽向北距京城三十許里謹按山來自長白山而南踰數千里至尙州之俗離山折而西北又數百里至果川之清溪山又折而東北負漢江而止是爲大母山坤靈停峙淑氣蜿蜒噫天祚地藏以待園陵之吉兆歟殿下命卽陵之巽方六十三步樹之豐碑以記德美垂輝來今又命序次開國佐命定社功臣姓名刻諸碑陰臣竊惟自古王者之作必有名世之臣應時而出弼成大業於是有紀功宗銘彝鼎之典所以示不朽傳悠久也我朝壬申之開創與夫戊寅庚辰之戡定實天所以啓我太宗以基朝鮮萬億年無疆之祚也然亦將相忘身委質贊襄輔佐之力與有多焉是宜鐫銘貞石以示永世後之觀者尙克知我殿下顯揚先烈褒獎元勳之至意云 藝文館提學[臣]尹淮記

開國功臣

益安大君芳毅 門下左侍中裴克廉 領議政府事趙浚 上洛府院君金士衡 興安君李濟 義安大君和 判漢城府事鄭熙啓 青海君李之蘭 宜城君南閻 花山府院君張思吉 政堂文學鄭摠 漢山君趙仁沃 宜寧府院君南在 議政府右議政鄭擢 知中樞院事金仁贊 判三司事尹虎 商山君李敏道 戶曹典書趙英珪 復興君趙胖 漢川府院君趙溫 南陽君洪吉旼 玉川府院君劉敞 平城府院君趙狷 知中樞院事黃希碩 興寧府院君安景恭 雞林君金樞 瑞城君柳爰廷 星山府院君李稷 寧城君吳思忠 安平府院君李舒 漢山府院君趙英茂 完城君李伯由 興原君李敷 延城君金輅 高城君高呂 東原君咸傳霖 西原府院君韓尙敬 上護軍韓忠 驪川府院君閔汝翼 知中樞院事趙琦

定社功臣

義安大君和 益安大君芳毅 上黨君李佇 領議政府事趙浚 上洛府院君金士衡 晉山府院君河崙 漢山府院君趙英茂 完原府院君李良祐 奉寧府院君福根 青海君李之蘭 花山府院君張思吉 漢川府院君趙溫 延城君金輅 議政府右議政鄭擢 完山府院君李天祐 中樞院副使張哲 鷲山君辛克禮

佐命功臣

喪黨君李夔[舊名佇] 晉山府院君河崙 漢山府院君趙英茂 鷲山君辛克禮 鷄城君李來 義安大君和

完山府院君李天祐 昌寧府院君成石璘 完川君李淑 青海君李之蘭 漆城君尹柢 參判三軍府事金英烈 坡平君尹坤 錦川君朴嘗 平陽君朴錫命 長興君馬天牧 漢川府院君趙溫 吉昌君權近 議政府左議政李原 星山府院君李稷 文城府院君柳亮 漢平府院君趙涓 平陽府院君金承霖 麻城君徐益 南陽君洪恕 漆原府院君尹子當 刑曹判書李升商 蓮城君金定卿 利城君徐愈 長川府院君李從茂 兵曹判書李膺 豐山君沈龜齡 谷山府院君延嗣宗 沔城府院君韓珪 熙川君金字 越川君文彬 礪山君宋居信 贈同知中樞院事金德生

6. 현릉지

卞季良, 《春亭先生續集》卷1, 誌 獻陵誌

謹按 太后閔氏 驪興世家 自高麗門下侍郎平章事文景公諱令謨 六世而至皇祖諱宗儒 相毅陵 位都僉議侍郎贊成事 諡忠順 忠順生皇曾祖判密直司事諡文順諱頤 文順生皇祖大匡驪興君諱朴 大匡生皇考純忠同德贊化功

臣輔國崇祿大夫驪興府院君修文殿大提學領藝文春秋館事諡文度諱霽 皇妣宋氏 封三韓國大夫人 高麗重大匡礪良君諱璿之女 以乙巳丁卯 生太后于松京鐵洞私第 太后生而淑懿 聰惠異常 將笄擇配 來嬪于我聖德神功上王 少有濟世之志 留經史不事家產 太后能給於治家 謹於主饋 以勉其功 教誨多男 俾循義方 禮遇妾侍 克盡婦道 洪武壬申 上王扶太祖開國 封靜寧翁主 庚辰 恭靖王以無繼嗣 封我上王世子 封太后貞嬪 其年十一月 上王受恭靖內禪即位 封靜妣 永樂癸酉四月 帝遣趙居任 封我上王爲朝鮮國王 是年冬十月 帝賜太后冠袍 鮮麗罕比 自是年至丁酉 累受帝賜凡五 戊戌八月 上王傳位于我主上殿下 殿下即位 以其冬十一月甲寅 奉冊寶獻號上王曰聖德神功 太后厚德王大妃 己亥正月 帝賜誥印 封我主上殿下爲國王 庚子五月二十五日 太后感疾 上王日至視疾 主上侍側扇枕 親奉湯藥 凡所救療 無所不至 七月十日 薨于壽康宮別殿 春秋五十六 大小臣僚 下至僕隸 莫不痛哭 嗚乎痛哉 上王不勝軫悼 稍不豫 主上遣大臣請進肉不許 以白衣素膳 終三十日 主上哀痛罔極 居于諒闇 上王許於葬後釋服 主上以九月十四日 上尊號曰元敬太后 大臣獻議 以爲五月而葬 禮也 然宋制王公以下 皆三月而葬 今主上久居諒闇 不得問安 當作時宜 以從宋制 上王許之 越三月十七日壬午 安厝于廣州治之大母山 陵曰獻 太后稟幽閒貞靜之德 克配聖上 以專內治 十九年間 壺儀肅穆 又誕聖子 俾主宗社 以享榮養 嗚乎盛哉 太后誕四男四女 我主上殿下居三 長曰禔 嘗爲世子 不謹于德 羣臣上言不宜儲副 上王聞于帝廢之 封讓寧大君 次日補 封孝寧大君 次日種 封誠寧大君 先卒 長女貞順宮主 下嫁清平府院君李伯剛 非一季也 次慶貞宮主 下嫁平壤君趙大臨 次慶安宮主 下嫁吉昌君權跬 亦先卒 次貞善宮主 下嫁宜山君南暉 我中宮恭妃沈氏 門下侍中諱德符第四子濫之女也 誕四男二女 皆幼 讓寧娶金漢老之女 生三男一女 皆幼 孝寧

娶戶曹判書鄭易之女 生五男一女 皆幼 誠寧娶慶昌府尹成抑之女 無子
貞順宮主生女 適同副知敦寧李季隣 亦非一李 生一女 幼 慶貞宮主生四
女 長適幼學安進 餘幼 慶安宮主生二男 聃改娶司憲掌令鄭淵之女 次幼
貞善宮主生一男一女

여 백

선릉(宣陵)

1. 연혁

능 주 : 성종(成宗)[1457~1494]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1462~1530]

위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35-4

지정번호 : 사적 제199호

봉릉연대 : 1495년(연산군 원년)

전릉연대 :

왕릉형태 : 동원이강

2. 왕릉 소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선릉 입구역에 내려 8번 출구로 나가서 약 3분 정도 걸어가면 선릉에 도착할 수 있다. 능역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종의 무덤인 선릉이 나타나고, 이곳에서 마주보이는 능상에 정현왕후의 무덤이 있다.

선릉은 동원이강릉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원이강릉이란 하나 이상의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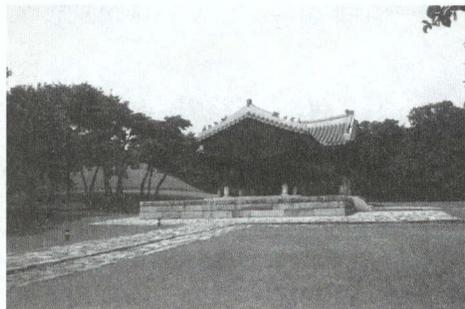
선릉 전경

이 같은 능호를 사용하지만, 각각 다른 언덕에 조성된 능을 말한다. 선릉의 왼쪽 언덕에는 성종 계비 정현왕후의 능, 오른쪽 언덕에는 성종의 능이 배치되어 있다. 성종의 능침 봉분은 십이지신상이 새겨진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웠다. 능에 병풍석을 세

우지 말라는 세조의 유교에 따라 세조의 광릉 이후 조영된 왕릉에는 세우지 않았던 병풍석을 성종의 선릉에 다시 세운 것이다.

그 밖의 상설은 『국조오례의』를 따르고 있다. 장명등의 양식은 태종의 현릉을 본떴으며, 문인석과 무인석의 얼굴은 극히 사실적이나 몸집이 크고 입체감이 없다. 왼쪽 언덕의 왕비 능에는 병풍석 없이 난간만 돌려져 있고, 석주의 윗부분은 초기 난간의 부드러운 맛이 그대로 남아 있다. 성종릉의 문무인석이 윤곽이 굵고 강직하다면, 왕비릉의 문무석인은 그 윤곽과 조각이 섬세하고 아름답다.

1494년(성종 25) 12월 24일 38세의 나이로 성종이 승하하였고, 1495년(연산군 1) 1월 14일 묘호를 성종, 능호를 선릉이라 하여 같은 해 4월 6일 지금의 선릉 자리인 광주부 서면 학당리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그로부터 35년 후인 1530년(중종 25) 8월 22일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경복궁에서 69세의 나이로



선릉 정자각



선릉 전경



선릉 장명등과 봉분

승하하였고, 같은 해 10월 29일 선릉에 예장되었다.

그 후 선릉은 유난히 많은 변고를 겪었는데, 그 첫 수난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선조 26) 일어났다. 『선조실록』 1593년 4월 13일자의 기사에는 “왜적이 선릉과 정릉을 파헤쳐 재앙이 재궁에까지 미쳤으니 신하로서 차마 말할 수 없이 애통합니다.”라는 경기좌도 관찰사 성영의 치계와 “이 서장을 보니 몹시 망극하다. 속히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라.”는 선

조의 명이 기록되어 있다. 1625년(인조 3)에는 정자각에 불이 나 수리를 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능에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여러 차례의 수난을 겪었으나 정비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3. 능주 소개

성종(成宗 ; 1457~1494, 재위기간 : 1469~1494)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와 세자빈 한씨(훗날 소혜왕후)의 둘째 아들로 1457년(세조 3) 7월 30일 경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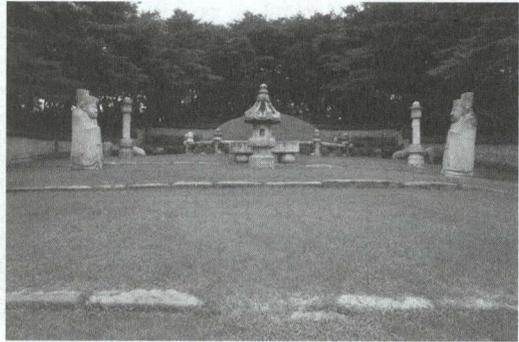


선릉의 봉분

궁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두 달이 되기 전에 의경세자가 20세로 요절하자 할아버지인 세조가 궁중에서 키웠는데, 성품이 뛰어나고 서예와 서화에도 능하여 세조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의경세자의 동생이자 성종의 숙부인 예종이 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즉위 14개월 만에 승하하자 1469년 11월 28일 성종이 그 왕위를 계승했다. 즉위 후 7년 동안은 정희대비의 수렴청정을 받다가 20세가 되는 1476년(성종 7) 친정을 시작했다.

성종은 법령을 정리하여 세조 때부터 편찬해오던 『경국대전』을 1485년(성종 16) 반포했고, 1492년(성종 23)에는 『대전속록』을 완성하여 통치의 전거가 되는 법제를 완비했다. 세조 때의 공신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신진사림세력을 등용, 훈신과 사림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왕권을 안정시켰고, 조선 중기 이후 사림정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위 25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왕비 공혜왕후 승하 후 원자(연산군)를 낳은 숙의 윤씨를 계비로 삼았다가 행실을 문제 삼아 폐비 후 사사하였는데, 이는 훗날 연산군 폭정의 계기가 되었다.



선릉(정현왕후)근경



선릉(인현왕후) 장명등과 봉분

1494년(성종 25) 12월 24일 창덕궁의 대조전에서 보령 38세로 승하했다.

성종은 백성들이 사는 것을 둘러보기 위해 자주 궐 밖을 나가 몰래 다니기를 일삼았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왕이 궐 밖을 다니며 겪은 일

화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다.

어느 해 겨울, 성종이 여느 때처럼 미행을 나갔을 때, 남산골 초라한 오막살이에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담은 무너지고 서까래가 썩어가는 누추한 곳이었는데, 『춘추좌전』을 읽는 소리가 물 흐르듯 막힘이 없었다. 성종은 등불이 꺼져 불을 얻고자 한다는 핑계를 들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글을 읽던 선비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지은 문집을 읽어본 성종은 선비의 해박함과 그 문집의 명문에 깜짝 놀랐다. 훌륭한 학식을 갖춘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어려운 살림을 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성종은 선비 몰래 쌀과 고기를 그 집에 보내고, 예정에 없던 과거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그 선비의 문집에서 본 글을 과제로 내걸고, 선비가 과거에 응시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선비의 문집에 있던 글이 제출되자, 성종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그 글을 장원급제를 시켰다.



뒤에서 바라본 선릉(정현왕후)전경

그런데 글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그 선비의 이름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여겨 장원급제자를 들이라 하였는데, 주인공은 선비가 아닌 새파란 젊은이였다. 자초지종을 묻자 젊은이는 “그 글은 스승의 글이었으며, 스승께서 이번 과거를 꼭 보시려고 했으나, 며칠 전 굶주리다가 갑자기 먹은 고기 때문에 크게 병이 나셨다.”고 답하였다. 성종은 안타까움에 크게 탄식하였다고 한다.

한편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1462~1530)는 우의정 영원부원군 윤호의 딸로 1462년(세조 8) 6월 26일 태어났다. 1473년(성종 4) 6월 궁중에 뽑혀 들어와 숙의에 봉해지고, 1479년(성종 10) 연산군의 생모인 왕비 윤씨가 폐위되자 이듬해 11월 8일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윤호는 당시 정계에 떠오르는 소장파 셋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외척 한명회를 견제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고,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후궁 중 왕비에 책봉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폐비 윤씨의 비극적인 최후를 바라본 정현왕후는 성종에게 매우 관대하였으며, 이에 성종은 “투기하지 않는 사람이 드문데, 다행히 어진 왕비를 얻어 마음이 평안하다.”고 칭찬하였다.

정현왕후는 훗날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과 신숙공주를 낳았는데, 공주는 일찍 죽었다. 연산군 때를 거쳐 아들인 중종이 왕위에 오른 뒤 1530년(중종 25) 8월 22일 경복궁에서 춘추 69세로 승하하여 10월 29일 선릉에 매장했다.

정현왕후 윤씨는 연산군의 생모인 왕비 윤씨가 폐비된 이후, 중전의 자리에 올라 원자인 연산군을 친아들처럼 키우게 되었다. 연산군 역시 정현왕후 윤씨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다.

연산군은 즉위 후 성종의 묘지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폐비 윤씨의 아버지 윤기무(尹起畝)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고는, 자신이 친어머니로 알고 있는 정현왕후 윤씨의 아버지 윤호(尹壕)를 윤기무로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

냐는 질문을 던질 만큼 폐비 윤씨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당시 이 질문에 승지들이 윤기무와 폐비 윤씨에 대해 답변하였고, 연산군은 그 때야 비로소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연산군일기』 1495년(연산군 1) 3월 16일자 기사에는 “왕이 비로소 윤씨(폐비 윤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산군일기』 1504년(연산군 10) 3월 20일자 기사에는 연산군이 폐비 윤씨의 죽음에 연루된 귀인 정씨와 엄씨를 잔인하게 때려죽인 뒤 장검을 들고 정현왕후의 처소로 쳐들어와 “어서 밖으로 나오라”며 횡포를 부린 기록이 있다. 그러나 연산군은 정현왕후를 해치지 않았고, 정현왕후의 아버지 윤호가 폐비 윤씨의 복위 문제를 앞장서 반대하는 시점에서 정현왕후에 대한 예우를 게을리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4. 선릉표석음기

朝鮮國

成宗大王宣陵

貞顯王后附左

成宗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 皇明天順元年丁丑七月三十日誕生 辛巳初封者山君 成化四年戊子加封者乙山大君 己丑十一月卽位 弘治七年甲寅十二月二十四日昇遐 乙卯四月六日葬于廣州西學堂洞壬坐之原 在位二十五年壽三十八 皇朝賜諡康靖 繼妃慈順和惠昭懿欽肅貞顯王后尹氏 天順六年壬午六月二十五日誕生 成化九年癸巳初封淑儀 庚子十月冊封王妃 嘉靖九年庚寅八月二十二日昇遐 十月二十九日葬于大王陵左岡艮坐之原 壽六十九

5. 선릉지

《成宗實錄》附錄 宣陵誌文

恭惟我大王諱某 德宗 第二子 仁粹王大妃 韓氏 以天順元年丁丑七月辛卯 誕王 德宗 爲世子早薨 世祖 育王于宮中 封爲 者山君 王天資明睿 世祖 奇愛之 嘗(與)[同]母兄 月山大君 婷 在宮中 忽雷雨暴作 震寺人於座 左右皆顛仆 王獨自若 世祖 尤異之 嘗曰 此兒器度類我 太祖 成化五年己丑 睿宗 薨 嗣子幼駘 貞熹王后 定議 以王爲嗣 庚寅帝遣使賜誥命 王命臣僚陳便宜 舉賢能 旌孝子節婦 其孝行尤異者錄用 令經筵官日三進講 夜亦召對以爲常 辛卯視學謁先聖 令文士問難經義 策諸臣有佐理勳者 賜功臣號 臺諫言事稱職 各賜爵一級 壬辰下教 諭民節儉 採歷代帝王及后妃善惡可法 可戒者釐 爲三編名曰 帝王明鑑 后妃明鑑 又圖畫明君暗主事迹于屏 坐臥觀省 鷹坊有海東青 命放之 終不復畜 甲午遣使 請追封德宗 爲王 帝允之 賜諡曰 懷簡 并賜 仁粹王大妃 誥命 王大赦 賜群臣爵一級 乙未祭先農耕籍田 王妃親蠶 建尊經閣于成均館 賜經籍藏之 丁酉謁先聖 行大射禮 罷誕日祝壽齋 戊戌祀先聖 養老乞言 命裒集古今東人詩文 名曰 東文選 撰地理誌 名曰 東國輿地勝覽 又撰 三國史節要 己亥帝發兵討 建州野人 勅出帥助征 王發兵擊破之 獻俘 帝賜勅褒賞 辛丑弛園囿樵獵之禁 癸卯册上爲世子 三月 貞熹王后 薨 服三年喪 甲辰甄別中外官吏淑慝 陞黜之 賜成均館學生田四百結 鄉學亦賜田有差 乙巳命今後再嫁女之子孫 勿齒朝班 世祖朝嘗撰 東國通鑑 未就 命續成之 丁未錄用 高麗 忠臣 鄭夢周 吉再 後 弘治戊申 仁粹王大妃 有疾 王嘗侍藥 疾瘳大赦 賜群臣爵一級 己酉鄉圍策士有言 祀佛禳災者 王手教竄逐之 庚戌幸 驪州 謁 英陵 賜州民是年半租 所過州縣 遣官祭 先聖廟 賜學生

米有差 辛亥命自今兄弟叔姪堂兄弟 爭訟理曲者徙邊 野人 寇 永安道 殺鎮將 遣兵討破之 壬子罷度僧法 祀先聖 大饗師生及百僚 令製樂章以侑之 前代君王及名賢陵墓頽毀者 命修葺禁樵牧 甲寅秋王不豫 裁決庶務不少懈 十二月戊寅大漸 具冠服召見大臣 翌日己卯薨于正寢 享年三十八 在位二十六年 聞喪之日 雖深山窮谷之民 莫不奔走號慟 王聰明英武寬仁 恭儉 通貫經史 尤深於性理之學 星曆鍾律靡不講究 射藝書畫亦臻其妙 孝友出於天性 祭祀非有事故 必躬必謹 奉養三大妃克盡誠敬 待母兄恩豐備至 諸子教以義方 宗族極其雍睦 尊敬大臣禮遇臺諫 從容咨訪虛懷納採 寵待講官加以異數 每於經筵孜孜聽受 猶以爲未廣 擇二品以上可顧問者 輪日參侍 號爲特進官 至於郎吏悉知才行 用各盡能 總攬權綱 愛重名爵 如知其賢不次擢用 苟犯名義 雖才必黜 寬以御下罪疑多貳 唯閹寺雖小過必懲 養耆老 恤孤獨 明賞罰 慎刑獄 斥異端 扶正道 絕遊畋 戒逸欲 錄用忠孝 褒將節義 增修文廟 優贍學廩 訓練將士 擇任邊帥 閱武講蒐必以其時 遇災請行祈禳 則曰 消變在於修德 歲稔請加賦稅 則曰 百姓足 君誰與不足 却進膳曰 奉上之禮雖勤 恤下之情亦切 停禮宴曰 歲歉民飢 而獨樂可乎 大哉王言 眞天地父母之心乎 昊天不弔遽至厭世 慟哉 主上殿下 亮陰在疚 哀慕罔極 率群臣上尊諡曰 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 廟號曰 成宗 以乙卯四月初六日己未 安厝于廣州治西學堂里之原 號曰 宣陵 噫 三代以下 終始全德之君寡矣 我 成宗 粹乎無以議爲 初在潛邸 聘領議政 韓明澮 之女 卽位封爲妃 無子薨諡曰 恭惠 陞 淑儀 尹氏 爲妃 卽判奉常寺事 起 馱 之女 寔誕今上殿下 又陞 淑儀 尹氏 爲妃 卽領敦寧府事 壕 之女 生一男曰 懌 封 晉城大君 淑儀 嚴氏 生一女 曰 恭愼翁主 下嫁 清寧尉 韓景琛 淑儀 權氏 生一男幼 淑容 鄭氏 生二男一女 曰 恠 安陽君 娶知事 具壽永 女 曰 慙 鳳安君 娶贈左贊成 趙紀 女 女幼 淑

容 洪氏 生七男三女 曰 惠淑翁主 下嫁 高原尉 申沆 曰 畧 完原君 娶 贈左贊成 崔河臨 女 曰 恬 檜山君 娶奉事 安邦彥 女 曰 惇 甄城君 娶 參奉 申友灝 女 餘幼 淑媛 河氏 生一男 曰 恂 桂城君 娶判官 元菑 女 淑媛 金氏 生三男三女 曰 徽淑翁主 下嫁 豐原尉 任崇載 曰 敬淑翁主 未嫁 餘幼 淑媛 權氏 生一男一女 皆幼 淑媛 沈氏 生二男二女 曰 慶順翁主 下嫁 宜城尉 南致元 餘幼 今上殿下 聘右議政 愼承善 之女 今爲 妃 生二女 皆幼

6. 정현왕후선릉지

李荇, 《容齋先生集》 卷9, 散文 有明朝鮮國昭懿欽淑貞顯王后宣陵誌

謹按 王后姓尹氏 坡平世家 遠祖諱莘達 佐麗祖 封三韓功臣 有孫金剛 位至僕射 生諱執衡 繼爲僕射 其子門下侍中瓘 佐肅睿兩朝 出入將相 平 女眞 置九城 封鈴原郡開國伯 侍中生政堂文學彥頤 文學生兵部侍郎惇信 至其曾孫監察御史純 生鈴平府院君寶 厥後有諱陟 封坡平府院君 生門下 評理承順 寔皇高祖 皇曾祖 本朝佐命功臣坡平府院君坤 祖 贈議政府領 議政三山 皇考 議政府右議政鈴原府院君壕 皇妣 延安府夫人 姓田氏 贈 議政府右議政佐命之女 亦延安望族也 以天順壬午六月戊子 誕后于新昌 縣之公衙 初 夫人夢 神女乘彩雲 入懷中 因有娠 既而出生后 父母奇異之 已知其爲貴徵 成化癸巳 后年十二 選入宮 封淑儀 卽成廟在位之第五年 也 后性稟聰敏 心存純謹 貞熹 昭惠兩后 撫待特甚 教以婦道 承順無違 貞熹王后每稱歎曰 以尹淑儀試之 選女宜在年少 其教易習也 會王妃尹氏 罪廢 歲庚子十月 遂正位中宮 窈窕之求 不煩於寤寐 葛藟之化 素孚於媵

侍 率禮蹈和 久而彌虔 成廟每稱曰 婦人鮮不妬忌 自得賢配 予心安焉 昭惠王后亦喜溢於色曰 中闈得人 夙夜何憂 明年辛丑 憲宗皇帝制曰 尹氏夙事于王 克襄內治 職貢惟修 久而不替 茲特封爲朝鮮國王繼妃 錫之誥命 以爲爾榮 尙其祗服 用光閨闈 并賜冠服紵絲羅西洋布等件 寵命有章 一國與榮 時鈴原公尙無恙 后數幸其第 獻壽 國人以爲盛事 弘治壬子 率諸嬪 親蠶于昌德宮之禁苑 務敦本也 成廟爲頒赦肆恩 及成廟上賓 號擗不食 幾至危殆 賴昭惠王后救護得全 葦山朝 封爲王大妃 加上慈順之號 昭惠王后之喪 葦山議行短制 后據禮執以爲不可 且曰 我不敢從 主愠甚 以婦人三從之語答之 后歎曰 我其得罪於昭惠 明矣 葦山末年 失道滋甚 朝野岌岌 莫保朝夕 正德丙寅九月 群臣奉后教 翊扶聖明 入承大統 中興之業 比古有光 自後於國政 一無所與 然其深遠之猷 不忘頃刻 姑息之惠 無假絲毫 至章敬王后薨逝 后惜其賢德之早逝 悶其元良之失恃 爲之慟悼不已 其所以調護世子 有非外間所盡知者 宮中有灼鼠之變 上命鞠問內人 未得其狀 后以諺札付推官 卽辨決置罪 朝廷搢紳之士 下至縫掖之徒 無不嘖嘖稱快 嗚呼 誕育聖上 丕闡中絕之緒 保護東宮 益鞏萬世之基 雖古之賢妃 未有盛德大功如此其卓爾者也 后嘗疾病甚革 上親禱于內苑 焚香祝天 病良愈 人以爲孝誠所感 至是 又患疾 彌留累月 上常侍藥 非親嘗 不敢進 竟不效 薨于景福宮之正寢 寔嘉靖庚寅八月二十二日也 春秋六十有九 上哀毀 不能進粥食者三日 殯後 猶日五哭 奠盡哀 左右不忍聞 內而宮掖 外而朝廷 莫不號慟失聲 禮官會宰相議諡 咸曰 按諡法有曰 大慮克就曰貞 行見中外曰顯 大行大妃定大策於板蕩之日 而大業再興 辨大疑於宴安之時 而大本益固 不其貞矣乎 德著於中壺 而無險謁之私 化行於外庭 而有肅雍之習 不其顯矣乎 謹上諡曰 貞顯王后 又加上徽號曰 昭懿欽淑 用是年十月二十九日乙酉 葬于宣陵之左 良坐坤向之原 從遺

命也 嗚呼 后之聖德 無不周備 至於誠孝 尤出天性 上奉慈殿 極其歡心 凡遇節物 先薦原廟 終不少弛 又撫恤諸子女 如己出 蕪山主爲世子時 亦未知其非生母也 及病 分遺財 徧賜親戚 而未嘗爲求恩澤 又欲嘗鷓鴣肉 有內親得之以獻 后戒毋令外人知 蓋慮其供進之弊也 疾病之際 人所易昏 而聖心之謹 有至如此 平時聖行 槩可見矣 嗚呼 后之聖德 有非言語文字 所能形容 而至於內行之懿 幽而不顯 謹掇拾其彰徹在人耳目者 誌之 亦千百之一二耳 然後之人 因是以徵 雖古之塗莘任姒 無以尚之 嗚呼盛矣哉 后誕今上 又生三公主 皆夭 今上 初聘坡原府院君尹汝弼女 封中宮 卽章敬王后 生一男一女 男世子 諱 聘贈議政府右議政朴墉女 孝惠公主 下嫁延城尉金禧 今中宮 領敦寧府事尹之任女 生三女 長懿惠公主 許嫁 清原尉韓景祿 兩公主幼 前嬪朴氏 生一男二女 男前福城君峯 娶前縣監 尹仁範女 女長惠順翁主 下嫁光川尉金仁慶 次惠靜翁主 下嫁唐城尉洪礪 貴人洪氏 生一男錦原君峴 娶敦寧府主簿鄭承休女 淑媛洪氏 生一男海安 君嶷 娶忠清道水軍節度使柳泓女 淑媛安氏 生一男永陽君峿 淑媛李氏 生二女 長貞順翁主 下嫁礪城尉宋寅 次幼 嘉靖九年庚寅十月日 謹誌

정릉(靖陵)

1. 연혁

능 주 : 중종[1488~1544]

위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정번호 : 사적 제199호

봉릉연대 : 1545년(인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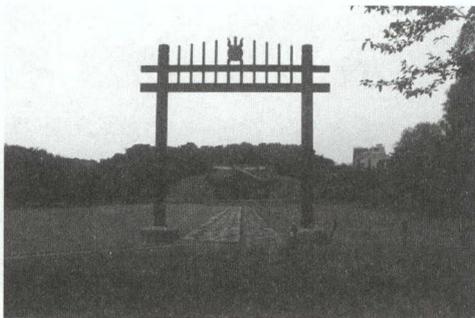
전릉연대 : 1562년(명종 17)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선릉 입구역에 내려 8번 출구로 나가서 약 3분 정도 걸어가면 선릉에 도착할 수 있다. 능역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종의 무덤인 선릉이 나타나고, 이곳에서 마주보이는 능상에 정현왕후의 무덤이 있다. 이곳을 지나 야트막한 언덕 하나를 넘어가면 중종의 무덤인 정릉이 나타난다.

정릉은 조선 11대 왕 중종의 능이다. 중종에게는 3명의 왕후와 7명의 후궁



정릉 전경

이 있었으나 사후에는 어느 왕비와도 함께 있지 못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능인 선릉 옆에 홀로 묻혀, 조선시대의 몇 안되는 단릉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릉의 상설은 성종의 선릉과 같이 『국조오례의』를 따르고 있다. 석양과 석호의 전체적인

자세는 선릉과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반면 전체적으로 형식화된 경향이 있다. 문무인석은 높이가 3m가 넘을 정도로 큰 편이다. 문무인석 얼굴의 통방울눈이 특이하며 코 부분이 훼손되고 검게 그을려 있어 정릉의 수난을 상기시켜 준다. 석호의 익살스러운 입 모양은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한다.

정릉의 원찰인 봉은사는 보우가 주지로 있던 사찰로, 794년 연희국사가 견성사(見性寺)란 이름으로 창건한 이후 1498년(연산군 4)에 중창하면서 봉은사로 개칭하였다.

인종은 1545년(인종 1) 1월 5일 증종을 고양에 예장하고 능호를 희릉(禧陵)이라 하였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고양시의 현재 서삼릉 능역 내에 있는 증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능 오른쪽 언덕에 능을 새로 조영하고, 능호를 정릉으로 고쳤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1562년(명종 17)에 두 번째 계비



정릉 정자각



정릉 원경

라 하여 옮긴 곳이었으나 지세가 낮아 여름철 홍수 때면 재실과 홍살문이 침수되는 피해를 자주 입었다. 결국 중종과 함께 안장되기를 바랐던 계비 문정왕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태릉(泰陵)에 단릉(單陵)으로 안장되어 있다.

문정왕후의 바람으로 인해 천장된 현재의 정릉은 임진왜란 때 선릉과 함께 왜구에 의해 능이 파헤쳐지고 재궁이 불태워지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문정왕후에 의해서 중종의 아버지 성종과 어머니 정현왕후의 능이 있는 현재의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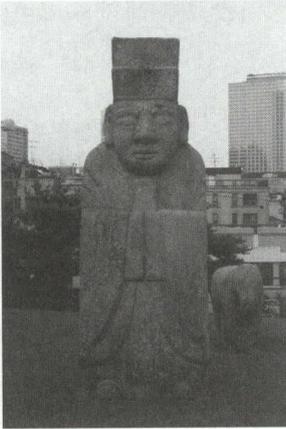
문정왕후가 봉은사 주지 보우와 의논하고, 그곳은 풍수지리가 좋지 않으며 선릉의 동쪽이 풍수상 길지

3. 능주 소개

중종(中宗 ; 1488~1544, 재위기간 : 1506~1544)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 윤씨 사이의 둘째 아들이자 제10대 임금이었던 연산군의 이복 동생으로, 1488년(성종 19) 3월 5일 태어났다. 1494년(성종 25) 진성대군(晋城大君)에 봉해졌다가 1506년



정릉 전경



정릉 문인석

에 연산군의 계속된 폭정에 대항하여 박원종, 성희안 등이 일으킨 중종반정에 의해 조선 11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중종은 즉위 초 연산군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새로운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1515년(중종 10) 이후에는 조광조를 내세워 철인군주정치를 표방하여, 훈구파를 견제하고 사림파를 등용하였으나, 과격한 개혁정치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당파논쟁이 끊이지 않아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등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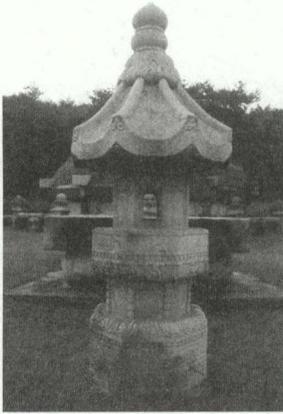
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향약이 전국화되어 유교적 향촌질서가 자리를 잡았으며,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많은 서적이 편찬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동전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도량형의 통일을 꾀하였으며, 사치를 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연산군 축출에 반대한 아버지로 인해 폐위당한 단경왕후, 인종의 어머니 장경왕후,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까지 3명의 왕비를 두었으며, 1544년(중종 39) 11월 14일 왕세자에게 전위하고, 그 다음날 창경궁 환경전에서 5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1506년(연산군 12) 중추부지사 박원종이 이조참판을 지낸 성희안, 이조판서 유순정, 군자부정신윤무 등과 함께 연산군의 폭정에 반기를 들어 난을 일으켰다. 그들은 밀약 후 왕이 장단 석벽에



정릉 무인석



정릉 장명등

유람하는 날을 기하여 거사하기로 계획을 꾸몄다.

1506년 9월 1일, 박원종, 성희안, 신윤무 등은 훈련원에 무사들을 결집시켰다. 훈련원을 출발한 반정세력은 창덕궁 어귀의 하마비동에서 영의정 유순, 우의정 김수동 등을 만나 함께 진을 치고 경복궁에 있는 대비에게로 가서 거사의 사실을 알렸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대비는 신료들의 요청이 계속되자 연산군 폐위와 진성대군의 추대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렸다.

교지를 받은 반정주도세력들은 먼저 권신 임사홍, 신수근 등 연산군의 측근을 죽인 다음 궁궐을 에워싸고 옥에 갇혀 있던 자들을 풀어 종군하게 하였다.

이튿날인 9월 2일 박원종 등은 군사를 몰아 텅 빈 경복궁에 들어가서 연산군에게 옥새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안 연산군은 옥새를 내어주었고, 반정군의 호위를 받으며 경복궁에 도착한 진성대군은 대비의 교지에 힘입어 조선 11대 왕 중종으로 등극하였다.



뒤에서 바라본 정릉 전경

4. 정릉표석음기

朝鮮國

中宗大王靖陵

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 皇明弘治元年戊申三月五日誕生 初封晉城大君 正德元年 丙寅九月二日卽位 嘉靖二十三年甲辰十一月十四日傳位于仁宗 同月十五日昇遐 乙巳二月葬于高陽禧陵 嘉靖四十一年壬戌九月四日移葬于廣州宣陵東岡乾坐之原 在位三十九年 壽五十七 皇朝賜諡恭僖

5. 정릉지

《仁宗實錄》卷 1, 仁宗 元年 正月 24日(戊午)

吏曹參議 洪春卿 製進大行大王誌文 其辭曰 恭惟我 中宗大王 諱某 成宗 第二子也 成宗 在潛邸 聘領議政 韓明澮 之女 及卽位封爲妃 無子 薨 陞 淑儀 尹氏 爲妃 卽判奉常寺事 起吠 之女 生世子 僦 妃性行不淑 廢之 又陞 淑儀 尹氏 爲妃 卽右議政 壕 之女 弘治 元年戊申三月己巳 誕生大王 封 晉城大君 少有異質 成宗 特奇愛之 歲甲寅 成宗 薨 嗣君 失道 宗社將傾 丙寅九月 知中樞府事 朴元宗 前參判 成希顏 吏曹判書 柳順汀 首建大義 承 慈順王妃 教 廢爲 燕山君 迎大王於私第 大王牢讓 不獲 卽位於 景福宮 遂下教 凡非罪流竄者 悉皆召還 枉被刑戮者 咸加 褒贈 除害民之政 復先王之舊 朝野抃舞 如獲重生 修明學校 崇獎節義 苟有一善一行 無不褒獎 至於清白忠義之後 亦皆收斂 博選鴻儒碩士 置

諸經幄 日三進講 夜又召對 論難經義 商確治道 下素屏於弘文館 書歷代帝王爲治之道 以備觀覽 丁卯三月幸學 橫經問難 八月 命印頒 三綱行實 壬申八月 行養老宴于闕庭 六月 遣官以小牢 祀 崇義殿 殿卽 高麗 王氏之廟也 命製酒戒 賜臣工以警之 丁丑五月 王以世子三歲 能知學問 向方手書箴辭以戒 皆古聖賢格言也 母妃未寧 王晝夜侍側 湯藥必親 躬禱後苑 未幾疾瘳 人以爲誠孝所感 王幸學講論經義 日昃而罷 教曰 學校 風化之源 人才之府 爲國之道 莫重於此 予今竭誠圖治 夙夜軫念 今賜土田 臧獲 以爲養育人才之資 庚辰四月 冊封世子 辛巳五月 帝遣太監 陳浩等 來錫命 壬午十月 行世子冠禮 頒赦境內 重國本也 癸未 命印 諺解小學 宣布中外 欲使閭巷婦人小子 皆得以知之 八月 島夷犯上國地 而搶擄人民 漂到我界 邊將俘斬以聞 王遣臣悉獻俘馘 帝嘉之 降勅賜物褒美 戊子 幸 驪州 祭 英陵 賜州民田租之半 庚寅八月 母妃薨 喪制一依禮文 常處外閣 後大臣請還大內 王竟不從 甲午八月 幸學行大射禮 乙未八月 幸 開城府 祭 齊陵 翌日幸學取士 賜米百斛 庚子夏大旱 徧禱山川不雨 王去輦乘輿 曝日親禱于風雲壇 遂得三日雨 甲辰冬十月 王有疾 至十一月十四日 疾大漸 召左議政 洪彥弼 右議政 尹仁鏡 入臥內教曰 予疾甚 欲傳位于世子 翌日庚戌 薨于正寢 享年五十七 王仁慈忠孝 力學慕古 勤於聽納 存恤民隱 尤勤祀事 寅恭祇畏 誠意終始不替 培養人才 文教大興 尊禮大臣 國事必與謀議而後行 撫愛宗戚 皆得其歡心 教戒王子 盡其義方 無有驕奢之習 多聚經術之士 講明性理之學 夜以繼日 亶亶忘倦 無遊畋聲色之娛 絕玩好奢靡之事 在位三十九年 民人樂業 生齒日繁 島夷山戎 慕義歸順 邊境無虞 不識兵革 致治之美 將陞大猷 而八音遽遏 嗚呼 慟哉！我殿下(下)諒陰在疚 哀慕罔極 率群臣上尊號曰 徽文昭武欽仁誠孝廟號 中宗 以其(扶)撥亂反正 中興功德 儷美 商宗 周宣 也 乙巳二月某

甲 安厝于 高陽 冶之某原 卽 章敬王后 所厝 禧陵之右 遂仍號焉 初王在潛邸 聘 慎守勤之女 以 守勤 有罪廢之 陞 淑儀尹氏 爲妃 卽領敦寧府事 汝弼 之女 辛未 生一女 曰 孝惠公主 下嫁 延城尉 金禧 乙亥二月二十五日 誕我殿下 仍有疾 越三月二日薨 歲丁丑 聘領寧敦府事[領敦寧府事] 尹之任 女爲妃 殿下在東宮 聘贈右議政 朴墉 之女爲嬪 及卽位封爲妃 尊 王妃 尹氏 爲王大妃 大妃生一男四女 曰 孝順公主 下嫁 綾原尉 具思顏 曰 懿惠公主 下嫁 清原尉 韓景祿 曰 敬顯公主 下嫁 靈川尉 申穰 曰 峴 封 慶原大君 娶別坐 沈綱 女 次女幼 敬嬪 朴氏 生一男二女 曰 峴 福城君 娶縣監 尹仁範 女 曰 惠順翁主 下嫁 光川尉 金仁慶 曰 惠靜翁主 下嫁 唐城尉 洪礪 熙嬪 洪氏 生二男 曰 嶺 錦原君 娶都事 鄭承休 女 曰 峴 鳳城君 娶正郎 鄭惟仁 女 淑媛 洪氏 生一男 曰 峴 海安君 娶參奉 慎弘猷 女 淑媛 李氏 生二女 曰 貞順翁主 下嫁 礪城尉 宋寅 曰 孝靜翁主 下嫁 淳原尉 趙義貞 淑容 安氏 生二男一女 曰 峴 永陽君 娶縣監 安世亨 女 曰 峴 德興君 娶知中樞府事 鄭世虎 女 曰 靜慎翁主 下嫁 清川尉 韓景祐 淑媛 李氏 生一男 曰 岐 德陽君 娶參議 權纘 女 淑容 金氏 生一女 曰 淑靜翁主 下嫁 綾昌尉 具澣

上以誌文下于政院 有頃更命入內 傳曰 教可後 更取 英陵 宣陵 誌文考之 則 英陵 誌文 悉載王孫 而今大行大王誌文 闕而不載 予心疑焉 且反正之時 大臣與群下 建議推戴也 非承王妃之教也 今誌文 承 慈順王妃教 廢爲 葦山君 此語恐似不當 其與院相[尹仁鏡] 更議之 仁鏡 啓曰 先稱 朴元宗 首建大義 次言承 慈順王妃 教 廢爲 葦山君 可見大臣推戴之意 且廢立 不可爲言 故言勢如此而後 名正言順也 慈順王妃 誌文 亦稱 群臣奉后教 翊扶聖躬 亦此義也 且凡喪禮 一依甲寅年故例 而 宣陵 誌文 不載王孫 故今亦倣而不載矣 答曰 承王妃教之言知之 英陵 誌文載王

孫 而 宣陵 誌文不載者 得非甲寅年 王孫未生故耶 更議之 仁鏡 啓曰
甲寅年 王孫生未生 臣未及考之 臣當更考入啓

林亨秀,《錦湖遺稿》誌有明朝鮮國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靖陵誌
恭惟我中宗大王諱某 成宗第二子也 成宗在潛邸 聘領議政韓明澮之女
及即位 封爲妃 無子薨 陞淑儀尹氏爲妃 卽判奉常寺事起畎之女 生世子
妃性行不淑 廢之 又陞淑儀尹氏爲妃 卽右議政壕之女 弘治元年戊申三月
己巳 誕生大王 封晉城大君 少有異質 成宗特奇愛之 歲甲寅 成宗薨 嗣
君失道 宗社將傾 丙寅九月 知中樞府事朴元宗, 前參判成希顔, 吏曹判
書柳順汀 首建大義 承慈順王大妃教 廢爲燕山君 迎大王於私第 大王牢讓
不獲 卽位於景福宮 遂請命于朝 下教凡非罪流竄者悉皆召還 枉被刑戮者
咸加褒贈 除害民之政 復先王之舊 朝野抃舞 如獲重生 修明學校 崇獎節
義 苟有一善一行 無不褒獎 至於清白忠義之後 亦皆收敘 博選弘儒碩士
置諸經幄 日三進講 夜又召對 論難經義 商確治道 下素屏於弘文館 書歷
代帝王爲治之道 以備觀覽 丁卯三月 幸學 橫經問難 八月 命印領三綱行
實 戊辰二月 帝遣太監李珍, 陳浩 賜誥命冕服 封爲王 壬申八月 行養老
宴于闕庭 六月 遣官以小牢 祀崇義殿 殿卽高麗王氏之廟也 命製酒戒 須
賜臣工以警之 丁丑五月 王以世子三歲能知學文向方 手書箴詞以戒 皆古
聖賢格言也 母妃未寧 王晝夜侍側 湯藥必親躬禱後園 未幾疾瘳 人以爲
誠孝所感 王幸學 講論經義日昃而罷 教曰 學校 風化之原 人材之府 爲
國之道 莫重於此 予今竭誠圖治 夙夜軫念 今賜土田臧穫 以爲養育賢材
之資 庚辰四月 册封世子 辛巳五月 帝遣太監陳浩等來賜命 壬午十月 行
世子冠禮 頒赦境內 所以重國本也 癸未 命印譯解小學 宣布中外 欲使閭
巷婦人小子 皆得以知之 八月 島夷犯上國地面 搶虜人民 漂到我界 邊將

俘斬以聞 王遣臣悉獻俘馘 帝嘉之 降勅賜物褒美 戊子 幸驪州 祭英陵 賜州民田租之半 庚寅八月 母妃薨 喪制一依禮文 常處外閣 卒哭後 大臣請還大內 王不從 甲午八月 幸學大射禮 乙未九月 幸開城府 祭齊陵 翌日 幸學取士 賜學生米百斛 庚子夏 大旱 遍禱于山川 不雨 王去輦乘舉曝日親禱于風雲壇 遂得三日雨 甲辰冬十月 王有疾 十一月十四日 疾大漸 召左議政洪彥弼, 右議政尹仁鏡入臥內 教曰 予疾甚 欲傳位於世子 翌日庚戌 薨于正寢 享年五十七 王仁慈忠孝 力學慕古 勤於聽納 存恤民隱 尤謹祀事 寅恭祗畏 至誠事大 終始不替 培養人才 文教大興 尊禮大臣 國事必與謀議而後行 撫愛宗戚 皆得其歡心 教戒王子 盡其義方 無有驕奢之習 多聚經術之士 講明性理之學 夜以繼日 亶亶忌倦 無遊吹聲色之娛 絕玩好奢靡之事 在位三十九年 人民樂業 生齒日繁 島夷山戎 慕義歸順 邊境無虞 不識兵革 致治之美 將升大猷 而八音遽遏 嗚呼慟哉 我殿下亮陰在疚 哀慕罔極 率群臣上尊諡曰 徽文昭武欽仁誠孝 廟號中宗 以其撥亂反正 中興功德 儷美商宗周宣也 乙巳二月九日某甲 安厝于高陽郡治南蘆洞壬坐丙向之原 卽章敬王后所厝禧陵之右 改號曰靖 初王在潛邸 聘慎守勤之女爲妃 以守勤有罪廢之 陞淑儀尹氏爲妃 卽領敦寧府事汝弼之女 辛未 生一女 曰孝惠公主 下嫁延城尉金禧 乙亥二月二十五日 誕我殿下 仍有疾 越三月二日薨 歲丁丑 聘領敦寧府事尹之任女爲妃 殿下在東宮 聘贈右議政朴墉之女爲嬪 及卽位 封爲妃 王妃尹氏爲王大妃 大妃生一男四女 曰懿惠公主 下嫁清原尉韓景祿 曰孝順公主 下嫁綾原尉具思顏 嘏顯公主 下嫁靈川尉申穰 曰諱封慶原大君 娶別坐沈綱女 次幼 敬嬪朴氏生一男二女 曰峯 福城君 娶縣監尹仁範女 曰惠順翁主 下嫁光川尉金仁慶 曰惠靜翁主 下嫁唐城尉洪礪 熙嬪洪氏生二男 曰嶺 錦原君 娶都事鄭承休女 曰峴 鳳城君 娶正郎鄭惟仁女 淑媛洪氏生一男 曰嶷 海安

君 娶參奉慎弘猷女 淑媛李氏 生二女 曰貞順翁主 下嫁礪城尉宋寅 曰孝靜翁主 下嫁淳原尉趙義貞 淑容安氏生二男二女 曰峴永陽君 娶縣監安世亨女 曰昭 德興君 娶中樞府事鄭世虎女 曰靜順翁主 下嫁清川尉韓景祐 淑媛李氏生一男 曰岐 德陽君 娶參議權讚女 淑容金氏生一女 曰淑靜翁主 下嫁綾昌尉具澣 孝惠生一女 適幼學尹百源 懿惠生一女 幼 嶺生一女 適幼學崔禮秀 嶺生一女 幼 惠靜生一女 適幼學尹琬 貞順生一男 孝靜生一男 靜慎生一男 岐生一男 皆幼

여 백

태릉(泰陵)

1. 연혁

능 주 : 문정왕후 윤씨[1501~1565]

위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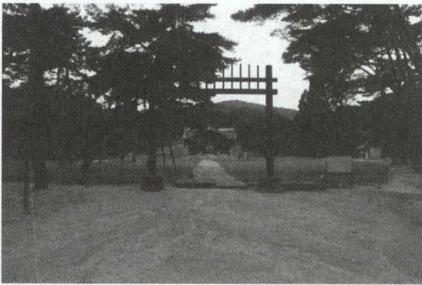
봉릉연대 : 1565년(명종 20)

전릉연대 :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지하철 6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고 있는 태릉 입구역에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육군사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를 지나 태릉선수촌 방향으로 가다 보면 태강릉에 도착할 수 있다. 능역 안으로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것이 중종의 세 번째 부인 문정왕후의 무덤인 태릉이고, 태릉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문정왕후의 아들이며 조선왕조 제13대 임금 명종의 무덤인 강릉이 위



태릉 원경

치하고 있다. 현재 태강릉 능역 안에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009년 7월 완공 목표로, 태강릉전시관이 공사중에 있다. 이 전시관은 조선왕릉의 조성과정과 당시 국장 절차 등을 전시하게 될 예정이다.

태릉(泰陵)은 조선 왕조 제11대 임금 중종(中宗)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의 능이다. 1565년 문정왕후의 서거 뒤에 조성되었다. 본래 문정왕후는 중종의 능인 정릉에 중종과 같이 묻히고 싶어하였으나, 정릉의 지대가 낮아 능원 지대가 침수된다 하여, 결국 곁에 묻히지 못하였다.

태릉의 능침은 단릉 형식이다. 상설제도는 『국조오례의』를 따르고 있다. 봉분 아래에는 구름과 십이지신을 의미하는 방위신이 새겨진 병풍석을 들렸으며, 그 주위를 난간석으로 다시 보호하였다. 병풍석 위의 만석(滿石) 중앙에는 십이간지를 문자로 새겨놓았다. 원래 십이간지가 문자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병풍석을 없애고 신상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신상과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문무석인은 목이 짧고 얼굴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형태이다. 문석인은 높이가 260cm로, 관복에 과거 급제자가 홍패를 받을 때 착용하는 복두(幘頭)를 쓴 공복차림을 하고 있다. 두 손으로



참도와 정자각



태릉 능상 원경

는 홀(笏)을 공손히 맞잡고 있는데, 왼편의 문석인의 경우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고 있는 반면 오른편의 문석인은 그 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좌우 문석인의 홀을 잡는 방법은 동일하나 이곳 태릉과 창릉(昌陵)의 경우만이 예외를 이룬다.

무석인은 문석인과 비슷한 크기이며,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투구를 쓴 위용 넘치는 무장(武將)의 모습이다. 문무석인을 통틀어 얼굴과 몸통의 비례가 1대 4 정도로 머리 부분이 거대하며, 안면 부분을 제외하고는 입체감이 결여되어 사각 기둥과 같은 형태이다. 한편 태릉에서는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한 금천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태릉은 왕이 아닌 왕비의 단릉(單陵)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웅장한 느낌을 준다. 이는 조성 당시 문정왕후의 세력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1565년(명종 20) 4월 7일 문정왕후가 창덕궁 소덕당에서 65세로 승하하자 4월 12일 시호와 존호를 올리고 능호를 신정릉이라고 했다가 6월 4일 태릉으로 고쳤다. 7월 15일 현재의 위치에 예장했다.

문정왕후는 사후에 중종 곁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었으므로 자신의 능과 함께 쓸 요량으로 봉은사 주지 보우와 상의하여 지금의 서삼릉에서 장경왕후릉 옆에 있던 중종 왕릉을 선릉 부근으로 천장하였다. 그러나 새로 옮긴 중종의 능은 지대가 낮아 홍수



태릉 전경

피해가 자주 일어났으므로, 문정왕후는 그 자리에 함께 묻히지 못하고 현재의 위치에 예장되었다. 결국 중종과 함께 묻히고자 했던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태릉의 정자각은 한국 전쟁 시 파손되어 석축과 초석만 남아 전하고 있던 것을 1994년에 복원한 것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정전(正殿)과 그 앞의 배전(拜殿)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능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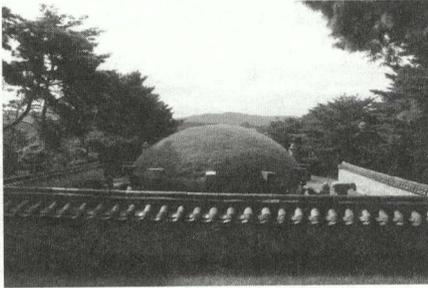


태릉 근경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1501~1565)는 1501년(연산군 7) 10월 22일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딸로 태어났다.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가 1515년(중종 10) 인종을 낳은 뒤 산후병으로 7일 만에 승하하자, 2년 뒤인 17세 때 왕비로 책봉되었다. 당시 인종이

세자로 책봉된 가운데, 문정왕후가 경원대군(훗날 명종)을 낳자, 기존의 세자를 폐하고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소윤(小尹)과 기존의 세자를 지키려는 대윤(大尹) 간의 권력싸움이 조정을 어지럽게 하였다.

이 가운데 1544년(중종 39) 11월 15일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여 대윤이 득세하는 걸로 당쟁이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자 정권은 경원대군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에게로 넘어왔다.



뒤에서 본 태릉

1545년 명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그녀는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면서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 문정왕후의 오빠인 윤원형을 포함한 소운 일파는 대운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을사사화를 일으켰으며, 그 후 다시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많은 사

람들을 희생시켰다.

왕후는 불교에 대한 믿음이 깊어 반대를 무릅쓰고 승과(僧科)를 두었고 선·교(禪·敎) 양종을 부활시키는 등 불교진흥에 노력하였다. 권세를 누리던 문정왕후는 1565년(명종 20) 4월 7일 창덕궁 소덕당에서 춘추 65세로 승하였다.

<양재역 벽서사건>

1547년(명종 2) 경기도 광주 양재역에 “여왕이 집정하고 간신이 권세를 휘둘러 나라가 망하려 하는데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벽보가 붙게 되었다. 여기서 여왕은 명종을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하게 된 문정왕후를 일컫는 것이다. 이 벽보를 계기로 당시 학계와 정계에는 을사사화에 이은 큰 피바람이 몰아닥쳤다.

이와 같이 문정왕후와 그녀의 형제들인 윤원형, 윤원로는 집권 초기 자신의 반대파를 유배 보내거나 죽이는 등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였다. 문정왕후 집권 시의 정치가 선비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는 당시의 대 유학자 조식이 그에게 내려진 벼슬을 사양하면서 올린 상소에 잘 드러나 있다.

전하의 국사(國事)가 잘못되고 나라의 근본이 망하여 하늘의 뜻이 떠나갔

고 인심도 떠났습니다. …소관(小官)은 아래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주색이나 즐기고, 대관(大官)은 위에서 어물거리면서 오직 재물만을 불립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신은 이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길게 탄식하며 낮에 하늘을 우러러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며, 한탄하고 아픈 마음을 억누르며 밤에 멍하니 천장을 쳐다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전(慈殿·문정왕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지만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寡婦)에 지나지 않으시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한낱 외로운 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백 가지의 재앙과 억만 갈래의 인심을 무엇으로 감당해내며 무엇으로 수습하겠습니까?

이러한 직설적인 상소에도 조식은 무사하였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당대 그녀에 대한 위협한 언급이 금기가 될 정도로 커다란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다.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다?>

『명종실록』에는 함흥에서, 경기도 안성에서, 경상도 의성에서, 여러 지방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다.”는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여러 차례 올라와 있다. 이러한 재미있는 기록이 나타나는 시기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통해 정권을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문정왕후 승하에 관한 『명종실록』의 기사에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서경(書經)』 목서(牧誓)에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집안이 다함이다.” 하였으니, 윤씨(尹氏 : 문정왕후)를 이르는 말이라 하겠다.

<불교 증흥 정책을 편 문정왕후>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물린 이후에도 명종의 뒤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

사하여, 조선의 측천무후, 철의 여인 등 현세에 와서 수많은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정계와 학계에서는 위 사신의 기록과 같이 문정왕후가 여인으로서 이렇게 조정을 쥐락펴락하며 권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다. 그들의 불만의 일부는 송유역불의 시대에 그녀가 펼친 불교 중흥정책을 향하고 있기도 하다.

<보우와 부활하는 불교>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도첩제를 실시하여 승려를 뽑고 전국 300여 개의 절을 공인하는 등 당시의 유교지향정책을 무시하고 불교 중흥을 도모하였다. 양주 회암사에 있던 승려 보우를 맞아들여 봉은사(奉恩寺) 주지로 임명하고 훗날 중종과 함께 문힐 요량으로 봉은사 근처(정릉)에 중종의 능을 전장하기도 하였다. 폐지되었던 승과를 부활시켰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불교 교단은 활기를 띠고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산 속으로 숨어버린 조선의 불교>

유생들은 문정왕후의 불교 중흥 노력에 심한 반발을 시작했다. 각지에서 보우를 타도하라는 상소와 종단 및 승과 폐지의 상소가 빗발쳤다. 요승 보우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다 못해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우는 집단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불교 중흥 정책을 그만두지 않았으며, 그녀의 지원을 받은 보우는 도대선사가 되었다. 그러나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성난 유생들은 회암사로 몰려가 불상의 목을 자르고 절을 불질러 버렸다. 명종 역시 문정왕후의 불교를 중흥하라는 유언을 무시하고 깊은 산 절로 도망친 보우를 체포하였다. 전국에서 보우를 처형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기 시작하였고, 율곡 이이 등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명종은 보우를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 보우는 이곳에서 힘악한 여론을 살피던 제주목사 변협에 의해 결국 살해당했다.

4. 대행대왕대비행적

《明宗實錄》卷31, 明宗 20年 4月 10日(丙子)

大行大王大妃 天質英明 聖度剛正 博覽學問 閨門有法 內庭嚴肅 雖一品駙馬 狂悖得罪 則黜外不惜【此蓋指 靈川尉 申穰 安置事也】 人莫不服 自丁丑年冊封之後 配先考三十年 克遵婦道 終始誠敬 待仁廟 亦盡和意 雖或有姦凶交亂之言 能爲鎮靜 接宮嬪 合於情禮 甲辰冬 中廟 賓天之後 哀毀過禮 乙巳 仁廟賓天 痛悼亦切 當寡躬嗣服之初 三兇【尹任 柳灌 柳仁淑】 罪惡漸極 御景福宮 忠順堂 垂簾議于公卿 克除姦凶 再安宗社 初上聖烈徽號 加上仁明二字 攝政九載 政治清明 癸丑流火之月 歸政于寡躬 常時每教寡躬 以辨賢邪 抑貪風 去民瘼 安國家 諄諄不已 癸丑暮秋 景福宮 災 欽賜誥命 竝被燒燼 戊午年 遣使奏請 皇帝卽允 順付再下 慮僧徒無統 議大臣 復立兩宗【大臣 沈連源 尙震也。○當垂簾發政之日 議復立兩宗之事 阿諛不達 而無一言面諫其不可 至於下問之際 正值納約之時 而震也非徒不進言 又從以悞順之辭 遂復禪科】 念中廟 靖陵之兆 似不盡美 壬戌之秋 遷卜于宣陵之旁 癸亥九月 驚慟 順懷之變 初冬移御于昌德宮東宮 自甲子年 寡躬多疾 以誠護養 仰賴罔極之恩 今年暮春 偶因感冒之證 日漸彌留 百藥不效 孟夏初七 移御于昌德宮別堂 巳時昇遐 春秋六十五 嗚呼 痛哉 仍傳于政院曰 罔極之中 心緒茫茫 文似煩亂 製誌者 可改成也 此外 朝廷若有聞見之事 亦當書示于製誌官

5. 태릉포석음기

朝鮮國

文定王后泰陵

聖烈仁明文定王后尹氏 中宗大王繼妃 弘治十四年辛酉十月二十二日誕生 正德十二年丁丑册封王妃 嘉靖四十四年乙丑四月七日昇遐 七月十五日葬于楊州南蘆原面 壬坐之原 壽六十五

여 백

강릉(康陵)

1. 연혁

능 주 : 명종[1534~1567]과 인순왕후(仁順王后) 심씨[1532~1575]

위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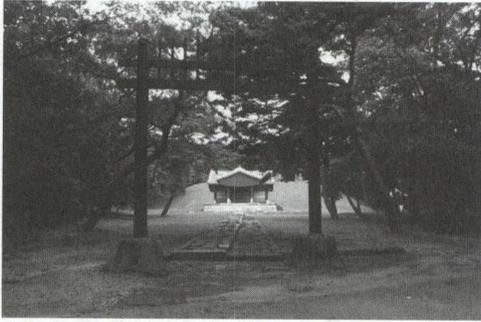
봉릉연대 : 1567년(선조 1)

전릉연대 :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지하철 6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고 있는 태릉 입구역에 내려 버스를 갈아 타고 육군사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를 지나 태릉선수촌 방향으로 가다 보면 태강릉에 도착할 수 있다. 능역 안으로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것이 중종의 세 번째 부인 문정왕후의 무덤인 태릉이고, 태릉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문정왕후의 아들이며 조선왕조 제13대 임금 명종의 무덤인 강릉이 위



강릉 전경

지하고 있다. 현재 태강릉 능역 안에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009년 7월 완공 목표로 ,태강릉전시관이 공사중에 있다. 이 전시관은 조선왕릉의 조성과정과 당시 국장 절차 등을 전시하게 될 예정이다.

강릉은 조선 13대 임금인 명종과 왕비 인순왕후 심씨의 능이다. 한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마련하여 쌍릉으로 조영하였다, 태릉과 마찬가지로 병풍석을 두르고 12칸의 난간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병풍석에는 십이지신상이 새겨져 있으며, 만석에 다시 십이간지를 문자로 새겼다.

진입공간에 금천교가 남아 있으며 정자각 왼편 계류에는 보면 동근 어정(御井)이 있다. 어정이란 왕이 왕래할 때 마실 물을 마시거나 제례시를 위해 판 우물을 말한다. 광릉, 송릉 등지에서도 이를 볼 수 있으나 강릉의 것이 원형에 가깝다.

강릉의 문석인은 신체 대비 머리의 비례가 크고, 목이 짧게 조각되었다. 복두를 쓰고 관복을 걸친 관료의 차림을 하고 있다. 무석인은 왼편과 오른편의 조각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오른쪽은 투구가 작고 가슴 전면에 파도 문양이 조각된 반면, 왼쪽 무석인은 팔꿈치에 구름 문양, 등 위와 무릎 부



강릉 정자각



강릉 원경

분에 비늘 문양을 새기고 있다.

명종은 유일한 아들이었던 순회세자를 이른 나이에 잃고, 2년 후에는 어머니인 문정왕후를 여의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워낙 병약했던 명종은 세자와 모후를 잃은 허탈감에 마음의 병까지 더하여 34세의 나이로

1567년(선조 즉위) 6월 28일 경복궁 양심당에서 승하하였다. 묘호를 명종, 능호를 강릉으로 정한 후 같은 해 9월 22일 태릉 동쪽 언덕에 안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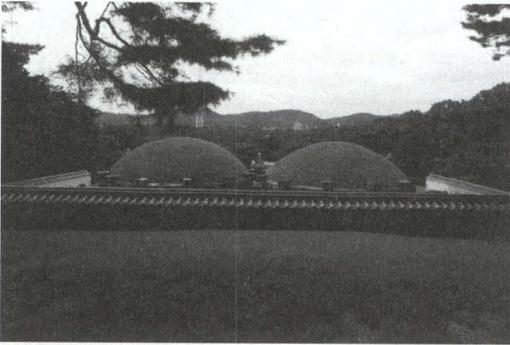
그로부터 다시 8년 후인 1575년(선조 8) 1월 2일 44세를 맞은 명종의 비인 순왕후가 승하하였다. 선조는 시호와 존호를 올리고 그 해 4월 28일 명종 왕릉인 강릉에 쌍릉으로 왕비릉을 조성하였다.

3. 능주 소개

강릉에 모셔진 명종(1545~1567 재위)은 중종의 둘째 아들로써 인종의 이복동생으로 중종 29년(1534) 5월 22일 탄생하였으며 휘(諱)가 환(暉)이고 자(字)는 대양(對陽)이며 어머니는 문정왕후 윤씨이다. 인종 원년(1545) 유명(遺命)으로 왕위를 이어받아 이



강릉 근경



뒤에서 바라 본 강릉

해 7월 6일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니 춘추 12세로 어려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8년간 수렴청정 하였다. 왕후의 동생인 윤원형(尹元衡) 일파가 집권하면서 왕권이 떨어지고 외척일족의 수탈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민

심이 흉흉하여 임거정(林巨正)과 같은 도적이 나타났다. 문정왕후 승하 후 척신정치(戚臣政治)의 폐해를 없애고자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선정(善政)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뜻을 펴지 못한 채 명종 22년(1567) 6월 28일 경복궁 양심당(養心堂)에서 승하하니 재위 22년이었고 춘추 34세였다. 선조 즉위년(1567) 7월 묘호(廟號)를 명종이라 하고, 무덤의 이름을 강릉이라 하여 9월에 양주 노원면 대방리 금산(金山)의 언덕에 장례지냈다.

명종의 비인 인순왕후 심씨(1532~1575)는 본관이 청송(靑松)으로 영동녕부사 청릉부원군 심강(靑陵府院君 沈綱)의 딸로서 중종 27년(1532) 5월 25일 탄생하였으며, 명종 즉위년(1545)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1551년(명종 6) 6월 5일에는 원자를 낳았고, 1557년(명종 12) 12월 8일 원자가 5세에 이르자 세자에 책봉되었다. 원자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서 다섯 살인데도 영명하고 슬기로움이 이미 나타났으니 실로 종사의 한없는 경사라고 칭할 정도였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순회세자는 1563년(명종 18) 9월 13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지 4년 후에는 남편인 명종도 승하하였다.

명종 22년(1567) 선조가 즉위하였으나 어려서 이듬해까지 수렴청정하였

으나 1568년(선조 1) 7월에 선조가 친정을 하도록 물러나 주었다. 선조 8년(1575) 1월 2일 창경궁 통명전(通明殿)에서 승하하니 춘추 44세였고, 시호를 인순(仁順)이라 하였고 4월에 강릉 동쪽에 장례 지냈다.

<인순왕후와 관련된 일화>

왕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미처 정하지 못하고 승하하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의 결정권은 형식적으로나마 대비에게로 이양된다. 대비는 사적으로는 새로 왕이 될 자의 어머니이며, 선왕의 부인이다. 비록 남편이 죽고 없지만 대비는 국모로서의 권한과 함께 왕실의 최고 어른이라는 지위를 갖는 것이다.

인순왕후는 명종이 임종을 맞을 당시 양심당의 소침 병풍 뒤에서 명종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다. 명종과 인순왕후 둘 사이에는 아들 순희세자가 요절한 탓에 명종의 뒤를 이을 자가 없었다. 그러나 생전에 명종은 자신의 이복형인 덕흥군(중종과 후궁 창빈 안씨 사이의 아들)의 아들 하성군을 의중에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명종의 의중을 알고 있었던 인순왕후는 당시 16세이던 하성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가 조선의 14대 왕 선조이다.

4. 강릉표석음기

朝鮮國

明宗大王康陵

仁順王后祔左

明宗恭憲獻毅昭文光肅敬孝大王 嘉靖十三年甲午五月二十二日誕生 己亥封慶原大君 乙巳卽位 隆慶元年丁卯六月二十八日昇遐 九月二十二日葬于楊州泰陵東岡亥坐之原 在位二十二年 壽三十四 皇朝賜諡恭憲 妃宣烈懿聖仁順王后沈氏 嘉靖十一年壬辰誕生 初封府夫人 乙巳進封王妃 萬曆三年乙亥正月二日昇遐 四月二十八日 葬與大王陵同原 壽四十四

5. 명종대왕 행장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48, 行狀 明宗大王行狀

國王姓李氏 名 字 恭僖王之次子 母妃 尹氏 初 恭僖王元妃尹氏 既誕 榮靖王而薨 又納尹氏爲繼妃 領敦寧府事坡山君之任之女也 以嘉靖甲午五月二十二日生王 王生而穎秀 不妄嬉戲 明悟善學 恭僖王稱愛之 封爲慶原君 嘉靖二十四年乙巳七月 榮靖王疾大漸 召大臣入臥內 教曰 予疾殆 將不興 予無嗣子 先父王嫡子 惟我與慶原君二人而已 諱雖年幼 聰睿夙成 可付後事 卿等其共輔立之 王薨 大臣奉遺命 請王權署國事 遣陪臣宋璵等 告訃于朝 且請承襲 是年十二月 世宗皇帝賜制曰 子承父業 是爲人道之常 弟紹兄封 允合天倫之正 肆彝章之具在 斯渙命之有加 咨爾朝鮮權署國事李諱 世居海嶠 裔出王家 習尚每嗜乎詩書 風教素承乎禮義 念國王之嗣絕 宜茅土之爾歸 揆諸世次以當承 參之輿情而允協 爰降絲綸之重 俾膺圭爵之榮 茲特封爾爲朝鮮國王 錫之誥命 繼守舊封 思續前人之緒 寵頒新渥 益增藩服之光 無忘北闕之恩 永作東方之翰 又勅曰 爾兄王諱 於嘉靖二十四年七月初一日 薨逝無嗣 爾既系王親弟 理宜承襲 茲特遣內官監太監聶寶充正使 郭鑾充副使 齎詔示爾國人 封爾爲朝鮮國王

繼理國政 爾宜服膺君命 圖紹先業 秉猶循義 保國安人 爲中夏藩垣之臣 并封爾妻沈氏爲王妃 及頒賜爾及妃誥命冕服冠服綵幣等件 至其欽承 王卽遣陪 臣右議政林百齡 奉表陳謝 王時年十二 禮接詔使 無違度 廷臣咸以爲王方幼冲 學問最急 卒哭前 請開書筵 王爲榮靖王 居喪以禮 猶日與儒臣 講讀不輟 左贊成李彥迪 書進先儒格論 且勉以勤學問 敬大臣 納諫諍 近正人 遠邪佞 畏天命 恤民隱等事 王謹受而思服焉 二十五年夏 大臣以盛暑 請停書筵 王不聽 首罷異物無名之進 蠲窮民積年之逋 下教禮曹曰 近來教導未至 風俗澆薄 不孝不友不嫺不睦之法 自有國典 而閭閻之人 不聞不學 蠢愚無知 妄行非義 以觸罪辜 良用惻然 據古彝倫之教 參酌國法 作爲教目 廣布中外 使窮鄉僻巷之人 無不周知 如有違者 嚴加責罰 以淑人心 以正風俗 講官以無逸并抑詩進戒則曰 索於內藏 得先朝舊案上寫無逸篇 已備觀省 其作屏 寫抑詩以來 二十六年 僕臣因輪對 請買馬於他境 弘文館舉先朝禁買之事 且書周書旅獒 罔命二篇以進戒 王欣然嘉納 是時 水旱荐臻 連歲飢疫 王爲之憂懼憫惻 不遑寢食 省咎責躬 求言補闕 督 令內外官吏修舉荒政 至於放租弛禁 移粟納穀 勸分收棄之類 靡不究心 病者捋之 死者瘞之 謂大臣曰 爲人君者 聞百姓飢死 不急賑救 則安有視民如傷之意乎 予今晝夜憂慮 罔知攸濟 卿等亦宜商議善處之 謂民生休戚 係于守令 每令銓曹 擇人以授 于時有吏犯贓 王曰 先王朝 贓法甚嚴 今則不然 貪風日熾 民受其害 事露者 不可不痛繩以律 二十九年 因慶尙道觀察使啓請 頒降內藏書籍于豐基郡白雲洞書院 賜額褒美 後又命各道 有書院處 咸加勸獎 書院之作 由是盛焉 三十一年 命選朝紳之素稱廉謹者 賜宴于宮庭 舉遺逸 得成守琛等五人 皆敍六品職 書筵講大學衍義 至讒邪之臣殺忠良以資敵國 而庸君闇主一不之察 慨然嘆息 因論唐僖宗殺諫臣事曰 興國之君 樂聞其過 亡國之君 惡聞其過 直諫

者死 奚以不亡 講近思錄 深有味於養知莫過於寡欲之言曰 此與養心莫善於寡欲 語意相符 其沈潛學問 類如此 三十二年冬 擒獲漂流倭賊 遣使以獻 皇帝降勅諭曰 邇者 倭夷侵擾海陬 屢該南直隸湖江等處鎮巡官奏聞 已命督兵 驅逐出境 其餘寇奔逸 方行沿海地方 嚴加戒備 茲王奏稱陪臣賀節回國 傳聞倭逆搶攘 即便整擱兵船 預肅堤防 及擒獲漂流餘檣銃牌等器 差賀至陪臣李澤等 管押解獻 且見王奉藩忠赤 朕甚嘉悅 特降勅褒諭 仍賜白金紋錦綵段 以答忠勞 三十三年 賜酒于學宮 教曰 學校 風化之原 首善之地 近來 學校陵夷 是雖上不能鼓舞振作之致 師生之習 亦爲偷靡 惟爾師長學子 各勉授受 以副 予樂育英才之意 又曰 人之爲學 莫切於小學 而近廢不讀 惑莫甚焉 其令禮曹 申諭勸勉 使人人樂學以敦根本 教于八道觀察使 各其地方如有孝子烈女 廣問馳啓 又謂侍臣曰 孝行節義 所當崇獎 故搜訪之意 已下于各道矣 人皆以節義爲貴 則於爲國乎 所關豈小哉 仍下當代三綱錄于政院 令印布中外 三十四年 旱災切迫 王於禁中親禱得雨 如是者再 教銓曹曰 爲政之道 莫如得人 若不得人 如爲國何 惟爾該曹 更加慎擇 參諸物論 守令則用慈祥 愷悌者 學官則用學問該博者 且孝友廉謹節義之士及清白吏子孫 交獎陞遷 三十五年 視學坐明倫堂 以手筆諭之曰 予以涼德 叨主臣民 雖不及文王作人之美 豈無唐宗崇學之志乎 留意學校 欲使人才蔚然而出 歲月逾邁 迨不見效 是乃予作成之誠未至而然也 學貴務本 常顧堂名 以忠孝爲本 皆爲他日君子儒 是予之望也 謂書筵官曰 人非聖人 誰能無過 知過必改則善矣 又教曰 爲囚求生道 此仁政之一端也 予念外方獄事 許多縲紲之中 豈無 冤枉之淹滯 況今沍寒陽生之月乎 其令八道司獄 務速決放 如有疑獄 詳覈馳啓 三十六年四月 皇帝勅諭曰 近該王奏倭寇被風漂流船隻 至王國境內 觀察使李潤慶等 乃能督兵擒捕 內有中國被擄人民 令陪臣沈通源等管押前來 且見王奉藩

忠順 朕用嘉悅 茲特降勅獎諭 仍賜白金綵段 以答忠勞 王以適子頃年已七歲 宜早定國嗣 乃遣陪臣李名珪等請命于朝 三十七年正月 皇帝降勅曰 朕惟立長繼序 古之制也 凡有爵土者 罔不豫定 以 係羣情之望 近得王奏 本國臣民議欲立王嫡長子頃爲世子 王不敢專 請命于朝 且見王恪守忠敬 事下該部查覆 特賜俞允 茲命太監王本爲正使 趙芬爲副使 齎勅并紵絲紗羅等件 封頃爲朝鮮國王世子 夫藩國之職 莫善於秉猶遵義輸忠效誠 王自上世以來 循行已久 今既立世子 王宜明示此訓 俾率由罔替 世享有邦 庶不負朕命 無忝前人 初 國祖康獻王 被本國叛賊尹彝 李初誣告于中朝 稱爲逆臣李仁任之後 皇明祖訓及大明會典 俱錄其語 自王六代祖恭定王及父恭僖王時 累嘗控訴辨誣 每訴輒蒙許改 而所改之詞 尙未昭示 及王嗣服 當嘉靖三十六年 遣陪臣趙士秀陳乞 得旨如前 至四十二年 差陪臣金澍具實封奏本 辨訴益力 是年十月 皇帝勅諭曰 朕惟體臣柔遠 帝王御世之經 邇本明宗 子孫光前之孝 咨爾朝鮮國王諱 世篤恭順 作朕東藩 屢以祖系 陳乞釐正 蓋恥蒙詬訾 而急於昭雪 情見于辭 朕特允爾所奏 宣付史館 因會典之舊文 載爾祖之眞派 滌瑕傳信 炳如日星 朝廷與爾國 皆知出於李子春而不出於李仁任也 是一以安爾祖於既往 一以慰爾望於斯今 於爾國不有榮施哉 於戲 錫類正名 既已成爾之孝 紹先謹度 益當竭爾之忠 四十四年四月 母妃尹氏寢疾 王藥物必嘗以進 祈禱無所不至 及薨 王執喪外閤 哀戚備盡 九月 王遇疾危劇 王世子頃 先二年而殞逝 國人咸憂恐 大臣亟以建儲爲請 王妃以王命 下一封書于大臣 密定儲嗣 實王庶兄故德興君峇子河城君舊諱也 已而王疾乃瘳 命 別擇儒士 爲師傅教誨之 數召入 講問所學 親愛有加 四十五年六月 召經明行修之士李恆等及徵士曹植 其人或有病不能赴召者 遣醫藥致懇敦諭 前後至者輒延見 虛心訪咨 備見嘉尙之意 命超授內外職 有以白衣陞至四品者 復追贈徵士成守琛 徐

敬德職 十月 因災異下手教曰 天人一理 顯微無間 人事失於下 天變應於上 予以否德 叨承丕緒 慄慄危懼廿有餘年 而衆災疊現 乃於十月既望 燁燁震電 有同夏月 又有開花結實之異 陰陽 失序 寒暑反常 又於小雪前宵 雪裏雷鳴 上懼譴告之切 下愧疵政之多 豈無致災之由 盍盡消弭之方 予念君心萬化之原 而心有所未正歟 王朝四方之本 而政有所未清歟 用人雖慎擇 而賢或有遺者歟 苞苴雖禁斷 而賄尚有行者歟 赤子困窮 而字撫失其宜歟 軍卒疲弊 而捋恤未能盡歟 邊圉虛疎 而備禦或有闕歟 賞罰僭濫 而功罪或未辨歟 賦役不均 而民怨有鬱塞歟 風俗不美 而綱常有倒置歟 言路或未通 而納諫有未快歟 誠恐危亡之禍迫在朝夕 而予之寡昧 邈焉不逮 公卿大夫 閭巷草野之間 必有深知矯弊之策者 各以所懷 盡陳無隱 冀聞不諱之言 用答仁愛之譴 閏月 領議政李浚慶上疏 極陳時政闕失 且請建儲 蓋前雖有命 未有名號故也 答曰 予以否德 遇災修省 方切求言之時 卿以首相 進藥石之言 予嘉卿愛君憂國之誠也 儲副久虛 予爲宗社 豈不深念哉 丁卯正月 謝恩使尹玉等 馳狀報皇上諱音 王卽日 率羣臣力疾舉哀 卽差陪臣宋贊陳慰使 鄭宗榮進香使 又差右議政權 轍 賀登極使遣之 夏六月 母妃三年喪畢 追慕益切 猶不御華美之服 王自居憂 恆有羸疾 至是 翰林院檢討官許國兵科左給事中魏時亮 奉詔勅且至 王於迎接大禮 惟恐有失 虞度方深 又時當盛暑 大臣慮王因勞致傷 勸勿躬行祔祭 王曰 宗廟祔享 至重之禮 予非甚病 何忍付有司攝行 再請 曰 子與其不祭而心勞病重 孰與親行而身勞病輕乎 遂力而行之 因勞熱馴致疾革 是月二十八日 辛亥 薨于景福宮之正寢 享年三十四 在位二十二年 是日曉 王妃申乙丑年之命 令大臣奉迎河城君今諱入主喪 權署國事 王孝友聰明 恭儉勤懇 事大之誠 出於至性 凡修聘接使之際 致謹于書禮 役志于享物 必極其忠敬 於皇朝吉凶之事 慶戚之情 如不違咫尺焉 上國人民 自虜中逃來 解送

共一千二百十六名 漂流人刷還六百五十四名 必皆厚給衣糧 期得全活 王常念付畀之重 恐不克負荷 廟社之禮 嚴畏如臨 先王之法 遵守勿替 當在冲年 母妃嘗同聽斷 未幾還政 王奉 事承顏養志 委曲盡意 三時問安 出告反面 自始至終 未嘗少懈 王於榮靖王 有繼序之重 因心之友 義所彌隆 其事王妃朴氏 如事母妃 妃嘗有疾 其於醫禱之外 所以因事慰安之者 有足以感動幽明者 已而 妃疾良已 宗室諸親 恩施有差 其最親者 時召入內 與之歡洽如家人禮 倚任輔相 有事必咨 重待臺諫 言必嘉納 凡聲色遊畋之娛 一無所好 燕寢左右 書清心寡欲 明目達聰 誠敬和勤 好賢樂道等語 以自警 夙興夜寐 垂意庶務 有暇則繙閱 經史 條然端坐 日以爲常 雖遇體倦 未嘗跛倚 大臣嘗入問疾 衣帶必飭 左右請仍便服 不許 後宮宦侍 不與之親暱 如有罪戾 不少容貸 或付諸有司而論如法 勵精圖治 惟日孜孜 崇儒雅而喜文學 尙風化而重節義 暇日 屢引諸學士 讌語從容 揚摧古今 兼試文藝 寵渥優異 或召儒生於便殿 講論經義 優者 賜出身以獎成之 遇災恐懼 必引己之愆尤 臨民惻怛 如親手而撫摩 欽恤刑獄 而痛繩濫刑之吏 軫撫軍卒 而屢褒撫軍之將 法所當加 無撓於勳戚 之負犯 害所當去 益決於異教之滋蔓 中外章疏 或有訐激 未嘗加罪 大小官司 少有欺蔽 未嘗不覺 願治之意 守成之規 可法可傳 四方無虞 民不見兵革 雖南倭北狄 猶知怛威而赧德 雖古稱賢明之主 亦無是過 而憂勞成疾 奄忽薨逝 一國 臣民之痛 曷有窮哉

여 백

의릉(懿陵)

1. 연혁

능 주 : 경종[1688~1724]과 선의왕후(宣懿王后)[1705~1730] 어씨

위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4호

봉릉연대 : 1724년(영조 1)

전릉연대 :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지하철 1호선 이문역이나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로 가면 캠퍼스 뒤쪽에 위치한 의릉을 만날 수 있다.

의릉은 조선 20대 경종(재위 1720~1724)과 그의 비인 선의왕후의 무덤이다. 경종은 희빈장씨의 소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여 왕위에 오른지 4년만에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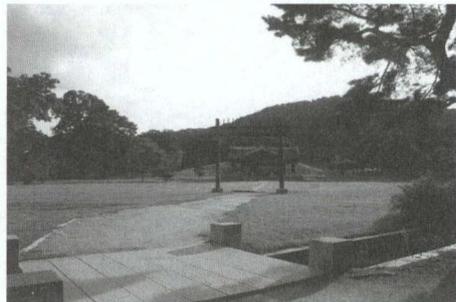
의릉 안내도

식은 능혈의 폭이 좁아 왕성한 생기가 흐르는 정혈(正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풍수지리적 이유이며 자연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능원을 조성하려는 우리 민족만의 자연관을 볼 수 있는 형식이다.

능묘 조각들은 규모가 작고 왜소한 편이다. 봉분에는 난간석을 설치하였으며, 난간 석주에 방위를 나타내는 십이지를 문자로 간략히 새겨 넣었다. 망주석 세호는 모두 위를 향해 기어오르게 조각되어 있다. 장명등은 지붕이 4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숙종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식으로 건원릉부터 나타난 8각등에 비해 한결 간략하면서도 소박한 인상을 준다.

문무인석은 전체적으로 4등신의 땅딸막한 비례에 움츠러든 어깨가 경직된 느낌이다. 갑옷을 걸치고 장검을 두 손으로 힘차게 짚고 있는 무인석의 뒷면에는 짐승 가죽을 나타내기 위해 꼬리가 말린 것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왕후릉은 왕릉과 마찬가지로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으로 봉분을 호위하고 있으며, 석물들의 배치 또한 왕릉과 같은 형식이다.



의릉 전경

일반적으로 쌍릉은 좌·우로 조성하지만 이 무덤은 앞·뒤로 무덤을 조성한 상하이봉릉(上下異封陵)이다.

위쪽에 있는 경종의 능침에만 곡장을 돌렸고, 왕릉과 왕후릉 모두 혼유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석물은 별도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 양



의릉(경종)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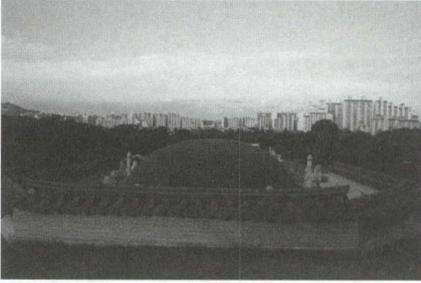
1724년(경종 4) 8월 25일 경종이 창경궁 환취정에서 승하하자 같은 해 12월 16일 양주 중량포의 천장산 기슭 언덕에 매장하고 능의 이름을 의릉이라 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 1730년(영조 6) 6월 29일 경덕궁 어조당에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계비 선

의왕후가 승하하자 같은 해 10월 19일 경종 왕릉 아래에 능을 조영하였다.

사적 204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나 1960년대 초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의릉 경역 내에 자리잡았던 탓에 일반인에게는 철저히 봉쇄된 구역이었다.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고 돌다리를 놓는 등 훼손이 심해 궁궐의 후원처럼 변모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중앙정보부가 이사가면서 1996년 5월 1일 일반인에게 다시 공개되었다.

3. 능주 소개

경종(景宗 ; 1688~1724, 재위기간 : 1720~1724)은 1688년(숙종 14) 10월 27일 숙종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왕궁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나인 출신의 희빈 장씨이다. 숙종은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등 세 명의 왕비가 있었으나 그들에게서 아들이 없어 1690년(숙종 16) 당시 3세였던 경종을 세자로 책봉하기에 이르렀다.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는 인현왕후가 폐출되자 왕후가 되었다가 1701년(숙종 27) 죽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무



뒤에서 바라본 의릉(경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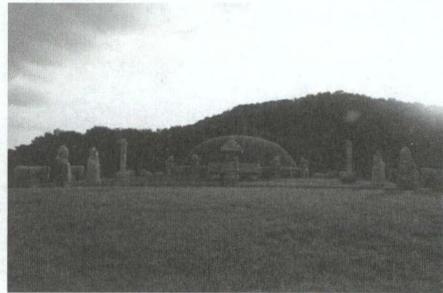
나이로 즉위하였으나 재위 4년간의 재위시절에도 신하들의 당쟁에 시달려 재위기간 뚜렷한 치적을 남기지 못했다. 1724년(경종 4) 8월 25일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창경궁에서 승하하였다.

1721년(경종 즉위)과 1722년(경종 2) 신축, 임인 두 해에 걸쳐 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큰 옥사가 일어났는데 이를 신임사화라고 한다. 1720년(숙종 46)에 숙종이 승하하자, 세자였던 경종은 소론의 지지를 받으며 3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당시는 노론과 소론의 위험한 당쟁이 계속되던 때였는데, 당시 노론의 4대신인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종추부사 이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가 중심이 되어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훗날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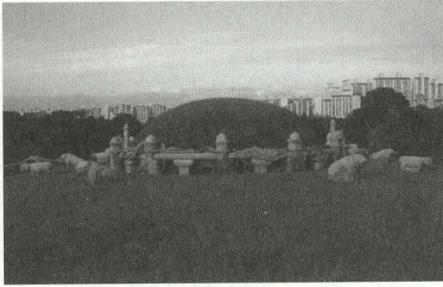
소론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1721년(경종 즉위) 8월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자 노론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종을 두고 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소론의 대립은 격화되었고, 결국 세제의 대

고의 옥' 사건으로 사사되는 일이 있었다. 이 때 경종의 나이 14세였다.

그 뒤로 경종은 병약하여, 세자로 있으면서 그의 이복동생 연잉군(훗날 영조)가 대신하여 세자대리청정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720년 6월 13일 경덕궁 승정문에서 33세의



앞에서 본 의릉(선의왕후)



뒤에서 바라본 의릉(선의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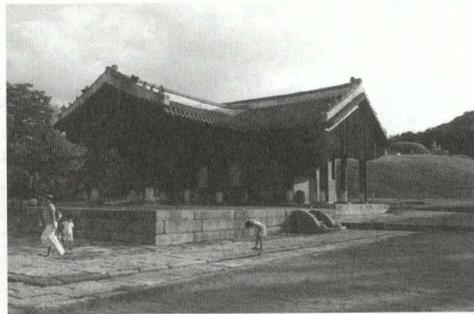
파를 제거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론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지만,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자 조정에는 또 한 차례의 숙청의 바람이 불게 된다.

한편 선의왕후 어씨(宣懿王后; 1705~1730)는 1705년(숙종 31) 10월 29일 함원부원군 어유구의 딸로 태어났다. 경종이 세자 시절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단의왕후가 병을 앓다가 1718년(숙종 44) 승하하자, 같은 해 9월 13일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1720년 6월 13일 경종이 즉위함에 따라 왕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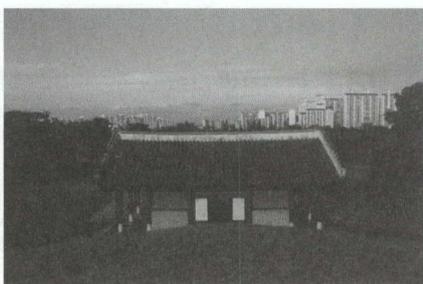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매사에 조심스럽고 온유한 성품을 지녔다고 한다. 선의왕후는 1724년 경종이 승하하자 왕대비에 올랐다가 1730년(영조 6) 6월 29일 경덕궁 어조당에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소생없이 승하하였다.

선의왕후와 경종의 사이에는 소생이 없었다. 경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둘 희망이 없다고 여겨

리청정을 주장한 노론 4대신들은 파직 후 유배를 당하였다. 그 뒤에도 소론 강경파들은 노론의 숙청을 요구하였다. 1722년(경종 2)에는 노론측이 세자 시절에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고변을 기점으로 노론 4대신을 사사하며 수백 명의 노론



의릉 정자각



능상에서 본 정자각

진 선의왕후는 종친 중 어린 아이를 입양하여 후사를 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경종비를 중심으로 한 궁중의 일각에서는 소현세자의 후손인 밀풍군의 아들 관석을 입양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종 즉위 1년 만인 1721년 8월의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이 세제로 책봉되었다.

경종이 아무리 병약하다고는 하나 즉위 1년 후 세제를 책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노론은 소론과의 알력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제 책봉 뿐 아니라 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주장하였고, 계속적인 당쟁과 숙청의 바람을 몰고 왔다. 이러한 어지러운 정국의 한 가운데에, 결국 선의왕후의 양자 입양은 무산되었다.

4. 의릉지

《景宗實錄》附錄 景宗大王墓誌文

於戲 洪惟我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 姓 李氏 諱【昀】字【輝瑞】
 肅宗大王之長子 顯宗大王之孫也 始 肅宗 久無嗣爲憂 嬪 張氏 以戊辰
 十月二十八日誕王 肅宗 喜甚 召諸大臣謂曰 國本未定 人心靡係 今日大
 計 不在他也 遂定號元子 三歲 封王世子 四歲始學 千字文 肅宗 親製序
 以授之曰 儲宮方講習是書 性既聰朗 心智日長 加意學問 正在匪遠 仁顯
 王后 子之 如漢 明德后 故事 慈孝俱甚篤 八歲行入學禮 周旋中節 講音

洪亮 園橋人士 莫不相慶 是歲行冠禮 謁太廟 隨大駕 拜 永禧殿 晬容謁 永昭殿 仍命師傅 賓客與春坊僚屬 日入宵筵 遍講 孝經 小學 三綱行實 等書 講官師傅 請見心畫 大書孝悌忠信 禮義廉恥 敬以直內 義以方外等字 與之 臣僚傳玩 自是 學問日益進 臨筵問難 出人意表 嘗問 伊尹放 太甲 於桐 終不改過則如何 又問序曰 無忝人之名 名字何義 又問史丹 伏青蒲 基 王氏之禍 疏廣 疏受 見幾而作 由是論之 史丹 不如 廣受 乎 若此者多 雖自謂老師宿儒 皆歎其天縱不可及 講官嘗問 孟子 七篇 於何尤着力乎 答曰 自 梁惠王 至 盡心 無非闡明義理 夫豈拈出某處尤爲着力乎 又問自期如何 答曰 非日能之 乃所願 則 舜 何人也 予何人也 辛巳 仁顯王后 昇遐 殯殮攀擗 哀動傍人 至發柩時 奉辭路次 久立哀慟 返虞日 出郊陪還 哭不絕聲 道路觀者皆悅 歲乙酉 卽 肅廟 卽位之三十一年也 王三上疏 請稱慶 有曰 於前史有可據之文 在今日爲必行之禮 肅宗答曰 疏辭雖出人子之至情 顧予何心 作此豫大之事乎 時 肅宗 以好學勤政 積勞成疾 思就閑調養 是年十月 有禪位之命 王驚惶罔措 連章固辭 召宮僚諭之曰 達夜泣請 終不得回天 伏閣陳懇之外 更無他道 將出閣門 時 天寒大雪 令去惟幕 肅宗曰 爾之情事 不可不念 遂勉從焉 後十二年丁酉 肅宗 以五載沈綿 酬應漸難 依國朝故事 令王聽政代理 王又懇辭 不獲命 且以替勞之義 詎勉承命 群臣入朝稱賀 特令停鼓吹 裁減庶務 咸當於理 然皆一一上稟而後行 如史官傳批 亦詢政院 示不敢專也 首春下諭八路 勸農桑 百姓餓者 賑貸之 疾疫死者 收瘞之 每於諸路監司之辭去 輒召見勸勵 俾嚴黜陟 寒暑遣近侍 審獄放輕囚 宮墻頽圯 有潛入者 以無情而原之 刑曹據邀截公文律 論裂破書啓人罪至死 特以一罪不可用 比律減死焉 遇臣僚以禮待 宗親以恩 大臣歿 則必設次而哭 宗臣之喪 亦官庀喪葬 竝令仍給祿 以終三年 王弟 延齡君 田 蚤卒 王自製文以祭 有曰

呼之不應 漠漠無聲 已矣於世 空想形儀 居諸如流 卽山有期 衿陽一夕 月色千秋 實情到之辭也 肅宗 違豫積十數年 王侍湯憂灼 始終如一 嘗移御 慶德宮 王隨往 禮當祇迎坤殿 語宮官曰 聖候未寧 異於他時 我當先入面候 卽入闕問候 還出祇迎 倉卒周旋 允合情禮 左右相顧欽頌 及行幸溫泉 留王監國 王祇送于江頭 羽旄旣遠 猶竚立瞻望 隹憂形於外 都人觀者 皆嗟歎 庚子 肅宗 疾大漸 王涕泣皇皇 命禱廟社 山川 逮奉諱 禮官進嗣位節目 答曰 天崩罔極之中 乃見此 人子情理 豈忍是哉 百僚連日齋籲 始以上承慈教 勉許焉 王旣受寶踐阼 凡政令措施 一視代理時 而尤以開言路恤民隱 爲先務 至辛丑 王以未有嗣續 國勢孤危 冊封我殿下爲王世弟 所以重宗廟社稷也 世弟五上章固辭 王賜答慰諭 勉之曰 小心翼翼 勤勤孜孜 以副國人之望 時 王上奉 惠順 大(妣)[妃] 思盡養志之孝 景福堂 在 萬壽殿 舊基 王預爲之修營 不煩有司 易其扁曰 景福殿 及壬寅去喪 奉大妃移御 且欲一設宴上壽 而母妃不欲 則不敢強 徐復乘間言 屢而後得請 以至供獻之物 母妃念民力欲減 則亦承順行之 不久又開陳而復舊焉 嘗推老老之恩 民有高年者 必惠養而且賜之爵 麗 祖墓 儀物有缺 則命守臣改之 新羅 王廟 祀饗不虔 則官其孫奉之 祭 鄭夢周 之祠 錄 金宗瑞 之後 一日 王下教于政院曰 一自嗣位以後 觀朝臣之所爲 少無輔護國家之事 言念時事 不覺痛惋 仍命黜三司諸臣 奪將臣之符 遞相臣之職 竝行竄逐 俄而變書上 告將相謀不軌 王命有司 悉按驗誅討 嘗久旱 親禱社壇 却輦乘小輿 烈日下曝 侍臣迭諫 世弟亦懇請 終不聽 徹夜露禱罷還 仍坐殿錄囚 猶不雨 又禱于郊壇 得雨後已 翌年旱 又親禱于社壇 農壇 疏罪囚避正殿 減膳撤樂 至秋乃復 每謁太廟 雖雨雪不止 祧廟在後稍遠 而必步進 嘗於 孝寧殿 練祭改題主時 北向拱立 侍臣以時刻稍久 請俯伏不應 其敬謹如此 命立私親廟 定祝號 祭式 自王登極後 更來言追報事者

多涉越分 不惟不之採 輒斥遠之 及大臣禮官 裁酌而請之 乃從焉 王於爵賞 務慎惜 必遵舊例 罔及私昵 廟堂薦剡外 以三司擢承宣者 終王之世 亦不過若而人 王每以黨論爲深憂 凡章疏之涉於相排軋者 率以靜鎮爲務 略不示左右 嘗因旱求言 教曰 黨痼之禍 可勝言哉 甚至於一室之間 干戈相尋 噫嘻 情志之阻隔 胡至此極 卿等俱以世祿之臣 義同休戚 值此板蕩之秋 殫竭心力 夾輔王室 以慰祖宗陟降之靈 則乃祖乃先 必致悅豫 豈不竝受其福乎 廷臣相與言曰 承此教 而爲黨論 我卽匪人 王性沈重寡言笑 接待臣隣 顏色溫然 而望之自然有敬畏之心 尤嚴於隄防 近昵有不佞者 痛誅 絕不少饒 宮禁肅如也 停良家女選充宮人之令 革貢物人科外責應之弊 諸路菑荒 則蠲常稅 西邑凋弊 則減田租 發常平之藏 俾糶都民 捐籍罪之產 以填畿賦 凡諸司 各營置差設舖 射利害民者 一切罷去 命卿宰侍從 諸路使臣 薦進學行 才局 智略人 且以法久弊生 命輔臣商確 方欲大究軍民煩重之役 以盡其通變 而事未及就 甲辰七月感病 八月二十五日大棄群臣于 昌慶宮 之別殿 在位四年 春秋三十有七 德壽無徵 神理謬錯 嗚呼痛哉 我殿下攀號莫及 與小大臣 議王功德 謹上諡曰 德文翼武純仁宣孝 廟號曰 景宗 陵曰 懿陵 以是年十二月十六日乙酉 葬王于 楊州 冶南坐申向寅之原 卽新卜兆也 王妃 沈氏 贈領議政 青恩府院君 浩 之女 戊戌 以嬪薨 庚子追冊爲妃 繼妃 魚氏 領敦寧府事 咸原府院君 有龜 之女 嗚呼 王德宇渾厚 器度沈凝 在儲位三十一年 造詣已極高遠 而含晦章美 不見于外 處己應事 無大小無難易 渾然無聲跡之可尋 苟非深有得於涵養之工 何能及此 若不役志於外物 不嬰情於俗事 崇儉之德 懋實之政 在凡主固爲盛 於我大行 則尙其細者耳 嗚呼 惟我 肅宗大王 蚤夜憂勤 治定功成 躋一世於熙皞大猷之域者 殆五十年 此正平陂崇圮之會 而王以卓異之資 受精一之傳 善承謨烈 克紹志事 不言而教成 不動而化行 如風

之偃草 若雨之潤物 庶幾乎媿 周成 康 軼 漢 文 景 而不弔于天 盛業未究 此一邦臣民所以抱窮天之哀 而懷沒世之思者也 嗚呼 王深知我殿下聰明仁孝 有君人之度 早定位號 以係民望 入則相與問寢視膳 歡侍長樂 出則鳳輦在前 鶴駕在後 都人士女 填咽街巷 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 及至大漸之夕 自公卿百官 至輿僮下賤 莫不奔走悲號 如喪考妣 而其所恃而安然者 祇以元良豫建 神人有所托而然 在昔 宋 臣贊其君仁厚之德 以爲社稷長遠 終必賴之 今宗社有磐泰之安 寶祚綿億萬之期 使海隅含生 皆得以涵濡欣戴於仁化之初者 寔賴王光前垂後之盛烈洪休 夫豈仁厚一德所可倫擬也哉 嗚呼其盛矣 嗚呼其盛矣

議政府左議政 柳鳳輝 撰 行副司果 尹淳 書

5. 선의왕후의릉지

李宜顯, 《陶谷集》 卷8 應製錄 宣懿王后懿陵誌[庚戌]

上之六年庚戌六月二十九日丙寅 敬純王大妃 薨于慶德宮之魚藻堂 春秋二十有六 粵七日癸酉 有司用善聞周達溫柔聖善二法 上尊諡曰宣懿 上徽號曰孝仁惠穆 治方上於懿陵 厥既得卜 我殿下遂下御製行錄一通 命臣宜顯誌諸幽 臣辭不獲 拜手稽首 伏而讀之歎曰 我聖后至德 誠無間然而聖筆昭回 記載該悉 臣何敢猥有摸畫 謹稽行錄 后姓魚氏 系出咸從 遠祖化仁始顯麗朝 國初 直提學變甲有恬退節 傳至判中樞文孝公孝瞻, 戶曹判書襄肅公世恭 仍父子以勳德顯 三世而左參贊季瑄 又顯於明宣朝 高祖漢明 水運判官 贈左參贊 曾祖震翼 江原道觀察使 贈左贊成 祖史衡 漢城府右尹 贈領議政 寔生領敦寧府事咸原府院君有龜 娶海美縣監李夏蕃

女 中宗大王六世孫也 追封完陽府夫人 以肅宗三十一年乙酉十月二十九日己未 誕后于漢師崇教坊私第 將誕 府夫人夢見日月並懸壁上 覺而異之后自幼端重 不妄遊戲 動止自中規度 罕言笑 喜慍不形 常衣弊服 見人華飾 略無歆羨色 性孝順 七歲遭府夫人喪 躬參祭奠 哀痛如成人 稍長 每追思出涕 雖最爲府院君所鍾愛 未嘗有嬌惰之容 戊戌 端懿王后 以世子嬪早世 肅宗爲景廟 極遴名家賢淑 后初入闕 年甫十四 遇疾風暴雨 而凝坐無少變 上大奇之 睿簡遂定 乃册爲嬪 以九月十六日行嘉禮 后既膺册命 承事兩殿 愉色婉容 一心敬畏 肅廟嘗執手教曰 予知汝賢 他日恃汝多矣 又教曰 聞汝曾王母壽考多祉 願汝似之也 后退語左右 至於泣下 洎大喪 哀慕盡制 答藥院曰 梓宮一閉 更覩天顏 那可得也 臣僚莫不感動 待女御 恩施普洽 見有早喪父母者 顧撫有加 盖自傷其幼失慈顏而推及於下也 庚子 進位王妃 壬寅秋 備 禮册封 甲辰 景宗昇遐 今殿下嗣位 后又進位王大妃 丙午喪制闋 羣臣上尊號曰敬純 當景廟違豫時 證候浹四旬彌留 后殫誠救護 夙宵焦遑 創鉅之初 哀毀踰禮 自殯至啓攢 雖當祁寒 不離哭位 遂嬰痼疾 閱歲沈淹 竟至於今日 其源盖有繇焉 后每值景廟不諱之月 自朔日不御常膳 平日所嗜 終身不以近口 景廟幼被仁顯聖母慈育 誠孝篤至 后常追慕德懿 事無大小 必問聖母時規制而後行之 景宗既入廟 以故臣閔鎮厚配佑 后以聖母同氣也 特賜迎諡之需 亦所以深體景廟眷待意也 后含章自晦 不作聰明 而顧愛好文學 在別宮 受小學於府院君 誦貫如素習 肅廟嘗使讀而聽之 亟賞音韻之清朗 平居喜觀古賢妃嘉言美行 使府院君謄進孝經禮書詩經中可法者 常置座右 朝夕省覽 今聖上命入皇室者 寔遵后遺旨也 后雅尚儉約 斥去奢靡 嘗曰 吾家是素門 兄弟皆士子 婦宮樣粧飾 非其分也 絕不賜與 惟軫念民隱 祔廟後上壽東朝 卽國朝故事 而后以歲歉人飢 謙讓不受 久乃勉從 輒減常供停方物 以示節損 及喪 以

遺教 出素儲衣 櫛 補諸須 除尙方例進匹段 祭器用甲辰遺餘 毋令新造 其務簡省恤經費之意 嗚呼至哉 始景廟葬楊州之懿陵 后聞其左有穴可扞 謂府院君曰 吾必以是爲歸 今定于同岡 盖聖上不敢孤后當日意也 於是乎 神道人情 兩無憾矣 后葬爲申坐寅向 倣寧陵遺制 用上下穴 距本陵八十 尺許 陵號仍舊不改 以十月十九日午時 下玄宮焉 先是端懿后與后俱無育 景廟爲宗社大計 冊聖上爲嗣 不逞之類 若疏若筍 首尾相銜 繼而逆臣一 鏡 弼夢等 外結賊虎 內締妖豎逆婢 危 逼無不至 賴景廟友愛深摯 后扶 翊甚勤 陰計終未售 逆鏡又以不忍聞之兇言 騰之教文 播諸八方 誑惑人 心 甲辰大喪後 其徒又鼓煽醞釀 以成戊申之變 后益痛惋下教曰 世道若 此 做出窮兇叵測之言 此非但誣當宁 實所以蠹先王 可勝痛哉 可勝痛哉 嗚呼 當日之事 后實躬扶起居 手調藥飲 自始至終 靡有遺憾 乃后所親當 而深知者 此所以尤痛其架虛翊說 打破奸情 昭晰國誣者 而然苟非我聖后 卓識淵鑑 度越千古 則亦何以明諭聖意 垂揭後世 若是哉 及至今夏 兇逆 復起 情節益狼藉 則后又曰 此必戊申餘黨 豈料此賊至今如此 至有驚心 痛骨之教 上方親鞠嚴覈 必期悉除兇孽 以慰慈心 而長秋遽隔 徽音永闕 此聖上彌所哀恨者也 嗚呼痛哉 臣謹就聖製 排纘如右 而仍又竊念我聖后 詰範惠問 雖古彤史所載 殆無以過之 是宜受天保佑 享有菲祿 而顧自庚 子以後十餘年間 國運罔極 喪變洵仍 后於是涕淚爲日 積哀成疾 以致壽 筭之不永 天理之難諶 有如是夫 然而上念宗祔 危厲薰心 翼安聖嗣 潛銷 禍萌 兩宮之間 和氣融翕 及夫亂逆之猖 獗 又洞劈源委 辭嚴義正 其所 以痛兩宮之受蠹 夫辨於一言之間者 尤明白截峻 有足以鎮羣情而戢兇圖 則自此世道之維持 邦基之鞏固 將有賴於斯矣 其懿德徽烈 有非區區文字 所可形容其萬一者 此可以少慰臣民之至痛也歟 嗚呼盛哉

인릉(仁陵)

1. 연혁

능 주 : 순조[1790~1834]와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1789~1857]

위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지정번호 : 사적 제194호

봉릉연대 : 1835년(헌종 원년)

전릉연대 : 1856년(철종 7)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송파대로를 따라 성남방향으로 가다가 복정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서초구 세곡동 방향으로 향하다 보면 현인릉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넓직한 주차장을 뒤로 하고 능역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순조의 무덤인 인릉을 만날 수 있다.

인릉은 23대 순조대왕(재위 1800~1834)과 순원왕후 김씨(1789~1857)의



인릉 안내판

인릉 안내판

석(屏風石)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12간(間)의 난간석(欄干石)을 둘렀으며 능침 주위(陵寢 周圍)로 양석(羊石)과 마석(馬石) 각 2쌍을 교호 배치(交互 配置)하였고 능전(陵前)에는 상석(床石) 1좌와 그 좌우 양측(左右 兩側)에 망주석(望柱石) 1쌍을 세웠으며 그 밖으로 3면(面)의 곡장(曲牆)을 세웠다. 한 단 아래에 문인석(文人石)과 마석(馬石) 1쌍을 서로 마주보고 배치하고 중앙에 명등석(明燈石) 1좌를, 그 아래에 무인석(武人石)과 마석(馬石) 각 1쌍을 배치하였으며 상설(象設)은 단릉(單陵)의 형식이다. 문·무인석의 조각은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새겨져 섬세하고 아름답다. 능침 언덕 아래에 정자각(丁字閣)이 있으며 비각(碑閣)은 정자각 동쪽에 있고 비석(碑石) 2기가 있다. 구비(舊碑)는 비면(碑面)에 전서(篆書)로 조선국순조대왕인릉 순원왕후부좌(朝鮮國純祖大王仁陵純元王后附左)라 썼고 음기(陰記)가 있으며 철종(哲宗) 8년(1857)에 세운 것이고, 신비(新碑)는 비면(碑面)에 전서(篆書)로 대한순조

무덤이다. 순조는 11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나이가 어려서 왕대비인 정순왕후 김씨에게 정치를 돌보게 됨으로써 외척에 의한 정치가 극에 달하였고, 사회가 혼란했다.

인릉(仁陵)은 동원합봉(同原 合封)으로서 능침(陵寢)에 병풍



인릉 전경



인릉 정자각

숙황제인릉 순원숙왕후부좌(大韓純祖肅皇帝仁陵 純元肅王后附左)라 쓰고 음기(陰記)가 있으며 광무(光武) 4년(1900)에 세운 것이다.

정자각 남쪽에 참도가 시작되는 곳에 홍살문(紅箭門)이 있으며 홍살문 남쪽에 재실(齋室)이 있다. 재실

(齋室)은 능역(陵域)과 같은 국내(局內)에 있는 것인데 헌릉(獻陵) 인릉 재실(仁陵 齋室)은 능역(陵域)과 서로 떨어져 있는 바 이 재실(齋室)도 당초에는 능역(陵域)과 한 국내(局內)에 있었으나 그 중간부분(中間部分)이 6.25 이후 인근주민(隣近住民)들에 의하여 농지로 개간(開墾)된 후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에 의하여 경작자(耕作者)에게 분배처분(分配處分)됨으로써 서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3. 능주 소개

순조(純祖)는 정조(正祖)의 둘째 아들로써 정조 14년 (1790) 6월 18일 창경궁 집복헌(集福軒)에서 태어났다. 휘(諱)는 공(蚣)이고 자(字)는 공보(公寶)이며 호(號)는 순재(純齋)이다. 정조의 원자 문효세자(文孝世子)가 정조 10년(1786) 일찍 죽



인릉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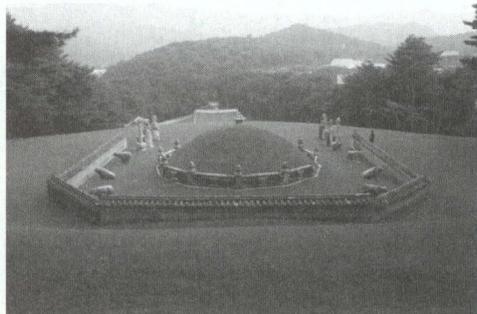


인릉 전경

으나 춘추 11세였으며 대왕대비(大王大妃)인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 金氏)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고 순조(純祖) 4년(1804년) 철렴(撤簾)하였다.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의 수렴청정이 있으면서 천주교 대탄압(天主教 大彈壓)이 있었으니 신유사옥(辛酉邪獄)과 을해박해(乙亥迫害)로 천주교인이 많이 처형되었으며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勢道政治)는 순조대(純祖代)에 이르러 극성(極盛)하였으니 척신(戚臣)에 의한 전단(專斷)으로 과거제도문란(科擧制度紊亂), 매관매직(賣官賣職)이 성행하여 국가기강(國家紀綱)이 추락(墜落)하고 사회가 혼란하여진데다가 잦은 수재(水災)와 전염병의 창궐(猖獗)로 민생이 극도로 피해를하였으며 민란이 빈발하여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나는 등 국정(國定)이 암담(暗澹)하였으나 호학(好學)의 주(主)였던 순조(純祖)는 《순재고(純齋高考)》를 친술(親述)하였으며, 《양현전심록(養賢傳心錄)》, 《동문회고(同文彙考)》, 《대학류의(大學類義)》, 《서운관지(書雲觀志)》, 《정조

자 정조 24년(1800) 2월 2일 왕세자(王世子)로 책봉되었으며 사친(私親)은 가순궁 수빈 박씨(嘉順宮 綏嬪 朴氏)이다.

정조 24년(1800) 6월 28일 정조가 승하함에 이 해 7월 4일 창덕궁 인정문(昌德宮 仁政門)에서 즉위하였



뒤에서 바라 본 인릉 전경

어정홍재전서(正祖御定弘齋全書)》를 간행하였다.

순조(純祖) 34년(1834) 11월 13일 경희궁(慶熙宮) 회상전(會祥殿)에서 승하하니 재위 34년이고 춘추 45세였다. 헌종(憲宗) 즉위년(1834) 11월 19일 능포(陵號)를 인릉(仁陵)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순종(純宗)이라 하였다가 광무(光武) 3년(1899) 12월 19일 순조(純祖)로 고치고 제호(帝號)를 숙황제(肅皇帝)로 추상(追上)하였다. 헌종(憲宗) 원년(1835) 4월 19일 경기도 교하군 인조의 장릉 좌측(長陵 左側) 산줄기 을좌신향(乙坐辛向)(동에서 서향) 언덕에 예장(禮葬)하였다. 능지불길론(陵地不吉論)으로 철종(哲宗) 7년(1856) 10월 11일 현릉 우강(獻陵 右岡)의 자좌오향(子坐午向 ; 정북에서 정남향) 언덕에 전릉(遷陵)하였다.

한편 순조(純祖)의 비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金氏)는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영돈녕부사 영안부원군 김조순(金祖淳)의 딸로 정조 13년(1789) 5월 15일 한성부 서부 양생방(養生坊) 사제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청양부부인(靑陽府夫人) 심씨(沈氏)다.

순조(純祖) 2년(1802) 10월 13일 왕비로 책봉되고 헌종 즉위년(1834) 11월 18일 왕대비(王大妃)로 봉하여졌고 이튿날인 19일 헌종(憲宗)의 부(父)이며 순조(純祖)의 원자(元子)였던 효명세자(孝明世子)가 문조(文祖)로 추존(追尊)됨에 대왕대비(大王大妃)로 진호(進號)되었다.

순원왕후(純元王后)는 헌종(憲宗), 즉위년부터 수렴청정을 하다가 헌종이 후사없이 헌종 15년(1849) 6월 6일 승하함에 장조(莊祖)의 손이며 은언군(恩彦君) 인의 아들인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의 셋째 아들로 하여금 대통(大統)을 잇게 하였으니 바로 철종(哲宗)이다. 철종이 즉위함에 다시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철종 2년(1851) 12월 28일 철렴(撤簾)하였다. 철종 8년(1857) 8월 4일 창덕궁(昌德宮) 양심각(養心閣)에서 승하하니 춘추 69세였다. 이 해 8월

10일 시호(諡號)를 순원(純元)이라 하고 능호를 문릉(文陵)으로 정하였다가 인릉(仁陵)에 합장하기로 함에 따라 새 능호는 쓰지 아니하였다. 이 해 12월 17일 순조 인릉에 합장하였으며 광무(光武) 3년(1899) 12월 19일 시호(諡號)를 숙황후(肅皇后)로 추상(追上)하였다.

4. 인릉표석음기

遷陵碑文

純宗淵德顯道景仁純禧體聖凝命欽光錫慶繼天配極隆元敦休文安武靖憲敬成孝大王 崇禎 紀元後一百六十三年庚戌六月十八日 誕生 庚申二月册封王世子 是年七月卽位 甲午十一月十三日昇遐 乙未四月十九日葬于交河 舊治後乙坐原 在位三十四年 壽四十五 憲宗十四年戊申 追上尊號體聖凝命欽光錫慶 今上四年癸丑 追上尊號 繼天配極隆元敦休 丙辰十月十一日 遷奉于廣州獻陵右岡子坐之原 【領中樞府事 鄭元容 製】

5. 인릉지

《純祖實錄》附錄

惟我 淵德顯道景仁純禧大王 在宥三十四年 久道化成 百寮奉職 各守其位 萬姓樂業 各安其生 以至跣喙肖螟 蠢動含氣之倫 無不各得其所 仁聲仁聞 洋溢八域 臣民不祿 以甲午十一月初六日 有疾不豫 十三日甲戌

禮陟于 慶熙宮 之 會祥殿 春秋四十有五 近自王宮國都 遠而深山窮谷 莫不悲號哭踊 如喪之慟 無間中外 苟非盛德至善入人之深 何以致此 嗚呼 盛矣 嗚呼 慟矣 大臣率百官 謹上尊諡曰 文安武靖憲敬成孝 廟號曰 純宗 以乙未四月十九日戊申 大葬于 交河之仁陵 坐乙原 禮也 今上殿下 命臣以幽宮之誌 臣忉恐戰越 惟懼不稱 敢撰次如左 謹按王姓李氏 諱 玠 字 公寶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之子 母妃 睿敬慈粹孝懿王后金氏 清原府院君 靖翼公 時默 女也 綏賓朴氏 是實生王 而 孝懿后 以 正宗 命 取而子之 定號元子 綏嬪 贈領議政 忠獻公 準源之女也 先是 文孝世子 卒 正宗 深以儲嗣爲憂 及己酉秋 宮人夢飛龍之祥 既而 綏嬪 有娠 視瞻清炯 神彩異常 宮中上下 皆以爲大慶之兆 庚戌六月十八日 王誕生 彩虹亘于廟井 神光繞於宮林 正廟 就而視之曰 是兒福祿 非吾所及也 王自在孩提 聰明絕人 甫二歲冬至 正廟 賜以新曆 蓋喜王之將添齡也 王時自抱中 受而披覽 仍拈書屏上同文而指之 左右莫不聳異 稍長 益敬畏 父王 雖尋常娛嬉之事 父王所不欲爲 卽不敢爲 未嘗違拂 事殿宮無間然而於 孝懿后 敬愛尤著 正廟 亟稱之 庚申春 冊封王世子 行冠禮 六月 正宗 昇遐 王沖齡嗣服 諒闇之制 已如成人 群臣之進見者 語及先王 必 泣然流涕 失聲掩抑 國人服其至孝焉 時 貞純后 垂簾同聽政 事無大小 王一皆稟決 罔敢或專也 初 正廟 之在春邸也 戚臣 金龜柱 之從叔 漢祿者 爲 龜柱 陰募死黨 將謀危國本 引 胡寅 論 唐 中宗 時事 其言絕悖 正廟 雖燭其逆節 以事關聖躬 貸而不問 及王新遭大喪 主勢孤危 群凶餘孽 乘時益張 脅持壅蔽 至賊臣 權裕 之疏 而其計又欲沮敗 先王已定之大婚 老臣忠愛之語 發於前席 三揀不爲之說 行於一世 禍將滔天 聞者寒心 賴 貞純后 聖明 炳幾折奸 力扶大綱 遂以壬戌冬 行嘉禮 宗社得以復安 自王之親總萬幾 厥淑慝而辨忠逆 甲子首施 裕 逆律 營護凶賊 目無

君母者 舉國之罪人也 追削 沈煥之 官爵 公肆矯誣 恣間兩宮者 慈聖之罪人也 竄 洪在敏 于海島 干犯先王義理 凌逼莫嚴者 三朝之罪人也 賜金達淳 死爲奸凶窩主 上下四五十年 本乎 龜祿之凶圖 接以 煥裕之逆案 陷一世於夷狄禽獸之域者 金鍾秀 爲之魁 實萬世之罪人也 丁卯 追施逆律 黜庭享 龜柱漢祿 竝與其徒黨支屬 各以其罪罪之 於是乎天討大行 國是乃定 有所謂西洋學者 自北而來 黷倫敗教 流染傳習 人多註誤 遂亟施誅 鋤闢之廓如 此乃王衛道斥邪之大政 而 龜祿之徒藉其事 構殺 惠慶宮之弟 洪樂任 竝及廢宗 裊 裊之妻與其子 湛之妻 非王之意也 後王 卒復 洪樂任 官 出 裊之諸子女于島 爲之置第而嫁娶之 王以冲年失怙 至慟在心 奉 貞純后 孝懿后 惠慶宮 極容色之愛 盡志物之養 洞屬如不及 定省以時 寒暑無曠 有故輒使內豎問起居 見其還然後乃安也 己巳 王世子生 陳賀于殿宮 因相臣建白 進號 綏嬪 爲邸下尊奉 視 惠慶宮 儀節 乙亥 惠慶宮 薨逝 廷臣多以服制爲疑 王 追惟所生 博採古禮 定爲大功之制而服之 辛巳 孝懿后 上賓 王哀慕如庚申 因領敦寧府事 金祖淳 言 移奉 健陵 而合祔焉 壬午 綏嬪 卒逝 王 用大臣諸臣議 服緦麻三月 旣除 御素衣冠以終三年也 王 事天奉先 尤致敬謹 所御寢室 雖暑必令閉戶 未敢對天而臥 語及日月風雨 必致尊而無慢 迅雷肅然 改容必整襟拱手坐而待止 凡大小災異 飭中外無得諱而不聞 輒求助而消弭之 宗廟享祀 必躬將潔粢盛 眡滌漑 憧憧粥粥也 春秋 必祗謁寢園 歲以爲常 有自燕肆購 皇清通考而來 所載本朝辛丑四大臣事 誣巖不忍言 王大驚惑 亟遣使辨正刊去誣奏句語 使還 告于廟 國制 舊有宮寺臧獲 籍于案 而世其貢爲民切骨之冤 或以先王遺意爲言 王 卽命火其券 撤壯營之巨費 以還大農 減藥院之別供 俾紓諸道 癸亥夏關西關北災 冬 江華 饑 出內府之藏 停本道之入 己巳 兩湖大饑 命道臣 蠲欠逋寬租賦 辛巳 沴癘大熾 死亡相續 而關西尤甚

遣近臣禳于境內 壬辰 大水 特行疏決 宥者屢十百人 自是 凡大侵之年 極備之災 輒宵旰憂勤 曲加優恤 盛暑祁寒 必出滯囚 軫凍餒 至于末年 未嘗或廢 辛未關西土寇起 殺長吏 陷七郡 王 遣兵討誅之 官吏之死事者 旌褒而錄其孤 民人之誘脅者 肆赦而復其業 飭守令勞徠安集 不朞年而民 忘其亂 王 慎惜名器 一切官職 罔或濫授 而尤敬禮大臣 每當甌卜 必整 衣冠端坐 而書其姓名 其晉接也 雖甚病 不以褻服對之 禮貌必謹也 丁亥 命王世子代理軍國大事 自決之 遵國朝故事也 是秋 世子上王尊號 淵德 顯道景仁純禧 王妃尊號 明敬 庚寅 世子薨 冊元孫爲王世孫 王 勉抑至 情 復親機務 而壬辰 兩公主又相繼夭逝 王雖不以疚感 見於色 榮衛內鑠 恒忽忽如無樂 竟以无妄 大棄群臣 天乎 慟哉 以王大德 必得其報 而壽 止中身 理難諶斯 然聲教被於當時 光烈垂於後世 親賢樂利 生榮死哀 於 戲 不忘之思 將與天壤而俱已 又何盛也 廷臣議王功德 宜百世祀 遂尊爲 世室焉 王妃 金氏 籍 安東 永安府院君 忠文公 祖淳 之女 誕二男三女 男長 孝明世子 今上卽位 追尊爲 翼宗大王 次夭逝 女長 明溫公主 下嫁 東寧尉 金賢根 次 福溫公主 下嫁 昌寧尉 金炳疇 俱蚤卒無育 次 德溫 公主 未笄 淑儀 朴氏 生 永溫翁主 亦夭 翼宗 妃 趙氏 豐恩府院君 萬 永 女 誕今上殿下 王姿表特異 廣額隆準 方口重頤 龍顏渥丹 體相豐偉 望之儼然有威而可畏也 卽之藹然有德而可親也 天性孝友 恭儉敦重 仁恕 不以事物經心 燕居常終日危坐 罕與人接 耽蹟墳典 於書無所不覽 過目 輒記 以至典章儀文 無不默識而該貫 奎藻宸翰 皆臻其妙 而退然不以自 居 專意經傳 心究體驗 務求實用 故王之學 一以誠信爲本 不喜赫赫之譽 矯矯之行 而三紀之間 治化熙洽 民受其賜者 實基於此 中年 惟 綏嬪 在 世 王事之采謹 必先意順志 曲盡其歡 綏嬪 每致膳於王 雖適不欲 必下 箸嘗之 雖數亦然 綏嬪 嘗處 養心閣 爲其近於王所 及卒 王每獨立凝望

玉色淒然 若有所覲而不得也 當食輒停箸不御曰 ‘食不下咽’ 聞者爲之感動泣下 淑善主 王之妹也 撫愛尤篤 其下嫁也 在外邸三日 王大以爲悵其還也 迎勞如遠別 及出閣 以不得源源相見爲恨 問遺無闕日 所言必從 所求必副 聞其入宮 必指期而待 喜見於色 觀者感服 素不喜芬華 自奉甚淡泊 服御無錦綺之飾 盤膳絕奇 袞之品 布帛之文 菽粟之味 處之晏如 玩好之物 悉屏去不留日 用此何爲 徒喪人心志耳 宮室之狹陋者 未嘗拓而新之曰 不過容膝 何用侈大爲也 至於櫛衾帷帳之屬 皆令澣濯而補綴之 宮中嘗進一半臂紋緞也 王笑曰 此果好乎 受而御之 經宿卽解而不復進也 臨朝淵默 儀容肅穆 群下不敢仰視 及其對人而接物也 溫粹謙和 無滿假矜莊之色 朝臣進言 必虛懷聽納 善則取之 用之 不善則舍之 未或以聲色威罰 加諸倉卒 故人莫不輸其衷誠 尤重民事 周知稼穡之艱難 故每御常膳 必貌而對 有遺粒則必命拾取曰 民之所以爲天者 豈可忽也 常曰 財賦出於民 以奉上不可以私意 濫費府庫之積 將以有待也 又不可以當而不出 故終王之世 絕營作慎 賜與 勸課農桑 愛養民力 而遇有水旱盜賊饑饉癘疫 輒蠲蕩賑貸 傾帑而不惜也 約以持身 寬以御下 不遷怒不貳過 舍已取人 從善如流 未嘗以作爲害事 故教告簡易而易知 政令純一而無雜 迄于季年 朝野寧謐 用心至仁 雖蟲豸之微 惟恐其或傷 見人有老者 雖卑必優視之 又以爲刑辟者 人之死生係焉 欽恤哀矜 出於至誠 未有無辜而橫罹者也 竊嘗論之 自古懿君哲辟 代不絕書 而不雜乎王霸 不眩於利義者 蓋鮮矣 惟我大行大王 以天縱之姿 接前聖之統 治法政謨 粹然一出於正 堯舜之則大無爲 巍蕩難名 禹湯之克勤克儉 不邇不殖 文武之德之純 善繼善述 王實兼有之而不與焉 嗚呼 其至矣 傳曰 君子之道 本諸身 徵諸庶民 考諸三王而不繆 王之謂乎 臣以肺腑之餘蔭 托日月之末光 親炙薰陶 二十餘年 其得於耳目者 固難殫述 而今於狀德之文 華而不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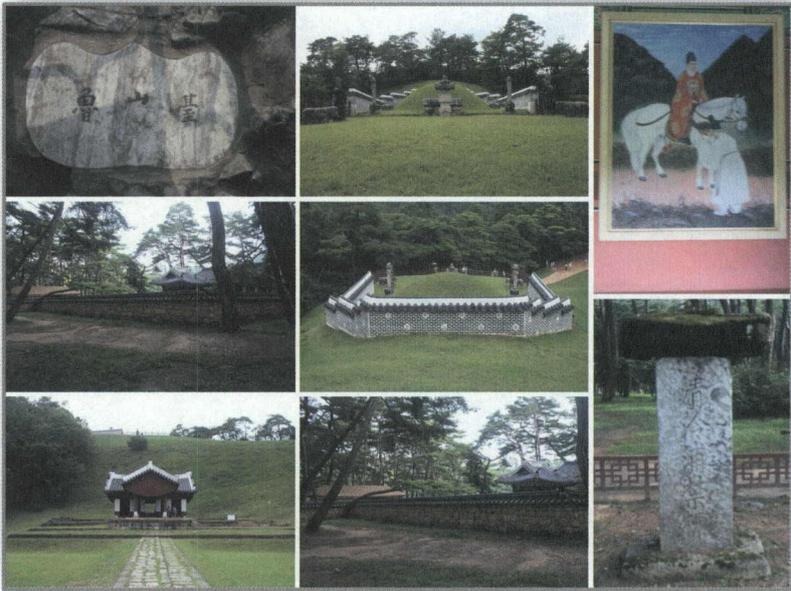
溢而不衷 則不但後世之無以徵信 抑亦有違於平日謙光之至德 謹撮其大概 寧約無濫云 爾 【弘文館提學 金迫根 製】

6. 천릉지문

《純祖實錄》附錄

今上六年 議 仁陵 舉下禮 始命遍相畿甸近遠 既又上躬審西至于 禧陵 東北 至于 光陵 之 達摩洞 而粵明年丙辰 至于 獻陵 卜得吉於右岡子坐原 十月四日戊子 啓戟塗 十一日乙未 克襄惟儀 幽誌用舊貫 命只錄甲午以後事實 以附識之 遵 寧陵 古事也 嗚呼 今距登遐二十有三年矣 而百官三軍 萬黎獻於戲不忘之思 如一日焉 厥衛戒壻 復臨灤水之朝 小大號 遑 若喪之初 仁心仁聞 入人之深者 是豈可襲而取哉 昔在辛酉 金龜柱漢祿之黨 謂王冲辟 竊政枋構 恩彥君 之禍 至又誣奏彼中 及壬午 莊獻世子 薨逝 舊甲之回也 王 謁于寢園 下旨全釋一家之在沁都者 而辭旨惻怛 讀者無不流涕 己酉 憲宗 薨無嗣 今上殿下 以 恩彥君 之孫 全溪大院君 之第三子 入承大統 寔 莊獻世子 曾孫 英宗大王 血禪也 豈非天哉 而今上庚戌 專价卞晰 辛酉誣奏得準 此前誌所未及載 謹述之如此 朱子 曰 事皆合義 自反常直 周子 曰 性焉安焉之謂 聖莫知其然之謂神 是謂大順而大化也 况放勛時雍 自以親既睦而權輿之者乎 嗚呼 王於此 其兼總而條貫之矣 誕二男三女 德溫公主 以甲午後 下嫁 南寧尉尹宜善 早卒無育 憲宗 戊申 追上尊號曰 體聖疑命欽光錫慶 今上癸丑 追上尊號曰 繼天配極隆元敦休 憲宗 初聘 金氏 領敦寧 永興府院君 祖根 女 再聘 洪氏 領敦寧 益豐府院君 在龍 女 今上聘 金氏 領敦寧 永恩府院君 汶根 女 【判中樞府事 金左根 製】

영월군



장릉(莊陵)

1. 연혁

능 주 : 단종(端宗)[1441~1457]

위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지정번호 : 사적 제196호

봉릉연대 : 1516년 1698년

전릉연대 :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장릉은 조선 6대 단종(재위 1452~1455)의 무덤이다.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충신들이 그를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계획이 밝혀져 영월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단종이 죽자 후환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영월호장 엄홍도가 장사를 지냈다. 중종 이후 조정에서 단종에 대한 제사와 무덤에 대한



장릉 정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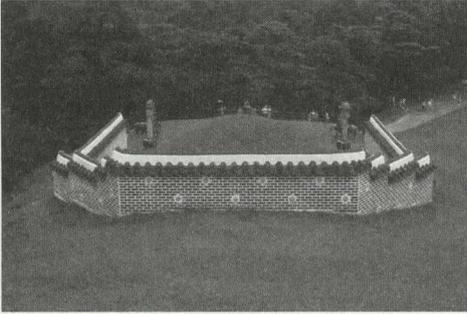
무덤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우지 않았다. 능의 양식은 간단하고 작은 후릉의 양식을 따랐으므로 석물은 왜소하면서도 간단한 편이다. 명릉이라 만들어진 사각지붕형의 등인 장명등은 장릉에서 첫선을 보이게 된다. 특히 장릉은 무덤 제도에 의해 정해진 것 외에 단종에게 충절을 다한 신하들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배식단사를 설치하였다. 정려비·기적비·정자 등이 있는 곳은 이곳 뿐이며, 모두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한 단종과 관련된 것들이다.



장릉 원경

3. 능주 소개

단종(端宗)은 문종(文宗)의 원자(元子)로서 세종(世宗) 23년(1441) 7월 23일 경복궁 자선당(景福宮 資善堂)에서 탄생하였으며 휘(諱)가 홍위(弘曄)이고 모후(母后)는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 權氏)이며 모후 권씨(母后 權氏)는



뒤에서 바라 본 장릉

단종 탄생 익일(端宗 誕生 翌日)에 산후병(産後病)으로 승하하였다. 세종 30년(1448년) 4월 3일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冊封)되었으며 문종 즉위년(1450) 7월 20일 왕세자(王世子)로 책봉되었고 문종(文宗) 2년(1452) 5월 14일 문종이 승하함에, 이 해 5월 18일

경복궁 근정문(景福宮 勤政門)에서 즉위하였으니 춘추 12세였다.

문종이 임종에 앞서 단종(端宗)의 유충(幼冲)함을 염려하여 영의정 황보인(黃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에 보좌(補佐)를 유언으로 남겼으나 고명대신 등이 단종 원년(1453) 10월 10일 계유정란(癸酉靖亂)으로 피살되고 문종의 아우이며 왕숙(王叔)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영의정이 되어 군국대사(軍國大事)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였고 수양은 아우인 안평대군(安平大君)이 고명대신과 불궤(不軌)를 꾀하였다 하여 강화도(江華島)로 추방하고 단종(端宗) 3년(1455) 윤6월 11일 역시 아우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역모(逆謀)의 죄로 종친(宗親), 궁인(宮人), 시신(侍臣)과 함께 유배시키자 단종(端宗)은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선양(禪讓)하고 상왕(上王)이 되어 수강궁(壽康宮)으로 이어(移御)하였다.

세조 3년(1457) 9월 순흥(順興)에 유배(流配)되었던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단종비(端宗妃)



단종 유배 그림



청령포의 단종 유배지

의 부 송현수(宋珪壽)와의 단종복위계책(端宗復位計策)이 발각되자 노산군(魯山君)은 폐서인(廢庶人)이 되었고 이 해 10월 24일 사사(賜死)되었으니 춘추 17세였다.

단종(端宗)의 유해는 동강(東江)에 흘렸는데 영월호장(寧越戶長) 엄흥도(嚴興道)가 국법(國法)

을 어기고 어시(御屍)를 수습(收拾)하여 발산 동을지 신좌을향(鉢山 冬乙旨 辛坐乙向) ; 남서에서 북동향)에 밀장(密葬)하였으며 중종(中宗) 11년(1516)에 노산묘(魯山墓)를 찾으라는 왕명(王命)이 있었고 고노호장 엄수(故老戶長 嚴壽), 양인 지무작(良人 智無作), 관노 이말산 등(官奴 李末山 等)의 진언(進言)으로 이 해 12월 15일 성분(成墳)하였으나 다시 방치(放置)되었고 중종(中宗) 36년(1541) 당시 영월군수 박충원(寧越郡守 朴忠元)이 현몽(顯夢)에 따라 노산묘(魯山墓)를 찾고 묘소(墓所)를 수축 봉제(收縮 奉祭)하였다. 선조(先祖) 13년(1580) 강원감사 정철(江原監司 鄭澈)의 상계(狀啓)에 따라 상석(床石), 표석(標石), 장명등(長明燈), 망주석(望柱石)을 세웠다.

임란(壬亂) 이후 봉묘치제(奉墓致祭)가 다시 소홀해졌으며 숙종(肅宗) 7년(1681) 7월 21일 노산군(魯山君)을 노산대군(魯山大君)으로 추봉(追封)하였고 숙종(肅宗) 24년(1698) 11월 6일 추복(追復)하여 묘호(廟號)를 단종(端宗)으로 하고 중



단종 유배지 청령포 표석



청령포에 있는 노산대

묘 영녕전(宗廟 永寧殿)에 부묘하였으며 능호(陵號)를 장릉(莊陵)이라 하였다. 단종(端宗)이 승하(昇遐)한지 241년 만에 변례(變禮)를 버리고 왕실(王室)의 정례(正禮)를 되찾게 된 것이다.

곡장(曲墻)은 3면(面)이고 병풍석(屏風石)과 난간석(欄干石)은 세우지 아니하였다. 숙종(肅宗) 24년(1698) 11월 단종(端宗)의 묘호(廟號)와 능호(陵號)를 추복(追復)하면서 능상(陵上)의 석물(石物)들은 후릉(厚陵)의 예를 본받아 행하라는 교지(校旨)에 따른 것이며 능전(陵前)에 상석(床石)이 1좌가 있고 그 좌우에 망주석 1쌍이 있다. 그 한 단 아래에 사각옥형 명등석 1좌(四角屋形 明燈石 1座)와 문인석(文人石)과 마석 각 1쌍(馬石 各 1雙)이 서로 마주보고 설치되어 있고 무인석(武人石)은 없다. 이는 추봉(追封)된 경릉(敬陵)이나 정릉(貞陵)의 예에 의한 것이며 사각옥형 명등석(四角屋形 明燈石)은 정릉(貞陵)에 이어 장릉(莊陵)에서 시작된다.

능침(陵寢) 언덕 아래 남측에 정자각(丁字閣)이 있으며 정자각(丁字閣)은 능침좌향(陵寢左向)과 같은 방위로 세우는 것이나 장릉(莊陵)은 능침좌향이 서남에서 동북향인데 비하여 정자각(丁字閣)은 남향으로 건립되었으니 이는 단종(端宗)이 사사(賜死)된 후 엄흥도(嚴興道)에 의하여 암장(暗葬)되었다가 숙종(肅宗) 24년(1698) 추복(追復)되고 영조(英祖) 9년(1733)에 정자각(丁字閣)을 건립된 것이다. 비면(碑面)엔 조선국단종대왕장릉(朝鮮國端宗大王莊陵)이라 썼고 음기(陰記)가 있으며 영조(英祖) 9년(1733)에 세운 것이다. 정자각 서남방에 영천(靈泉)이 있으며 장릉 봉제시 사용되었고 영천비(靈泉碑)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으며 정조(正祖) 15년(1791)에 세운 것이다.

정자각 남측(丁字閣 南側)에 홍살문(紅箭門)이 있으며 홍살문 남측(紅箭門 南側)에 단종(端宗)을 위하여 순사(殉死)한 충신들을 봉제(奉祭)하는 배식단(配食壇)에 봉향(奉享)되는 충신위 32인(忠臣位 32人), 조사위 198인(朝士位 198人), 환관군노 28인(宦官軍奴 28人), 여인위 6인(女人位 6人) 모두 264인의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한 배식단사(配食壇祠)가 있으며 정조(正祖) 15년(1791) 2월 정조(正祖)의 교지에 따라 당시 영월부사 박기정(朴基正)이 건립한 것이다.

홍살문(紅箭門)에서 장릉 주차장에 이르는 도로 북측(道路 北側)에 재실(齋室)이 있으며 배식단사(配食壇祠)와 재실 중간에 엄흥도 정려각(嚴興道旌閭閣)이 있다. 영조(英祖) 2년(1726) 엄흥도(嚴興道)를 정려(旌閭)하고 정조(正祖) 16년(1792)에 정려비(旌閭碑)와 비각(碑閣)을 영월읍 영흥리(寧越邑 永興里)에 세웠는데 영월 도시계획도로(寧越 都市計劃道路)에 편입되어 1969년 5월 이곳에 이진되었으며 주차장 북측(停車場 北側)에 낙촌비각(駱村碑閣)과 낙촌기적비(駱村紀蹟碑)가 있다. 낙촌(駱村)은 문경공 박충원(文景公 朴忠元)의 호(號)로서 박충원(朴忠元)이 중종(中宗) 36년(1541) 영월군수(寧越郡守)로 부임하여 현몽(顯夢)으로 노산묘(魯山墓)를 찾아 수축 봉제(修築 奉祭)한 사적(事蹟)을 기록하였으며 1973년 4월 박충원(朴忠元)의 후손들이 세운 것이다. 낙촌비각 동남측(駱村碑閣 東南側)에 배견정(拜鵞亭)이 있으며 정조(正祖) 16년(1792)에 영월부사 박기정(寧越府使 朴基正)이 건립한 것이다.

능역내(陵域內)에 능제(陵制)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외에 배식단사(配食壇祠), 정려비(旌閭碑), 기적비(紀蹟碑), 정자(亭子)가 있는 곳은 장릉(莊陵) 뿐이며 왕위(王位)를 찬탈(篡奪)당하고 사사(賜死)된 단종(端宗)과 관련된 것들이다.

4. 장릉관련기사

趙旅, 《漁溪先生集》卷3, 附錄 魯陵事實

世祖大王[三年] 丁丑正月 上王出居錦城大君瑜家 大月二十八日 降封上王爲魯山君 安置于寧越郡西江清泠浦 尋移寓於客舍東軒 安置錦城大君子順興府 錦城大君與順興府使李甫欽 謀復魯山君 每相對 慷慨流涕 潛結南中士人 一日 錦城召甫欽 辟左右使草檄 將發順興兵及南中與議者 迎魯山君以踰嶺 官奴爲吸唱者 潛匿壁中而聽之 仍交錦城宮侍女 竊其檄文 奔走東京 時基川今豐基縣監者聞其事 替騎三四馬疾逐之 奪其檄 先入京上變 遂得大功 錦城, 甫欽皆被死 南中士人 死者亦多 漢南君瓔 永豐君璟 寧陽尉鄭棕等 皆坐瑜黨 安置禁錮 十月 命賜魯山君死 禁府都事奉藥到寧越 蹶蹶不敢入 拿將以時刻之遲誤 立而頓足 都事不得已入伏庭中 魯山君俱翼蟬冠 龍袞袍 出御堂中間所以 都事無以答 有一貢生常侍魯山君者 請自當之 以一條弓弦 繫頸而絕 時年十七歲 是月二十四日酉時也 貢生 九竅流血斃 侍女從人 多投江 浮屍滿江 雷雨大作 列風拔木 黑霧彌空 鎮撫來莅 暴魯山君戶於外 邑宰從人 莫敢收斂 郡首吏嚴興道往來獄街哭泣 修棺營葬 興道族黨 懼有禍爭止之 興道曰 爲善被禍 吾所甘心 卽葬于郡北五里許冬乙旨向東之原 [參例服喪之人 亦或有焉]

尹鑑, 《白湖先生文集》卷10, 疏 請復魯陵疏[己未正月二十日]

伏以天時有變動之運 人事有反經之道 此天下事變之不一 而聖人所以處之者 未嘗失其經常之道者也 嗚乎 乃者景泰年間 我文宗大王 以世宗大王之冢嫡 嗣承寶位 魯山君又以文宗大王之世嫡而踐阼 此天下之大經也

不幸幼冲負屨 天步艱難國勢危疑 我世祖大王 不能不撥亂行權 由九四而升九五 以應天人之會 此則天運之變 不容人力者也 以故魯山君 始遜位于昌德宮 居上王之尊 中罹變故 遷于寧越 鬼神助禍 卒以至於大泯其位號 此乃人事之極變 而天心之未嘗不怫鬱 於是者也 當時之已事 鬼神暗鳴 魯陵之松柏 過者流涕 千載之下 固應有游談者之指議而咨嗟者焉 臣以爲殿下初承寶位 釐正大禮 斥遠邪說 以尊宗廟 以述先王之志 至孝也 今若追復魯山君位號徽稱 而入耐永永祖宗之祧廟 俾受臣民永世之享 墳土之蕪穢者 亦爲之修治 置園號 俾有父老之瞻敬 于以慰祖宗之靈 以承皇天之心 以副兆民之望 又豈非正經處變 順天協民 光祖宗保子孫之大孝至德乎 鄉者我太宗大王妃神德王后 以太祖大王適配 首膺天朝誥冊之命 正位中壺 禮陟配天 而一時臣子 不能修舉陞祔之大禮 幾三百年于茲 逮我顯宗大王 因萬人一口之公論 舉先王未遑之大典 此實我顯考盛德大業垂之百世者也 今我主上殿下踐先王之位而行先王之禮 克舉是禮于二百年之後 又豈非文子文孫善繼善述克肖克類者乎 臣竊伏聞 世祖大王之訓世子有之曰 我當屯而汝當泰 若局於吾迹而不知變通 則非所以順吾之志也 事有可行時 有不可行時 豈可泥於前事而不知變通哉 又曰 當代之亂臣 卽後代之忠臣 旨哉其經世圖遠 詔告 子孫之大慮微言也 以是之故 我中宗大王 復昭陵而遷祔之 宣祖大王 訪魯墳而封植之 至于孝宗大王暨顯宗大王 又爲之遣官致祭 加禮益虔焉 嗚乎 以世祖之子孫 而列聖之因時通變 虔恭昭事 無嫌於前事 不局於往跡 若是者 乃所以忠孝我世祖大王 而益修孝子慈孫之職 以體世祖大王當日詔告百世子孫之心也 猗歟休哉 在我中朝 建文皇帝以太祖皇帝世嫡而承大統 及太宗皇帝由燕邸靖亂而有革除之事 及後論議之定 追上讓皇帝之號 天下宜之 又悉復建文 死難臣方孝孺等官爵而表章之以伸九泉之冤 今我魯山君之事 亦與此無異也 而天朝

之盛舉 豈非我國之所可準則者乎 至如當時被罪臣金宗瑞 皇甫仁 成三問等 亦宜追復官爵 表節愍忠 如方孝孺之例 以爲臣子之勸 以示來者 傳曰 民所歌舞之 必佑之 若我今日 能順斯民之願 體祖宗之心 而舉前代之未遑 則天人有不應之理 鬼神有悔禍之心 祖宗在天之靈 亦必悅豫於冥冥之中 而降祥錫福 子孫逢吉 年時充美 物無疵癘 未必不由是而始矣 昔漢鄧禹從光武于河北而勸之曰 明公欲 中興帝室 必能行人所不能行 用能啓發主衷 克就大業 美哉斯言也 今臣生逢聖明 蒙被恩遇 亦不能不以鄧生之言 望於聖上 惟聖上於斯深留聖意 亟賜處分 咨詢大臣儒臣而斷然行之 實宗社無疆之休 爲今日祈天永命之基 雖成湯之肇修人紀 周武之再紘彝倫 亦無以過此 而永有辭於天下後世矣 臣抱此耿耿 欲一吐之 黈纆之下者 久矣 顧以聖上方居諒闇 繼多違豫之日 臣又去國在外 吞聲未徹 以至今日 深恐衰老已甚 餘年無幾 終不能一言於未死之前 永負臣子之責 所以忘 其僭越 敢卒言之如此 向日筵中所白 臣當繼有仰陳者此也 臣誠惶誠恐 頓首頓首 伏願聖上寬其斧鉞而察其惴惴焉

貼黃

臣既成此疏 人或以爲魯山君既失其位號 今不可追復 臣以爲不然 自古禪讓之時 帝王固有失其位號者 然既歿之後 則亦無不復其位號而葬之以禮 歷代皆然 先儒以爲猶有忠厚之道焉 異代尚然 況於當代祖宗之乾胤乎 魯山君 以世宗大王之孫 文宗大王之子 纂承大統 世祖大王 亦尊之爲上王 其位號天屬 與我恭靖大王無異也 此古人所謂王司敬民 罔非乾胤者 若自子孫臣民視之 則均之爲祖宗也 雖遭變故 未終其位 然其既爲宗社臣民之主 未嘗自絕于天也 而爲後世子孫之所當尊事 則誠無甚重輕於列聖也 臣謂今日追復位號 入于祖宗廟 寔典禮之不可已者也 或者又以爲今日若復魯山君位號 是彰世祖之過 臣又以爲大不然 世祖大王 雖有一時處變之事

亦深知典禮之不可闕於後世 故其訓固曰若拘於吾 迹而不知變通 則非所以順吾之志也 其雅意可見而微言可徵矣 况所謂當代之亂臣 爲後代之忠臣云者 更推及惻隱之意於爲其臣子者 猶我祖宗追禮於恭讓王 鄭夢周之意也 此又彰明較著 顯示子孫 猶恐子孫之不能通曉其志也 嗚乎悽矣 今日魯山君之復辟 乃所以順成世祖大王之志而增光于世祖者也 亦當日世祖大王之尊魯山君爲上王之初心也 我祖宗之靈 亦豈不曰子有後 善繼善述 不棄基也 豈是爲彰祖宗過之理哉 况事輕重大小有差 旣 魯山世祖 罔非乾胤 均是吾君之子 則安可以區區小嫌 有所避忌遷就 而不以是禮於君父哉 人之爲言 甚矣 其不識輕重大小之理 而不思爲宗社臣民之罪人也 人又謂建文尊爲讓皇帝之事 固有與今日事相契 而但事起於末季 旋即仆滅 其事有不足法者 此又不思之甚者 建文復位之議 始於孝宗之世 實天下之公議也 而因循不行 以迄于南渡 則大亂之後 人心創悟而公論始行 蓋可見天理之久而不泯 人心之鬱而乃發也 直不能行之於可爲之時 以祈天心之 悔悟 國命之延長而乃行於顛覆之後 無以感回天心 弭伏禍亂 比如仙方大藥 用之垂絕之際耳 顧何可以是爲言哉 凡人多有駭於創聞 泥於因循 而不識大體 欲望聖明凝神靜慮 服念於夜氣清明之際 內裁於心 博詢於大庭 而勿爲游言淺慮者之所撓 以定國之大典 詩曰 奕奕寢廟 君子作之 秩秩大猷 聖人莫之 此臣之今日所望於聖人者也 又曰 趨趨麋兔 遇犬獲之 它人有心 予忖度之 此又足爲今日不知而言者之戒也 惟聖上財察 臣又惶恐上聞

元昊,《觀瀾先生遺稿事蹟》卷3,實紀 魯陵誌[魯陵誌今改名莊陵誌○尹舜舉]

元昊 原州人 光廟受禪 以集賢殿直提學 棄官還鄉 退伏于原州之南松村 杜門謝世 不出戶庭 親知之仕於朝者 多來請見 絕不引接 有觀察使簡

其徒 微服往見 昊初不知出迎 面之則觀察也 便揮却走而入 若將浼焉 觀察裸然而歸 光廟特拜戶曹參議微之 不就 厭其近於官府 遂入酒泉縣山谷中 以終身焉 墓在南松[出生六臣集]

元昊,《觀瀾先生遺稿事蹟》卷3,實紀 莊陵誌[正宗朝命編輯]

元昊號霧巷 原州人 世宗癸卯 登第 明谷集世祖受禪 以集賢殿直提學 棄官還鄉[師友言行錄]端宗遜于寧越 就越之西 築石名觀瀾 或臨流嘯詠 或閉戶著書 晨夕瞻望涕泣 端宗薨 服喪三年 制畢 復歸原州舊廬 不出戶庭 人莫得見其面 其侄子原城君孝然 屏其徒御踵見 堅拒不許 世祖特除戶曹參議召之 以死自誓 不應命 坐必東向 臥必東首 以莊陵在東也[明谷集]肅宗戊寅 命旌其閭 [諡狀] 今上辛丑 贈吏曹判書 甲辰 賜諡貞簡 享原州七峯書院 咸安西山書院 俎豆錄 後享龍溪書院 爲人雅重寡言 氣度精明 文學聲望 大爲儕友推重 揚歷清顯 常侍經幄 獨審乎幾微之際 盡節乎傳禪之後 高舉遠引 丙子 就越之思乃坪 樹屋以居 處明夷之艱 利箕子之貞 以晦其跡 得大雅之明哲 致命遂志 與成謹甫諸公 異塗而同歸 後之篤論者曰 悅卿 今之伯夷 六臣 今之方練 又曰 煙村 霧巷 比六臣較高 霧巷 卽公 煙村 崔直學德之云[出莊陵史補 列傳補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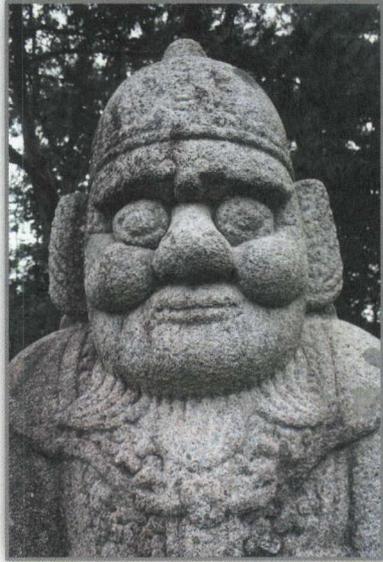
南九萬,《藥泉集》제14,應製錄 端宗大王諡册文

維歲次戊寅十二月辛丑朔二十五日乙丑 嗣王臣御諱謹再拜稽首上言 竊以推位讓國 至德無稱 獻諡尊名 闕典乃舉 茲將顯册 敢薦微忱 恭惟恭懿 溫文大王 仁聲令姿 世孫元嗣 自在弱歲 荷英陵負背之慈 連遭大喪 承文廟頽面之訓 無柰國步之多難 以致曆數之有歸 移居上宮 禮愈極於尊養 固辭徽號 意彌存於撝謙 且慕周泰伯之荊 仍作帝重華巡野 看花天遠 嗟

景命之不延 葬衣山深 慨緝儀之未備 今殆過二百年所 尙有感千萬人心
肆庸集議於群工 遂定升祔於列祖 虎賁嚴衛 如迎翼室之宅宗 龍旂戒行
若奉冕服之歸亳 雖傳序已及於祧位 然節惠可闕於彝章 精而粹慈而仁 靡
有爭競 履乎正由乎義 罔不服從 至若名廟而贊揚 尤見守禮而恭遜 心輕
萬乘 誠難擬議其高風 德重千秋 允合表揭其盛美 爰卜吉日 式陳明禋 謹
遣臣議政府領議政柳尙運 奉玉冊上尊諡曰 純定安莊 景順敦孝 廟號曰端
宗 仰冀睿靈 俯垂沖鑑 肇稱殷禮 庶是饗而是宜 申錫洪休 期俾昌而俾熾
嗚呼哀哉

여 백

개성시



제릉(齊陵)

1. 연혁

능 주 : 태조 원비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1337~1391]

위 지 : 경기도 개성시 판문군 상도리

지정번호 :

봉릉연대 : 1391년(공양왕 3)

전릉연대 :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제1대 태조의 정비(正妃)인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 1337~1391)의 능인 제릉은 신의왕후가 조선 개국(開國) 이전에 승하(昇遐)했기에 개성 근처에 단릉(單陵)으로 봉릉(封陵)하고 조선 개국 이후에 추존(追尊)하여 제릉(齊陵)으로 명명했다.

태조의 건원릉과 신덕고황후(神德高皇后)의 능이 서울 근교인 구리시와

서울의 정릉동에 있는 것과 달리 제릉이 개성 근교에 조성된 것은 신의고황후가 조선이 개국되기 전에 승하했기 때문이다.

3. 능주 소개

신의고황후는 본관이 안변(安邊)인 밀직부사(密直副使) 증영문하부사(贈領門下府事)인 안천부원군(安川府院君) 한경(韓卿)의 딸로 1337년(고려 충숙왕 복위 6)에 안변부에서 태어났다.

안변은 본래 고구려의 비열홀군(比列忽郡)으로 신라 진흥왕 때 비열주(比列州)로 고쳤고, 경덕왕 때 삭정군(朔庭郡)으로 했으며, 고려에 이르러 안변도호부가 되었는데, 남쪽에 위치한 풍류산(風流山)에 신의고황후의 조상 묘가 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풍류산 위에 못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 오기를 공중에서 때때로 음악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의고황후가 태어날 때 풍류산에서 음악 소리가 3년 동안이나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신의고황후는 1351년 영흥에 있던 태조 이성계에게 15세의 나이에 시집을 왔다. 가례를 올린 뒤 1356년(공민왕 5)에 등용되어 관직에 나아간 태조가 침입해온 원나라 장수 나하추를 함흥평야에서 격파하고, 삼선(三善)·삼개(三介)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봉익대부밀직부사(奉翊大夫密直副使)에 오르고 단성양절익대공신(端誠亮節翊戴功臣)에 책록되자 황후는 원신택주(元信宅主)에 봉해졌다.

황후는 함흥(咸興)에 살면서 태조와의 사이에 6남 2녀를 두었다. 방우(芳

雨)·방과(芳果; 정종)·방의(芳毅)·방간(芳幹)·방원(芳遠; 태종)·방연(芳衍) 등 6남과 경신(慶愼)·경선(慶善) 등 두 공주를 낳은 것이다. 태조가 30년 가량 전장을 누비어 한시도 편안한 때가 없었는데도 황후는 집안을 잘 다스려 태조로 하여금 집안일을 잊고 성공하도록 도왔다.

고려 우왕 때는 포천(抱川)에 거주했는데, 1388년(우왕 14) 위화도 회군 당시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동북면으로 피난하기도 했다.

황후가 승하한 것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기 1년 전인 1391년(공양왕 3) 9월 23일의 일이다. 병을 앓다가 보령 52세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처음에는 해풍군(海豊郡) 치속촌(治粟村)에 장사를 지냈으나, 태조는 조선을 개국한 뒤 시호를 절비(節妃)라 추존하고 능호를 제릉이라 하여 개풍군 상도면 풍천리(현재의 북한 행정구역명은 개성시 판문군 상도리)에 봉릉(奉陵)했다.

이때 능직관(陵直官)으로 권무관(權務官) 2인과 수릉군(守陵軍) 50호를 두었다. 그리고 제릉의 동쪽 마을에 재궁(齋宮)을 지어 초경사(肖慶寺)라 했다. 능에 제사를 올리는 사찰을 둔 것이다.

1398년 태조의 선위로 왕위에 오른 둘째 아들 정종은 11월에 모후인 절비한씨의 묘호를 신의왕후(神懿王后)라 추존했으며, 이듬해 2월에는 즉위 후 처음으로 제릉 참배를 위해 개성으로 행행했다. 참찬 이거이(李居易)가 영당(瑩堂)에 진배소분(進拜掃墳)할 것을 주청하자, 정종은 제릉에 참배할 것을 생각하고 개성 행행을 준비했던 것이다.

이때 신하들이 제릉의 친제(親祭)가 효성은 지극한 일이지만 임금으로서의 봉선지도(奉先之道)는 아니라며 중지하기를 재차 요청했으나 정종은 들어주지 않고 개성으로 가서 제릉을 참배했다.

왕비릉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제릉을 확장한 것은 1407년(태종 7)

의 일이다. 태조의 신변을 경호하던 무장 출신으로 선공감사(繕工監事) 등 주로 영선에 관한 일을 맡았던 박자청(朴子靑)이 제릉의 확장 공사를 감독했다. 박자청은 다음해인 1408년 공조판서로서 건원릉 조영 공사를 감독하고 관장했는데, 그는 제릉과 건원릉의 공사를 감독하는 등 토목공사를 관장한 공으로 1418년 참찬(參贊)을 거쳐 판우군총제부사(判右軍總制府事)에 이르렀다.

또한 1408년(태종 8)에는 다섯째 아들 태종이 존호를 승인순성신의왕태후(承仁順聖神懿王太后)라고 높였다. 그런데 1683년(숙종 9)에 여러 왕후의 책봉된 존호 중에 승인순성신의왕태후와 태종의 비인 창덕소열원경왕태후(彰德昭烈元敬王太后)만이 ‘태(太)’자가 있어 미편함이 논의되어 ‘승인순성신의왕후’와 ‘창덕소열원경왕후’로 각각 바꾸었다.

한편 1897년(광무 원년)에 국호를 대한으로 고치고 고종이 황제위에 오름에 따라 종래 조선왕조의 종묘는 대한제국 황실의 선묘(先廟)로 승격되었다. 그 해 10월 12일에는 고종이 천지에 고제(告祭)를 행하고 황제위에 나아가 종묘를 태묘(太廟)로 고쳐 호칭하고, 모든 기용의장(器用儀仗)을 천자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했으며, 황제가 대원군·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태묘에 전알(展謁)하여 자주독립의 국가로 새롭게 발전해나갈 것을 서고(誓告)했다. 그리고 1899년(광무 3) 12월에는 선세(先世) 추존의 옛 예에 따라서 태조를 태조고황제, 신의왕후를 신의고황후로 추존했다.

1676년(숙종 2) 6월 29일 정자각에 화재가 나고, 1744년(영조 20) 11월에 신의고황후의 신도비를 중건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제릉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

4. 제릉신도비문

權近, 《陽村集》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承仁順聖神懿王后齊陵神道碑銘 并序

自昔帝王受命而興 必賴妣匹之賢 侔德毓慶 以永厥緒 夏有塗山而啓能繼 周有大妣而武丕承 禹文配天之祀 繇是有永 猗歟盛哉 惟我神懿王后天資淑懿 坤德柔貞 早嬪龍淵 弼成王業 篤生聖哲 垂統罔極 神功懿範 比古無愧 獨惜夫大勳垂集 仙遊甚遽 太上開國 而莫崇其壺儀 二聖承緒 而莫致其榮養 山陵掩耀 霜露增悲 嗚呼慟哉 初諡節妃 陵號曰齊 後加諡神懿王后 置仁昭殿以安眞容 追崇之典 已備舉矣 我主上殿下慟念慈儀永闕 孝思莫伸 爰命攸司 勒銘豐碑 令臣近爲文垂示萬世 臣近承命悸恐 不敢以辭 謹按后姓韓氏 安邊世家 皇考諱卿 贈忠誠恭謹積德毓慶輔理功臣 壁上三韓三大匡 領門下府事 安川府院君 皇祖諱珪仁 贈積善毓慶同德贊化翊祚功臣 特進輔國崇祿大夫 門下左政丞 判都評議使司事兼判吏曹事 安川府院君 皇曾祖諱裕 贈純誠積德佐命輔理功臣 崇政大夫 門下侍郎 贊成事 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戶曹事 安原君 皇妣申氏 封三韓國大夫人 贈秉義毓德輔祚功臣 崇政大夫 門下侍郎 贊成事 同判都評議使司事 判刑曹事元麗之女 后生而淑婉 聰慧異常 及笄擇配 來嬪于我太上王 初爲將相數十年間 出入攻戰 靡有寧歲 后能竭力營家 勉以成功 又性不妬忌 禮遇妾侍 克有多男 教誨以義 今我主上殿下睿哲英武 聖學日進 年未及冠 擢第春官 當僞辛戊辰之歲 侍中崔瑩謀欲猾夏 以我太上王威望素著 授以節鉞 俾往攻遼 太上王仗義還師 執退崔瑩 代以名儒李穡 中外晏然 邦國永賴 穡告太上王曰 當茲構釁中國之後 非執政者親朝帝庭 則公之忠誠 無以白於天下 剋日將行 太上謂穡曰 吾與公一時並使 國事誰任

我擇一子從公而行 猶吾往也 乃遣我殿下充書狀官 特蒙高皇帝優禮而還 己巳秋 帝又降勅 責以異姓爲王氏後 太上王與諸將相議 立王氏之裔定昌君瑤爲王 先是 權姦擅政 攸攘矯虔 太上王時爲左相 罷私田舉墜典 弊去利興 百度俱新 功高不賞 德大難容 讒邪交構 浸潤叵測 定昌柔暗 依違兩端 后乃憂勞成疾 以辛未秋九月十三日薨 享年五十五 以禮葬于城南海豐郡治粟材之原 我殿下廬墳 欲終三年 明年壬申春 太上西行 昇疾而還 殿下來侍湯藥 群邪抵隙 謀傾益急 我殿下應機決策 討除渠魁 兇徒瓦解 定昌益憚 秋七月十六日 與二三大臣倡以大義 臣僚父老不謀而同 合辭推戴 太上王迫於群情 迺卽王位 市肆不易 會朝清明 卽遣使入奏帝庭 聯承勅報 既許王爵 且更國號 以復朝鮮之美稱 越三年甲戌夏 帝乃遣使 令朝親男 太上王以我殿下通經達禮 最賢諸子 命隨來使以行 既至 帝與語嘉之 優賞遣歸 戊寅秋八月 太上王不豫 姦臣鄭道傳等思擅國柄 謀去諸嫡 將立幼孳 朋家聚黨 禍發斯迫 殿下炳幾 先其未發 誅除以燬 申請太上以嫡以長 迎致上王 冊封世子 彝倫既正 宗社載定 九月丁丑 太上以疾未瘳 傳位上王 庚辰正月 逆臣朴苞等謀戕同氣 誘掖懷安父子 稱兵向闕 逆勢甚熾 我殿下率勵將士 旋卽平定 誅止苞身 餘悉不問 安置懷安 不廢懿親 上王以未有繼嗣 且其開國定社咸我殿下之績 冊爲世子 以定國本 秋七月己巳 奉冊寶加上太上王啓運神武之號 冬十有一月癸酉 上王亦以疾遜位于我殿下 遣使請命 明年辛巳 建文帝遣通政寺丞章謹 文淵閣待詔端木禮 奉誥命印章來 封我殿下爲王 冬遣鴻臚寺行人藩文奎來錫冕服 秩比親王 今皇帝卽位 誕告萬邦 殿下卽命左政丞臣河崙入賀登極 帝嘉忠誠事大 賜以誥印 遣都指揮高得 左通政趙居任 以今年夏四月來 仍封爲王 秋九月 又遣翰林待詔王延齡 行人崔榮來 錫袞冕九章錦段紗羅書籍 王妃冠袍金段紗羅 太上王金段紗羅 希世寵典 先後還至 益我殿下功德之盛 實天所

啓 專付大東 以延鴻休 宜受帝眷之隆 以膺天祿之永也 肇基之迹 雖自祖宗 篤生之慶 實繇神懿 噫嘻盛哉 后生六男 上王居二 我主上殿下居五 長曰芳雨 封鎮安君 先卒 次三芳毅 封益安大君 次四芳幹 懷安大君 次六芳衍 登科不祿 二女 長慶慎宮主 適贊成事李佇 次慶善宮主 適清原君沈淙 上王妃金氏 今封王大妃 贈左侍中天瑞之女 我殿下配靜妃 驪興府院君領藝文春秋館事閔霽之女 男長元子禎 次三男皆幼 女長貞順宮主 適清平君李伯剛 次慶貞宮主 適平寧君趙大臨 餘皆幼 鎮安娶贊成事池瀛之女 生男曰福根 奉寧君 女適少尹李叔畝 益安娶贈贊成事崔仁科之女 生男曰石根 元尹 女適僉摠制金閑 懷安娶贈贊成事閔璿之女 生男曰孟宗 義寧君 女適宗簿令趙慎言 餘皆幼 臣近嘗觀三代聖王 后妃之德莫盛塗妣 載在詩書 千古炳耀 神懿之德 誠可儷美 第以臣近學識膚淺 筆力鄙拙 雖極形容盛德 如繪天地 曷能髣髴其萬一哉 敢稽周雅大明思齊之義 謹述銘詞 拜手稽首以獻 其詞曰

上帝赫赫 啓佑有德 匪伊私之 爲民之極 其啓維何 迺生柔嘉 來配于德 允宜室家 載震載育 厥靈是赫 篤生聖哲 天人攸屬 扶翊聖父 誕作民主 躬朝帝庭 保我邦土 擊莽之萌 炳幾維明 廓爾汎掃 宗社載寧 功成克讓 以尊嫡長 彝倫既正 基勢益壯 迺遭墻闕 不忍致辟 俾獲保全 友愛彌篤 維德之隆 維功之崇 宜紆帝眷 錫命稠重 明明帝誥 煌煌金寶 我龍受之 萬世永保 粵惟王迹 祖宗攸積 誕我聖神 繄由后德 臣拜稽首 獻辭不苟 萬世昭垂 天地永久

5. 제릉표석음기

李宜顯, 《陶谷集》卷8, 應製錄 神懿王后齊陵碑陰記

神懿王后齊陵碑陰記 甲子

嗚呼 是惟我太祖康獻大王元妃神懿王后韓氏齊陵也 爲甲坐庚向 太宗癸未二月 吉昌君臣權近撰進碑文 甲申二月建中 值壬辰倭難 毀破無存 今上十七年辛酉 道臣有以重豎舊碑爲請者 而時詘未遑 甲子 宗臣申言之 遂命有司具新石刻舊文 宗伯掌其禮 司徒庀其事 仍命臣宜顯附識其下 臣謹拜手稽首而言曰 歷累百載 闕典始修 而聖后夾贊化家之偉烈 因是益彰 我聖上追遠之孝 又可以仰窺 一舉而衆美具焉 猗歎盛哉

《列聖誌狀通記》卷2, 太祖大王

重刻碑附記[英宗二十年甲子十一月]

嗚呼 是惟我太祖康獻大王元妃神懿王后韓氏齊陵也 爲甲坐庚向 太宗癸未二月 吉昌君臣權近撰進碑文 甲申二月建中 值壬辰之後 只有誌狀中所載其文矣 今上十七年辛酉 道臣有以重豎舊碑爲請者 而時詘未遑 甲子 宗臣申永念至恩不勝感愴 追贈徽號 惟極尊崇祇奉舊章用申孝懇恭惟稟姿神懿秉心順承德快乾元若塗山之配禹道全恒吉齊太妣之母周嚴教子之義方篤逮下之仁 惠伏念猥 承厚澤嗣襲丕基今卜良辰式陳縟禮伏惟[伏惟二字疑衍]謹卒某官某奉册上尊諡曰神懿[據實錄事實當日承仁順聖神懿王太后此恐缺脫] 仰惟昭鑑俯諒精迓衍萬世之本支綿億年之歷服 修文殿直提學[臣] 卞季良 撰

후릉(厚陵)

1. 연혁

능 주 : 정종(定宗)[1357~1419]

원비 정안왕후(定安王后) 김씨[1355~1412]

위 지 : 경기도 개성시 판문군 영정리

지정번호 :

봉릉연대 : 1419년(태종 19)

전릉연대 :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정종(이방과: 1357~1419, 재위 2년, 상왕 20년)과 왕비 정안왕후 김씨(定安王后 金氏: 1355~1412)의 후릉은 조선 최초로 왕과 왕비의 봉분(封墳)을 나란하게 난간석(欄干石)으로 연결한 쌍릉(雙陵)의 형식을 하고 있다. 고려 공민왕릉의 형식을 따라 봉분에는 12면의 병풍석을 두르고 있으며, 석마를

동원한 문석인과 무석인을 각각 2쌍 씩 배치하였다.

1412년(태종 12) 6월 25일 정안왕후가 58세의 나이로 승하하여 후릉에 안장되었다. 그로부터 7년 뒤 정종이 승하하여 난간석으로 두 봉분을 연결하여 쌍릉을 이루었다.

3. 능주 소개

조선 제2대 임금 정종은 1357년(고려 공민왕 6) 7월 1일 함흥에서 태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조선 건국 후 태조 7년[1398년]에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세자 방석(芳碩)이 죽자 대신 세자(世子)로 책봉되고 같은 해 9월에 태조로부터 선양(禪讓)을 받아 즉위하였다. 정안왕후와의 슬하에는 후사가 없으나, 후궁들 사이에 15명의 군(君)과 8명의 옹주(翁主)를 두었다.

그러나 새롭게 건국한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의 골육상쟁, 즉 제1차 왕자의 난을 상기하여 예전의 수도인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동생 정안군을 왕세제로 삼고 왕족, 권신 등이 기르던 사병을 폐지하여 삼군부에 편입시켰다.

또한 2년간의 왕위(王位) 시절 역시 실질적으로는 동생 방원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졌기에, 결국 왕위를 선위(禪位)하고 상왕(上王)으로 머물면서 말년을 지냈다.

관제를 개혁하고, 한양의 5부에 각각 학당을 설립하는 등의 업적을 이뤘다. 태종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개성 인덕궁에 거주하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다가 1419년(세종 1) 왕위에서 물러난 지 19년만에 63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정종(定宗)’이란 묘호(廟號)는 사후(死後)에 바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숙

종 7년[1681년]에 와서야 진상되어 묘호를 정종(定宗)이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명(明)나라 황제에게서 받은 시호(諡號) 공정(恭靖)을 칭호(稱號)로 삼아 ‘공정왕(恭靖王)’이라 했기에 실록 역시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라 했다.

한편 정안왕후는 1355년(고려 공민왕 4) 1월 9일 월성부원군 김천서의 딸로 태어났다. 1398년(태조 7) 영안군이 세자가 되면서 세자빈이 된 뒤 덕빈에 책봉되었다가 정종이 즉위하자 덕비로 진봉되었다. 1400년(정종 2) 정종이 세제 방원에게 양위하자 순덕왕태비의 존호를 받았다.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공손하고 겸소한 마음을 지녔다고 한다. 또한 덕행으로서 아랫사람을 다스렸고, 친족들과 친교를 두텁게 했다고 한다. 소생은 없으며, 1412년(태종 12) 6월 25일 인덕궁에서 58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4. 후릉표석음기

朝鮮國

定宗大王厚陵

定安王后附左

定宗恭靖懿文莊武溫仁順孝大王 元至正十七年丁酉七月朔日誕生 初封永安君 皇明洪武三十一年戊寅册封王世子 九月受禪 建文二年庚辰十一月傳位于太宗 永樂十七年己亥九月二十六日昇遐 庚子正月三日葬于豐德東興教洞癸坐之原 在位二年 在上王位二十年 壽六十三 皇朝賜諡恭靖妃順德溫明莊懿定安王后金氏 至正十五年乙未正月九日誕生 洪武三十一年戊寅册封德嬪 尋進封德妃 永樂十年壬辰六月二十五日昇遐 八月八日

葬與大王陵同原 壽五十八

5. 후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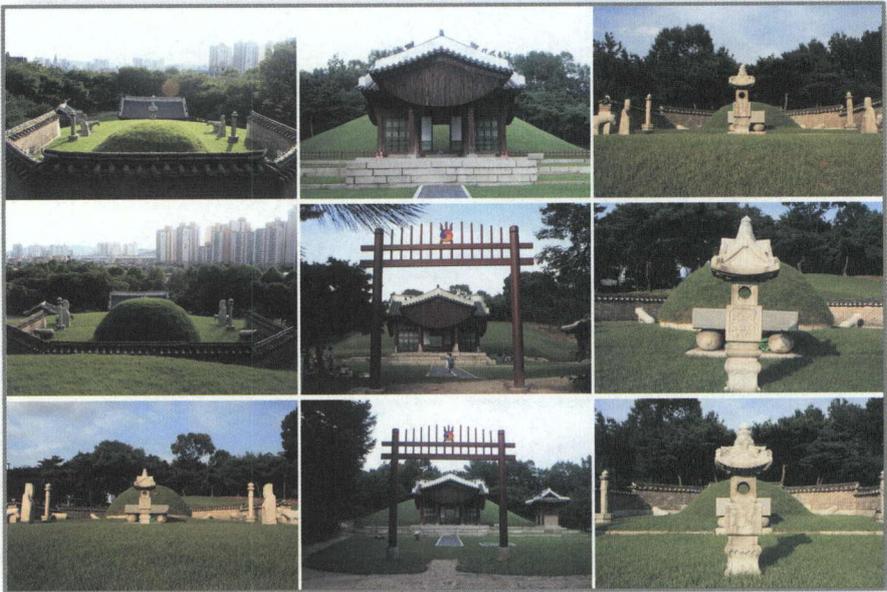
卞季良, 《春亭先生文集》 卷12, 碑誌 有明朝鮮國溫仁恭勇順孝大王厚陵誌

永樂十七年歲在己亥秋九月二十六日戊辰 溫仁恭勇順孝大王宮車晏駕我聖德神功上王殿下及我主上殿下哀慕切至 服喪盡禮 上變群臣 奉上尊號 越明年庚子春正月初三日壬寅 以禮合葬于松京海豐郡定安王后之厚陵遺命也 大王 我太祖康獻大王之第二子 天資溫仁恭謹 勇略過人 仕高麗累官至將相 常從太祖 出征立功 歲庚午 將兵捕倭于禮山獻捷 歲壬申秋七月 太祖即位 封永安君 歲戊寅秋八月太祖不豫 權臣有欲挾幼搆亂者我上王炳幾殲除 請于太祖 冊封大王爲世子 九月丁丑 受太祖內禪 歲庚辰春二月 以無繼嗣 封我上王爲世子 其年冬 不豫 禪位于我上王 上王進大王尊號 曰仁文恭睿 上王愛敬盡孝 久而益篤 大王春秋六十三歲 在王位三年 居閒養病十有九年 此終始哀榮之大槩也 妃金氏 贈門下左侍中諱天瑞之女 性不妬忌 禮遇妾侍 我上王進尊號爲順德王大妃 追諡定安王后 無子 宮妾子男十五人女十人 曰元生 封義平君 次茂生 次幼 池氏出也 曰群生 封順平君 次義生 次三 皆幼 女適全州府尹金諱謙之子 封淑慎宅主 次二皆幼 奇氏出也 其餘男女皆幼 義平娶衿川監務崔致崇之女 生一男一女 幼 順平娶判司宰監事薛存之女 永樂十八年庚子正月日 謹誌

여 백

2. 원

서울특별시



영취원(永徽園)

1. 연혁

원 주 : 고종 후궁 순헌귀비(純獻貴妃) 엄씨[1854~1911]

위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지정번호 : 사적 제361호

봉원연대 :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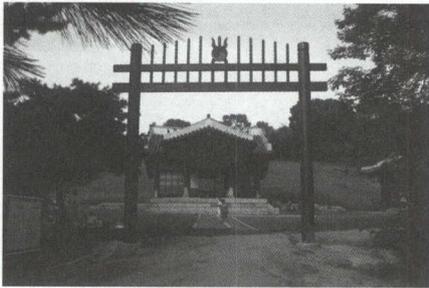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홍릉수목원 방면으로 가다보면 영취원에 도착할 수 있다.

영취원은 조선 26대 고종(재위 1863~1907)의 후궁인 순헌귀비 엄씨(1854~1911)의 무덤으로 위패는 조선 역대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의 생모인 7명의 후궁을 모신 칠궁(七宮)에 모셨다. 엄귀비는 신교육에 관심이 많아 양



영취원 전경

정의숙 · 진명여학교를 설립했고, 숙명여학교 설립시 많은 돈을 기부하는 등 근대 사립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영취원 안에는 영친왕의 아들 이진(李晋, 1921~1923)의 무덤인 송인원이 있다. 원래 이곳은 명성왕후를 모셨던 홍릉이 있었으나, 1919년 경기도 미곡시 고종황제의릉과 합장하기 위해 옮겼다.

영취원 안에는 영친왕의 아들 이진(李晋, 1921~1923)의 무덤인 송인원이 있다. 원래 이곳은 명성왕후를

모셨던 홍릉이 있었으나, 1919년 경기도 미곡시 고종황제의릉과 합장하기 위해 옮겼다.

묘역에는 홍살문 · 정자각과 ‘순헌엄비 영취원’이라 쓰인 비가 있는 비각(碑閣)이 있고, 병풍석 대신에 호석(護石)을 두른 무덤과 혼유석(魂遊石), 망주석(望柱石) 1쌍, 장명등(長明燈), 문인석(文人石) 2구, 마석(馬石) · 호석(虎石) · 양석(羊石)이 각기 2구씩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영취원과 송인원을 수호 관리하는 재실(齋室)이 있다.

정자각 남쪽에 있는 비문에는 엄비가 출생하여 이곳에 모셔지기까지의 과정을 “순헌귀비엄씨철종오년갑인십일월초오일생 기미선입궁광무원년탄왕세자봉귀인사년봉순빈사궁호경선오년진봉비칠년책황비□□칠월이십일졸서수오십팔세추호순헌팔월이일장우양주천수산인좌원원호영취□□(純獻貴妃嚴氏哲宗五年甲寅十一月初五日生 己未選入宮光武元年誕王世子封貴人四年封諱嬪賜宮號慶善五年進封妃七年冊皇妃□□七月二十日卒逝壽



영취원 정자각

五十八歲追號純獻八月二日葬于楊州天秀山寅坐原園號永徽□□”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원주 소개



영취원 비각

고종황제의 계비(繼妃)인 순헌
귀비 엄씨(純獻貴妃 嚴氏)(1854~
1911)는 철종 5년(1854) 11월 증찬
정(贈贊政) 엄진삼(嚴鎭三)의 장
녀로 태어나 8세에 경복궁에 들어
가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의 시
위상궁(侍衛尙宮)이 되었다가, 을
미사변(乙未事變)으로 명성황후

가 시해된 후 아관파천(俄館播遷)때 고종을 모시며 후궁(後宮)이 되어 광무
(光武) 원년(1897)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垕)을 출산하였다. 이 때 귀인(貴
人)에 봉해졌고, 광무 5년(1901) 비
(妃)에 진봉되고, 광무 7년(1903)에
는 황비(皇妃)에 책봉되었다. 1911
년 7월 20일 58세로 별세하여, 순
헌(純獻)이라 시호를 올리고, 8월
에 양주 천수산(天秀山)에 무덤을
만들고, 원호는 영취라 하였다. 위
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뒤에서 바라본 영취원



영취원 근경



영취원 장명등과 봉분

에 있는 칠궁(七宮, 德安宮)에 봉안되어 있다.

엄귀비는 신교육에 관심이 많아, 광무 9년(1905) 양정의숙(養正義塾), 광무10년(1906) 진명여학교(進明女學校)를 설립하였으며,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 현 숙명여학교)의 설립에도 거액을 기부하는 등 근대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한편 엄귀비는 광무 5년 꿈에 나타나 집을 지어달라고 간청한 7구의 석불(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불상)을 위하여 1902년에 용화사를 세웠다고도 전하여 진다.

4. 영취원표석음기

純獻貴妃永徽園

純獻貴妃嚴氏 哲宗五年甲寅十一月初五日生 己未選入宮 光武元年誕生王世子 封貴人 四年封諄嬪賜宮號慶善 五年進封妃 七年冊皇妃 〇〇七月二十日卒逝 壽五十八歲 追號純獻 八月二日葬于楊州天秀山寅坐原 園號永徽〇〇

숭인원(崇仁園)

1. 연혁

원 주 : 영친왕 장자 이진(李晉)

위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지정번호 : 사적 제361호

봉원연대 : 1923년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왕릉 소개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홍릉수목원 방면으로 가다보면 영취원에 도착할 수 있다.

숭인원은 고종황제의 넷째 아들인 의민황태자의 장자인 이진(李晉)의 묘이다. 이진(1921~1922)은 일본에서 태어나 의민황태자 내외가 귀국하였을 때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순종황제의 명에 의해 이곳에 묻히게 되었다.



송인원 정자각



송인원 전경

이곳에는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閔氏)의 능인 홍릉(洪陵)이 있었다. 1919년 고종이 죽었을 때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금곡리(현 남양주시 금곡동)로 천장(遷葬: 묘를 옮김.)되었다. 이런 연유로 이곳은 ‘홍릉’이라 불리고 있다.

묘역시설로는 곡장(曲牆)·상설(象設, 石虎·石馬)·혼유석(魂遊石)·장명등(長明燈)·망주석(望柱石)·문인석(文人石)·무인석(武人石)·석마(石馬)·홍살문(紅箭門)·정자각(丁字閣)·비각(碑閣)·제실(祭室)·우물[靈泉]·사초지(莎草地: 오래 되거나 허물어진 곳을 때로 잘 입혀 다듬은 곳)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송인원 비석

담장 밖 북쪽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관(世宗大王紀念事業會館)이 있으며, 구영릉(舊英陵, 서울 서초구 내곡동 현인릉)에서 수습해온 신도비(神道碑)와 능호석(陵護石) 등이 전시되어 있다.

3. 원주 소개

조선조 말, 대한제국의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자 일제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황태자(李垕)를 일본으로 볼모로 데려간다. 당시 고종황제의 뒤를 이은 순종황제는 후손이 없어 이은을 황태자로 삼으니, 그가 바로 의민황태자(영왕)였다.



송인원 장명등과 봉분



송인원 근경

영왕은 결국 일본에서 일황실의 마사꼬(方子)와 정략결혼을 하게 된다. 영왕은 그때 이미 결혼을 하기로 한 민가방 여사가 조국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의 절손을 목적으로 일황실안에서 애기를 못낳는 불임 여자를 골라 결혼시킨 것이 바로 마사꼬 여사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황손이 태어났으니 바로 진(晉)이었다. 1922년 4월, 영왕은 진의 백부인 순종황제에게 결혼 보고 겸 모국 나들이로 진과 함께 일시 귀국, 같은해 5월 8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



송인원 문인석



뒤에서 바라 본 송인원 전경

정이었다. 그러나 출국 하루전인 5월 11일 새벽, 진이 의문의 죽임을 당하게 된다.

부모나 형보다 일찍 죽으면 효도가 아니어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다. 그러나 순종황제는 억울하게 죽은

어린 진의 죽음을 애석히 여겨 특별히 장례를 치르도록 명하고, 조모(엄귀비)곁에 묻히도록 하니 바로 이곳이 송인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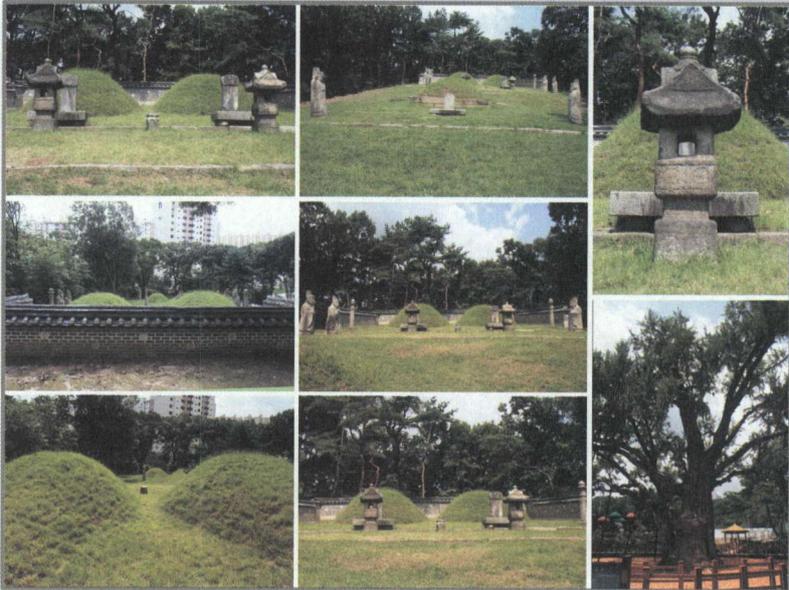
4. 송인원표석음기

元孫崇仁園

여 백

3. 묘

서울특별시



연산군묘(燕山君墓)

1. 연혁

묘 주 : 연산군[1476~1506]과 부인 거창 신씨[?~1537]

위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지정번호 : 사적 제362호

봉묘연대 : 1506년(중종 1)

전묘연대 : 1513년(중종 8)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서 하차한 후 신방학중학교를 지나 신동아아파트단지로 들어서면 아파트 단지 뒤쪽에 위치한 연산군묘를 만날 수 있다.

연산군 묘는 조선 10대 연산군(재위 1494~1506)과 부인 거창 신씨의 무덤이다. 연산군은 성종의 큰 아들로 성종 7년(1476)에 태어나 1494년 왕위에 올랐다. 두번씩이나 사화를 일으키는 등 성품의 광폭함이 드러나자 진성대



연산군묘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

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중종반정이 일어나, 1506년 왕직을 박탈당하고 연산군으로 강봉되어 강화 교동으로 추방되었다가, 그 해 1506년에 죽었다. 부인 신씨가 연산군 무덤을 강화에서 현재의 이곳으로 옮겨 달라 청하여 옮기게 되었다.

무덤 주변에는 연산군의 딸과 사위의 무덤도 있으며, 묘(墓)의 시설은 대군(大君)의 예우(禮遇)로 장례하여 봉분(封墳) 곡장(曲牆) 혼유석(魂遊石) 장명등(長明燈) 향로석(香爐石) 재실(齋室)이 갖추어져 있으나 병풍석(屏風石) 석양(石羊) 석마(石馬) 사초지(莎草地) 문인석(文人石) 등은 세우지 아니하였다.

기록은 연산군(燕山君)의 묘비(墓碑) 전면(前面)에 ‘연산군지묘(燕山君之墓)’라 새겨져 있고 후면(後面)에는 ‘정덕팔년이월 이십일장(正德八年二月二十日葬)’이라 새겨져 있다. 부인신씨(夫人愼氏)의 묘비(墓碑)는 전면(前面)에 ‘거창신씨지묘(居昌愼氏之墓)’ 후면(後面)에 ‘??유월이십륙일장(??六月二十六日葬)’이라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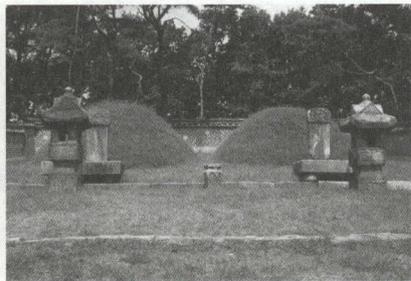
연산군묘 전경

3. 묘주 소개

연산군은 성종 7년(1476) 성종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휘(諱)는 융(隆)이며, 어머니는 폐비 윤씨(尹氏)이다. 성종 14년(1483) 2월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성종 25년(1494), 12월 성종이 승하하자 즉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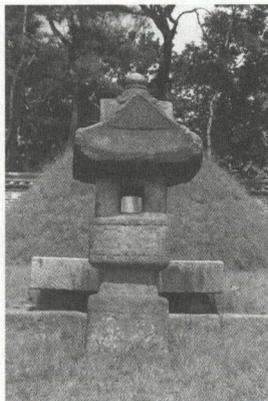


연산군묘 원경



연산군묘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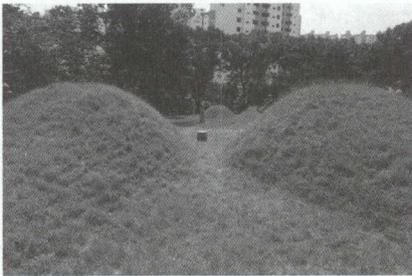
연산군은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의 침입에 대비하여 비용사(備戎司)를 두어 병기를 제조하고, 변경지방으로의 백성들의 이주를 독려, 혹은 《국조보감 國朝寶鑑》,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 등의 수정 같은 활약도 있었지만, 크게 잘못된 정책을 뒀기에는 역부족이다. 연산군 4년(1498)에는 《성종실록》 편찬 때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발단이 되어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일으켰고, 1504년에는 생모 윤씨(尹氏)의 폐비사건을 문제로 삼아 많은 사림학자들을 희생시킨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났다. 이러한 실정(失政)과 성품이 광폭함으로 인하여 연산군 12년



연산군묘 장명등

(1506) 9월 성희안(成希顔), 박원종(朴元宗), 유순정(柳順汀) 등의 주동으로 성종의 둘째아들 진성대군(晉城大君)이 옹립되는 중종반정(中宗反政)을 당하여 왕위에서 쫓겨나고, 연산군으로 강봉되어 강화(江華) 교동(喬洞)에 추방되었다가 그해 11월 31세로 병사하여, 그 곳에 장사지내었다.

왕 또는 왕비의 무덤을 능(陵)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연산군은 비록 왕을 지내었으나 그 지위가 군(君)으로 강봉되었기 때문에 무덤을 묘(墓)라 하였다. 그 후 중종 7년(1512) 12월 부인 신씨가 상소하여 묘를 강화에서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선영(先塋)이며 연산군의 사위와 딸의 무덤이 있는 양주군 해등면 원당리(현 도봉구 방학동)로 이장하기를 청하여, 이듬해(1513) 2월 왕자군(王子君)의 예(禮)로 이장하고 양주군의 관원으로 하여금 제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뒤에서 바라 본 연산군묘(좌우)

연산군의 부인 거창군 신씨는 영의정 거창부원군(居昌府院君) 신승선(愼承善)의 딸이며, 성종 19년(1488)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연산군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비로 책봉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과 함께 폐출, 거창군부인으로 강봉되어 정청궁(貞淸宮)에서 거처하다가 중종 32년(1537)에 별세하였다.

4. 연산군관련기사

《燕山君日記》總序

○ 燕山君 諱[愷] 成宗康靖大王 長子, 母廢妃 尹氏 判奉常寺事 (起畷[起畷] 之女 以 成化 丙申十一月初七日丁未生 癸卯二月己巳 册封世子 遣領中樞 韓明澮 等 請命于京師 五月丁酉 帝遣太監 鄭同等賜勅封 少時不好學 東宮僚屬有勸戒者 深銜之 及即位 宮中所行多不善 外庭猶未之知 晚年 荒悖淫縱 大肆虐政 誅殺大臣 臺諫侍從 殆盡 至有炮烙斲胸寸斬碎骨飄風之刑 遂廢徙 喬桐 封 燕山君 居數月 以疾終 年三十一 在位十二年

부 록



□ 조선시대 왕릉 및 원 일람표

< 조선시대 왕릉 일람 >

	묘호	능호	위치	형식	사적	현 주소
1	태조 신의왕후 신덕왕후	健元陵 齊陵 貞陵	楊州南儉岩山癸坐丁向 豐德北栗村甲坐庚向 楊州南沙河里庚坐甲向	단릉 단릉 단릉	193호 208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 개성시 판문군 상도리 성북구 정릉2동 산87-16
2	정종 정안왕후	厚陵	豐德東興敦洞東癸坐丁向 大王陵同原	쌍릉		개성시 판문군 령정리
3	태종 원정왕후	獻陵	廣州西大母山乾坐巽向 大王陵同原	쌍릉	194호	강남구 내곡동 산 13-1
4	세종 소현왕후	英陵	驪州西北成山子坐午向 大王陵同原	합장	195호	경기도 여주군 농서면 왕대리 산 83-1
5	문종 현덕왕후	顯陵	健元陵東南癸坐丁向 大王陵左崗寅坐申向	동원이 강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
6	단종 정순왕후	莊陵 思陵	寧越北冬乙旨辛坐乙向 楊州南羣場里癸坐丁向	단릉 단릉	196호 209호	강원도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 121-1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 산 65
7	세조 정희왕후	光陵	楊州東注葉山直洞子坐午 向 大王陵東崗丑坐未向	동원이 강	197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7
8	예종 안순왕후 장순왕후	昌陵 恭陵	高陽敬陵北崗艮坐 坡州南普施洞戌坐	동원이 강 단릉	198호 205호	고양시 용두동 산 30-1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5-1

추존	덕종 소혜왕후	敬陵	高陽東 蜂峴艮坐	동원이 강	198호	고양시 용두동 산 30-1
9	성종 정현왕후 공혜왕후	宣陵 順陵	廣州西學堂洞壬坐 大王陵左崗艮坐 坡州恭陵南崗 卯坐酉向之原	동원이 강 단릉	199호 205호	강남구 삼성동 135-4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15-1
10	연산군	연산군 부인신 씨	中部長通坊 外孫李安訥之家	쌍분	362호	도봉구 방학동 산 75
11	중종 단경왕후 장경왕후 문정왕후	靖陵 溫陵 禧陵 泰陵	廣州宣陵東崗乾坐 楊州西山 長興面水回洞亥坐 高陽南 元堂里艮坐 楊州南 蘆原面壬坐	단릉 단릉 단릉 단릉	199호 210호 200호 201호	강남구 삼성동 135-4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 19 고양시 원당동 산 37-1 노원구 공릉동 산 223-19
12	인종 인성왕후	孝陵	高陽 禧陵西崗艮坐坤向	쌍릉	200호	고양시 원당동 산 37-1
13	명종 인순왕후	康陵	楊州泰陵東崗亥坐	쌍릉	201호	노원구 공릉동 산 223-19
14	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	穆陵	楊州健元陵第二崗壬坐丙 向 大王陵左崗壬坐丙向 大王陵左崗甲坐庚向	동원이 강	193호	구리시 인창동 62
15	광해군 부인 유씨	광해군 부인유 씨	楊州赤城洞亥坐原	동원이 실	363호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59
추존	원종 인현왕후	章陵	金浦後崗子坐午向	쌍릉	202호	김포시 풍무동 산 141-1

16	인조 인렬왕후 장렬왕후	長陵 徽陵	交河舊治後子坐午向 健元陵西崗西坐卯向	합장 단릉	203호 193호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 산25-1 구리시 인창동 62
	효종 인선왕후	寧陵	驪州英陵東 弘濟洞子坐午向	쌍릉	195호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18	현종 명성왕후	崇陵	健元陵西南別崗西坐卯向	쌍릉	193호	구리시 인창동 62
19	숙종 인현왕후 인원왕후 인경왕후	明陵	敬陵東崗甲坐庚向之原 翼陵南甲坐之岡	쌍릉	198호	고양시 용두동 산30-1
		翼陵	大王陵右崗乙坐辛向	단릉	198호	고양시 용두동 산30-1
20	경종 선의왕후 단의왕후	懿陵	楊州治南坐申向寅之原	쌍릉	204호	성북구 석관동 1-5
		惠陵	楊州崇陵內西坐之岡	단릉	193호	구리시 인창동 62
21	영조 정순왕후 정성왕후	元陵	健元陵西第二岡亥坐巳向 之原	쌍릉	193호	구리시 인창동 62
		弘陵	昌陵左岡 以乙坐辛向	단릉	198호	고양시 용두동 산30-1
추존	진종 효순왕후	永陵	坡州順陵左崗乙坐辛向	쌍릉	205호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 15-1
추존	장조 현경왕후	隆陵	水原花山癸坐丁向	합장	206호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1-1
22	정조 효의왕후	健陵	隆陵西崗子坐午向	합장	206호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1-1

23	순조 순원왕후	仁陵	廣州獻陵右岡子坐午向	합장	194호	강남구 내곡동 산13-1
추존	문조 신정왕후	綏陵	(龍馬峰下癸坐之原) 健元陵左崗壬坐丙向	합장	193호	구리시 인창동 62
	현종 효현왕후 효정왕후	景陵	健元陵西岡酉坐卯向 同原庚坐甲向 同原庚坐甲向	삼연릉	193호	구리시 인창동 62
25	철종 철인왕후	睿陵	高陽禧陵右岡子坐午向 同原癸坐丁向	쌍릉	200호	고양시 원당동 산 37-1
26	고종 명성황후	洪陵	楊州郡漢金面金谷里乙坐 辛向	합장	207호	남양주시 금곡동 141-1
27	순종 순명황후 순정황후	裕陵	楊州洪陵左岡卯坐酉向	합장	207호	남양주시 금곡동 141-1

< 조선시대 원 일람 >

	시호	원호	私廟	소재지	문화재번호	초명 봉원 연도
1	순희세자· 恭懷嬪 尹氏	順昌園		경기도 고양시 신도읍 용두리	사적 98	順懷墓 고종 7년
2	원종 사친 仁嬪 金氏	順康園	儲慶宮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仁嬪墓 영조 31년
3	소현세자	昭慶園		경기도 고양시 원당읍 원당리	사적 200	昭顯墓

						고종 7년
4	소헌세자빈 愍懷嬪 姜氏	永懷園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 141-1		愍懷墓 고종 7년
5	영조 사친 淑嬪 崔氏	昭寧園 毓祥宮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淑嬪墓 영조 29년?
6	진종 사친 靖嬪 李氏	綏吉園 延祐宮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靖嬪墓 정조 2년
7	장조 사친 暎嬪 李氏	綏慶園 宣禧宮		경기도 고양시 신도읍 용두리	사적 198	暎嬪墓 고종 36년
8	장조 장남 懿昭世孫	懿寧園		경기도 고양시 원당읍 원당리	사적 200	懿昭墓 고종 7년
9	정조 장남 文孝世子	孝昌園		경기도 고양시 원당읍 원당리	사적 200	孝昌墓 고종 7년?
10	순조 사친 綏嬪 朴氏	徽慶園 景祐宮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순조 22년
11	獻懿大院 王·純穆 大院妃 閔氏	興園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22-2		순종 1년
12	고종 후궁 純獻貴妃 嚴氏	永徽園 德安宮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랑리동		순종 4년

13	英親王 李垠	英園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사적 207	
14	英親王 長子 李晉	崇仁園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순종 15년

< 현재의 경기 각 지역별 능원 분포 >

구분	지역	대수	묘호	능호	위치	비고
구리시	왕릉(9)	1	태조	健元陵	구리시 인창동 62	동구릉
		5	문종 현덕왕후	顯陵	구리시 인창동 62	동구릉
		14	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	穆陵	구리시 인창동 62	동구릉
		16	장렬왕후	徽陵	구리시 인창동 62	동구릉
		18	현종 명성왕후	崇陵	구리시 인창동 62	동구릉
		20	단의왕후	惠陵	구리시 인창동 62	동구릉
		추존	문조 신정왕후	綏陵	구리시 인창동 62	동구릉
		21	영조 정순왕후	元陵	구리시 인창동 62	동구릉
		24	현종 효현왕후 효정왕후	景陵	구리시 인창동 62	동구릉
남양주시	왕릉(4+1)	6	정순왕후	思陵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 산 65	

		7	세조 정희왕후	光陵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7		
		15	광해군 광해군부인	墓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 59		
		26	고종 명성황후	洪陵	남양주시 금곡동 141-1		
		27	순종 순명황후 순정황후	裕陵	남양주시 금곡동 141-1		
	원(4+1)			인빈김씨	順康園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원종사친
				수빈박씨	徽慶園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순조사친
				현의대원왕 순목대원비	興園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 22-2	
				영친왕	英園	남양주시 금곡동 141-1	
				공빈김씨	成墓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 55	광해군사친
	양주시	왕릉	11	단경왕후	濫陵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 19	
고양시	왕릉(8)		공양왕	공양왕릉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65-6	傳공양왕릉	
		8	예종 안순왕후	昌陵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서오릉	
		추존	덕종 소혜왕후	敬陵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서오릉	
		19	숙종 인현왕후 인원왕후	明陵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서오릉	
		19	인경왕후	翼陵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서오릉	
		21	정성왕후	弘陵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서오릉	

		11	장경왕후	禧陵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7-1	서삼릉	
		12	인종 인성왕후	孝陵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7-1	서삼릉	
		25	철종 철인왕후	睿陵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7-1	서삼릉	
	원(5+2)			패비윤씨	懷墓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7-1	연산군사친
				순희세자 공희빈윤씨	順昌園	고양시 신도읍 용두리	명종세자
				옥산부대빈	大嬪墓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경종사친
				소현세자	昭慶園	고양시 원당읍 원당리	인조장남
				영빈이씨	綏慶園	고양시 신도읍 용두리	장조사친
				의소세손	懿寧園	고양시 원당읍 원당리	장조장남
				문효세자	孝昌園	고양시 원당읍 원당리	정조장남
파주시	왕릉(4)	8	장순왕후	恭陵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 15-1	파주삼릉	
		9	공혜왕후	順陵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 15-1	파주삼릉	
		추존	진종 효순왕후	永陵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 15-1	파주삼릉	
		16	인조 인렬왕후	長陵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 산 25-1		
	원(2)			숙빈최씨	昭寧園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영조사친
				정빈이씨	綏吉園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진종사친
김포시	왕릉(1)	추존	원종	章陵	김포시 풍무동 산 141-1		

			인현왕후			
여주군	왕릉(2)	4	세종 소헌왕후	英陵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17	효종 인선왕후	寧陵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화성시	왕릉(2)	추존	장조 헌경왕후	隆陵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1-1	
		22	정조 효의왕후	健陵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1-1	
광명시	원(1)		민회빈강씨	永懷園	광명시 노은사동 산 141-1	
연천군	왕릉(1)		경순왕	경순왕릉	연천군 장남동 고랑포리 산 18-2	

▶ 집필진

백남옥(동서울대학 교수)

한정수(건국대학교 교양학부 강의교수)

이도남(동아시아 전통문화연구원 수석연구 교수)

▶ 조사연구원

한정수(건국대학교 교양학부 강의교수)

이도남(동아시아 전통문화연구원 수석연구 교수)

京畿道 陵園總覽 下

발행인: 남선우

편집인: 김성문·진숙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경기문화재단 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2008년 12월 25일

발행: 2008년 12월 31일

인쇄처: 국학자료원

이 책자는 경기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 <비매품>

